

軍

史

2023. 12. 제129호

Military History

- 백제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
-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와 반월성
- 고구려 남부전선 내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
- 三國時期 七重城에 대한 諸檢討와 戰略的 位相
-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 나당전쟁기 漢山州의 關防體系 정비와 書長城의 位相
-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
- 정유재란기 泗川 전투 재검토
- 한말 의병부대의 의료실태와 한의사의 의병전쟁 참여양상
- 抗戰 후기의 지식청년 종군운동

[서 평]

- 근대이행기 한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한동훈 지음,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탐방기]

- 파병 10주년 한빛부대를 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제129호 | 2023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백제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	
장수남	1
■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와 반월성	
김강훈	51
■ 고구려 남부전선 내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	
신광철	105
■ 三國時期 七重城에 대한 諸檢討와 戰略的 位相	
정동민	161
■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정덕기	221
■ 나당전쟁기 漢山州의 關防體系 정비와 晝長城의 位相	
권창혁	269
■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	
박세나	325
■ 정유재란기 泗川 전투 재검토 - 패전 원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	
문형준	363

軍史

■ 한말 의병부대의 의료실태와 한의사의 의병전쟁 참여양상	
김성민	405

■ 抗戰 후기의 지식청년 종군운동	
김영신	449

[서 평]

■ 근대이행기 한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한동훈 지음,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홍문기	483

[탐방기]

■ 파병 10주년 한빛부대를 가다	
이신재	495

[부 록]

연구소 동정	515
신간 도서 소개	521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529
『軍史』誌 投稿案内	531
연구윤리 규정	534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1-49
<https://doi.org/10.29212/mh.2023..12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백제의 관방체제와 도기동 산성*

장수남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목 차

1. 머리말
2. 한강 이남 관방체제의 특징
3.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제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4.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5. 맺음말

초 록

도기동 산성은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초축한 산성을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한 이후 남진하면서 고구려가 재 활용하였다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논지였다. 이 글은 백제사의 입장에서는 왜 도기동 산성을 초축하게 되었는지, 백제의 입장에서 산성의 역할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성천 유역 관방체계 중 하나인 도기동 산성의 초축 시기를 문헌사와 연결해 보면 근초고왕 28년(373) 독산성민들의 신라 이주 기사가 주목된다.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은 새롭게 지방 지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주가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 토성의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인 요충지로 웅진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성이었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 상 중요한 요충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백제, 고구려, 도기동 산성, 관방체계, 교통로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23.)

1. 머리말

고대 교통로는 지형과 수계에 의해 형성된다. 한성시기 백제의 가장 중요한 교통 루트는 몽촌토성·풍납토성에서 탄천을 따라 남하하다 분당-신갈-오산-평택·안성으로 이어지며, 이들 주변에 한성시기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일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안성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이 루트는 백제가 남방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¹⁾ 특히 도기동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안성천 유역은 곡교천과 함께 중서부지역의 취락·분묘·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안성천 외곽은 높지 않은 산지가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천변을 중심으로 낮고 평평한 구릉과 충적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다.²⁾

백제의 관방체계 연구는 주로 한성시기에³⁾ 집중되어 있다. 한성시기 백제 유물이 출토된 성곽을 중심으로 이 시기 교통로와 관방체계를 구성하여 초기에는 성으로 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한 교통로의 차단에서 후기에는 대규모 전투의 수행목적으

1) 이남규·권오영·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백제 연구』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106~127쪽.

2) 박경신, 「안성천 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2021, 33쪽.

3) 웅진·사비기가 되면 백제의 관방체계는 백제 고지 전역에 걸쳐 산성이 확인되는 데, 성벽의 둘레가 200~300m의 소규모에서부터 1,000m 이상의 대형산성까지 확인되며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자리 잡은 성들이 험한 산봉으로 입지가 변해가고 있다. 『한원』에 구체적으로 5방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백제 산성의 입지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정석, 「웅진·사비기 백제 산성」, 『백제의 산성』, 한성백제 박물관, 2019, 224~226쪽)

로 거점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⁴⁾ 시기를 4세기로 한정하여 관방체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백제가 경기도 일대에 배치한 산성들만을 토대로 한성 백제의 관방체계를 살펴본 것으로 도성 방어를 위한 관방체계를 4차까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2·3·4차까지 관방체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북방 영역 일부와 동쪽 영역에 대한 관방체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⁵⁾ 최근에는 가시권역, 교통로, 입지 분석 등 지리·지형적 정보를 활용하는 GI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성시기 관방 유적을 검토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관방유적의 특징을 정리하고, 특히 한성시기 백제의 석성에 대해 GIS 분석을 통해 관방유적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백제의 관방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⁶⁾

직접적으로 도기동 산성을 다룬 연구는 주로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도기동 산성의 성벽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구려의 남방 경략 과정에서 거점성 역할을 하며, 고구려의 남진 경로 및 한강 이남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산성으로 설명하고 있다.⁷⁾ 한편, 도기동 산성의 발굴이 성벽구조에 대한 연구만 한 차례 진행되

4) 오강석, 「백제 한성기 관방체계 검토」, 『선사와 고대』 26, 2007.

5)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2008.

6) 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 이승우·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7) 김진영, 「한성 도기동 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고구려발해학회, 2017 ; 신광철,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영」, 『고구려발해연구』 63, 고구려발해학회, 2019 ; 양시은, 「한성 도기동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1 ;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었을 뿐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재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도 있다.⁸⁾

그리고 마한과의 관계에서 도기동 산성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마한세력의 복속 과정에서 웅천 지역에 주목하여 백제가 도기동세력을 복속함으로써 웅천 주변을 장악하면서 4세기경에 도기동이 거점성으로 변화했음을 살펴보았다.⁹⁾ 뿐만 아니라 삼국의 정세 속에서 도기동 산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도 있다. 백제가 3~4세기 영역확장과정에서 안성지역을 복속하여 도기동 산성을 축성한 것으로, 위천 전투에서 승리한 백제가 한성을 수복하면서 도기동 산성을 백제가 다시 운용한 것으로 보고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¹⁰⁾

기존의 도기동 산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사에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한성을 함락시킨 후 남진을 위한 거점성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그 근거는 성벽의 구조와 축조 방식 그리고 약간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점유한 시기로 설명되고 있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지만, 한성을 재건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남진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면 백제는 이 산성을 왜 초축했으며,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이나 주거지가 현재

8) 서정일, 「도기동 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단연구원, 2020 : 「안성 도기동 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별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단연구원, 2021.

9) 이부오, 「3세기 후반 4세기 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한국고대사 탐구』 2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10) 황보 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 산성」,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로서는 많지 않아 얼마의 병력이 주둔했었는지를 비롯하여 고구려인들이 조영한 고분에 대한 것도 연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기동 산성은 앞으로 백제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기동 산성은 한성 백제인들이 초축하여 이용한 성으로 청원 남성골 산성과 대전 월평동 산성과 같이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성이기도 하지만, 백제의 관방체계 안에서 살펴보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역할 및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강 이남 백제 관방체계를 살펴보고, 백제사에서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방체계로서 안성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백제가 도기동 산성을 축조하게 된 목적과 시점을 문헌사와 연결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백제의 입장에서 도기동 산성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기동 산성은 고고 자료는 있지만 문헌 사료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그동안 주로 고구려사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도기동 산성을 백제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한강 이남 관방체계의 특징

백제의 한성시기 관방체계는¹¹⁾ 풍납토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

11) 관방체계 연구에 있어 최근에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체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방유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이승우, 「GIS를 활용한

이었다. 관방 유적의 축조목적은 인근지역이나 교통로를 우위적 수준에서 감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와 방어를 하기 위함이다.¹²⁾ 한강 이남의 백제 성곽은¹³⁾ 주변에 하천이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토축이다. 도기동 산성만 목책과 토축이 같이 보이고 있다. 한강 이남의 관방 유적을 입지로 분류해보면 평지성, 구릉성, 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평지성은 풍납토성이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에 비해 해발이 30m 정도 차이가 나서 낮은 구릉 입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구릉성은 안성 도기동 산성, 충주 탄금대 토성, 평택 봉남리 산성, 화성 한각리성, 화성 은평리성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능선에 입지하고 있다. 평지성은 구릉과 산에 있는 성곽보다 가시권역이 넓지 않다. 하지만 평지성은 하천에 인접한 곳에 있다. 이는 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편리성 외에도 관방으로서 부족한 방어력을 보강하고자 했다. 평지성은 내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중심지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의 왕래와 물자의 수송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목적보다는 대민(對民)의 성격이 강하다. 한성시기 도성인 풍납토성이 평지에 축조된 것은 치소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릉성은 상대고도 10~60m 미만의 구릉에 위치하는 것이다.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5쪽). 이승우는 GIS 분석이 성곽 유적의 지리적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시기는 다르지만 유적 내에서 한성기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은 분석을 통해 한성기 백제의 관방 유적일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12) 이판섭, 『백제 교통로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3) 백제 한성시기 성곽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15개로 모두 토성이다. 그러나 이천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및 경기지역의 일부 신라 석축성에서 한성시기 백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한성시기에 석성이 축조되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4쪽에 쓰여 있다. 필자는 석성 내에서 백제의 한성시기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성은 백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시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이승우의 견해에 동의한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직선거리 1km 정도로 매우 인접하며 가시권역이 공유되고 있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의 취약한 방어력을 보완하고 중심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다.¹⁴⁾ 구릉성은 주요 거점성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탄금대 토성은 유적 내에서 용해로와 단야로, 슬래그, 철정 등 제철 및 제련과 관련된 자료들이 확인된다.¹⁵⁾ 유적 주변에는 제철 유적이 분포해 있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제철 공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탄금대 토성이 철기의 제작과 보급을 총괄하던 주요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구릉성은 평지성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주변 성곽들의 분포로 볼 때 지방 거점성으로 사용되었다. 이 성들은 독립 구릉이나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주변에 넓은 평야가 조망되어 방어하기 좋으며, 평지성과 마찬가지로 물자의 운송과 대민업무를 보기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탄금대 토성처럼 철기의 제작과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되거나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컸다.¹⁷⁾

산성은 상대고도 60m 이상의 산지에 입지한 성이다. 백제의 산성은 이천 효양산성, 화성 길성리 토성, 소근산성, 음성 망이산성, 천안 동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이 있다. 산성은 주변 지형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입지하여 주변 동향을 파악하기 쉽다. 또 방어 상 중요한 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산성과 산성과의 거리를 멀지 않게 두어 서로 조망이 가능하게 하고, 가시권도 공유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는 교통로의 통제를 견고히 하고자 산성을 축조하기도 한다.¹⁸⁾

14)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7쪽.

15) 중원문화재연구원, 『忠州 彈琴臺土城 I』, 2009.

16)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33~34쪽.

17)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1~102쪽.

18)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7~101쪽.

〈표 1〉 백제의 한강 이남의 관방유적

번호	명칭	입지	주변하천	비고
1	이천 효양산성	산성	북하천	토축
2	화성 길성리토성	산성	황구지천	토축
3	화성 소근산성	산성	진위천	토축
4	안성 도기동 산성	구릉	안성천	목책·토축
5	음성 망이산성 내성	산성	청미천	토축
6	충주 탄금대토성	구릉	남한강	토축
7	천안 동성산성	산성	광기천	토축
8	증평 추성산성	산성	보강천	토축
9	의왕 모락산성	산성	안양천·학이천	토축·석축
10	이천 설봉산성	산성	북하천	석축
11	인천 설성산성	산성	청미천·양화천	석축
12	안성 죽주산성	산성	죽산천·청미천	석축
13	충주 장미산성	산성	남한강	석축
14	평택 무성산성	산성	발안천·안성천	토축
15	평택 자미산성	산성	발안천·안성천	석축
16	평택 백봉리산성	산성	진위천·관리천	토축
17	평택 봉남리산성	구릉	진위천	토축
18	청주 부모산성 제 1보루	산성	미호천	석축
19	화성 한각리성	구릉	서해·어은천	토축
20	화성 운평리성	구릉	서해·어은천	토축

* 〈표 1〉은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1~12쪽의 표를 토대로 내용을 재편집한 것이다.

한강 이남의 관방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화성 길성리토성에서는 한성시기 후반에 형성된 백제 토기로 완과 중복 타날 된 회청색 경질 호가 출토되었다.¹⁹⁾ 화성 한각리성은 평탄지대에서 백제 타날문토기편이 다량으로

19) 충북대학교 박물관, 『화성 길성리 토성Ⅱ』, 2011.

수습되었다. 화성 운평리성은 성내 경작지에서 백제 타날문토기 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안성 도기동 산성에서는 산성 내부의 수혈유구와 토루 성토층에서 한성백제기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파배, 고배, 개배, 삼족기, 단경호, 장란형 토기 등이다.²⁰⁾ 안성 죽주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으로 이루어진 3중성 구조로 중성-외성-내성 순으로 축조되었다. 이 중 중성이 삼국시대 성으로 중성의 초축 성벽 기반부와 암반층에서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안성 진사리 산성에서는 백제 타날문 토기류와 심발형토기류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²¹⁾

음성 망이산성은 토축성 내부에서는 호류, 용류, 굽접시, 병, 시루, 뚜껑, 대접, 단지 등 다양한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²²⁾ 천안 동성산성은 산성 내 주거지와 퇴적층에서는 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심발형토기, 용형 토기, 용류, 호류, 병류,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²³⁾ 증평 추성산성은 남성과 북성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백제 토기로 호류, 용류, 유개대부호, 발, 장란형 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완, 뚜껑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²⁴⁾ 의왕 모락산성은 대부분 한성백제기로 편년되는 호류, 용류, 심발형토기, 장란형 토기, 저장 및 생활 용기 등이 출토되었다.²⁵⁾

이천 설봉산성은 토기의 경우는 백제 양식과 신라 양식이 공반 되어 출토되고 있다. 특히 I 지구 4호 토광에서는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성벽 내부와 유구 전반에 걸쳐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백제 토기의 기종은 삼족기, 장란형 토

20) 기념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성』, 2018.

21)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Ⅳ』, 2003.

2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望夷山城 發掘 報告書(1)』, 1996.

23) 가정 고고학연구소, 『天安 銅城山城 試掘調査: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2016.

24) 증평문화재연구원, 『증평 추성산성-북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14.

25) 세종대학교 박물관, 『의왕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6.

기, 심발형토기, 고배류, 접시류, 호류, 옹류 등이다.²⁶⁾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백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와는 신라의 기와이므로 백제와 신라가 사용한 시기의 성의 용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천 설성산성은 주거지 부뚜막 시설 주변과 토광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성 안에서 호류,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고배, 개배, 접시, 완, 동이, 시루 등이 확인되었다.²⁷⁾

충주 장미산성에는 조족문 토기와 원저단경호를 비롯한 다량의 백제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 조족문 토기는 음성 망이산성,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청주 신봉동 유적, 증평 추성산성 등 한성시기 백제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3~5세기 후반에 걸쳐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²⁸⁾ 이는 백제가 방어성으로서 이들 산성을 활용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택 자미산성은 산성 내에서 한성기 토기로 호류, 옹류, 고배,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의 기종이 확인되었다.²⁹⁾ 평택 무성산성에서는 대부분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백제 초기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평택 백봉리 산성에서 무문토기와 타날토기가 수습되었고 한성 백제기의 대옹편이 수집되기도 하였다. 평택 견산리산성에서는 백제 타날문토기편, 회색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평택 봉남리산성은 본성, 익성, 아곡마을, 산성 구역으로 구분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이는데 본성과 익성구역에서 백제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대옹, 호류,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등 다양한 기종 구성을 이루고 있다.³⁰⁾

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4.

28)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56쪽.

2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북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30) 경기도 박물관, 『평택 관방유적Ⅱ』, 2004.

청주 부모산성은 산성과 보루가 결합한 구조로 제1보루 토축 성벽 상부에서 백제 토기가 수습되었다. 대부분이 한성시기에 해당하는 호류, 옹류, 뚜껑, 대부완, 시루, 전달린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³¹⁾ 이로 인해 제1보루는 부모산성의 석축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성시기 백제에 의해 먼저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²⁾

즉, 백제의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에 해당되는 성들에서는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성들이 모두 토성인 것은 아니어서 산성의 구조와 축조 기법으로 볼 때 백제의 성으로 보지 않기도 하지만 한성시기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방어 및 교통로의 중요한 요충지에 성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 축조하기 이전에 백제가 방어시설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 경기지역의 관방체계 중에서 평택 백봉리 산성은 진위천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조망할 수 있고, 북쪽에 화성 길성리 토성과 소근산성이 자리 잡고 있어 길성리토성-소근산성-백봉리산성으로 이어지는 진위천 하천 교통로는 백제 남부 진출의 주요 길목이었다. 길성리토성은 요리와 길성리 일대의 해발 100m의 구릉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이다. 성의 남쪽은 황구지천과 진위천의 합수지점 부근의 충적평야가 동쪽으로는 황구지천과 진위천 주변의 충적평야가 한눈에 조망된다. 즉, 성은 남쪽 오산과 평택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³³⁾

소근산성은 소근산 능선 남단에 토축으로 축성된 산으로 성의

31)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주 부모산성Ⅱ』, 2016

32)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55~65쪽.

33) 정인숙, 「화성 향남면 길성리토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동쪽에 진위천이, 서쪽으로는 관리천이 각각 남류하여 소근산성의 남동쪽 약 11km 지점에서 합류하여 안성천으로 유입된다. 남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에 큰 하천을 끼고 형성된 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서쪽과 남동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성이 축조되었다.³⁴⁾ 이천 설성산성은 차령산맥에서 가장 근접한 산성으로 산맥을 통해 넘어오는 적들을 가장 먼저 관측할 수 있고, 설봉산성은 광주산맥을 넘으면 한강 유역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루트이다.³⁵⁾ 죽주산성은 이천을 거쳐 안성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광주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부모산성은 안성천 유역에서 병천천을 따라 차령산맥을 넘으면 바로 마주할 수 있으며 청주분지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청주분지는 넓은 곡창지대로 풍부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설성산성, 설봉산성, 죽주산성, 부모산성은 북쪽과 서쪽을 관방할 수 있고, 남쪽으로 미호천을 따라가면 금강수계를 만나 호남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제는 이들 산성을 관방체계로 활용했을 것이다.

동쪽으로는 장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장미산성은 높은 산지에 입지하여 주변일대와 남한강에 대한 조망이 용이하고, 한강의 수로와 안성천을 따라 경기지역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동쪽은 다수의 성곽을 북에서 남으로 일자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거점으로 가시권역이 서쪽과 남쪽을 향해있는 의왕 모락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안양천과 안성천의 지류인 황구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한강유역에서 안성천 유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길목으로 남방 진출의 관방이다.³⁶⁾

34) 김길식, 「산성·주변유적의 관계와 지방지배-화성지역 백제 산성과 주변 유적 사례를 통하여-」, 『백제의 산성』, 한성백제 박물관, 2019, 245쪽.

35)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105쪽.

36)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75~93쪽.

성에 있어 고도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도가 낮을수록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쉬워 방어적인 성격이 약해지지만, 행정 치소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도가 높을수록 유적 내부로의 접근이 어려운 탓에 방어가 주목적이었다.³⁷⁾ 상대고도가 높은 백제의 산성은 이천 효양산성, 화성 길성리 토성, 소근산성, 음성 망이산성, 천안 동성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이 있다. 이들 성곽은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을 조망하여 적을 동향을 살피기에 유리하다. 이곳들은 교통로를 감시하거나 군사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천-음성-증평으로 이어지는 산성 반경 5km 내에는 조망권을 막는 것이 없다. 이들 산성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평야가, 동쪽지역에는 광주산맥과 차령산맥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로 배치한 산성은 중원지역을 방어선을 견고히 하여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소근산성은 한강-수원-오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한강유역에서 황구지천과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천안의 동성산성은 경기 또는 서해 연안에서 호서 내륙으로 진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교통로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축조한 것이다.³⁸⁾ 산성뿐 아니라 관방유적을 통해서도 교통로 차단으로 방어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천 설성산성-설봉산성-안성 죽주산성-청주 부모산성으로 이어지는 관방유적은 산성과 마찬가지로 교통로의 감시와 차단으로 방어가 목적이었다.

셋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및 진출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관방은 서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동쪽에 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산지가 발달하여 자연적인

37)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73쪽.

38)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2~103쪽.

방어막이 형성되어 조밀하게 관방을 설치하지 않았다. 즉, 차령 산맥과 광주산맥이 자연 방어선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경기도 서쪽 지역에 관방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서쪽은 평야와 하천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관방을 조밀하게 설치해야만 방어가 가능했다.³⁹⁾ 이 일대의 성들은 동서 방향의 횡선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성들과의 거리는 5~7km이다.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배치된 성들은 중앙이 직접 지배하는 영역 내에 관방을 직접 설치하여 방어에 주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급로의 확보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관방이 설치된 곳은 주변에 하천과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식량수급이 용이한 곳이라는 것이다. 백제의 거점성이 경기지역 서남부에 집중된 것은 한성 함락 후 고구려가 도기동 산성을 재활용한 것과도 연계된다. 고구려가 도기동 산성을 재활용한 것은 성이 남진을 위한 거점이자 식량 수급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넷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물자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백제의 관방체계에서 화성지역의 운평리, 한각리, 화산리, 조암리 일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편이 출토되어 백제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운평리와 한각리 성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유적이 확인되고, 백제토기가 넓게 산포하고 있어 토성을 중심으로 대단위 유적군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특히 한각리성과 운평리성은 아산만의 북쪽 입구이다. 북쪽으로 한강 유역이 이어지고 동쪽으로 평택이 있다. 또 이곳을 거치면 서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기동 산성과 성산리 산성이 있다. 주변 지형보다 비교적 높은 지점에 위치한 한각리성과 운평리성은 화성 일대의 행정과 아산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

39) 강형웅, 앞의 논문, 2008, 24쪽.

40) 김길식, 「경기남부지역 원삼국 문화의 특징과 의외-화성지역을 중심으로」, 『화성 지역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제10회 화성시 학술세미나.

자의 유통을 담당했던 거점이었다. 또 탄금대토성은 철기의 제작과 보급을 총괄하던 주요 거점이었다. 즉, 백제의 관방체계는 백제 수취기반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한성시기를 지나 웅진시기에 백제가 한강유역을 재건할 때에도 경기지역 관방체계 성들은 수취기반 복구의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평지성은 대민 지배나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치소나 거점의 역할을 하였고, 구릉성은 교통로의 감시와 경작지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산성은 적들을 견제하고 거점 방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백제의 관방체계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한강 이북의 성들이 북쪽의 고구려, 낙랑, 말갈의 침입에 주력한 관방체계였다면, 한강 이남 특히 경기 서남부의 관방체계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성으로서 관방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하천을 끼고 평야지대의 풍부한 생산량은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1〉 한강 이남 관방 유적



3. 안성천 유역의 관방체계와 도기동 산성의 초축

안성천에 축조된 관방 유적은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산이나 구릉에 축조된 산성은 교통로를 통제하는 안성천 일대 특유의 관방체계였다. 안성천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아산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적고 비교적 평탄지가 많다. 차령산맥에서 안성시 공도면을 거쳐 한천과 미양면에서 합류하여 평택에 이르러 평야지대를 형성하여 농경지가 발달하였다.⁴¹⁾ 뿐만 아니라 도기동 산성의 가시권을 보면 북쪽의

41) 강형욱, 「4세기 한성백제의 관방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0~21쪽.

안성천에 매우 인접하며 안성천과 지류들을 따라 넓게 형성된 안성평야 일대에 대한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안성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된다. 도기동 산성은 경작지와 교통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⁴²⁾

안성천 유역의 관방 유적 도기동 산성은 안성 분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백제 한성시기인 4세기 무렵에 초축되어 6세기 전반 무렵까지 활용된 백제-고구려 연속 조영의 목책성이다. 도기동 산성은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⁴³⁾ 4세기 중후반 무렵에서 5세기 초반에 초축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성 내에서는 파배, 고배, 개배, 삼죽기, 단경호, 장란형 토기 등 한성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도기동 산성과 동일시기로 4~5세기에 해당하는 도기동 고분군 확인되었다. 고분군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는 동일 지형에 분포한 동일 성격의 고분군으로 도기동 산성 주변에 136기의 대단위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고분군의 조성연대는 부장유물 단경호, 심발형토기, 직구호, 방추차, 환두대도, 철모, 철부, 재갈 등이 출토되어⁴⁴⁾ 미호천 수계인 청주 봉명동, 송대리 유적의 늦은 단계와 청주 신봉동, 천안 용원리 고분군과 공존하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대에 걸쳐 조성된 것이다.⁴⁵⁾ 이는 백제가 안성천 일대를 백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점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기동 고분군의 환두대도, 철모 등

42) 이승우, 앞의 논문, 2022, 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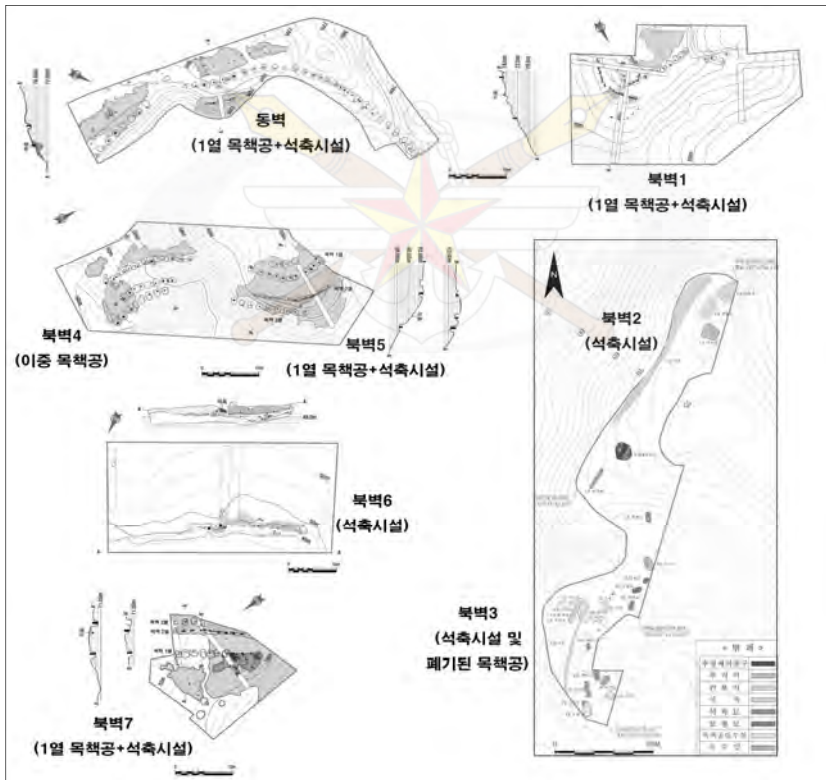
43)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 산성』, 2018.

44)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 산 11번지 일원 공장 및 교육연구시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2016.

45) 이동성,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2020.

의 무기류와 재갈 등의 마구류 출토는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 4세기 중후반경부터는 상당한 세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⁴⁶⁾ 또 대규모의 고분군이 조성된 것은 주변의 평야지대에는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분군 조영을 통해 볼 때 도기동 산성 주변은 방어를 위한 산성과 취락 그리고 저장시설인 수혈이 분포하고 있어 백제의 지역 거점성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안성 도기동 산성 내 고구려 목책성 관련 유구 현황도



* 서정일, 2020, 앞의 논문, 30쪽 〈그림 29 재인용〉

46)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 18번지 유적』, 2017, 186~190쪽.

도기동 산성의 성벽 구조를 살펴보면 북쪽 구역에 1·4·5·7 구역 4구간이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는데 내부에 수혈과 주거지, 건물지 15기가 확인되었다. 성벽의 급경사면은 자연 지형을 방어벽 삼아 외출 목책 시설이 보이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은 이중 목책이 확인되었다.⁴⁷⁾ 성벽은 백제 한성시기 초축 성벽과 고구려가 보강하여 사용한 성벽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 목책의 구조이다. 이 목책의 구조가 내부에 성토를 다지고 외부에는 석축을 덧대어 보강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구려 남진기 목책성 특징으로 청원 남성골산성과 연천 무등리 2보루의 성벽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⁴⁸⁾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열 목책(목책성)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석축 성벽과 2열 목책(목책성)의 중복관계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고구려 토기는 석축 성벽과 관련된 층에서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한성시기는 토루 1과 목책성(1열 및 2열 목책포함)이며, 고구려가 축조한 것은 석축 성벽임이 밝혀졌다.⁴⁹⁾

백제가 초축한 도기동 산성은 목책성이다. 목책은 주변에 수목을 활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어 효용성이 뛰어나지만, 화공(火攻)이나 투석전(投石戰)에 약하고, 여름이나 겨울이 지나면서 목책으로 사용된 나무가 부식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에는 장기간 목책을 활용하였고, 흙이나 돌을 활용하여 단점을 보강하

47) 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1쪽.

48) 양시은, 앞의 논문, 2021, 90쪽. 그러나 서정일은 이는 실제 발굴조사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책 전체가 이중구조가 아니고 목책 내 성토층이 남아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고구려의 개축흔으로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서정일, 앞의 논문, 2020, 31쪽).

49)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 산성-안성 도기동 산성(산 57번지 일원) 유적 긴급발굴조사』, 2021, 212쪽.

여 주요 길목마다 목책을 설치하여 통제와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였다.⁵⁰⁾ 백제는 삼국 중에 가장 많이 목책을 설치하였다. 백제가 목책성을 설치한 기사들을 보면 목책성은 국경지대, 군사상의 요충지 또는 교통로상에 통제와 방어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⁵¹⁾ 백제는 고구려·신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왕성을 중심으로 관방체계를 마련하였고, 이 관방체계의 일환으로 목책성이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문헌사에서 볼 때 백제는 언제, 왜 도기동 산성을 초축하게 되었을까?

도기동 산성이 초축되었을 당시 백제를 침입했던 세력은 고구려와 말갈이다. 백제는 고구려와 말갈과의 전쟁에서 그 규모가 달랐다. 백제는 말갈과의 전쟁에서는 구수왕 3년 가을 8월에 말갈이 적현성을 포위했을 때 말갈을 격퇴시키는데 기병 800명을 거느린 것⁵²⁾ 이외에는 대체로 3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근초고왕 24년과 26년 기사를 보면 고구려와의 전쟁은 치양에서 5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정예군사 30000명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⁵³⁾ 무엇보다 당시는 고구려와 공방전을 벌이던 시기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관방이 중요했을 시기이다. 도기동 산성의 초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는 다음의 기사들이다.

50) 황보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백산학보』 106, 2016, 183쪽.

51) 황보경, 앞의 논문, 2016, 175~179쪽.

52)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3년(216) 8월. “靺鞨來圍赤峴城 城主固拒賊退歸 王帥勁騎八百追之 戰少道城下破之 殺獲甚衆”

53)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4년(369) 가을 9월.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26년(371) 겨울.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A-1. 가을 7월에 청목령(靑木嶺)에 성을 쌓았다.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돌아났다.⁵⁴⁾

A-2. 백제 독산성(禿山城)의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6부(部)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백제왕이 문서를 보내 말하기를, “두 나라가 화친(和親)을 맺어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 우리의 도망한 백성을 받아들이니 화친한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는 대왕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내물이사금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들면 오고 싶어지면 가버리니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은 백성이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과인을 나무라시는 것이 어찌 이렇게 심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백제는 그것을 듣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⁵⁵⁾

B. 봄에 국내의 15세 이상인 사람들을 징발하여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靑木嶺)으로부터 북으로는 팔곤성(八坤城)에 닿고, 서로는 바다에 이르렀다.⁵⁶⁾

C. 가을 8월에 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의 목책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군영

54)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8년, “秋築七月 城於靑木嶺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5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18년, “十八年 百濟禿山城主率人三百來投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數則去 固其所也 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56)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2년, “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靑木嶺 北距八坤城 西至於海”

내에 떨어졌는데 큰 소리가 났다. 왕이 매우 꺼려하여 곧 [정벌을] 그만두었다.⁵⁷⁾

A-1과 A-2는 독산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달아난 기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A-2 신라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에 따르면 백제왕이 독산성주와 백제민을 받아들이지 말고 돌려주기를 원하였지만 신라왕이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독산성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⁵⁸⁾ 이때 도기동 산성이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온조왕 11년의 독산책이 나오는데 같은 위치는 아니다.⁵⁹⁾ 온조왕대는 낙랑의 통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근초고왕대는 독산성주가 신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채비했을 것이고, 이때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는 이미 도기동 산성이 있던 안성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안성지역의 지리적인 위치는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다.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산성 주변에 평야지대에서는 경작지가 많아 생산량이 풍부하여 수취체계가 안정적인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는 방어에도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7)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아신왕 7년,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58) 독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지명에 고구려에서는 매홀(賈忽) 수성(水城)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華城市) 봉담면(峰潭邑)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40쪽).

59) 성왕 26년 (548) 기사에도 독산성이 나오는데 이곳은 한강 북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의 축조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작업이며 관방체계의 구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백제 중앙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 단순한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통로 확보, 지역 집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 물적 자원 수취 등의 행정적 지배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⁶⁰⁾ 도기동 산성은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이 중심시기였던 길성리토성이 4세기 중엽 이후 폐기되면서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이 폐기되면서 취락이 재편되었고 5세기경에는 길성리 토성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소근산성이 백제의 중앙으로부터 축조되었다.⁶¹⁾ 독산성주가 신라로 달아났다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지방 지배의 재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토성의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 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가능성은 B의 진사왕 2년(386) 관방 설치기사이다. 도기동 산성의 초축 연대에 해당하는 4세기 중후반 기사이다. 삼국사기 기록에서 나오는 첫 관방 기사로 여기서 기준은 청목령이다. 청목령으로부터 관방을 설명하고 있다. 청목령의 위치는 개성, 청석동, 영평 등으로 비정하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팔곤성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는 없지만, 청목령으로부터 북쪽이라 했으므로 북쪽의 관방, 그리고 서쪽의 관방으로 서해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진사왕대에는 3년에도 여전히 말갈과 싸

60) 서영일, 앞의 논문, 2005, 23쪽.

61) 한지선, 「백제의 화성·오산 일대 진출과 지역 장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55~58쪽.

왔고⁶²⁾ 5년·6년에도 고구려와 싸우고 있어⁶³⁾ 백제는 여전히 말갈과 고구려에 대해 공격과 방어에 힘을 쏟고 있었다. 또 개로왕 15년 기사에도 청목령에 大柵을 세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책을 세워 북한산성의 사줄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⁶⁴⁾ 청목령은 말갈이나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말갈과 고구려를 대비하기 위해 백제는 대책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진사왕 3년에 관미령에서 말갈과 싸웠는데 이곳은 관미성과 관련된 고개로 관미성은 파주 오두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아신왕 2년에는 외삼촌 武에게 관미성이 북쪽 변경의 요해지라고 표현하였다.⁶⁵⁾ 즉 청목령이나 관미령의 위치로 보아 이 시기 백제는 여전히 북쪽 변경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것은 광개토왕 18년(408)의 기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광개토왕은 가을 7월에 나라 동쪽의 독산 등 여섯 성을 쌓고 평양의 민호를 그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산성은 고구려의 동남쪽, 백제의 동북쪽일 가능성이 있다. 백제 입장에서 독산성주와 함께 주민이 신라로 도망간 것은 371년 평양성 공격에서 주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성 주민들이 전쟁이나 축성 등 고역에 동원되어 그 불만으로 인해 독산성주가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사왕대의 관방 설치 기사와 연계하여 보면 이 무렵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C는 아신왕 7년(398) 기사로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쪽의

62)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3년(387) 가을 9월. “與靺鞨戰關彌嶺 不捷”

63)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5년(398) 가을 9월. “王遣兵 侵掠高句麗南鄙” ; 辰斯王 6년(399) 9월 “王命達率真嘉謨 伐高句麗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64)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15년(469) 겨울 10월.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65)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393) 가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此寡人之所痛惜”

목책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복수의 木柵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령왕 7년 기사에서도 고목성 남쪽에 두 책을 세웠다⁶⁶⁾고 하였다. 성과 함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의 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수왕 4년에 사도성의 방어를 더 강화하기 위해 두 책을 설치한 것이나⁶⁷⁾ 무령왕 7년에 고목성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두 책을 설치한 것을 보아도 한산의 북쪽은 고구려의 방어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복수의 목책이 존재했을 것이다.⁶⁸⁾ 또 백제의 방어를 위해 주요 관방에 남책, 동책, 서책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백제는 고구려의 방어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고고학 자료에서 말해주는 시기에 맞춰보면 근초고왕 28년이 설득력이 있다. 진사왕대의 관방 설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백제는 독산성 민들의 신라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채비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신라와 근접한 곳이었다면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는 이미 도기동 산성이 있던 안성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도기동 산성은 가시권이 북쪽의 안성천에 매우 인접하며 안성천과 지류들을 따라 넓게 형성된 안성평야 일대에 대한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안성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수계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내륙지방,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금강수계로 진출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따라 아산만과 서해 연안으로 연결된다. 산성 주변에는 취락시설뿐 아니라 생산유적·고분군 등이

66)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7년(507) 여름 5월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以備鞬鞞”

67) 『삼국사기』 권24, 百濟本紀2, 仇首王 4년(217) 봄 2월.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68) 필자는 무령왕대에 백제는 한강유역을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시설의 편년은 4~5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⁶⁹⁾ 산성 + 주거 +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백제가 도기동 산성을 초축한 목적은 지방지배의 재편 과정에서 인근의 소근산성과 함께 새로운 거점성으로 축조된 것이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지방 지배의 재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으로 방어 및 경작지의 생산량이 많아 식량 수급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성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4. 도기동 산성의 역할과 가치

도기동 산성이 백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백제의 목책 설치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백제는 고구려·신라에 비해 많은 목책을 설치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목책 설치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D-1. 가을 7월에 마수성(馬首城)을 쌓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웠다. 낙랑태수(樂浪太守)의 사신이 다음과 같이 아뢰어 말하였다. “지난번에는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

69) 이승우·양시은, 앞의 논문, 2022, 102쪽.

하고, 우호를 맺어 뜻이 한 집안과 같았는데, 지금 우리의 강역을 핏박하여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고 있으니, 혹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계책이 있어서인가? 만일 옛날의 우호를 저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부수어 버린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가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컨대 한 번 싸워서 승부를 결정 짓도록 하자.” [이에] 왕이 회답하였다.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몇몇한 도리인데, 어찌 감히 이것 때문에 화친과 우호를 저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마땅히 집사(執事)가 의심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만일 집사가 강함을 믿고 군사를 낸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낙랑과의 우호를 잃게 되었다.⁷⁰⁾

D-2. 가을 7월에 독산책(秃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의 두 목책을 세워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⁷¹⁾

D-3. 가을 7월에 한산(漢山)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민호(民戶)들을 옮겼다.⁷²⁾

D-4.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熊川柵)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밭을 디딜 만한 곳도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100리의 땅을 떼어주어 편히 살게 하

70)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8년, “築馬首城 豎瓶山柵 樂浪太守使告曰 頃者 聘問結好 意同一家 今逼我疆 造立城柵 或者其有蠶食之謀乎 若不渝舊好 隳城破柵 則無所猜疑 苟或不然 請一戰以決勝負 王報曰 設險守國 古今常道 豈敢以此 有渝於和好 宜若執事之所不疑也 若執事恃強出師 則小國亦有以待之耳 由是與樂浪失和”

71)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1년, “設秃山·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72)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3년,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과 연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어찌 의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왕이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목책을 헐어버렸다.⁷³⁾

- E. 봄 2월에 사도성(沙道城) 옆에 두 개의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동서로 서로 떨어진 거리가 10리였다. 적현성(赤峴城)의 군졸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⁷⁴⁾
- F. 겨울 10월에 쌍현성(雙峴城)을 수리하였다. 청목령(靑木嶺)에 큰 목책을 세우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사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⁷⁵⁾
- G. 7월 탄현(炭峴)에 목책을 세워 신라에 대비하였다.⁷⁶⁾
- H. 여름 5월에 고목성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우고, 또 장령성(長嶺城)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였다.⁷⁷⁾
- I. 겨울 10월에 웅진성을 수리[修葺]하고 사정책(沙井柵)을 세웠다.⁷⁸⁾

73)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24년,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 遂壞其柵”

74)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구수왕 4년,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75)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15년,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7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 “設柵於炭峴 以備新羅”

7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7년,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以備靺鞨”

7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4년,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백제의 목책 설치 목적은 첫째 방어이다. D-1과 D-2의 기사
는 책을 쌓아 낙랑을 방어하는 기사이다. D-1은 온조왕대 마수
성과 병산책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성과 목책은 요새에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답하고 있다. 즉 백제가 성과
책을 설치하는 것은 요새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백제가
방어해야 하는 세력은 낙랑과 말갈이었다. D-2의 독산책과 구
천책을 세운 것도 낙랑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방어하고자 한 것
이었다. 온조왕 11년 여름 4월에도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
을 습격하였다.⁷⁹⁾ 다루왕 7년 9월에는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
였고⁸⁰⁾, 10월에는 말갈이 또 병산책을 습격하였다⁸¹⁾고 한다.
이 기사들을 통해 볼 때 마수성과 병산책은 멀지 않은 곳에 있
으며 말갈과 낙랑과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1의
기사에서 백제가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우자 낙랑태수의
사자가 영토에 접근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 이것은 당시 백제
가 성과 책을 세워 영토의 동북쪽을 방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3의 온조왕 13년 가을 7월에 한산 아래 목책 설치 기사의
목적도 방어이다. 온조왕 8년 봄 2월에 말갈병 3,000명이 위례
성을 포위하였던 기사를⁸²⁾ 통해 짐작해 볼 때 3,000명이나 왔
다면 위례성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례
성의 민가를 옮겼다고 할 때 상당한 백제민이 이동했을 것으로
한산 아래 木柵을 세워 많은 수의 민을 이동하였다는 것은 목책

79)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1년(B.C.8) 여름 4월.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80)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7년(34) 가을 9월. “靺鞨攻陷馬首城 放火燒百姓廬屋”

81)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多婁王 7년(34) 겨울 10월. “又襲瓶山柵.”

82)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8년(B.C.11) 봄 2월. “靺鞨賊三千 來圍慰禮城 王閉城門不出”

의 설치 목적이 방어를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목책에는 많은 수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온조왕 10년 기사에서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을 때 군사 200명을 보내 막아 싸우게 하였다는⁸³⁾ 것으로 볼 때 책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수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년의 기사에서도 말갈이 병산책을 습격하여 깨뜨리고는 100여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⁸⁴⁾ 또 구수왕 16년 11월 기사를 보면 말갈이 우곡의 경계에 들어왔을 때 군사 300명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⁵⁾ 백제는 말갈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병사를 동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말갈이 침입한 곳은 위례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목책일 것이다.

또 E와 F의 기사도 목책 설치의 목적은 방어이다. E의 구수왕 4년 2월 기사에서 사도성 옆에 두 책을 설치하였는데 동서 거리가 10리였다고 하였다. 1리가 0.4km라고 할 때 10리는 약 4km로 가까운 거리이다. 즉, 방어를 위한 책의 설치하는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은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D-1의 온조왕 8년에 마수성과 병산책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마수성의 방어기능을 보완하고자 병산책을 세운 것이다. E의 경우는 사도성 옆에 두 책을 설치하는데 그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성과 책들을 통해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적현성의 군졸로 나누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사도성 - 두 책 - 적현성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의 기사는 개로왕대 청목령에 대책(大柵)을 세웠다는 것으로 청목령

83)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0년(B.C.9) 겨울 10월. “靺鞨寇北境 王遣兵二百拒戰於昆彌川上”

84)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1년(B.C.8) 여름 4월.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85)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2, 仇首王 16년(229) 11월. “靺鞨入牛谷界 奪掠人物 王遣精兵三百拒之 賊伏兵夾擊 我軍大敗”

이 백제에게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다. 그 위치는 고구려, 말갈과 관련되어 있다. 청목령에 대책을 설치하기 전 8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고 한다.⁸⁶⁾ 그리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설치한 것이다. 즉,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북쪽에 대책을 설치한 것이다. 청목령은 온조왕 10년에는 말갈과 싸우면서 청목산에 의지하여 지켰다는⁸⁷⁾ 것으로 보아 말갈의 방어 역할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B의 기사에서 진사왕 2년에 청목령을 기준으로 관방을 세워 청목령이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또 A-1의 근초고왕 28년에는 청목령에 성을 쌓았고, 아신왕 4년에는 왕이 직접 군사 7천을 이끌고 청목령까지 진군했다는⁸⁸⁾ 기사를 통해 백제가 동북쪽을 방어하는데 청목령이 중요한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 기사에서 개로왕이 북한산성의 사졸로 나누어 지키게 했다는 것은 청목령 대책 근처에 북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로왕의 대책 설치하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설치였던 것이다.

사료 H 무령왕 7년의 기사도 방어를 위한 목적의 설치이다. 고목성의 남쪽에 두 개의 책을 설치하는 것인데 고목성은 무령왕 3년에도 나오고 있는데 말갈이 마수책을 불 지르고 고목성을 공격하였다⁸⁹⁾고 한다. 고목성은 말갈과 관련이 있는 성으로 백제가 군사 5000명을 보내 물리쳤다는 것은 성의 크기도 크고, 50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백제에게 방어상 매우 중요한 성이라는 것이다. 6년 7월에도 말갈이 쳐들어와서 고목성을 깨뜨리고 6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86)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15년(469) 가을 8월. “遣將侵高句麗南鄙”

87)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0년(B.C.9) 겨울 10월. “我軍敗績 依青木山自保”

8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4년(395) 겨울 11월. “王欲報溟水之役 親帥兵七千 過漢水次於青木嶺下”

89)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3년(503) 가을 9월. “靺鞨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擊退之”

는⁹⁰⁾ 기사 역시 고목성은 말갈과 백제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잡아간 인원 역시 다른 성에 비하면 많은 인원수로 큰 성이라는 것이다. 고목성에 두 책을 설치하는 것은 말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목성 - 두 책 - 장령성을 쌓아 말갈을 철저하게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료 I의 성왕 4년의 사정책을 세운 것은 웅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책을 세우기 전에 웅진성을 먼저 수리하였다는 것은 웅진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성왕 3년에 백제는 신라와는 사신을 교환하여⁹¹⁾ 우호관계를 형성하였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기 전으로 이 당시 고구려와는 적대관계였다. 즉, 웅진성 방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정책을 세운 것이다.

한편 백제는 중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하고자 하였다. 사료 D-2는 직접적으로 독산과 구천에 책을 세워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온조왕은 책을 세워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온조왕 13년 여름 5월 기사를 보면 왕은 신하에게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여 편한 날이 적다.”고 하였다.⁹²⁾ 즉, 백제는 낙랑을 차단하기 위해 책을 설치한 것이다.

사료 G는 동성왕 23년에 탄현에 목책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신라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성왕 16년에는 백제가 신라를 도와 견아성의 고구려 포위를 풀어주고⁹³⁾ 17년에는 동성왕이 신라에

90)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武寧王 6년(506) 가을 7월.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91)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聖王 3년(525) 봄 2월. “與新羅交聘.”

92)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B.C.6) 여름 5월.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93)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16년(494) 가을 7월. “高句麗與新羅戰 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 救援圍”

구원을 요청하자 신라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여 고구려 병사가 물러났다고 한다.⁹⁴⁾ 두 나라의 사이가 적대관계가 아님에도 탄현에⁹⁵⁾ 목책을 설치한 것은 지리적인 중요성, 즉 교통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탄현(炭峴)은 의자왕 16년(656)조에 의하면 기벌포와 함께 백제의 중요한 요충지로 나온다.⁹⁶⁾ 홍수가 말하길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여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 막아도 1만 명이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요충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에 힘써야 한다. 탄현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처음 설치한 목책이다. 무엇보다 웅진의 방어가 중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한 교통로의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앞의 기사 C의 아신왕 7년 8월에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책에 이른 기사를 통해서도 교통로 차단 of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신왕이 한산 북책에 이른 것은 이 목책이 도성의 외곽지대를 방어하는 동시에 교통로의 통제를 위한 것이다.⁹⁷⁾ 아신왕이 이끈 군영은 상당히 큰 규모였을 것이다. 백제는 진사왕 8년 가을 7월에 고구

94) 『삼국사기』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17년(495) 가을 8월.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

95) 탄현의 위치 비정에는 여러 설이 있다. 충남 금산군 금산면 천내리와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로 보는 설(大原利武, 1922, 88~90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삼거리와 서평리와의 사이에 있는 탄치(炭峙)로 보는 설(小田省吾, 1927, 194쪽), 부여 석성면 정각리(正覺里) 솥고개로 보는 설(今西龍, 1934, 266쪽), 대전 동구와 충북 옥천 군북면 경계의 식장산 마도령으로 보는 설(李丙燾, 1977, 401쪽), 완주군 운주면 신복리(薪伏里)와 삼거리(三巨里) 사이의 쑥고개로 보는 설(洪思俊, 1967, 67쪽; 전영래, 1982, 276~289쪽), 금산군 진산면(珍山面) 교촌리(校村里)의 솥고개로 보는 설(成周鐸, 1977, 29쪽)이 있다. 최근에는 신라군의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웅진기 탄현책 설치와 사비기의 성충이 교통상의 요해지로 언급했던 탄현의 위치를 충남 금산군 진산면 방현(方峴)으로 보는 설도 있다.(이판섭, 앞의 논문, 2015, 257쪽)

96) 『삼국사기』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16년(656) 봄 3월.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 沔峴 水軍不使入 伐浦之岸 舉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

97) 황보경, 앞의 논문, 2016, 177쪽.

려에게 석현성 등 10여성을 함락당했고⁹⁸⁾ 10월에는 관미성을 함락당했다.⁹⁹⁾ 이후 즉위한 아신왕은 외삼촌 무(武)에게 관미성이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다며 관미성이 북쪽 변경의 요해지라 설명하면서 설욕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무가 병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변경으로 갔다.¹⁰⁰⁾ 백제는 고구려와 대적하기 위해 비교적 큰 규모의 군사가 동원되었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아신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한산 북쪽에 목책에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은 이곳이 고구려의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라는 것이다. 보통 성은 군사적 기능과 함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책은 주요 길목을 차단하여 주변 성의 방어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통로의 차단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백제가 주요 길목에 책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로를 차단하여 요해지의 방어에 힘쓰고자 한 것이다.

둘째 영역의 표시이다. D-4의 온조왕 24년 기사는 책이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웅천책과 관련하여 13년 8월 기사에 백제가 강역을 구획할 때 남쪽으로는 웅천을 경계로 하였다고 하였다.¹⁰¹⁾ 이는 하천을 경계로 하였던 것으로 마한의 반응이 없었다. 이때는 단순히 강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성이나 목책으로 경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웅천책의 설치에 마한의 영토 침입이 되는 것이었고 마한왕이 의리

98)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392) 가을 7월.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陷石峴等十餘城”

99)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392) 겨울 10월. “高句麗攻拔關彌城”

100) 『삼국사기』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393) 가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 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101)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13년(B.C.6) 8월.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에 불합리함을 설명하자 왕이 부끄러워서 목책을 헐었다고 기록되었다. 8년의 기사에서 백제왕이 성과 책으로 요새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웅천책은 헐었다는 것은 마한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 분명하다. 이 당시 웅천책의 설치에 백제의 영역 표시였을 것이고, 이곳이 마한과 영역이 나누어지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제와 마한과의 당시 관계는 우호관계였기 때문에 영역 표시한 목책을 마한왕이 지적하자 헐어버린 것이다.

목책의 설치 목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백제본기」 목책 설치 기사

번호	시기	내용	목적	비고
1	온조왕 8년 7월	병산책 세움	방어	성을 쌓고 책을 세움
2	온조왕 11년 7월	독산과 구천의 책을 세움	방어	낙랑과의 통로 차단
3	온조왕 13년 7월	한산 아래 책을 세움	방어	위례성 민호 옮김
4	온조왕 24년 7월	웅천책 세움	강역 표시	
5	구수왕 4년 2월	사도성 옆 두 책 설치	방어	두 책의 거리가 인접
6	개로왕 15년 10월	청목령에 대책 설치	방어	고구려, 말갈 대비
7	동성왕 23년 7월	탄현에 책 설치	방어	신라 대비
8	무령왕 7년 5월	고목성 남쪽 두 책 세움	방어	말갈 대비
9	성왕 4년 10월	사정책 세움	방어	웅진성 방어

도기동 산성은 지금까지는 고구려가 재 활용하여 남진하는 거점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었다. 산성의 발굴 조사 결과 백제의 목책성을 재 활용하여 목책을 세운 뒤 내

부에 점토로 다지고 목책 외면에 석축과 점토를 보강한 목책 도니성은 고구려의 성 축조 방식의 하나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남진 루트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었다. 그렇지만 도기동 산성의 초축은 백제이다. 그렇다면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으로 요충지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안성지역은 내륙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특히 안성천 일대는 한강과 금강수계권이 연결되어 남쪽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곳이자 반대로 남쪽에서 한강 이북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길목이었다. 이는 고구려가 남진할 때 거점으로 이용한 이유에도 해당된다. 고구려의 보루는 교통로의 확보가 주목적이었으며 보급이나 공격을 위한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¹⁰²⁾ 고구려 입장에서 도기동 산성은 남진의 거점이다.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산성은 웅진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도기동 산성은 최전방 관방유적을 한성과 연결시켜 주는 주요 거점이었다. 산성은 평택평야에서 안성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웅진으로 내려가는 군사 방어와 함께 거점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¹⁰³⁾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취체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주변 저장 수혈군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원형 수혈은 서울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이후 백제 영역인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경기 서남부지역 용인과 화성을 중심으로 수계로는 안성천과 오산천을 중심으로 확인

102)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01.

103) 양시은, 앞의 논문, 2021, 103~104쪽.

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⁰⁴⁾ 저장 수혈의 크기도 대체로 2.3~2.5m로 일정하게 조성뿐 아니라 지방에도 축조되었다는 것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양상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경기 서남부의 안성천과 오산천 중심은 한성백제의 물류 유통의 중심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성시기 저장 수혈군은 근거리에 하천 1~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계를 중심으로 물자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3〉 백제 한성 시기 저장수혈군 유적 관련 유적의 편년에 따른 분포 빈도

편년	3C후반	4C전반	4C중반	4C후반	5C전반	5C중반	5C후반
저장 수혈군	0	7	14	17	17	15	6
관방 유적	3	4	7	10	7	7	7

* 김왕국,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단면 플라스크형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3, 〈표 21〉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저장 수혈군 유적의 분포 시기를 보면 3세기 후반에는 보이지 않다가 4세기 전반에 7개가 보이고 있는데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보이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조성되었다. 이때의 수혈은 취락 내 거주지 등과 함께 조성되었으며 규모가 크지 않아 취락 내의 부속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중반 14개, 후반 17개, 5세기 전반 17개, 중반 15개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성 백제기의 전성기로 이때 경기도 지역에 집중 조성되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많이 출토된 유적들을 보면 용인 마북동

104) 이병훈, 「한성백제기 원형수혈의 기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쪽.

4유적(60기), 오산 내삼미동 유적군(192기), 안성 장원리 유적(50기)이 있는데 5세기 전반까지 활발히 운영되다 이후 5세기 후반에 그 개수가 감소되면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한성 함락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성이 함락된 후에 유적의 분포가 17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은 웅진 함락으로 백제의 수취체계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남방진출을 위한 거점성이다. 이는 철기 유물 출토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철은 낙랑·대방인들과 관련이 있다.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제철과 관련된 낙랑·대방 지역의 토기와 기와 제작기법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출신 장인들이 집단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안면 인근의 봉담면 당하리 I 유적에서도 낙랑계 토기와 송풍관, 철 찌꺼기, 철광석 등이 발견되어 이곳에서도 낙랑계 주민들에 의한 제철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⁰⁵⁾ 백제 중양에서 화성지역에 대한 관심은 화성 요리 고분군의 금동관모와 식리 출토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4세기 후반 화성 요리 고분군 금동관모와 식리는 백제의 금속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백제 중양에서 화성 재지 세력에게 사여한 것이다.¹⁰⁶⁾

철기류는 백제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저장 수혈이 증가하는 4세기 후반에 출토 빈도가 높다. 안성천에서 철기 출토량이 높은 곳은 안성 도기동 산성이다. 도기동 산성은 취락과 성곽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진위천 유역인 화성 길성리 토성과 소근산성에서는 많은 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소근산성은 무기류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방어 시설과 관

105) 이남규·권오영·문동석, 앞의 논문, 2003, 126쪽.

106) 권오영, 「경기 남부 최강자가 묻혀있는 화성요리고분군」, 『요리 금동관 다시 깨어나다』, 화성시 역사박물관, 2020, 124쪽.

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4세기 중엽이 되면 오산천 유역에서도 철기 출토 비중이 증가하고, 5세기 후반이 되면 오산천 유역의 오산 내삼미동 취락에서 그 빈도가 급증한다. 이곳의 철기 출토 비율은 소근산성과 기안리를 제외하면 취락으로는 가장 많은 수 취이다.¹⁰⁷⁾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상 중요한 요충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기 남부권이¹⁰⁸⁾ 방어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 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하천 및 강을 이용한 수운 형태로 공급되었을 것이다.¹⁰⁹⁾ 시기적으로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걸쳐 철기의 생산이 급증하는 것은 고구려에 의한 한성 함락과 그로 인한 백제의 수취체계 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07) 박경신, 앞의 논문, 2021, 56쪽.

108) 경기도를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눌 때 소구역권에서 경기 남부권은 안성천 본류,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안성천 남쪽지천이다. (박경신, 앞의 논문, 2021, 31쪽, <표 1>에서 경기 남부권만 발췌한 것이다.)

109) 정경화,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한국고고학회, 2021, 118~121쪽.

〈그림 3〉 한성 시기 저장 수혈유적지



* 장수남, 앞의 논문, 2022, 130쪽, 〈그림 3〉에서 도기동 산성을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연안 해로를 거쳐 한강 하류를 통해 한성까지 운송했을 것이다.¹¹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의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을 것이다.

5. 맺음말

한성백제의 관방체계는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 이북의 관방체계는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특히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도성의 방어뿐 아니라 백제가 남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및 지방 토착세력들의 반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강 이남의 관방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주요 교통로에 성을 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통제하여 관방체계를 형성하여 백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셋째, 한강 이남의 관방체계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물자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성천 유역 관방체계 중 하나인 도기동 산성의 초축 시기를 문헌사와 연결해 보면 근초고왕 28년(373)이 주목된다. 백제는 독산성민들의 신라 이동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다시 준비했을 것이고, 독산성이 신라와 근접한 곳이었다면 백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기동 산성의 축조 목적은 새롭게 지방 지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

110) 장수남, 「백제 웅진시기 한강유역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128~129쪽.

었다. 성주가 3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중요한 거점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는 기존 거점이 아닌 새로운 거점성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역 집단을 견제하고 백제 중앙의 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도기동 산성은 길성리토성이 폐기와 독산성주의 투항으로 백제가 소근산성의 축조와 함께 새로운 지방지배의 거점성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에 있어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기동 산성은 지리적인 요충지로 웅진으로 내려가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방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도기동 산성은 구릉성으로 주변에 평야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 서남부의 안성천과 오산천 중심으로 많은 저장 수혈군은 이곳이 한성 백제의 물류 유통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기 남부지역 주로 오산, 용인, 화성, 안성 지역은 한성시기의 중요 수취체계원으로 웅진시기에도 백제가 반드시 재건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셋째, 도기동 산성은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성이었다.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 유역에서 철기 출토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방어 상 중요한 요충지이자 남방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철기지에서 생산된 철은 각 거점의 관방 시설에 공급되어 철제품이 바로 유통되었는데,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도기동 산성은 거점 관방시설로서 철제품이 공급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저서 및 보고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성곽』, 2003.

<http://uci.or.kr/G901:A-000607373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http://uci.or.kr/G901:A-0006601091>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山城』, 2018.

<http://uci.or.kr/G901:A-0010780321>

기남문화재연구원, 『安城 道基洞 古墳群』, 2019.

누리고고학연구소,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2017.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437979>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65번지 유적』, 2018.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2016a.

세종대학교 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2016b.

한성백제 박물관, 『백제의 산성』, 2019.

한양문화재연구원, 『안성도기동산성-안성 도기동 산성(산57번지 일원)
유적 긴급발굴조사』, 2021.

<http://uci.or.kr/G901:A-0010780321>

2. 논문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http://uci.or.kr/G901:A-0005367133>

강형웅, 「4세기 한성 백제 관방체계 연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
표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2008.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0978395>

-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0-911-000576392>
- 김왕국, 「百濟 漢城期 貯藏施設 擴散의 動因 - 단면 플라스크형 저장 수혈을 중심으로 -」, 『백제연구』 6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3.
<http://uci.or.kr/I410-ECN-0102-2016-910-000797126>
-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 渤海研究』 58, 고구려발해학회, 2017.
- 박경신, 「안성천 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중부고고학회, 2021.
<http://uci.or.kr/G901:A-0010569303>
- 서정일, 「도기동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연구원, 2020.
- 서정일, 「안성 도기동 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 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별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연구원, 2021.
- 신광철,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영」, 『고구려발해사 연구』 63, 고구려발해학회, 2019.
-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고구려연구회, 2021.
<http://uci.or.kr/G901:A-0002190629>
- 심광주, 「漢城時期 百濟山城」, 『고고학』 3-1, 서울경기고고학회, 2004.
<http://uci.or.kr/G901:A-0002192511>
- 심광주,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고구려발해연구』 20, 고구려발해학회, 2005.
<http://uci.or.kr/G901:A-0002190919>
- 심정현, 「신라한예의 성격과 경기 이남 고구려의 관방시설」, 『역사학연구』 84, 호남사학회, 2021.
<http://uci.or.kr/G901:A-0010575221>

- 양시은, 「안성 도기동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21.
<http://uci.or.kr/G901:A-0010599099>
- 오강석,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http://uci.or.kr/G901:A-0005341623>
- 오강석, 「백제 한성기 관방체계 검토」, 『선사와 고대』 26, 한국고대학회, 2007.
<http://uci.or.kr/G901:A-0002373229>
-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군사』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http://uci.or.kr/I410-ECN-0101-2019-390-000577626>
- 윤성호, 「고구려의 남진의 흔적,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고구려와 한강』, 2020.
- 이남규 · 권오영 · 문동석, 「경기 남부 백제유적의 분포양상과 역사적 의미」, 『백제연구』 4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http://uci.or.kr/G901:A-0001948722>
- 이부오, 「3세기 후반 4세기 초 백제의 마한 진출과 熊川 주변 세력」, 『한국고대사탐구』 28, 한국고대사 탐구학회, 2018.
- 이승우,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의 성곽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 이승우, 양시은, 「GIS를 활용한 한성기 백제 관방체계 연구」, 『고조선 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http://uci.or.kr/G901:A-0011034463>
- 이판섭, 「삼국시대 산성의 감시반경(監視半徑)에 대하여 : 삼국시대 산성 배치의 체계성 검토를 위한 예비작업」, 『호서고고학』 15, 호서고고학회, 2006.
<http://uci.or.kr/G901:A-0003206869>
- 이판섭,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 2015.
<http://uci.or.kr/G901:A-0005910490>

- 이병훈, 「한성백제기 원형수혈의 기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http://uci.or.kr/G901:A-0005517489>
- 장수남, 「백제 웅진시기 한강유역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4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http://uci.or.kr/G901:A-0011027780>
- 장종진,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部曲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탐구』 4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 정경화, 「원삼국~백제한성기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 119, 한국고고학회, 2021.
- 황보 경,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 106, 백산학회, 2016.
<http://uci.or.kr/G901:A-0008049986>
-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 韓國古代史探究學會, 2017.
<http://uci.or.kr/G901:A-0008231083>
- 황보 경,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Abstract)

Baekje's Gwanbang System and Dogi-dong Fortress

Jang, Su-nam

The main argument until the present day is that the fortress in Dogi-dong was recycled by Baekje in the mid-to-late 4th century while advancing south after Goguryeo's capture of Hanseong. This article attempted to examine why Dogi-dong Fortress was built from the perspective of Baekje history, and the role and value of the fortress from the perspective of Baekje. The initial construction of Dogi-dong Fortress was aimed at securing and defending transportation routes. In the 28th year of King Geunchogo (373), the fortress was built to defend the area due to the migration of Doksan people to Silla. Dogi-dong Fortress served as a regional hub as it had residential and storage facilities around it as well as geographical advantages. Goguryeo also recycled the fortress because it served the function of a transportation hub and a base. In Baekje, Dogi-dong Fortress not only had an economic value as it was located in the surrounding plains with hilly areas but it also fulfilled defensive functions, storage facilities centered on Anseongcheon Stream and Osancheon Stream, said that this area was the center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of Hanseong Baekje. And the excavation of iron around Dogidongsanseong Fortress indicates that this area was an important defense point. Dogi-dong Fortress served as a base equipped with fortress + residential + storage facilities as well as fulfilling defense functions.

Keywords : Dogi-dong Fortress, Gwanban System, Transportation Road, Base, the first period of construction, Defense, Economic Advant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51-104
<https://doi.org/10.29212/mh.2023..129.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와 반월성*

김강훈 | 구미중학교 교사

목 차

1. 서론
2.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3.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4.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5. 결론

초 록 이 글은 시기적으로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공간적으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검토한 연구이다.

포천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가 지나기에 선사시대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남정을 계기로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고구려는 한강~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관방시설을 축조하였는데, 포천지역에는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다른 교통로에 비하여 빈약하다. 포천 일대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기에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고구려가 원산만 일대의 예(말갈)를 동원하여 한강 하류 유역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반월성은 관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고구려는 성동리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

603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며 철원-포천-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608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며 철원-포천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고구려는 지금의 반월성으로 추정되는 낭비성을 차지하며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였다. 629년 신라는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여 낭비성을 빼앗았으며,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신라가 대고구려 전쟁, 대당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고구려, 신라, 한강유역, 포천, 반월성, 성동리산성, 낭비성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3,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서론

지금의 경기도 포천(抱川)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부터 서북·동북 지역의 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되는 교차로이자 주민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었다.¹⁾ 특히 서울과 원산을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잇는 약 160km 길이의 추가령 구조곡은 일찍부터 한반도 동북부와 중서부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는데, 포천지역은 이 경로상에 위치한다.

포천지역은 수계로는 임진강 유역에 포함된다. 임진강 유역은 크게 임진강 본류 유역과 한탄강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진강의 제2차 지류인 영평천은 포천시 이동면의 광덕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포천시 남단 소흘읍 축석령에서 발원한 포천천은 북쪽으로 흐르며 포천 분지를 지나 영평천과 합류하는데, 임진강의 제3차 지류이다.²⁾ 한편 포천시 내천면 수원산에서 발원하는 왕숙천은 남서쪽으로 흘러 남양주를 지나 한강으로 흐른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영평천-포천천-포천 분지-왕숙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통해 임진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성동리산성, 반월성, 고모리산성 등 포천지역의 성곽은 대체로 이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³⁾

1) 배기동, 「선사시대」, 『抱川郡誌(上)』, 1997, 153~155쪽.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포천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文昌魯, 「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 『韓國學論叢』 38, 2012 참조.

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임진강-」, 2001, 64~65쪽.

3)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2006, 305~311쪽 ;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260~261쪽.

포천지역의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월성은 1994년 지표조사부터 2001년 6차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유구와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삼국의 유물이 출토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반월성의 활용 양상이 검토되었다.⁴⁾ 이는 반월성을 629년 고구려와 신라 간에 전투가 발생한 낭비성으로 비정하는 계기가 되었다.⁵⁾ 그리고 반월성에서는 지속적인 보수공사와 이와 연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⁶⁾

이후 낭비성 전투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攻防戰)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고, 삼국시대 한강 유역에서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이 확인되었다.⁷⁾ 한편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의 일부가 발굴 조사되었으며 성동리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⁸⁾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남진기와 신라 북진기 성동리산성의 활용 양상과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⁹⁾

개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라가 반월성을 중심으로

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5)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1995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2009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성 남벽』, 2019. 최근까지 이루어진 반월성의 보수공사 현황은 윤성호,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先史와 古代』 67, 2021, 288~289쪽 참조.

7) 徐榮一,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 2001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 2014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a ; 박종서, 「6세기 중반~7세기 高句麗·新羅의 境界와 그 변천」, 『사학지』 62, 2022.

8)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9) 백종오,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 2004.

구축한 포천지역 산성의 방어체계가 검토되었으며, 포천지역의 영유 주체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바뀌면서 나타난 관방체계의 변화상도 간략히 언급되었다.¹⁰⁾

더불어 한강·임진강 일대 관방체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과정에서 포천지역 관방시설의 위상과 역할이 검토되었다.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관방체계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포천천로가 포함되어 있다.¹¹⁾ 신라가 한강 유역을 영역화하며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철원 방면 방어의 중심축으로 포천지역의 위상을 설정한 연구도 있다.¹²⁾ 한편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 속에서 관방체계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려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포천지역 관방시설이 가지는 의미가 언급되었다.¹³⁾ 최근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성동리산성과 성동리 마을유적이 재차 주목받았다.¹⁴⁾

기왕의 발굴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

10) 徐榮一, 「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영속관계」, 『文化史學』 6·7, 1997 ;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72~279쪽.

11)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 3, 경기도박물관, 1999 ; 白種伍, 「南韓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 2007.

12)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이 논문에서는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형성과정을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정비하는 1단계, 한강 이북으로 방어체계의 중심을 이동하고 임진강, 한탄강 유역을 방어선으로 삼아 방어체계를 확대하는 2단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는 604년을 중심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13)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8 ;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14)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20쪽, 27쪽.

며,¹⁵⁾ 반월성 출토 고구려 유물과 유구에 대한 해석에도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먼저 반월성 출토 유물과 유구 중 고구려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물·유구를 검토하여 고구려가 5~6세기에 반월성을 군사·행정 거점으로 활용했는지를 논의하겠다. 이어서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검토하여 포천지역이 군사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7세기 초 중반 전개된 고구려-신라 전쟁과 나당전쟁의 과정에서 신라가 구축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 관방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광개토왕릉비」 영락(永樂) 6년조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58성 700촌을 공취하였다. 58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¹⁶⁾ 적어도 예성강 또는 임진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 지역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58성 가운데 포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15)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해서는 백제와 신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남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체성벽 내벽 토축부와 주거지, 수혈에서 백제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발굴단은 백제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반월성 남벽을 축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

16) 58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는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69~170쪽; 朴鐘書,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70~71쪽 참조.

17) 포천 자작리유적에서 전체 길이 23.6m의 대형 ‘여(呂)’자형 주거지와 동진대 청자편 및 백제기와편이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포천 자작리 일대는 한성백제기 지

그런데 포천지역의 향방을 알려주는 문헌사료가 없어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가 포천지역을 지속적으로 영유했는지 불확실하다. 고구려군이 귀환하고 백제가 반격을 시도하면서 한강 이북~임진강 이남의 일부 지역을 백제가 회복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고구려가 백제의 지방 지배 거점이었던 반월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점령지 지배에 활용하였다고 보는 견해¹⁹⁾나 고구려가 409년 축조한 국동 6성을 임진강 유역으로 비정하면서 반월성을 그중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²⁰⁾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포천지역이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지배에 들어갔으나 이후 다시 백제의 영역으로 귀속되었거나,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²¹⁾

475년 장수왕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 도성인 한성을 함락하면서, 고구려는 한강 유역 일대를 영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고구려조에서 지금의 포천 일대의 고구려 지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방의 정치적 거점 취락으로 추정된다(경기도박물관, 『抱川 自作里遺蹟』 I, 2004). 따라서 광개토왕대 고구려가 백제를 공략하면서 포천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8)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67~68쪽.

19) 김선숙, 「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 『서울학연구』 69, 2017, 57~58쪽.

20) 최영인, 「4세기~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 『청람사학』 31, 2020, 71~80쪽.

21)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선이 아닌 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이 임진강~한강 분수령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거나(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203~205쪽), 고구려와 백제가 예성강 이남-임진강 이북 지역을 접경공간으로 하면서 대치하였다고 보는 견해(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73~176쪽)가 참고가 된다.

A. 臂城郡 一云馬忽 內乙買 一云內余米 鐵圓郡 一云毛乙
冬非 梁骨縣 僧梁縣 一云非勿 功木達 一云熊閃山²²⁾

비성군(臂城郡)은 지금의 포천 분지 일대인데 마홀(馬忽)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비성군에 속한 내을매(內乙買)는 동두천시 송내동²³⁾ 또는 연천군 청산면 일대²⁴⁾로 비정된다. 비성군의 북쪽에는 철원군(鐵圓郡)이 있었다. 철원군은 지금의 철원군 철원읍이며, 철원군에 속한 양골현(梁骨縣)은 포천시 영중면, 승랑현(僧梁縣)은 연천군 신서면, 공목달현(功木達縣)은 연천군 연천읍으로 비정된다.²⁵⁾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원전에는 비록 통일신라 시기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지만, 고구려 지명과 영속 관계는 고구려 시기 제성(諸城)의 분포와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로와 제성의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²⁶⁾ 그렇다면 고구려가 설치한 비성군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전곡을 기준으로 한탄강과 영평천을 거슬러 올라가 양주 분지와 포천 분지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철원군에 속하였던 영평은 철원평야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한탄강·영평천 유역으로 남하하는 교통로를 관리하였을 것이다.

포천지역의 관방 유적 중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확인된다고 알려진 곳은 반월성과 성동리산성이다. 먼저 반월성은 포천시

22) 『삼국사기』 권37, 잡지(雜志)8, 지리(地理)4, 고구려, 한산주

23)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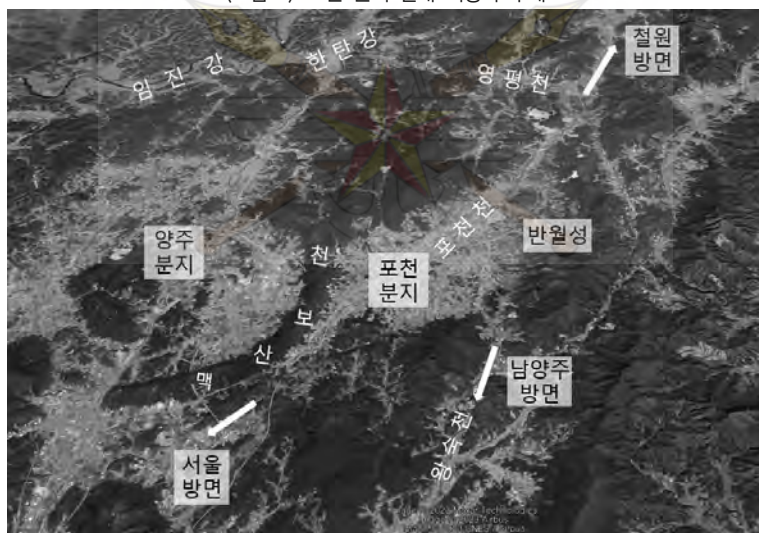
24) 서영일, 앞의 책, 1999, 293~294쪽.

25) 장창은, 앞의 책, 2014, 14쪽;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 2019, 46~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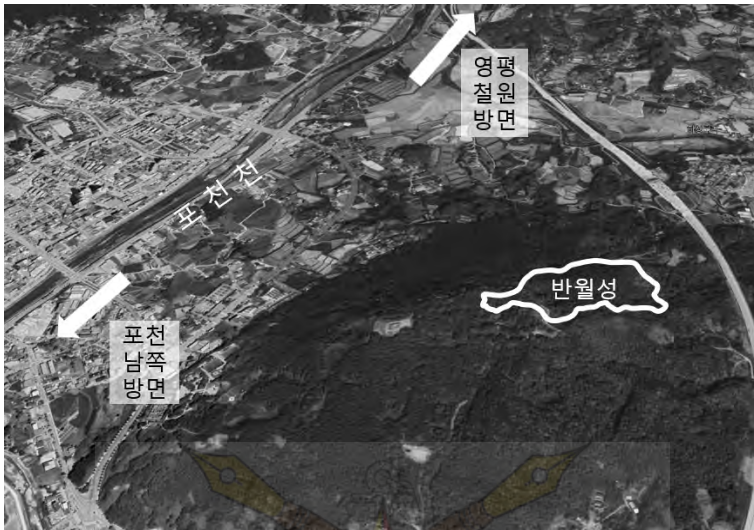
26)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48~55쪽.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청성산(해발 283.5m) 정상을 둘러싸고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080m이다. 산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동-서로 길쭉한 반월형(半月形)이기에 반월성으로 불린다. 반월성의 동서 방향에 높은 산지가 있으며, 남서쪽으로 포천 분지의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동북쪽으로는 포천 분지에서 철원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가 있다. 따라서 반월성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산성의 남쪽에는 구읍천, 북서쪽은 포천천이 흐르면서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포천 분지 일대 지형과 수계



〈그림 2〉 포천 반월성과 주변 지형



반월성 1차 발굴조사에서 ‘마홀수해구초(馬忽受蟹口草)’명 기와가, 3차 발굴조사에서 ‘마홀(馬忽)’, ‘마(馬)’, ‘홀수(忽受)’, ‘해(蟹)’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축조하면서 ‘마홀수해구초’명 기와가 제작되었다고 추정하면서²⁷⁾, 이를 통해 반월성이 고구려 마홀군의 치소였다고 해석하였다.²⁸⁾ 그러나 이 명문은 일제강점기에 경기 하남 선동에서 채집된 명문 기와와 연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작 시기는 8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²⁹⁾ 그렇다면 반월성이 고

27)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蟹口單>銘 기와의 考察」, 『史學志』 29, 1996.

28)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44쪽.

29) 김규운·성재현,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 국립중앙박물관, 2011, 575~577쪽.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로 추정된다. 최근 기와 명문의 지명과 신라 말 지방통치체제의 동요 등을 근거로 경덕왕 16년(757)과 진성왕 3년(889)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박성현, 「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 44~45쪽).

구려 마홀군의 치소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반월성 출토 ‘마홀(馬忽)’명 기와를 이해하기보다는, 포천 분지 일대가 고구려의 마홀이었다는 사실을 유물을 통해 확인하였다³⁰⁾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반월성에는 서치성, 동치성, 남치성 등 3개소의 치성이 확인된다. 이 중 서치성은 잘 치석한 대형 기단석, 들여쌓기, 기단부 모서리의 굽도리 양식, 치성의 평면 사각형 형태 등을 근거로 고구려가 축조했을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하였다. 그리고 서치성 인근 헬기장 주변에서 고구려 토기편과 적갈색의 고구려계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³¹⁾ 그런데 조사단은 고구려 토기류로 추정할 수 있는 개체수가 적으며 정확한 층위에서 수습된 것이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고구려계 기와는 와적층에서 신라 기와와 뒤섞여 출토되었고 제작 방식이 고구려 기와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³²⁾

더하여 조사단이 제시한 서치성의 축조 방식이 한강 유역의 신라 성곽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반월성 서치성과 하남 이성산성 치성이 형태적 특징, 크기, 축조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반월성 치성의 축조 주체를 신라로 이해하기도 한다.³³⁾ 또한 고고학적 속성분석과 통계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반월성 출토 기와가 모두 6~9세기 신라 기와라고 보는 연구도 참고가 된다.³⁴⁾

30)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1쪽.

3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478~479쪽, 495쪽; 金虎俊, 「抱川 半月山城 研究(Ⅰ)」, 『文化史學』 20, 2003, 60~61쪽;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 2006, 29쪽.

3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3쪽; 金虎俊, 앞의 논문, 2003, 61쪽; 방유리, 앞의 논문, 2006, 30쪽.

33) 車敏浩, 「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9~71쪽.

34) 徐奉秀,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21.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지속적으로 군사·행정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임진강 유역, 양주 분지,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관방시설이 밀집 분포하고 있고 기와가 출토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고구려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교통로 중 다른 교통로에 비해 포천천을 경유하는 교통로에 대한 감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천보산 보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근래 경기 북부지역 보루의 감시권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천보산맥 동쪽의 천보산 3·4·5보루는 포천 분지와 포천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조망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루에서 고구려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신라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포천 분지에서 왕숙천을 따라 한강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감시하는 보루도 확인되지 않는다.³⁵⁾ 따라서 포천천로-포천 분지-왕숙천로-한강 북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고구려 관방시설의 존재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포천 분지를 지나 한강 북안으로 이르는 교통로 운영과 관련한 곳으로 성동리산성을 꼽을 수 있다. 성동리산성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잣골의 해발 180m의 잔구성 산지에 축조된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401.9m이다. 성의 동남쪽으로 영평천이 흐르며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영평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포천천과 합쳐지고 이어서 한탄강에 합류한다. 따라서 성동리산성은 서쪽으로 하천로를 따라 연천으로 연결되며, 포천-철원 방면의 남북교통로를 조망하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35) 이상의 내용은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참조.

성동리산성 내에 적갈색 기와가 일부 확인된다고 한다. 이를 임진강 유역의 덕진산성, 호로고루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와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한다.³⁶⁾ 그러나 문양, 측면 분할, 내면 상태 등에서 차이점도 확인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³⁷⁾ 성동리산성은 한강~임진강 유역의 여타 고구려 관방시설에 비하여 고구려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성동리산성의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성동리 마을유적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 동북쪽 기둥구멍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편은 내외 흑갈색 내지 황색의 연질토기로 토기 외면에 두 줄의 횡선과 길이 7cm 정도의 장타원문이 횡으로 연속하여 시문되어 있다.³⁸⁾ 파편이기에 기형을 알 수 없으며 제작 시기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³⁹⁾ 하지만 몽촌토성에서 유사한 동이류 동체부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몽촌토성 고구려 토기가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는 점⁴⁰⁾,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아차산 4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와 문양이 유사하다는 점⁴¹⁾을 고려한다면, 이 유적은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고구려는 5세기 후반~6세기 중반경 성동리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포천지역 일대를 경영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구려 토기가 발견된 성동리 마을유적 2호 주거지의 내부퇴적층에서 백제 토기, 신라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

3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7, 34~36쪽.

37) 白種伍·玄男周,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379쪽.

38)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40~41쪽.

39) 양시은,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 2014,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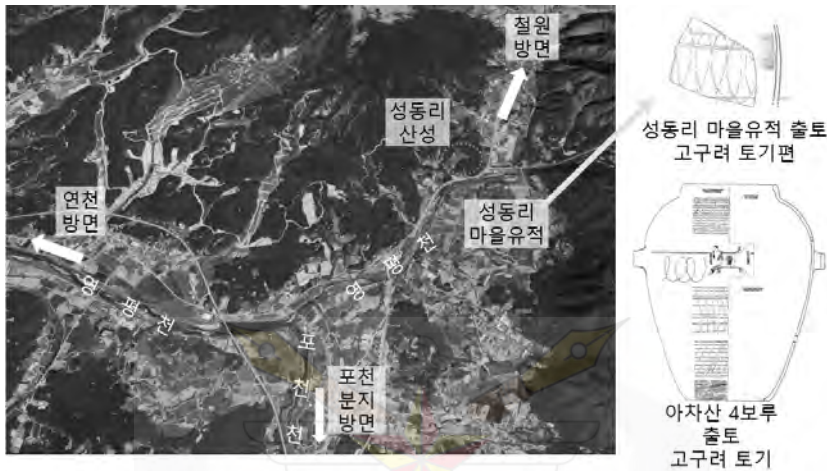
40) 최종택, 「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118쪽.

41) 백종오, 앞의 책, 2006, 110쪽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 20쪽.

42) 백종오, 앞의 논문, 2004, 295쪽 ; 백종오, 앞의 책, 2006, 110쪽.

다.⁴³⁾ 따라서 성동리산성이 군사적 거점을 넘어 영역 지배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림 3〉 포천 성동리산성, 성동리 마을유적과 주변 지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는 교통로를 따라 포천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시키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포천지역은 한강~임진강 유역의 주요 교통로에 비해 관방시설을 비롯한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희박하다. 이는 4세기 이래 고구려의 남방 교통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세기 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면서,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백제와 대결하였다. 4세기 중후반 고구려와 백제는 예성강 유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⁴⁴⁾ 그리고 광개토왕을 거쳐 장수왕대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는데, 그 경로는 황해도를 가로지른 뒤 임진강을 건너 한강 하류로 이어

43)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주거지에서 백제와 신라 토기가 확인되며 해당 지역이 삼국의 접경지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영평천을 기준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영역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신광철, 앞의 논문, 2022, 27쪽).

44) 장창은, 앞의 책, 2014, 49~53쪽.

진다. 그리고 고구려는 경기 중남부를 지나 대전, 세종지역까지 진출하였다.⁴⁵⁾

고구려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경로는 400년 신라 구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왜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5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평양에서 수안-신계-이천-평강/철원을 지나 화천-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영서 내륙 교통로를 따라 이동하여 죽령을 넘어 경주에 도착했다고 짐작된다.⁴⁶⁾

〈그림 4〉 고구려의 백제, 신라 방면 주요 남진로



- 45)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 2019b에서는 관방시설의 배치와 유형 구분을 통해 '5세기 이전 임진강-한탄강 유역으로 남진→5세기 중반 영서 내륙 지역으로 남진하여 충주, 대전으로 진출→475년 한강을 도하여 탄천을 따라 용인 일대로 남하' 순서로 고구려의 남진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 46) 고구려의 남진로에 대해서는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2000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 금경숙,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韓國史學報』 11, 2011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22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참조.

고대 국가는 대외전쟁, 지방통치, 수취체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통로를 정비하고 관리하였다. 국가 권력의 중추인 도성은 각 방면으로 간선교통로가 출발하는 기점이었기에, 교통로는 도성을 중심으로 방사형을 띠기 마련이었다.

고구려는 평양을 출발하여 백제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남진로를 별개로 운영하였다고 짐작된다.⁴⁷⁾ 고구려가 백제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1차 목표는 백제의 도성이 위치한 한강 하류 유역이었다. 신라 방면 진출은 영서 내륙 지역을 경유하여 한반도 중부지역의 거점인 충주를 목표로 했다고 추정된다.

포천은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기에, 백제 도성 방면으로 남진하는 고구려군 중 일부는 포천 일대를 공략하거나 경유하였을 것이다. 다만 한탄강-영평천-포천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므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시기에는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에서 임진강을 건너 하천을 따라 내려와 양주 분지를 지나 아차산 일대로 가는 교통로가 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로 인해 고구려 관방시설이 치밀하게 조성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원산 일대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한강 하류 유역을 침공할 세력을 상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백제 초기부터 동북방에서 말갈이 백제를 침공한 기록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 말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조선 후기 이래로 대체로 동예로 이해하고 있다.⁴⁸⁾ 고구려는 후한(AD 24~

47) 박종서, 앞의 논문, 2023에서 고구려의 남진로를 7개의 경로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시점, 종점, 주요 거점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하였다. 그중 백제 주공격로를 '한성로(웅진로)', 신라 주공격로를 '신라왕경로'로 명명하였다.

220) 말 동예를 복속시켰는데,⁴⁹⁾ 그 이후부터 고구려는 예(말갈)를 동원하여 원산만 일대에서 서남 방향으로 남하해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이다.⁵⁰⁾

백제는 철원, 연천, 포천 일대에 마수성, 병산책, 석두성, 고목성, 적현성, 사도성 등 관방시설을 두어 말갈의 침입에 맞섰다.⁵¹⁾ 포천 분지의 남단에 위치한 고모리산성은 백제가 초축한 성곽인데, 이른 시기부터 백제가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침입하는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음을 보여준다.⁵²⁾ 그런데 고구려가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한 이후에는 예(말갈)가 한강 하류 유역을 공략할 이유가 사라졌다. 따라서 고구려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에 관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백제의 성곽을 재활용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반월성을 비롯하여 포천지역에서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빈약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반월성에서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7세기 중엽에는 성벽 수축이 이루어지고 성안에 기와 건물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⁵³⁾ 그리고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48)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는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77~80쪽 ; 김진광, 『三國史記』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12~17쪽 ;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남진」, 『한국상고사학보』 105, 2019, 152~158쪽 참조.

49)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예. “漢末更屬句麗”

50)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76~178쪽.

51) 구체적인 위치 비정은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600쪽, 606쪽, 626쪽 참조.

52) 윤성호, 「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방성(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21)』, 한성백제박물관, 2022, 137~138쪽.

5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4~535쪽.

의 짧은 시기 동안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반월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탐색해 보겠다.

3.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⁵⁴⁾ 고구려는 왕위 계승 분쟁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분쟁의 여파를 수습해야 했고 신라는 대백제전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한강 이북 및 임진강 이남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아⁵⁵⁾ 대치하면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였다고 생각된다. 한강 유역 출토 신라 토기와 성벽 축조 양상을 통해 한강 이북 신라 산성이 7세기 전반 이후 활용되었다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⁵⁶⁾

54) 579~597년은 삼국이 국내 정세로 전쟁을 멈춘 일종의 소강기·휴전기였다고 한다(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 2021, 15~16쪽).

55)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 장창은, 앞의 책, 2014, 234쪽.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85~91쪽에서는 북한산비가 정계비라는 입장에서 북한산비가 세워진 북한산 줄기에서 임진강과 한강의 분수령을 따라 양국의 경계가 정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산 산줄기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지역을 완충지대로 이해하였다.

56)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포천지역과 관련하여,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고배와 뚜껑 등의 잔편은 7세기 이후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한다(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314쪽). 반면에 연천 대전리산성, 포천 반월성, 양주 대모산성 등 임진·한탄강 수계권의 산성에서 6세기 중반경의 신라 토기가 출토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박중서,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2, 179~180쪽).

그런데 6세기 말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충돌은 고구려 멸망까지 이어지게 된다. 수가 중원을 통일하여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던 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의 회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⁵⁷⁾ 6세기 말 아단성(阿旦城) 전투⁵⁸⁾와 603년 북한산성(北漢山城) 전투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여 독자세력권을 재건하려는 고구려의 대외정책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아단성 전투에 대한 신라 측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신라군의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삼국사기』 온달전(溫達傳)에도 신라군과 고구려군이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치른 정황이 드러날 뿐이다. 다만 온달이 출정에 앞서 맹서하는 장면이 곧이어 아단성 전투 중 온달이 화살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고구려군의 전과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라는 전투 전후 아단성을 계속 영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던 것이다.

북한산성 전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관련 기록이 전하고 있다.

57)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여호규, 「7세기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외교적 선택」,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2019.

58) 『삼국사기』 권45, 열전5, 온달. 아단성 전투의 시기와 아단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윤성호, 「『삼국사기』 溫達傳 所載 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 2017과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城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 2018 참조. 필자는 아단성의 위치 문제에 대해 각 논의가 나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향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가 축적되기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공감하는 입장이다(정호섭, 「三國史記 溫達傳을 통해 본 온달의 역사적 위상과 阿旦城」, 『한성사학』 29, 2014 ;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새문사, 2016, 167~179쪽). 구체적인 아단성의 위치 비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온달이 한강 유역의 회복을 목표로 했기에 출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비정하지 않고 한강 유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B-①. 왕이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왕이 병력을 이끌고 한수(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 북을 치고 떠들썩하니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이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어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⁵⁹⁾

B-②.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입하였다. 왕이 몸소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쳤다⁶⁰⁾

사료를 보면, 603년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군대를 이끌고 북한산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진평왕이 직접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구원전에 나섰고, 고구려군은 병력의 열세를 염려하여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북한산성은 지금의 아차산성으로 비정된다.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가운데 ‘북(北)’, ‘한(漢)’, ‘북한(北漢)’, ‘한산○(漢山○)’ 등이 다수 보이는데, 이를 종합하면 ‘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북한산성 전투에서 주목할 점은 진평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다는 것이다. 국왕의 군령권 집행방식은 국왕이 친히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에 나서는 친솔형(親率型)과 예하 신료를 대행자로 삼아 전쟁을 치르게 하는 교전형(敎遣型)으로 나뉘는데, 신라에서는 친솔형과 교전형이 병존하다가 5세기 중반을 분수령

5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4년 8월.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 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6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5년 8월.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61)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205~207쪽;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史叢』 32, 2014, 32쪽. 최근 아차산성 발굴조사에서 「北漢山城」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아차산성이 북한산성임이 더욱 확실해졌다(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2019c).

으로 교전형으로만 대외전쟁을 치르게 된다.⁶²⁾ 따라서 7세기 초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에 1만 명의 병사를 ‘친솔(親率)’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백제의 공격을 받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지만 국왕이 전쟁에 ‘친솔’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강 유역을 고수하려는 신라 왕실의 의지가 매우 컸다고 짐작할 수 있다.⁶³⁾

이와 관련해 철원 고석정(孤石亭)에 진평왕이 이 지역을 순행하고 세운 비가 존재했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싶다.⁶⁴⁾ 대체로 629년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하고 철원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라비를 건립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⁶⁵⁾ 최근에는 신라가 고구려-수 전쟁을 틈타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했다는 기록과 연관하여 598~614년의 어느 시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⁶⁾ 둘 다 진평왕 재위 기간 중 신라의 영역이 확장된 시기를 주목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진평왕이 실제 철원으로 순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다. 따라서 603년 북한산성 전투에 진평왕이 친솔한 기사에 눈길이 간다. 진평

62) 李文基, 「新羅 中古期 軍令體系의 檢討」, 『新羅文化』 9, 1992, 43~50쪽;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280~289쪽.

63) 진흥왕이 확보한 영역을 사수하여 왕권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견해(황보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軍史』 58, 2015, 55~56쪽)와 군령권자로서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견해(장창은, 「삼국시대 전쟁의 발발과 시대적 의미」, 『新羅史學報』 45, 2019, 82쪽)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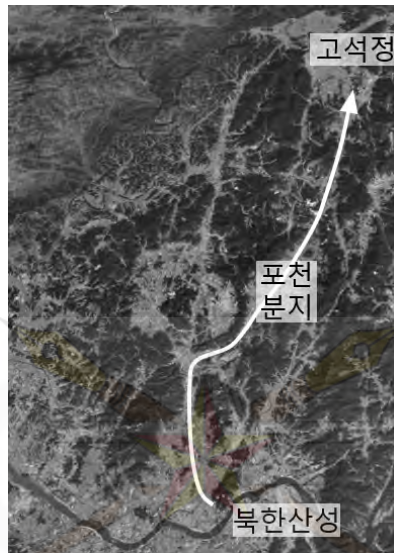
6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강원도, 철원도호부, 누정(樓亭), 고석정(孤石亭). “在府東南三十里 岩石竦立 東臨淵水 世傳 新羅眞平王高麗忠肅王嘗遊山亭” 고석정에 있었다는 신라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충숙왕대 승려인 무외(無畏)가 남긴 「고석정기(孤石亭記)」이고 이후 여러 문집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김진한,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韓國文化』 83, 2018, 148~155쪽에서 상세히 연구되었다.

65) 徐榮一, 앞의 논문, 1995, 35쪽;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43쪽;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軍史』 81, 2011, 35~36쪽; 장창은, 앞의 책, 2014, 321쪽.

66) 김진한, 앞의 논문, 2018, 162~163쪽.

왕이 한반도 중부지역에 순행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림 5〉 진평왕 순행 추정로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에 이어서 철원으로 순행했다면, 이는 고구려군의 공격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603년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으로 진출한 경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먼저 고구려군이 임진강을 건넌 후 양주 분지와 중랑천을 거쳐 북한산성에 이르렀을 가능성이다.⁶⁷⁾ 다음으로 고구려군이 반월성에서 출발하여 왕숙천을 따라 내려와 구리를 거쳐 북한산성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⁶⁸⁾ 마지막으로 이천, 평강을 거쳐 철원과 포천 분지의 한탄강-영평천-포천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67)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63쪽;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345~346쪽;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 『서울학연구』 81, 2022, 120쪽.

68)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104쪽.

남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⁶⁹⁾

이 중 세 번째 견해에 주목하고 싶다. 먼저 고구려군이 신라 관방체계의 저항을 받지 않고 북한산성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물론 임진강에서 양주 분지를 따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신라 관방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정황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⁷⁰⁾ 하지만 관방시설의 밀도 면에서 철원-포천지역이 더 조밀하지 못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재활용하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포천지역의 관방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정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철원으로 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구려군의 퇴각로가 진군로와 동일하다면⁷¹⁾, 신라군은 퇴각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철원지역이 군사지리적으로 요충지임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604년 남천주를 없애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하였다.⁷²⁾ 이것이 신라의 적극적인 북진 의지⁷³⁾ 내지 신라의 세력 확대⁷⁴⁾를 의미한다면, 북방 거점의 북진은 한강 하류 유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서 내륙 지역에서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세기 후반~7세기 초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 거점은 춘천

69)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50~51쪽. 이와 관련하여 6세기 중반 이후 신라가 양주분지의 보루군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면서 고구려의 임진강 도하처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영평천의 성동리산성 방면으로 남진로를 개척하였다고 이해하는 연구가 주목된다(박중서, 앞의 논문, 2022, 87쪽 ; 박중서, 앞의 논문, 2023, 32쪽).

70) 장창은, 앞의 책, 2014, 304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63쪽.

71)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56쪽.

7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6년.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73) 末松保和, 「新羅讞序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34~335쪽에서 진흥왕 18년(557) 신주(新州)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한 것은 한강 이북으로 ‘적극적인 북진의 의기(意氣)’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74) 李相勳, 「羅唐戰爭의 軍事的 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 경계』 79, 2011, 17쪽 ;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75쪽.

의 봉의산성으로 추정된다.⁷⁵⁾ 그런데 북한산성 전투 이후 신라는 영서 내륙 지역에서 춘천의 북방에 위치한 철원지역에 주목한 듯하다.

철원 일대는 서울-원산 간 교통로와 영서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절절지이자⁷⁶⁾, 철원-포천 경로를 통해 한강 하류 유역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었다.⁷⁷⁾ 또한 춘천지역으로부터 후방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였다. 더불어 서북 군사요충지인 북한산주와 동북 군사요충지인 비열홀을 연결하는 중간 경유지로서의 의미도 부각되었을 것이다. 결국 진평왕은 철원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직접 이 지역을 순행하고 비를 남겼던 것이다.⁷⁸⁾ 그렇다면 북한산성에서 철원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및 이를 관장하는 관방시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을 것이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는 608년 재차 신라를 공격하였다. 관련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C-①. 봄 2월 장수에게 명하여 신라의 북경(北境)을 습격하니 8천 명을 붙잡아 왔다. 여름 4월 신라의 우명산성을 빼앗았다.⁷⁹⁾

75)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2쪽.

76)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56쪽.

77) 장창은, 앞의 책, 2014, 318쪽.

78) 철원에서 신라 유물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성곽은 동주산성, 성산성이다. 신라 진출 초기에는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위치한 둘레 약 250m의 냉정리산성(할미산성)이 부대이동의 감시, 보급로 확보, 통신 기능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는데, 영역화가 진전되자 행정·군사 거점을 겸할 수 있는 동주산성과 성산성이 축조되었다고 한다(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 2013 ;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 2022).

7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9년. “春二月 命將襲新羅北境 虜獲八千

C-②. 2월 고구려가 북경(北境)을 침입하여 8천 명을 붙잡아 갔다. 4월 고구려가 우명산성을 빼앗았다.⁸⁰⁾

608년 2월 고구려가 ‘신라 북경(北境)’, 즉 신라의 북쪽 경계 또는 북쪽 영역(境域)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잡아갔고, 4월 고구려가 신라의 우명산성(牛鳴山城)을 공격해 빼앗았다. 이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전지인 ‘신라 북경’과 우명산성의 위치를 비정할 필요가 있다.

우명산성은 안변(安邊), 양구(楊口), 춘천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안변설은 음운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⁸¹⁾ 우명산성의 우명(牛鳴)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변도호부조에 기록되어 있는 철원수(鐵垣戍)의 철원(鐵垣)이 둘 다 ‘쇠울’로 훈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戍)는 고려시대 지역방어의 거점인 주진성(州鎭城)을 보조하는 군사시설로서,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거나 소규모 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전방 초소의 역할을 하였다.⁸²⁾ 특히 동계 지역에 설치된 수는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소규모 적에 대한 감시·통제·방어를 위해 설치된 전방 초소 내지 보루로 추정되며, 바다를 조망하기 유리한 바닷가 연변의 산이나 곳에 주로 위치했다.⁸³⁾ 실제 철원수는 안변도호부 동쪽 파천사(派川社)

人 夏四月 拔新羅牛鳴山城”

8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0년. “二月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四月 高句麗拔牛鳴山城”

81)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1970, 41쪽;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532쪽; 강중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신라문화』 24, 2004, 11쪽;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 2014, 169쪽; 전덕재, 「신라 진흥왕의 순행과 순행로 고찰」, 『신라사학보』 57, 2023, 31쪽.

82) 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鎭軍」,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61~263쪽; 宋容德, 「高麗時期 國境地域의 州鎭城編制」, 『韓國史論』 51, 2005, 95쪽.

83)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軍史』 99, 2016.

해구(海口)에 위치한 작은 석성(石城)이다.⁸⁴⁾ 만약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면, 평양성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은 육상교통로를 따라 신라의 동북방 거점인 비열홀(比列忽)로 진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철원수는 안변 동쪽의 바닷가에 위치하여 해상에서 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감시하기 적절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 즉, 고구려의 공격 방향과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이다. 더구나 철원수는 고려가 설치한 관방시설일 뿐 신라가 이 지역에 산성을 축조하고 활용했다는 기록 내지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하다.⁸⁵⁾

우명산성을 강원도 양구로 비정하는 견해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양구현 남쪽 40리에 우명산(牛鳴山)이 있다는 기록⁸⁶⁾에 근거한다.⁸⁷⁾ 방향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동지지』의 우명산은 지금의 봉화산(烽火山)으로 비정된다. 「여지도서(輿地圖書)」, 「해동지도(海東地圖)」 등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 양구현 남쪽에 위치한 고개 내지 산정에 봉수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 선조 대에 봉수대 설치를 계기로 봉화산으로 불리게 되면서⁸⁸⁾ 본래 이름인 우명산은 잊힌 듯하다. 그런데 현재 봉화산에는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⁸⁹⁾ 그리고 양구지역은 당시 영서 내륙 지방의 간선교통로에서 벗어나

8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함경도, 안변도호부, 고적(古跡). “鐵垣戌 在府東派川社海口有小石城 世稱戍城 在江原道歙谷縣境”

85) 삼국시대 ‘우(牛)’계 지명이 임진강~강릉·삼척을 잇는 선을 북방 한계로 하여 백제와 신라 영역에서만 발견된다는 연구도 참고가 된다(오광원, 「三國時代 ‘牛’系地名의 歷史地理學的 脈絡과 性格」, 『江原民俗學』 22, 2008).

86) 『대동지지』 권15, 강원도, 양구, 산수(山水). “牛鳴山 南四十里”

87) 金侖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娘臂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史學志』 21, 1987, 260쪽. 이 논문에서는 인제군(麟蹄郡) 남면(南面) 소양강 부근이라 하였는데, 현재 행정구역으로 양구군 남면이다.

88)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권』, 2008, 680쪽.

89)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楊口郡·麟蹄郡 軍事遺跡 地表調査報告書』, 2002, 171~172쪽.

있기에 고구려가 공격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춘천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명의 유사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⁹⁰⁾ 춘천의 옛 지명이 우두(牛頭) 내지 우수(牛首)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7세기 초 신라가 한강 하류 유역과 안변 일대를 안정적으로 영유하던 형세 속에서 고구려가 영서로(嶺西路)를 통해 춘천 일대로 진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거나,⁹¹⁾ 고구려가 북한산성 공략에 실패하자 신라의 한강 하류 유역 방어 거점을 우회하여 북한강 상류 유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춘천지역을 공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⁹²⁾

5세기에 고구려는 이천-평강/철원-화천-춘천-홍천-원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신라는 춘천지역에 637년(선덕왕 6) 우수정(牛首停)을 설치하였으며⁹³⁾ 나당전쟁기에는 군단을 배치·증설하였다.⁹⁴⁾ 이는 춘천 일대를 통하여 남하하려는 고구려군과 당군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춘천은 북방에서 신라 방면으로 남진을 시도할 때 거쳐야 할 요충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우명산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할 수

90)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7쪽; 박종서, 앞의 논문, 2010, 127쪽.

91) 張彰恩,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民族文化論叢』 55, 2013, 440쪽; 앞의 책, 2014, 307~308쪽.

92)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1쪽.

93) 『삼국사기』 권35, 잡지(雜志)4, 지리2, 신라, 삭주(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 置軍主” 우수주의 설치에 우수정(牛首停)의 설치를 의미한다(李文基, 앞의 책, 1997, 110~111쪽; 전덕재,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2009, 95쪽).

94)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嶺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嶺의 성립과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22, 2016;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嶺·二闕嶺의 설치와 확대」, 『韓國學論叢』 47, 2017;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110, 2023.

있다.⁹⁵⁾

고구려군은 우명산성을 공격하기 앞서 ‘신라 북경’을 공략하였다. 고구려가 608년 일련의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추정되기에⁹⁶⁾, 당시 교통로와 고구려군의 진공 방향을 감안한다면 ‘신라 북경’은 춘천 북쪽의 화천, 철원, 김화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608년 고구려는 ‘신라 북경’, 즉 철원 일대를 공격하여 성을 빼앗지 않고 포로를 붙잡아 가는데, 여기서 철원지역에 신라의 방어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608년 고구려가 철원, 춘천 일대를 공략한 것은 신라가 철원을 중심으로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데 있었다고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우명산성까지 빼앗으면서 고구려의 반격이 성공을 거두지만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다시 신라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수의 연이은 침공으로 고구려의 군사력은 요동 방면과 평양성 방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500리를 차지하는 전과를 올렸다.⁹⁷⁾ 결국 신라와 고구려는 7세기 초 한강 하류 유역과 영서 내륙 지역을 둘러싸고 일진 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 하류 유역과 철원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중

95) 박중서, 앞의 논문, 2022, 67쪽.

96)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7쪽.

97)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정월. “玄獎諭以勿侵新羅 蓋蘇文謂玄獎曰 我與新羅 怨隙已久 往者 隋人入寇 新羅乘釁 奪我地五百里 其城邑皆據有之 自非歸我侵地 兵恐未能已” 신라가 고구려 영역 500리를 빼앗은 시기를 598~614년으로 폭넓게 잡는 견해가 있는데(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6쪽), 608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에서 신라 영토를 획득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의 북진 시기는 608년 이후로 좁힐 수 있다. 따라서 612~614년 고구려가 수와 총력전을 치르는 틈을 타 신라가 고구려 영역을 차지했다고 이해하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장창은, 앞의 책, 2014, 310쪽). 신라가 차지한 고구려 땅 500리를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연결되는 삼방로 일대로 추정하기도 한다(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62~63쪽).

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포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629년에 일어난 낭비성 전투가 주목된다.

4.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608년 ‘신라 북경’과 우명산성에서의 전투 이후 신라와 고구려가 충돌한 지점으로 명확히 기록된 곳은 낭비성(娘臂城)이다. 629년 발생한 낭비성 전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①. 왕이 대장군 용춘(龍春)과 서현(舒玄), 부장군 유신(庾信)을 보내 고구려 낭비성을 침공하였다. 고구려인들이 성을 나와 진을 벌이니 군사의 기세가 매우 성하여 우리 군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 유신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퍼지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내가 버리와 옷깃이 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적진으로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 세 번 들어가고 세 번 나왔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장수의 목을 베거나 깃발을 뽑았다. 여러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어 죽이니, 그 성이 이에 항복하였다.⁹⁸⁾

9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1년 8월. “王遣大將軍龍春舒玄副將軍庾信侵高句麗娘臂城 麗人出城列陣 軍勢甚盛 我軍望之 懼殊無鬪心 庾信曰 吾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乃跨馬拔劍 向敵陣直前 三入三出 每入或斬將或奪旗 諸軍乘勝 鼓噪進擊 斬殺五千餘級 其城乃降”

D-②. 건복(建福) 46년 기축 가을 8월 왕이 이찬 임말리(任末里), 파진찬 용춘과 백룡(白龍), 소관 대인(大因)과 서현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내어 맞아 공격하니 우리 편이 불리해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서 다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유신은 이때 중당당주(中幢幢主)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였다.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효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해서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퍼지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하니 제가 그 버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갱을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이를 보고 승세를 타고 힘써 공격하여 5천여 명을 목 베어 죽이고 1천 명을 사로잡으니, 성안에서 두려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⁹⁹⁾

신라는 629년 김용춘을 대장군으로 한 원정군을 조직하여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였다. 전투 초기에는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으로 신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사기마저 떨어지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 그런데 김유신의 분전을 계기로 승세를 타, 결

99)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建福四十六年己丑秋八月 王遣伊飡任末里波珍浪龍春白龍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城 麗人出兵逆擊之 吾人失利 死者衆多 衆心折衄 無復闘心 庚信時爲中幢幢主 進於父前 脫胄而告曰 我兵敗北 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 盖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迺跨馬拔劍 跳坑出入賊陣 斬將軍 提其首而來 我軍見之 乘勝奮擊 斬殺五千餘級 生擒一千人 城中兇懼無敢抗 皆出降”

국 신라군은 고구려군 5,000여 명을 죽이고 1,000명을 사로잡 으면서 낭비성의 투항을 이끌어내며 승리하였다.

먼저 낭비성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여러 연구가 있었다. 청 주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보는 견해¹⁰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칠중성으로 파악하는 견해¹⁰¹⁾, 함경도 덕원·안변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¹⁰²⁾, 포천 반월성으로 비정하는 견해 등이 제기되 었다. 이 가운데 6~7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는 경기도 북부지역이라는 점, 포천의 고구려 지명이 비성군(臂城郡)이었다 는 점, 반월성에서 ‘마홀’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포천의 고구려 지명과 일치한다는 점, 반월성에서 7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고구려 고고자료와 그 이후의 신라 고고자료가 함 께 확인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건대, 낭비성은 포천 반월성 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¹⁰³⁾

고구려가 반월성으로 진출한 시기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 다.¹⁰⁴⁾ 629년 이전에 고구려가 남방 진출을 시도한 바는 608년 ‘신라 북경’ 및 우명산성 공격이 있다. 앞서 서술한 바대로 신라

100)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 『史學志』 10, 1976 ; 이도학,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旦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32, 2013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2023, 131~138쪽.

101) 金侖禹, 앞의 논문, 1987, 278~282쪽.

102) 池內宏, 「眞興王의 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吉川弘文館, 1960, 27~28쪽 ;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 40, 2011, 26쪽 ; 김진한, 앞의 논문, 2018, 164쪽.

103) 서영일, 앞의 논문, 1995 ; 박종서, 앞의 논문, 2010, 140~143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18~319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1~182쪽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 박종서, 앞의 논문, 2022, 71~86쪽.

104) 590년대 전반,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군이 반월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590년대 전반 이전에 고구려가 낭비성을 차지하였다고 이해한다(전덕재, 앞의 논문, 2023, 30쪽). 또는 620년대 대당관계가 안정되어 남방으로 진출할 여력이 생기면서 고구려가 낭비성을 차지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장창은, 앞의 책, 2014, 320쪽).

는 603년 북한산성 전투 승리를 계기로 북한산성-포천-철원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철원 일대까지 진출하여 이곳을 신라의 영역으로 삼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608년 철원과 춘천 등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고구려군의 일부가 철원 일대에서 북한산성 방면으로 이동하여 낭비성을 차지했다고 이해된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가 현존하는 반월성 전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토 유물과 입지 등을 고려하면 서치성 일대¹⁰⁵⁾나 장대지 주변 고지대¹⁰⁶⁾에 소규모 관방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림 6〉 반월성 중 고구려 보루 추정지



신라는 고구려-수 전쟁을 기회로 삼아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여 500여 리를 획득하면서 영서 내륙 지역을 재차 확보하였지만, 반월성은 여전히 고구려군의 수중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625년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가 조공로를

10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3~534쪽.

106)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2쪽.

막으려고 하며 거듭 침입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¹⁰⁷⁾ 비록 신라가 과장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일정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623~628년 신라는 거의 매년 백제의 침입을 받았으며, 627년 백제 무왕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대병(大兵)을 웅진에 주둔시켰다.¹⁰⁸⁾ 따라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고구려가 반월성을 전초기지로 한강 하류 유역을 위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신라군은 단순히 반월성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군도 마찬가지였다. 죽거나 포로가 된 고구려군이 6,000명이라는 사실은 낭비성 전투에 동원된 고구려군과 신라군의 병력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낭비성 전투 당시 고구려군 총병력을 7,000~8,000명, 신라군 총병력을 최소 10,000명으로 추산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¹⁰⁹⁾ 신라 병사들이 고구려군의 군세(軍勢)를 보고 두려워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므로, 적어도 고구려군은 신라군과 맞먹는 병력을 동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에는 포천 일대 관방시설에 배치된 병력뿐만 아니라 임진강 유역에서 동원된 병력도 상당수를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동원한 병력 중 상당수를 잃었다. 따라서 신라군은 반월성 북쪽에 위치한 성동리산성과 포천 분지에서 연천 방면으로 나아가는 위치에 있는 연천 대전리산성 일대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¹¹⁰⁾ 그렇다면 신

10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47년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使不得朝 且數侵入” ; 『구당서』 권189상, 열전139상, 유학, 주자사(朱子奢). “貞觀初 高麗百濟同伐新羅 連兵數年不解 新羅遣使告急”

108)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28년 7월.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109)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 2016, 37쪽.

110)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5쪽과 박종서, 앞의 논문, 2022, 85쪽에서는 더 나

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임진강을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로 삼고 한강 하류 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자 낭비성 전투를 추진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¹¹¹⁾

낭비성 전투 이후 반월성의 군사적 기능이 확대되고 포천지역 및 한강 유역에서 점하는 군사적 위상도 높아졌을 것이다. 7세기 중반 성벽의 수축, 동문지 건설, 대형 건물의 건축 등이 시행되었다고 보는 발굴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반월성을 중심으로 남북, 동서 방향의 교통로를 따라 관방시설이 축조되어 포천지역의 관방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로 추정된다.¹¹²⁾ 남북방향으로 냉정리산성-성동리산성-반월성, 동서방향으로 연천 대전리산성-고소성-주원리산성-성동리산성이 각각 철원-포천-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임진강-연천-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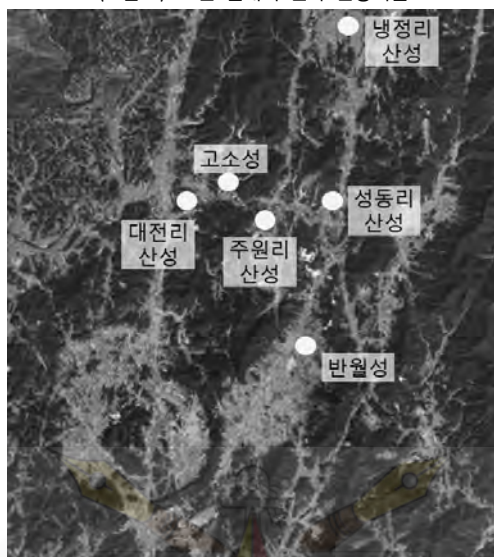
아가 철원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고구려-수 전쟁 때 신라가 철원 일대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1) 김강훈, 앞의 논문, 2020, 195쪽.

112) 權純珍,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 2007, 35~36쪽.

113) 포천지역 산성의 배치와 관방체계에 관해서는 서영일, 앞의 논문, 1997 참조.

〈그림 7〉 포천 일대의 신라 관방시설



신라가 포천지역에 구축한 관방체계가 이후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 양상은 사료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7세기 중반 한반도 중부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660년 10월 고구려는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칠중성을 포위하였고, 이에 맞서 신라는 20여 일을 버텼지만 결국 신라군을 지휘하던 필부는 전사하였다.¹¹⁴⁾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칠중성은 임진강과 적성 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지점이 칠중성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¹¹⁵⁾ 따라서 고구려는 임진강 중류 유역과 한강 하류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칠중성을 함락해야

11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 무열왕 7년 11월 ; 『삼국사기』 권47, 열전7, 필부.

115) 서영일, 앞의 책, 1999, 251쪽.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661년 5월 고구려는 말갈과 함께 경기도 여주 일대로 추정되는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가 공격하였다.¹¹⁶⁾ 진격로는 고구려-신라 간의 주요 교통로인 영서 내륙 지역을 지나는 노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철원-화천-춘천-홍천-양평-여주¹¹⁷⁾ 내지 춘천-홍천-원주-여주¹¹⁸⁾를 상정할 수 있다.¹¹⁹⁾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술천성 공격을 단행한 배경은 고구려의 전략·전술, 신라의 방어체계, 고구려-당 관계와 백제부흥운동 등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신라가 낭비성 전투 이후 포천 일대에 구축한 관방체계를 하나의 배경으로 보고자 한다.

660년 고구려는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교통로를 통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비록 고구려군은 칠중성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한 듯하지만,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신라가 한강이북에 구축한 관방체계가 작동한 것이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된다. 신라는 임진강과 한탄강 남안에 동서방향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하고 칠중성-대모산성-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종심방어선

11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 무열왕 8년 5월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0년 5월 ;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中).

117) 서영일, 앞의 책, 1999, 242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29~330쪽.

118)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96쪽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69쪽.

119)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242~244쪽에서는 660년 칠중성을 차지하면서 확보한 교통로를 따라 남하한 고구려 지상군과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 진격한 고구려 수군이 함께 술천성을 공격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말갈이 주력인 고구려 육군은 영서 내륙 지역으로 진군하였고, 고구려군이 주력인 수군은 평양을 출발하여 북한산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2016, 76~80쪽).

을 운용하였다.¹²⁰⁾ 결국 660년 고구려군은 한강~임진강 유역 신라 관방체계의 일부만 무너뜨렸을 뿐이었고 북한산성 공략에는 실패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라는 철원-포천-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냉정리산성-성동리산성-반월성-아차산성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위치한 냉정리산성은 철원 방면에서 접근하는 적을 감제하는 보루이며, 성동리산성은 철원 방면과 한탄강 유역에서 진입하는 적을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반월성은 포천지역 관방체계를 총괄하며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최종방어선이었다고 추정된다.¹²¹⁾ 따라서 661년 고구려는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무력화하고 북한산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영서 내륙 지역으로 우회하는 공격로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67년 당 고종은 웅진도독부의 유인원과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태에게 비열도(卑列道)를 경유하여 평양으로 진군하라고 명하였다.¹²²⁾ 그리고 668년 문무왕은 원정군을 편성하면서 김인태를 비열도총관(卑列道總管)으로 임명하였다.¹²³⁾ 비열도는 비열홀 즉 안변을 중간 거점으로 삼아 서쪽으로 진군하여 평양에 이르는 경로일 것이다. 유인원과 김인태가 지휘한 군사들은 한강 유역을 출발하여 동북 방향으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이용하여 비열홀로 이동하였을 것이다.¹²⁴⁾

120)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138쪽.

121) 서영일, 앞의 책, 1999, 284~292쪽 ;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137~138쪽.

12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7년 7월.

12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6월 21일.

124) 池内宏, 「唐の高宗の高句麗討滅の役と卑列道・多谷道・海谷道の称」, 『東洋學報』 17-1, 1928, 108쪽 ; 앞의 책, 1960, 263~264쪽에서는 강원도의 북한강 유역으로부터 철령을 넘어 안변으로 진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훈, 앞의 책, 2012, 77쪽에서는 서울-의정부-연천-철원-평강-추가령-안변의 경로로 보았다.

한강 유역의 서울에서 안변으로 가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언급된다. ① ‘서울-양주-연천-철원-평강-추가령-안변’과 ② ‘서울-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안변’이 그것이다.¹²⁵⁾ 이 중 667년과 668년 활용된 경로는 ②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먼저 진평왕이 순행한 곳으로 추정되는 철원 고석정은 철원 남부 지역에 있으며 ②의 영평에서 김화로 가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7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②의 경로를 더 많이 활용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고구려에게 비열홀로 진군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①보다는 남쪽에 위치한 경로인 ②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①은 ②에 비해 거리가 짧으며 ①의 추가령이 ②의 철령에 비해 평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변에서 평강까지 긴 골짜기와 협곡이 있다.¹²⁶⁾ 따라서 ①은 대규모 병력의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즉, 667년, 668년 한강 유역에서 출발한 나당연합군 중 일부는 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을 거쳐 비열홀에 도착하였고, 군비를 재정비한 후 평양성 공격에 나섰을 것이다.

125) 권순진, 앞의 논문, 2013, 327~331쪽 ; 張彰恩, 「眞興王代 新羅의 北方進出과 對高句麗 領域向方」, 『新羅史學報』 24, 2012, 21쪽 ; 앞의 책, 2014, 232쪽, 235쪽

126) 高丞嬭, 「18, 19세기 咸境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 1996, 86~87쪽 ; 최동원,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慶興路의 형성과 기능-」, 『北岳史論』 11, 2020, 56~57쪽.

〈그림 8〉 서울-안변 경로



고구려 멸망 후 비열홀 출신의 가군사(假軍師) 세활(世活)은 평양소성(平壤少城) 전투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¹²⁷⁾ 이는 비열홀 방면에서 평양성을 공격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고구려 멸망전에서 포천지역은 전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열홀이 평양지역을 공격하고 한강 하류 유역을 방어하는 군사요충지로 부각되면서¹²⁸⁾ 한강 하류 유역에서 비열홀에 이르는 교통로의 군사적 중요성도 높아졌다. 그에 따라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신라군이 비열홀 방면으로 출입하는 관문으로서 관리, 정비되었을 것이다.

나당전쟁기 당군은 평양에 군영을 설치하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부흥세력을 무너뜨리며 남하하였다. 673년 윤5월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은 호로하(瓠瀾河) 서쪽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격파

12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10월 22일.

128) 이상훈, 앞의 책, 2012, 75~77쪽.

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675년 신라군과 당군 간에 전투가 일어난 장소도 대체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찾을 수 있다.¹²⁹⁾ 따라서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신라군이 동북방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던 포천지역 관방체계는 나당전쟁기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675년 9월 일어난 매소성(買肖城) 전투¹³⁰⁾는 나당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전투로 인식된다. 매소성의 위치는 연천 대전리산성 내지 양주 대모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¹³¹⁾ 대전리산성은 서쪽으로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에서 양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남동쪽으로 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점에 입지하고 있다.¹³²⁾ 그렇다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대전리산성 일대에 주둔하며 한강 하류 유역으로 진입하려는 당군을 저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소성을 대모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포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군은 양주 일대에서 남하하려는 당군의 측후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675년 말갈은 아달성(阿達城)과 적목성(赤木城)을 공격하였다.¹³³⁾ 말갈은 당군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아달성은 강원도 이천, 적목성은 강원도 회양으로 비정된다. 이 전투의 성격에 대해서

129) 나당전쟁의 주요 전황은 이상훈, 앞의 책, 2012, 110~142쪽 및 212~220쪽 참조.

1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29일.

131) 매소성의 위치에 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 권창혁,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北岳史論』 18, 2023, 259~264쪽 참조.

132)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문물연구』 34, 2018, 112쪽.

13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¹³⁴⁾,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가 나당전쟁기에 여전히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671년 신라가 당에게 비열성(卑列城)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한¹³⁵⁾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나당전쟁 초기부터 한반도 서북부에서 남하하는 당군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안변 일대에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침공해 오는 당군에 대비하는 방어전략을 준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당전쟁기에 포천지역이 전장으로 기록된 자료는 없으나, 675년 신라군이 당군에게 승리한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 중에 일부는 포천지역이 무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7세기 신라의 대고구려전쟁과 대당전쟁의 주무대는 한강~임진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당은 한반도 서북부와 동북부에서 한강 유역을 향하여 공세를 가하였다.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구축한 관방시설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당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³⁶⁾ 그렇다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구축한 광역의 관방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관방체계로 기능하면서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4) 식량 확보를 위한 약탈전(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38쪽), 강원 북부와 함경도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행동(이상훈, 앞의 책, 2012, 219~220쪽), 서북방면의 주공(主攻)을 보조하는 동북방면의 조공(助政)이 남하하면서 치른 전투(권창혁, 「675년 阿達城 전투와 신라의 靺鞨 인식」, 『신라문화』 60, 2022)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13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136)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5. 결론

이상에서 시기적으로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공간적으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천지역은 광개토왕대에 일시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다시 백제로 귀속되거나 양국의 접경지대로 변모하였다. 475년 장수왕의 남정(南征)을 계기로 포천지역은 고구려에 귀속되고, 이는 6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포천지역 관방 유적 중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확인되는 곳은 반월성과 성동리산성이다. 반월성은 포천 분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철원-영평천-포천천-왕숙천을 거쳐 한강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를 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반월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구 및 출토 유물은 수량이 적을뿐더러 출토 층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군사 및 행정 거점으로 활용했다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대신 고구려는 성동리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

이 시기 반월성을 비롯하여 포천지역에서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다른 교통로에 비해 빈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먼저 한탄강-영평천-포천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기에 포천지역의 중요성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고구려는 원산만 일대의 예(말갈)를 동원하여 한강

유역의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한강 하류 유역을 영유하게 되면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관방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7세기가 되면 변화가 감지된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고구려는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하면서 한강 유역 회복에 나선다. 공격로는 철원-포천-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였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진평왕이 철원으로 순행하는 등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체계를 재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고구려는 608년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여 신라의 의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였고, 일부 고구려군은 철원-포천 방면을 따라 남하하여 반월성에 소규모 보루를 축조하며 주둔하였다.

고구려가 반월성, 즉 낭비성을 전초기지로 삼아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자, 신라는 629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로부터 낭비성을 빼앗았다.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삼국사기』의 낭비성 전투 기사 외에 7세기 반월성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7세기 중반 신라와 고구려의 전쟁, 신라와 당의 전쟁이 한강 유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반월성을 중심으로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한강~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의 하위에 속한 지역 관방체계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삼국지』, 『구당서』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서울: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1997
-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2001
- 경기도박물관, 『抱川 自作里遺蹟』 I, 2004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7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楊口郡·麟蹄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2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2009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성 남벽』, 2019

2. 저서

- 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울: 서경문화사, 2021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서울: 혜안, 2006
-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울: 서경, 2006
- 서봉수,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고양: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21

-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9
-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68
-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7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서울: 주류성, 2012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景仁文化社, 2014
- 정호섭,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서울: 새문사, 2016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東京: 吉川弘文館, 1960

3. 논문

- 강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신라문화』 24(2004)
<http://uci.or.kr//G901:A-0001969885@N2M>
- 高丞嬉, “18, 19세기 咸境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1996)
<http://uci.or.kr//G901:A-0001108491@N2M>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2>
- 權純珍,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2007)
<http://uci.or.kr//G901:A-0002554292@N2M>
-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2013)
<http://doi.org/10.17934/jmhs..135.201306.307>
-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2022)
<http://doi.org/10.33252/sih.2022.12.75.161>
- 권창혁, “675년 阿達城 전투와 신라의 靺鞨 인식”, 『신라문화』 60(2022)
<http://doi.org/10.37280/JRISC.2022.6.60.201>

- 권창혁,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北岳史論』 18(2023)
<http://doi.org/10.37288/bukak.2023.18.7.245>
- 금경숙,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韓國史學報』 11(2011)
<http://uci.or.kr//G901:A-0001571548@N2M>
- 김규운 · 성재현,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2011)
<http://uci.or.kr//G901:A-0003059067@N2M>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2020)
<http://doi.org/10.31218/TRKH.2020.06.138.171>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2019)
<http://doi.org/10.35160/sjekh.2019.12.33.333>
- 김선숙, “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 『서울학연구』 69(2017)
<http://doi.org/10.17647/jss.2017.11.69.49>
- 金侖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娘臂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史學志』 21(1987)
- 김진광, “『三國史記』 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2009)
<http://uci.or.kr//G704-001250.2009.35..005>
- 김진한,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韓國文化』 83(2018)
<http://doi.org/10.22943/han.2018..83.005>
- 金虎俊, “抱川 半月山城 研究(I)”, 『文化史學』 20(2003)
<http://uci.or.kr//G901:A-0001866788@N2M>
- 文昌魯, “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 『韓國學論叢』 38(2012)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12.38..003>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 · 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2011)
<http://uci.or.kr//G704-000054.2011..82.016>

- 박성현, “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2021)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2094175@N2M>
-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2006)
<http://uci.or.kr//G901:A-0002783388@N2M>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2010)
<http://doi.org/10.36093/ks.2010..17.004>
- 朴鐘書,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종서, “6세기 중반~7세기 高句麗·新羅의 境界와 그 變遷”, 『사학지』
62(2022)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2023)
<http://doi.org/10.22827/seoul.2023..113.001>
- 배기동, “선사시대”, 『抱川郡誌(上)』(1997)
-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
3(1999)
<http://uci.or.kr//G901:A-0001459624@N2M>
- 백종오,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2004)
<http://uci.or.kr//G901:A-0001923363@N2M>
- 白種伍, “南韓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2007)
<http://doi.org/10.23024/pah.2007..26.279>
-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
문화』 25-2(2022)
<http://uci.or.kr//G901:A-0010967789@N2M>
- 徐奉秀,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단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軍史』 81(2011)
<http://doi.org/10.29212/mh.2011..81.1>
-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1995)
<http://uci.or.kr//G901:A-0001589293@N2M>

-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解空口單〉銘 기와의 考察”, 『史學志』 29(1996)
- 徐榮一, “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영속관계”, 『文化史學』 6·7(1997)
<http://uci.or.kr//G901:A-0001762303@N2M>
-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2000)
<http://uci.or.kr//G901:A-0002192984@N2M>
- 徐榮一,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2001)
<http://uci.or.kr//G901:A-0002194069@N2M>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2006)
<http://uci.or.kr//G901:A-0002290420@N2M>
-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http://uci.or.kr//G901:A-0003455639@N2M>
-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http://doi.org/10.35300/bjclab.56.0.201702.199>
- 宋容德, “高麗時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2005)
-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남진”, 『한국상고사학보』 105(2019)
<http://doi.org/10.18040/sgs.2019.105.149>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http://doi.org/10.35160/sjekh.2022.08.41.5>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8)
-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문물연구』 34(2018)
<http://doi.org/10.23117/jcr.2018.34.34.004>

- 양시은,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2014)
<http://uci.or.kr//G901:A-0003498807@N2M>
- 오강원, “三國時代 ‘牛’系地名의 歷史地理學的 脈絡과 性格”, 『江原民俗學』 22(2008)
<http://uci.or.kr//G901:A-0002568787@N2M>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2012)
<http://uci.or.kr//G901:A-0003116377@N2M>
-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2002)
<http://uci.or.kr//G901:A-0001724257@N2M>
- 여호규, “7세기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외교적 선택”,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2019)
- 윤성호, “『삼국사기』 溫達傳 所載 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2017)
<http://doi.org/10.21490/jskh.2017.02.66.45>
-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8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2019)
<http://uci.or.kr//I410-ECN-0101-2019-911-000531734@N2M>
-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2019)
<http://doi.org/10.29212/mh.2019..110.125>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2019)
<http://doi.org/10.21490/jskh.2019.02.74.289>
- 윤성호,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先史와 古代』 67(2021)
<http://uci.or.kr//G901:A-0010599865@N2M>

- 윤성호, “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방성 (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21)』, 한성백제박물관(2022)
- 이도학,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旦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32(2013)
<http://uci.or.kr//G901:A-0003321754@N2M>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2023)
<http://doi.org/10.19120/cy.2023.4.52.109>
-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2016)
<http://doi.org/10.22861/tiks.2016..17.31>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http://doi.org/10.35160/sjekh.2022.08.41.125>
-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110(2023)
<http://doi.org/10.37331/JKAH.2023.6.110.219>
-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 『史學志』 10(1976)
<http://uci.or.kr//G901:A-0002898838@N2M>
-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2010)
<http://uci.or.kr//G901:A-0002830427@N2M>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2019)
<http://doi.org/10.31218/TRKH.2019.06.134.39>
-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1995)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2006)
-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 『서울학연구』 81(2022)
<http://doi.org/10.17647/jss.2020.11.81.107>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2014)
<http://doi.org/10.16957/sa..81.201401.107>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911-001975552@N2M>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의 발발과 시대적 의미”, 『新羅史學報』 45(2019)
- 전덕재,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2009)
<http://uci.or.kr//I410-ECN-0102-2022-900-000875762@N2M>
-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2014)
<http://doi.org/10.29212/mh.2014..91.149>
-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911-000865193@N2M>
- 전덕재, “신라 진흥왕의 순행과 순행로 고찰”, 『新羅史學報』 57(2023)
<http://uci.or.kr//G901:A-0011113454@N2M>
-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城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2018)
<http://doi.org/10.37331/JKAH.2018.03.89.175>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2021)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985571@N2M>
-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http://uci.or.kr//G901:A-0011027781@N2M>
-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 40(2011)
<http://uci.or.kr//G701:C-00056467230@N2M>
- 車敏浩, “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동원,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慶興路의 형성과 기능-”, 『北岳史論』 11(2020)
<http://uci.or.kr//G901:A-0010949505@N2M>

- 최영인, “4세기~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 『청람사학』 31(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116557@N2M>
- 최종택, “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
-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史叢』 32(2014)
<http://doi.org/10.16957/sa..81.201401.3>
-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78(2015)
<http://uci.or.kr//G901:A-0003779740@N2M>
-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http://doi.org/10.35160/sjekh.2016.04.22.233>
- 韓準洙, “신라 통일기 閼衿幢·二閼幢의 설치와 확대”, 『韓國學論叢』 47(2017)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311287@N2M>
-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軍史』 99(2016)
<http://doi.org/10.29212/mh.2016..99.39>
- 황보 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軍史』 58(2015)
<http://uci.or.kr//G901:A-0003672322@N2M>
-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1970)

(Abstract)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and Banwol fortress from the late 5th to mid-7th centuries

Kim, Kang-hun

This article is a study that examines the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which is centered on Banwol Fortress, from the late 5th to the mid 7th centuries.

Since 475, Goguryeo had built a number of defense facilities in the Han River to Imjin River basin. However, Goguryeo's fortresses are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Pocheon area. This is because the main route in the northeast-southwest direction formed along the Chugaryeong Tectonic Valley did not match the southward direction of Goguryeo. In addition, Goguryeo didn't need to attack downstream of the Han River by mobilizing Ye (Malgat) in the Wonsan Bay area. Therefore, the Banwol Fortress in the late 5th and mid 6th centuries was not actively used as a defense facility. Instead, Goguryeo operated the Pocheon area centering on the Seongdong-ri Fortress.

Goguryeo took military action to recover the Han River basin in 603. At this time, Goguryeo used a route leading to Cheorwon-Pocheon-Bukhansanseong. With this battle, Silla confirmed the military geographical importance of the Pocheon area. Goguryeo attacked the midwest inland region of Gangwon and advanced toward Cheorwon-Pocheon in 608. Goguryeo threatened Silla's domination of the Han River basin by occupying the Nangbi Fortress, now presumed to be Banwol Fortress. Silla attacked the Nangbi Fortress and occupied it in 629, and after that, Silla constructed the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centering on Banwol Fortress. This served as a factor facilitating Silla winning the war against Goguryeo and Tang.

Keywords : Goguryo, Silla, Han River basin, Pocheon, Banwol
Fortress, Seongdong-ri Fortress, Nangbi Fortres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105-159
<https://doi.org/10.29212/mh.2023..129.1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구려 남부전선 내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

신광철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목 차

1. 서론
2. 호로고루 연구 略史
3.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고루’
4. 맺음말

초 록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의 최후방이자 고구려 멸망기까지 고구려의 內地로 남은 곳이다. 이에 남부전선 내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며, 오히려 서부전선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확보, 병력 운용과 영토 방어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였다.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제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하천을 따라 20개소에 달하는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성곽과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대 국경과 유사한 ‘線’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호로고루는 지안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으로서 이를 통해 군사·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重鎭으로 기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형상 渡河에 제한적인 임진강에 있어 하류 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탄을 監制할 수 있기에 호로고루의 지정학적 위상은 임진강 유역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교통로를 통해 남하한 고구려군은 이내 한반도 중부 이남 각지에서 활발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호로탄 일대를 감제하는 호로고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 멸망기까지 호로고루의 위상은 단순히 임진강 유역의 성 1개소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남쪽 국경의 關門,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로서 고구려군의 威力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고구려, 남부전선, 임진강, 호로탄, 호로하, 호로고루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5,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구려 남부전선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

황해도 일대의 영역화를 마무리한 고구려는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중요 거점을 먼저 점유한 뒤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백제의 성곽과 교통로, 기반 시설을 재활용하기도 했지만, 별도로 보루와 같은 소형의 관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을 이주시켜 마을을 이루는 등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점령지 통치 방식은 새로 확보한 영토 전역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분포·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임진강 유역에서는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들이 고르게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남부전선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임진강 유역의 영역화가 완료되어 그 일대가 고구려 멸망기까지 ‘자국 영토’로 확실하게 인식됐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¹⁾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의 최후방이자 고구려 멸망기까지 고구려의 内地로 남은 곳이다. 이에 남부전선 내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며, 오히려 서부전선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통치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확보, 병력 운용과 영토 방어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에 고구려는

1) 양주 분지와 한강 이북 사이의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 등이 골고루 확인되고 있지만, 임진강 유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지 않다. 추가 자료가 나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임진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하천을 따라 20개소에 달하는 관방 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성곽과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대 국경과 유사한 ‘線’ 형태의 국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호로고루는 지안 국내성 및 평양 대성산성과 축조기법·구조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곳으로서 이를 통해 군사·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重鎮으로 기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형상 渡河에 제한적인 임진강에 있어 하류 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탄을 監制할 수 있기에 호로고루의 지정학적 위상은 임진강 유역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호로고루의 위상과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임진강 유역의 관방 유적이 고구려 남부전선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호로고루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3장에서는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 속에서 호로고루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호로고루 연구 略史

가. 현장조사 略史

임진강-한탄강 일대에서 가장 먼저 조사된 유적은 육계토성 내부의 주월리유적으로 1996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제2호 주거지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었다.²⁾ 이후 두 차례에

2)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 지역』, 1999;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查報告書』, 2006.

걸쳐 당포성이 조사되었으며³⁾, 1990년대에는 호로그루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⁴⁾ 또한, 남한지역 내 고구려 유적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실태 조사 및 정비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가 시행되었다.⁵⁾

2001~201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호로그루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⁶⁾ 2003~2017년 사이에는 은대리성이 세 차례 조사되었으며⁷⁾, 전곡리토성으로 알려졌던 유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고구려의 흔적이 확인되었다.⁸⁾ 2010~2012년에는 무등리 2보루⁹⁾, 2017년에는 무등리 2보루 남쪽의 무등리 1보루에 대한 시·발굴이 이루어졌다.¹⁰⁾ 6차 조사까지 마무리된 파주 덕진산성은 2020년에 외성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상태이며¹¹⁾, 2022년

- 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경기도 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 4)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京畿道 漣川郡篇-」, 『문화재』 25, 199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판)』, 2000.
- 5)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Ⅱ(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 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 8)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경기도·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지구』, 2010;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 9)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10)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11)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坡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Ⅱ: 1~5次 學術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18;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에는 고성산보루가 고구려 관방유적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¹²⁾

이상의 조사 성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진강 유역에서 중요하게 인식될만한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로그루에 대해 최초로 인식한 시점은 조선 후기이다. 효종 7년(1656)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 의하면 임진강은 ‘단수’ 또는 ‘단강’으로 불렸으며, 호로탄은 임진강의 유일한 ‘여울물[灘]’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호로탄 가에 있는 호로그루에 대해 ‘두 보루[壘]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석벽으로 이루어져 견고하다. 전하는 말로는 삼국시대 때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라고 적고 있어 17세기 중반의 인식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¹³⁾

한편, 효종 9년(1658) 6월, 허목은 한강 하류에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3박 4일간 주위를 둘러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허목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89년에 간행한 『기언별집』에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임진강을 ‘청강’, ‘호로탄’ 앞을 흐르는 물길은 ‘호로하’, 그 상류는 ‘육계’ 등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임진강을 부르고 있다. 또한, 육계 앞에 있는 ‘옛 보루[古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육계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류의 옛 성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¹⁴⁾ 이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12) (재)수도문물연구원,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13) 『東國輿地志』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湍水: 又名湍江 … 又過鳳凰巖, 至烏島城, 與漢水會, 西入于海. … 瓠蘆灘: 在府東三十里, 卽湍水灘. 新羅文武王時, 唐劉仁軌率兵, 絕瓠蘆河, 攻新羅七重城, 卽此灘. … 瓠蘆古壘: 在府東三十二里, 瓠蘆灘上. 其東卽積城縣界. 有二壘隔江相對, 因石壁爲固. 相傳三國時屯戍處.”

14) 『記言別集』卷15, 記行 戊戌舟行記, “至臨津灘下, 爲清江遇. 順風舉帆, 自臨津

보는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을 지칭한 듯하다.

그와 달리 『기연』에도 호로하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호로하에 있는 옛 보루 앞의 여울을 호로탄이라고 부르며, 남쪽으로 강을 건너면 옛 ‘칠중성 銅浦’가 나온다고 한다.¹⁵⁾ 앞서 허목의 기행문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중간에 ‘육계’ 및 육계로 유입되는 ‘사미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동국여지지』에 덕진산성의 廢城 여부가 기록된 것을 보면¹⁶⁾, 당시 임진강 유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古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史跡도 일부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서도 호로탄과 사미천 등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에 대한 설명이 후대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편, 『강한집』(1790)이나 『해동역사』(1823)에는 호로하(표하)와 칠중성만 언급되어 있지만¹⁷⁾, 1853~1856년에 발간된 『여도비지』에는 칠중성을 비롯해 아미성, 육계(토)성, 호로그루, 수철성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¹⁸⁾ 1861~1866년에 발간된 『대동지지』

上, 江岸始有石壁, 往往有深樹茂林. … 日晚舉帆, 上瓠蘆灘, 此瓠蘆河也. 其上六溪, 又有古壘. 前灘極險, 沙彌川入於此. 上流有古城, 隔江相對, 因石壁爲固. 江上父老相傳, 古萬戶壘云, 此未可知. 麗時數被兵於契丹, 此戰場也. 至今有古迹如此耶, 其上重城, 今積城縣. 亦曰此新羅, 句麗兩國之境云.”

15) 『記言』卷27下, 山川(上), “瓠蘆河, 在下流鷗鷺巖下. 有古壘, 因江壁爲固. 其灘曰瓠蘆灘. 其南涉江, 古七重城銅浦, 在瓠蘆灘上.”

16) 『東國輿地志』卷2, 京畿右道 長湍都護府, “德津山城: 在府西■里. 城跨斷山, 俯壓湍水. 石築, 周不知步數. 舊廢, 光海時, 府使李曙修築. 今復廢圯.”

17) 『江漢集』卷13, 神道碑 唐故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新羅國上將軍金公神道碑銘, “高句麗陰遣精兵伏瓠河, 伺公渡岸.”

『海東繹史 續集』卷14, 地理考14 新羅, “舊唐書列傳: 上元二年, 新羅文武王十五年, 劉仁軌率兵, 徑渡瓠蘆河. 破新羅北方大鎮, 七重城.”

18) 『輿圖備志』卷4, 京畿道 積城縣, “古城: 治西二里, 卽七重城, 今呼重城縣. 治古在山城之南, 石築, 周二千二百五十六尺. 有一井, 深不可測. 峨眉城: 治東北十八里,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六溪城: 治西七里. 土築, 周七千六百九十二尺. 與長湍瓠蘆古壘相對. 水鐵城: 治東十里, 與楊州水鐵城相對.”

에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¹⁹⁾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단, 『여도비지』와의 차이점을 꼽자면 칠중성을 ‘토탄성’²⁰⁾으로, 호로고루를 ‘호로탄고루’로 적은 점 등인데, 이는 고적과 관련된 전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호로고루 전경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



*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https://www.museum.go.kr/dryplate/main.do>) 검색

- 19) 『大東地志』卷3, 京畿道 積城, “古城: 南二里, 一云吐吞城, 今稱重城. 周二千二百五十六尺, 井一, 深不可測. 峨眉城: 東北十八里, 周一千九百三十七尺. 六溪城: 西七里, 周七千六百九十二尺, 與長湍瓢蘆灘古壘隔江相對. 水鐵城: 東二十里, 與楊州水鐵城相對.
- 20)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教美術』 7, 1983, 22쪽.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吐吞古城으로 적혀 있는데, 홍재선은 토탄이 말 그대로 ‘토하고 삼키다’, 즉, ‘뺏기고 빼앗는’ 삼국시대 이래 격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호로그루는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아 1916년에 발간된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에 상세한 조사 내용이 실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호로그루의 도면·사진과 함께 삼국시대 성곽으로서의 중요성이 서술되었는데²¹⁾, 이는 호로그루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보고인 셈이다(그림 1). 이후 1942년에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²²⁾와 1977년 발간된 『문화유적총람』²³⁾에서도 호로그루를 삼국시대 石城으로 인식하였으며, 1990년에 발간된 『한국의 성곽과 봉수』²⁴⁾에서는 호로그루의 또 다른 이칭으로 二殘眉城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호로그루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었지만, 조선시대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더 구체적인 현황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백제가 판축 토성을 구축한 뒤 고구려가 석축을 쌓고, 신라가 마지막으로 성을 보강한 것으로 보았다.²⁵⁾ 이후 1993년에는 육군박물관에서 더욱더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고구려가 호로하를 건너는 백제 또는 신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한 제일선의 진지로 해석하였다.

한편, 1991년 지표조사 때까지만 해도 성 내부가 양호한 상태였으나 1994년부터 성 내에 축사가 건설되는 등 빠르게 훼손이 진행되었다.²⁶⁾ 하지만 본격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이다. 토지 소유주가 성 내부에 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

21)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6, 163~166쪽.

2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長湍郡)』, 1942, 58쪽.

2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223쪽.

24)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270~273쪽.

25) 김성범, 앞의 논문, 1992, 234쪽.

2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78~88쪽.

하면서 중장비로 성 내부를 약 1m 정도 삭토한 것이다. 성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동문지와 상당 부분의 유구가 이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 및 성 내부는 이미 훼손된 지점을 중심으로 층위 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층위상에서 확인된 유물을 분석한 결과 고구려가 초축한 이후 신라가 점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⁷⁾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차 발굴이 이루어졌고, 성 내부가 사유지인 관계로 국유지에 해당하는 동벽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기저부와 중심부는 토성을 쌓듯이 판축을 하고 내·외벽을 석축으로 쌓은 후 보축성벽으로 마감한 고구려만의 독특한 축성기법을 확인하였다. 출토 수량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고구려 기와가 수습된 유적 중 최다이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 당시 유물까지 순차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단은 고구려 멸망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호로고루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가, 이후 고려시대에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⁸⁾

2차 발굴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된 이후 2005년 12월~2006년 9월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 내부에 대한 잔존 유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 전 GPR 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의 현무암반 지형 위를 盛土하거나 고토양층을 굴착해 성 내부를 평탄화했음을 확인하였다. 흥련봉 2보루나 남성골산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책열과 함께 지하식 벽체 건물지(집수시설), 추정 우물지, 지상 건물지와 와적층 등을 조사하였다. 와적층 사이에서 수습된 다량의 탄화 곡물을 통해 호로고루에 軍倉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되었고, 각종 명문 토

2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1999, 51~152쪽.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3, 313~320쪽.

기와 벼루, 저울추 등이 출토됨으로써 호로그루가 일대의 관방 시설을 관장하는 사령부이자 행정적인 기능도 겸했던 곳으로 조사단은 이해하였다.²⁹⁾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2009년 4~6월에 실시한 3차 발굴에서 지하식 벽체 건물지, 목책 유구, 와적층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1년 5월~2012년 3월까지 시행한 4차 발굴에서는 지하식 벽체 건물지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호로그루 정비계획에 따른 성 내부조사, 그리고 성 외부 정비보존대상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호로그루 동벽은 토성을 석축으로 개축한 것이 아니라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을 결합한, 조사단이 '土芯石築工法'으로 명명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법이 적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외 '相鼓'라는 명문이 새겨진 토제북편, 연화문와당과 치미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호로그루의 위상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집수 시설에서 수습된 탄화 곡물을 통해 호로그루에서 쌀과 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였고, 동물 유체 동정 결과 수습된 돼지의 유체가 사육종 돼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³⁰⁾

마지막으로 2016년 3월에는 1차 조사 시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했던 동벽 남측 치성 구간에 대한 정비·복원에 앞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치성 북쪽 벽에 대한 해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대 성벽과 치성의 선후 관계, 2차에 걸쳐 조성된 치성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 입회 조사를 통해 고구려 보축성벽 안쪽에서 고구려 성벽을 확인하였으며, 성벽 하단부 외면에서는 확돌 1기가 발견되었다.³¹⁾

2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297~304쪽.

3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25~485쪽.

31)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8.

이처럼 호로그루는 총 다섯 차례의 발굴을 통해 임진강 복안에 위치한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유적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호로그루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2000년 6월 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1~2차 발굴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월 5일 당포성, 은대리성과 함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³²⁾, 연천군에서는 3개 성을 대상으로 한 <연천 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³³⁾

조사 완료 후 현재 호로그루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지역 축제가 열리는 등 연천군의 새로운 문화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³⁴⁾

나. 학술연구 略史

고구려 남부전선에서 확인되는 수십 개소의 유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방유적이다. 황해도 일원의 고구려 성은 총 23개소인데 그중 대형 성곽(둘레 3km 이상)은 9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대형 성곽이다.³⁵⁾ 또한, 양주 분지 일원부터 한강 유역 사이에는 60여 개소에 달하는 소형 관방유적(보

32)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3)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34)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일환으로 호로그루 일대에 대단위 해바라기밭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로그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삼죽오 석상을 제작·설치하는가 하면 그해 9월에는 2002년 민화협이 추진했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의 결과물인 광개토왕비 모형을 기증받아 호로그루 인근에 세웠다.

35)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제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b.

루)이 축조된 것과 달리 임진강 유역에는 다양한 관방유적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특히,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3개소를 비롯한 여타 유적에서 확인된 고구려 토기는 아차산 보루군에서 수습된 6세기대 토기와 다른 5세기대 토기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³⁶⁾ 그 외 덕진산성을 비롯한 육계토성, 이잔미성, 칠중성, 성동리산성, 아미성 등에서도 고구려 관련 고고 자료가 확인되어 해당 유적이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음을 알려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로그루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지 않은 학술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2007년 서울경기고고학에서 개최한 <2006년도 서울·경기지역의 주요 발굴사례> 정기발표회, 2008년 광진구·한국고대학회에서 개최한 <2008 고구려 역사문화 계승을 위한 학술대회>을 비롯해 2017년 한국성곽학회에서 개최한 <고대성곽(古代城郭)의 수축(修築)과 개축(改築)>, 2018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과 중부고고학회가 개최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21년 연천군에서 주최한 <연천군 고구려역사문화권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 등 최근까지도 호로그루를 위시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에 대한 학술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박물관은 2005년 특별전 <우리 곁의 고구려>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출토된 각종 고구려 관련 흔적들을 소개하였으며, 부산 복천박물관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공동으로 2012년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라는 특별전을 개최해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각종 고고 자료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호로그루 이외에도 무등리보루군, 덕진산성 등에서 괄목할만한 조사 성과가 나오고

36)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있고, 그에 따라 덕진산성은 2017년 1월 19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무등리보루군 또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학술 활동 및 전시 개최 등의 후속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남한 각지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조사·연구됨에 따라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또한 ‘고구려 관방체계’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최종택³⁷⁾, 심광주³⁸⁾, 서영일³⁹⁾, 백종오⁴⁰⁾, 양시은⁴¹⁾, 신광철⁴²⁾ 등 다수의 연구자가 관련 논고를 발표하였고, 임진강 유역부터 양주 분지 일원,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의 남진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각종 고고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주요 성곽의 축조 시기와 구조, 축조집단과 점유집단에 대한 이해, 관방체계와 그에 따른 영역 변천 과정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호로그루 개별 유적에 관한 연구보다는 임진강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호로그루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관방체계라는 거시적인 범위 안에서 임진강 유역의 관방유적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있다.

이준선⁴³⁾은 적성지역의 지리학적 특징을 살펴본 뒤 고구려 관방 유적의 분포 범위와 연결해 폭넓게 이해한 바 있다. 권순진⁴⁴⁾은

37)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1999.

38)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39)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40)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41)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42)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a.

43)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44)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그루·당포성·은대리성을 중심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3대 성(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에 대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시기별로 해당 성곽들의 성격과 운용 범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서영일⁴⁵⁾은 임진강 유역에 구축된 관방체계를 한강하구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고, 임진강 일대가 당시 고구려의 핵심적인 방어선이었다고 보았다. 가장 최근에는 백종오⁴⁶⁾에 의해 남한지역 전체의 관방체계 속에서 임진강·한탄강 일대의 관방유적과 교통로의 상관성을 다루는 논고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 외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동물 뼈에 관한 연구도 눈에 띈다. 백종오⁴⁷⁾는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동물 뼈와 연화문 수막새의 출토 상황을 근거로 군사시설을 제의유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보았다. 이준정⁴⁸⁾은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돼지 뼈를 분석하여 이를 야생종이 아닌 사육 종으로 분류하였다. 騎乘이나 畜力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사육종 돼지 자료가 호로그루에서 다수 확인된다는 점은 앞서 제의의 측면을 강조한 백종오의 연구와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호로그루 및 성내 출토품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본 미시적인 연구가 눈에 띈다.

이형호⁴⁹⁾는 호로그루 내에서 층서적으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구를 선별한 뒤 해당 유구에서 수습된 토

으로-」, 『軍史』 83, 2012.

45)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207~208쪽.

46)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47)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48)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象徵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79, 2011, 160~162쪽.

49)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토기를 총 3기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남진이 4세기 후엽, 475년, 529년, 568년 등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심광주⁵⁰⁾는 호로그루 발굴에 참여하면서 일찍부터 호로그루의 축조기법에 대해 다수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고구려의 독특한 축조기법을 ‘토심석축공법’이라고 명명한 그는 공법의 장점으로 축성 용이성과 방어력을 동시에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⁵¹⁾ 고광의⁵²⁾는 남한 각지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새겨진 명문을 분석한 결과,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상고’라는 명문은 필법의 완성으로 일컬어지는 永字八法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정도로 최상급 서사 능력을 갖춘 사람의 솜씨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문자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병사의 존재를 통해 호로그루가 다른 주둔지보다 위계가 높은 사령부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호로그루가 고구려에게 중요했던 곳이었던 만큼 그곳을 차지한 신라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윤성호⁵³⁾는 무등리 2보루 · 호로그루에서 고구려의 상징과도 같은 적갈색 기와 건물이 붕괴한 것은 곧 임진강을 사이에 둔 신라와 고구려의 대치가 종식되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보

50)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研究』 62, 2018.

51) 안성현 · 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480~481쪽. 최근 고구려 관방유적의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선후 관계에 있다고 본 연구가 나왔다. 논자는 토성의 외곽을 제거한 뒤 석벽을 덧댄 다수의 사례를 토대로 고구려 성곽 역시 동일한 축조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227~228쪽.

53)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71~72쪽.

았다. 실제 호로그루를 확보한 신라는 이를 수·개축하여 對唐 전쟁의 최전선으로 활용한 만큼 호로그루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이상의 연구 약사를 검토했을 때, 넓게 보면 고구려의 남부전선, 좁게 보면 임진강 유역 및 파주·적성 일대의 관방체계를 논할 때 호로그루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하류 쪽에서부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울(호로탄)을 감제했던 곳,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한 다수의 기와·치미가 출토되어 다른 관방시설에 비해 그 위상이 높았던 곳,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 뼈를 매개로 성 내에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던 곳, 수준 높은 문자 활동을 영위했던 주둔군의 존재와 軍倉으로서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로그루의 위상과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3.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와 ‘호로그루’

가. 고구려 남부전선의 변천사

서북한 지역과 황해도 일대를 확보한 고구려는 4세기 초반 이후에는 임진강과 예성강 일대에서 백제와 접경하게 되고⁵⁴⁾, 초반에는 백제가 우세하여 양국의 국경은 황해남도까지 이동하였다. 하지만, 4세기 말 광개토왕이 거둔 군사적 성과로 인해 전황은 급격하게 고구려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구려

54) 책계왕 원년(286),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기사를 보면 3세기 후반까지는 양국 사이에 ‘대방’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314년까지 대방군이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대비해 아차성과 사성을 수리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에게 있어 완충지대를 극복하고 한강 유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남쪽 변경을 중심으로 고구려 남부전선이 성립하기 시작했다.

백제는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수곡성(394)과 패수(395)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지만 모두 패하고, 오히려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58개 성과 700여 개 촌락을 빼앗긴다. 이로써 고구려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경기 북부 일원과 한강 유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다.

전선의 변화상은 일반적으로 ‘형성→확장→고착·안정→소멸’의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고구려의 남진 시점과 경로, 점령 및 통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기에 남부전선은 지역마다 상황이 달랐으며, 이를 서울·경기 지역과 중원 지역, 강원도·경상도 일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남부전선 ‘형성기’에 고구려는 남평양을 건설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조밀한 관방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중부지역을 주변부로 흡수하였다. 더불어 강원도 일대로 진출한 고구려는 그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여 南進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교통로 등을 확보하였다.

남부전선 ‘확장기’에는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가 조밀하게 구축되고, 경자년(400년)의 군사 작전을 통해 경상남도 깊숙이 진출한다. 내물마립간의 죽음, 실성의 귀환과 즉위 등 402년 신라에서 긴박하게 벌어진 정치적 상황에 고구려가 개입하면서 실성마립간은 즉위 내내 고구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뒤이은 눌지마립간마저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지해 즉위(417)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신라에 더욱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⁵⁵⁾

55) 마립간기 신라·고구려 관계에 대해 다음 논고들을 참고하기 바란다(신형식, 「중원 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405쪽;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추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關聯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조한정, 「박제상과

남부전선 ‘고착·안정기’가 되면 확장일로에 있던 고구려 남부전선 전면에 걸쳐 고착화가 진행되면서 일부는 영역화가 진행되고, 일부는 백제·신라와의 경합 속에서 전선이 進退를 거듭한다. 한편,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역화가 공고해지며, 고구려의 내지로서 자리매김한다.

마지막으로 남부전선 ‘소멸기’는 6세기 전반 영동 지역의 영역화를 완료하고 중원 지역까지 진출한 신라⁵⁶⁾에 의해 고구려의 영토가 점차 북쪽으로 밀려나는 시기이다. 한반도 중부지역의 상당 부분이 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590년대에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는 등 고구려도 재차 공세를 강화하지만, 이후 양국의 경계는 임진강 유역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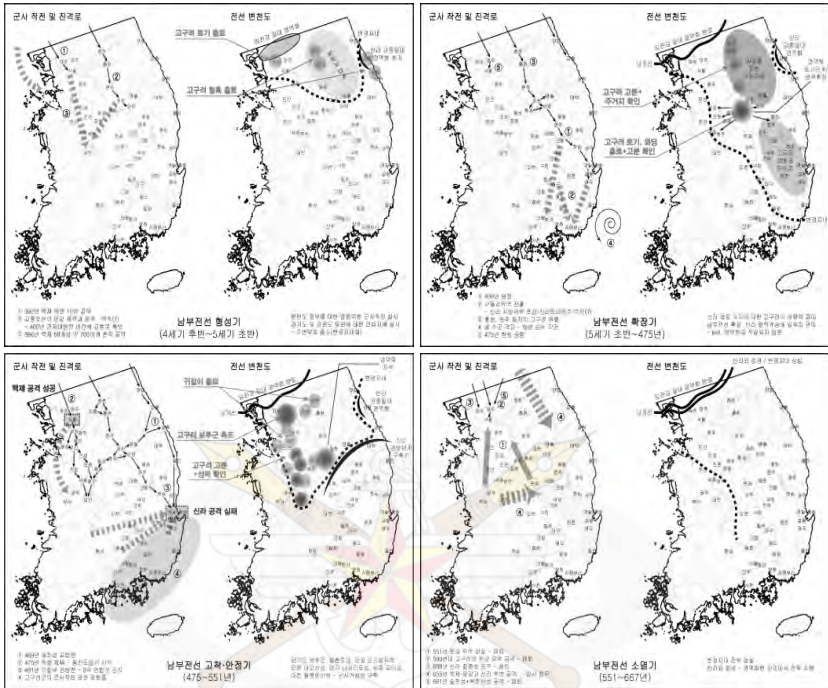
고구려는 6세기 후반부터 점차 축소된 전선을 확장해 외곽에 변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영역화된 점령지에 구축된 신라의 방어체계를 깨뜨리기는 어려웠다. 특히, 7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전선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중원을 통일한 隋·唐과 장기간 大戰을 치르는 바람에 지속해서 국력이 減退한 것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훗날 요동 및 평양·황해도 일대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 황폐해졌고, 이는 심대한 국력 상실로 이어져 다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그림 2).⁵⁷⁾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50~51쪽).

56)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徐榮一,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15쪽.

57)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535~545쪽.

〈그림 2〉 남부전선 변천 과정 모식도



* 출처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2b, 353/390/483/536쪽

이상 남부전선의 변천사 속에서 지역별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임진강 유역은 남부전선 형성기부터 소멸기까지 계속 고구려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수백 년에 걸쳐 고구려가 확보했던 만큼 그와 관련한 다양한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58)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고고 자료뿐만 아니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고구려 지명 역시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장기간 점유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1〉 각 시기·지역별 고구려 관련 고고 자료 일람

시기	서울·경기 지역	충원 지역	강원도 및 경상도 일원
형성기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임진강 유역 - 토기	.	춘천·홍천 일대 - 철촉
	주거지(생활)		주거지(생활)
확장기 (5세기 초반 ~475년)	임진강 유역 - 토기	충주 일대 - 토기 및 와당	홍천·원주 일대 - 토기
	관방(성곽), 고분(분묘)	주거지(생활)	수혈유구·주거지(생활)
고착·안정기 (475~551년)	임진강 유역 경기 북부 한강 유역 경기 남부 - 토기 및 철기	충청남도 일대 충주 일대 - 토기 및 귀걸이	춘천 일대 - 귀걸이
	관방(재사용 및 신축) 고분(분묘), 주거지(생활)	관방(재사용 및 신축)	고분(분묘)
소멸기 (551~667년)	임진강 유역	.	.

나. 임진강 유역 교통로의 성격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성곽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고구려 남부전선에 소재한 성곽은 대부분 백제로부터 攻取한 것이며, 고구려가 새롭게 쌓은 관방시설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다.

실제 3세기 말까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고구려 성곽은 태조대왕이 쌓았다고 하는 요서 10성을 포함한다고 해도 채 20개소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4세기 이후 남부전선 확장과정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성으로는 평양성 및 평양 동항성을 제외했을 때 390년 백제가 攻破했다고 기록된 ‘도압(곤)성’, 광개토왕 3년(394)에 나라 남쪽에 쌓은 7개의 성, 이후 나라

동쪽에 쌓은 6개의 성(409), 550년 백제가 빼앗은 ‘도살성’ 정도이다. 이중 현재 고고 자료와 합치되는 성곽의 존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광개토왕릉비>에 적힌 공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직접 쌓은 성곽보다 백제로부터 공취한 후 재사용한 성곽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임진강 유역부터 그 이남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성곽을 보면 백제와는 다른 배경과 목적을 염두에 둔 축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로고루와 같이 중요한 도강 지점 주변에 축조된 성곽은 철저하게 축성 주체의 전략·전술적 시각이 반영된 관방시설이다. 이는 동일한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형을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해당 지형이 갖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며,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에 진출하기 이전 그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주민들과 고구려의 인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 『적성현읍지』 등의 문헌을 보면 임진강 유역 중에서도 특히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옛 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적성은 임진강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여울(개여울)을 비롯해 호로탄, 학여울 등이 자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도강을 막고, 수운을 통제하기 위한 관방시설이 주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호로고루와 이잔미성, 육계토성, 칠중성, 두루봉보루와 아미성 등 적성 일대를 방어하던 관방시설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현재 확인되지 않는 관방시설이 고문헌에는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⁵⁹⁾

59)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표 2〉 한반도 중부지역 내 고구려 유적 범례

지역 구분	유적명				
임진강 유역 (A권역)	① 조랑진보루	② 덕진산성	③ 동파리보루	④ 두루봉보루	⑤ 이진마성
	⑥ 호로고루	⑦ 육계토성	⑧ 칠중성	⑨ 광동리보루	⑩ 아미리보루
	⑪ 당포성	⑫ 아미성	⑬ 강서리보루	⑭ 고성산보루	⑮ 무등리 1보루
	⑯ 무등리 2보루	⑰ 우정리보루	⑱ 은대리성	⑲ 전곡리 목책	⑳ 성동리산성
	㉑ 성동리 마을유적	㉒ 강내리유적	㉓ 삼거리 유물산포지 ²	㉔ 주월리유적	㉕ 강내리 고분군
양주분지 일원 (B권역)	㉖ 통현리 고분	㉗ 신답리 고분군			
	㉘ 태봉산보루	㉙ 소래산보루	㉚ 도락산 2보루	㉛ 도락산 3보루	㉜ 불곡산 4보루
	㉝ 불곡산 9보루	㉞ 독비위보루	㉟ 고장산 2보루	㊱ 천보산 2보루	㊲ 천보산 5보루
양주분지 한강유역 (C-1~3권역)	㊳ 옥정동유적				
	㊴ 고봉산성	㊵ 사패산 1보루	㊶ 수락산 1보루	㊷ 민락동유적	㊸ 동패동유적
한강유역 (D권역)	㊹ 도내동유적	㊺ 지금동 II 유적	㊻ 덕소리유적		
	㊼ 용마산 1보루	㊽ 용마산 2보루	㊾ 용마산 3보루	㊿ 용마산 4보루	㊽ 용마산 5보루
	㊾ 흥련봉 1보루	㊿ 흥련봉 2보루	㊽ 아차산 1보루	㊿ 아차산 2보루	㊽ 아차산 3보루
	㊿ 아차산 4보루	㊽ 아차산 5보루	㊿ 아차산 6보루	㊽ 아차산 관방유적	㊿ 시루봉보루
	㊽ 망우산 1보루	㊿ 망우산 2보루	㊽ 망우산 3보루	㊿ 아차산 장성 ⁶⁰⁾	㊽ 봉화산보루
	㊽ 배봉산보루	㊿ 교문동 관방유적	㊽ 구의동 보루	㊿ 백련봉보루	㊽ 아차산성 ⁶¹⁾
	㊽ 풍납토성	㊿ 몽촌토성	㊽ 가락동 고분군	㊿ 중곡동 고분군 ⁶²⁾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05쪽, 표 20 수정 후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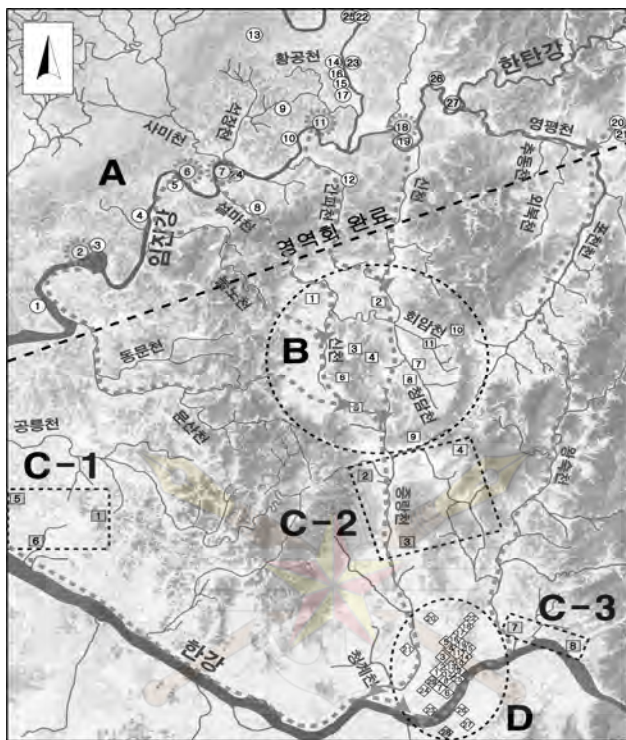
※ 굵은 글씨는 현장조사가 진행된 유적(지표조사 제외)

60)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65~469쪽. 아차산장성은 기존에 조선시대 목장성으로 비정되어 왔다. 하지만, 구간마다 축조기법이 다른 점, 토루의 규모가 단순한 목장성으로 보기 힘든 점,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고구려 남평양과 관련된 유구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61) 아차산성 남벽 및 배수구 내부시설의 중층에서 연화문 수막새 네 점이 출토되었다. 그중 완형으로 출토된 한 점은 인근의 흥련봉 1보루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하며, 나머지 세 점은 호로고루 출토품과 동일하다. 아차산성 내에서 백제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구려 수막새를 통해 흥련봉 1보루가 존속되던 시점에 이 지역에도 일단의 고구려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다.

62)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70~471쪽. 중곡동 고분군은 기존에 조사된 갑총과 을총이 6세기 후반대 신라 황혈식 석실묘로 밝혀졌기에 신라 고분군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경기 지역 신라 고분군은 모두 산지에 조성하며, 평지에 자리한 곳은 중곡동 고분분과 석촌동 고분군이 유일하다. 특히, 하천 주변의 평지에 대단위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비롯되는데, 능동 출토 금귀걸이를 토대로 봤을 때 중곡동 고분군이 남평양과 관련된 고구려 고분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도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404쪽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임진강 유역 내 다수의 관방유적에서 기와가 확인됐다는 사실이다(그림 3, 표 2). 총 10개소의 관방유적(덕진산성, 두루봉보루, 이잔미성, 호로고루, 육계토성, 칠중성, 당포성, 아미성, 무등리1보루, 성동리산성)에서 기와가 수습되었는데⁶³⁾, 이는 남평양의 후보지인 한강 유역보다도 많은 숫자다.

63)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研究』 34, 2018. 대전리산성 주변에서 고구려·신라 기와편이 채집되어 기존에는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조사 결과, 6세기 중후반 경 신라 초축의 흔적들이 확인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대전리산성까지 포함하면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21개소 중 11개소에서 기와가 확인된 셈이다.

『구당서』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오직 佛寺와 神廟, 王宮과 官府에만 기와를 사용했다고 한다.⁶⁴⁾ 이외에도 기와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한데⁶⁵⁾ 이와 연계하여 최전방의 소형 군사시설인 보루에서 기와가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은 분명 흥미롭다.

특히 고구려의 연화문 수막새는 임진강 유역의 호로그루(1점), 한강 유역의 아차산성(4점)과 홍련봉 1보루(7점)에서만 출토되었고, 관방유적에서 확인된 와당 및 기와는 해당 유적을 단순한 군사시설로만 보는 시각에 재고를 요한다.⁶⁶⁾ 즉, 행정 치소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기능도 같이 고려하는 시각인데 인근의 생활·생산유적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무등리 2보루와 성동리산성, 육계토성을 제외한 순수 군사 거점으로 볼만한 유적에서도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백종오⁶⁷⁾는 와당과 기와가 출토된 유적 내 해당 건물의 위계가 다른 곳보다 높았으며, 이곳에서 국내성에서 열리는 국중대회와 유사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⁶⁸⁾

임진강 유역에서 수막새와 기와가 모두 출토된 유적은 호로그루 한 곳뿐이다. 그렇다면 임진강 유역에서 호로그루가 중요하게 취급받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호로그루가 갖는 지형적 특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64)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高句麗, “唯佛寺·神廟註及王宮·官府乃用瓦.” 단, 『구당서』 이전의 중국 사서 어디에도 기와의 用處에 대한 별도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시기에 따라 기와의 용처에 대한 법제화 유무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즉, 호로그루 및 고구려 보루에서 출토된 기와를 반드시 위 기사와 연결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65) 미천왕이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 살면서, 밤마다 연못의 개구리가 울면 기와나 돌을 던져 조용히 시켰다는 일화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일반 서민도 기와를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관청이나 종교 시설 이외에도 기와가 사용되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66)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2013, 238~239쪽.

67) 백종오, 앞의 논문, 2008.

68) 백종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徵의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기본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 이남으로 내려올 때 사용하는 교통로를 꼽는다면 황해도 재령-해주를 기점으로 개성을 지나 파주-고양을 따라 서울 중심부까지 오는 재령로(A), 서흥과 평산-금천 등 자비령을 따라 이동해 적성을 통해 동두천과 양주-의정부로 내려오는 자비령로(B)⁶⁹⁾, 연산-수안-신계 등 방원령을 따라 내려오다가 철원-연천 등지를 통해 양주로 내려오는 방원령로(C), 마지막으로 해주에서 서해 연안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와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뱃길(D)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⁷⁰⁾

이중 재령로(A)는 임진강 하류를 관통하는 길로서 남북을 잇는 최단 거리 교통로라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임진강은 상류와 하류의 강폭 차이가 심하여 상류는 200~500m에 불과하지만, 하류는 강폭이 2.8km에 이를 정도로 넓은 곳도 있다. 유속은 3~4m로 빠른 편이지만 수직 단애가 없는 지점은 유속이 1~2m로 느리며, 수심도 1m 내외로 얕다.⁷¹⁾ 그런 이유로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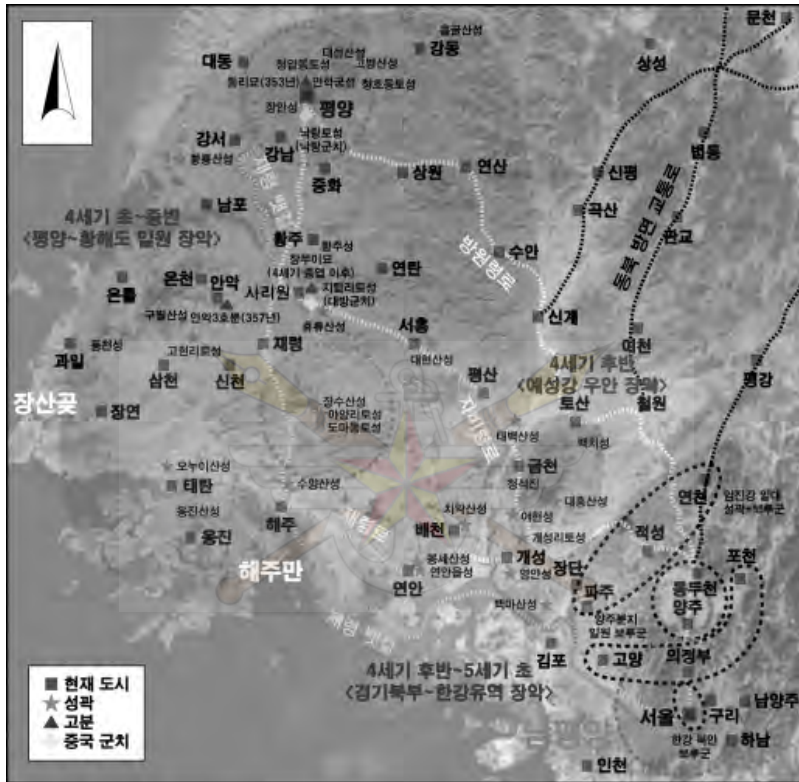
69) 정조 5년(1781) 12월 9일, 경기관찰사 이형규의 상소를 보면 ‘고랑포 일대’가 서북의 大路가 통과하는 교통·군사상 요지이면서 동시에 사잇길 두 가닥이 지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江邊 압록강 일대에서부터 陽德 평남·孟山 평남을 넘어서 谷山 황북·遂安 황북을 지나 高浪浦에 닿는 길로 총 4백여 리, 다른 하나는 六鎭 두만강 하류 남안에서부터 곧바로 三防 함남·楸柯嶺 함남 안변~강원도 평강군으로 달려 平康 강원도·伊川 강원도 사이로 나와서 고랑포에 도달하는 길로 총 3백여 리의 교통로에 해당한다.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한반도 중부로 향하는 교통로인데, 이 또한 장단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에 표시된 동북방면 교통로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70)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45쪽; 권순진, 앞의 논문, 2012, 174~175쪽. 권순진은 서영일이 제시한 교통로를 제1·2·3기동로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명칭만 다를 뿐 경로는 대동소이하다.

71) 이재·강성문·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1993, 319쪽. 임진강 상·하류의 지형적인 차이점은 조선시대에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정조 원년(1777) 4월 5일 강원관찰사 김이소의 상소, 정조 10년(1786) 4월 20일 좌승지 이시수의 상소를 보면 임진강 상류의 지형이 험하여 가뭄이 들면 강원도에서 대동미를 운반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단의 고랑포까지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는 재령로보다는 자비령로(B)가 보다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⁷²⁾

〈그림 4〉 고구려의 남부전선 확장도와 교통로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b, 328쪽

72) 김상호·김원·최홍식, 「한강 및 임진강의 조위영향분석」,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 36-2, 2003. 임진강은 서해안의 潮汐 또는 한강의 홍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데, 고랑포 부근을 기준으로 조석의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하루에서는 최대 3.3~5.7m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지만, 이 지점 상류부에서는 최대 1m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며, 潮汐 영향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임진강의 하상 경사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삼국시대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662년 김유신 부대가 배를 타고 고랑포보다 하류 지점을 도강했을 수도 있지만, 수위가 1m 가량 증가했다면 비록 고랑포 일대를 건넜다 하더라도 배를 타야만 했을 수 있다.

재령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이다. 문종 30년(1076) 양반전시과 규정을 살펴보면 1日程·2日程의 柴地 분급 지역과 교통로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시지 분급 지역은 개경 인근 지역으로 하루나 이틀 만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분포를 보면 개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X자형 간선대로가 지나는 곳에 자리한다. 사방으로 7개의 간선대로가 뻗어 있는데 그중 장단-적성을 지나는 '장단도', 임진-파평을 지나는 '임진도' 이외에 임진강 하류를 건너 교하로 향하는 '낙하도'와 정주에서 조강을 건너 동성으로 향하는 '조강도'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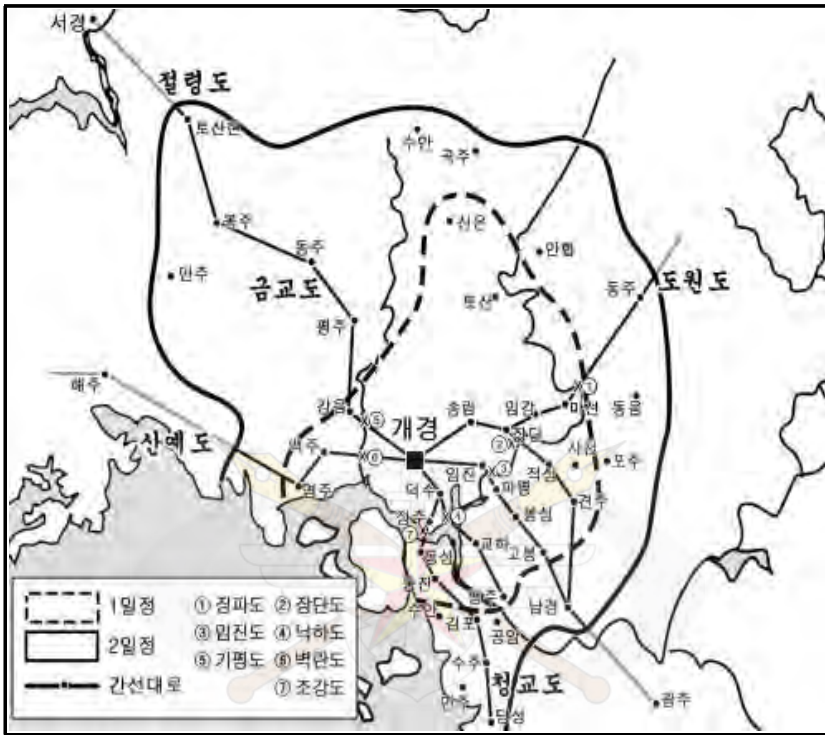
해당 시지 분급 지역의 분포상 특징을 보면 개경의 입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성강·임진강뿐만 아니라 조강과 한강을 건너는 교통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전과 달리 하천을 이용한 수운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교역과 통제에 적절한 요충지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³⁾

그중 조강도를 예를 든다면, 개경 아래쪽의 덕수현에서 조강도를 이용해 조강을 건너 뒤 청교도를 따라 수안현을 경유하는 교통로가 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⁷⁴⁾ 즉, 이전과 달리 수운과 육상교통로가 결합한 간선대로가 운영된다는 점이 삼국시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다(그림 5).

73)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89~92쪽.

74)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127쪽.

〈그림 5〉 문종대 개경 인근의 간선대로



* 출처 :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92쪽.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려 이전까지 한반도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를 꼽자면 임진강의 중·상류를 가로지르는 ‘자비령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서영일⁷⁵⁾은 파주시와 양주시, 연천군의 경계에 있는 감악산을 기준으로 감악산 서로(감악산 서쪽-칠중성-육계토성-호로고루)와 감악산 동로(감악산 동쪽-아미성-수철성-적암리-어유지리-당포성지)를 구분하고 감악산 서로가 한반도 중부를 오가는 주요 교통로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와 달리 백종

75) 徐榮一,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249~261쪽.

오⁷⁶⁾는 남북을 잇는 교통로 5개를 설정하고 감악산 서로(토산-사미천로-호로그루-설마천로-천보산맥 일원-중랑천로-한강 유역) 대신 토산-사미천로-당포성-간파천로-천보산맥 일원-중랑천로-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감악산 동로가 신라의 주 교통로였다고 보고 이를 662년 김유신의 진격로와 관련해 이해하였다.

〈그림 6〉 김유신 부대의 이동로(좌)와 감악산 동·서로(우)



* 출처 :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長湍渡路’」, 『韓國史研究』 131, 2005, 196~197쪽. 〈지도 1〉과 〈지도 2〉 수정

이에 대해 정요근⁷⁷⁾은 김유신이 건넌 칠중하라는 지명, 설마천과 두지나루·고랑포나루의 위치 등을 고려해 감악산 서로를 따라 신라군이 북진했을 것으로 보았다. 감악산 서로의 나루터는 호로그루와 육계토성이 서로 마주 보고 감제하고 있었기에

76)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城郭의 分布와 性格」, 『경기도박물관연보』 3, 2000, 79~81쪽.

77) 정요근, 앞의 논문, 2005, 197~198쪽.

이를 당시 주요 교통로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이정빈⁷⁸⁾은 김유신이 배를 타고 건넜다는 기사에 주목해 상대적으로 유량이 풍부한 중·하류로 도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감악산 서로, 즉 호로그루 앞을 지나는 호로탄 인근에서 건넜다고 보았다. 단, 김유신이 큰 길[大路]에서 잠복하고 있을 고구려군을 피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감악산 서로가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즉, 당시 주요 교통로는 감악산 서로가 아닌 동로라고 이해한 셈이다(그림 6).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남진 경로를 7개로 세분해서 살펴본 박종서⁷⁹⁾는 기존에 자비령로로 불렀던 교통로를 새롭게 정의하여 한성로(웅진로)라고 명명하였다. 단, 호로그루(호로탄)와 육계토성(가여울) 등 여러 도강 처를 언급하면서 감악산 동·서로가 모두 쓰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각 교통로상 비중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던 장단현과 중성현은 삼국 통일 기에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였으나, 통일 이후에는 중요성이 점차 축소되었다. 그러나 장단현은 북쪽 방면 교통로(우봉군-영풍군)와 서쪽 방면 교통로(송악군-예성강-폭지군)의 결절지였기에 7세기 말엽 이래 임진강 이북에 대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처럼 장단현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중성현(적성현)과 내소군(견주), 한양군을 거쳐 한강 변의 양진(광진)까지 도달하는 교통로가 이후 고려시대에 개경과 남쪽 지방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로인 長湍渡路로 발전하게 되었다.⁸⁰⁾

78)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52~53쪽.

79)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26~44쪽.

80) 정요근, 앞의 논문, 2005, 205~206쪽.

한편,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태봉이 철원에 도읍을 정했을 때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⁸¹⁾ 신라시대 철원지역은 북방의 교통·군사 거점에 불과했지만, 태봉의 도성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당연히 철원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재편되었을 것이며, 예성강 유역 및 대동강 유역(토산-신계-평산-평양), 임진강 하류(연천-장단-개성-해주), 한강 유역(포천-서울-용인-안성-공주), 북한강 및 남한강 유역(화천-춘천-홍천-원주), 동해안(평강-안변) 등 방사상의 교통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철원에 도읍한 시기가 약 15년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봉의 교통체계는 통일신라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며, 기존의 교통체계를 정비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조세 운송체계는 京倉 직납, 漕倉 경유, 현지 수납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조창을 경유했다가 경창으로 향하지 않고, 경창으로 직접 수납하는 것이 유리한 군현들이 있었다. 이들 군현은 모두 개경 인근에 있으며, 육상교통로인 驛道와 수운이 결합한 운송 네트워크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開城府·楊廣道·交州道·西海道에 속하는 95개 군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중 양광도 내 개경과 남경을 잇는 교통로가 바로 ‘靑郊道’였다. 청교도는 임진도와 장단도 2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개경과 남경이라는 당대 최고의 도시 두 곳의 교역량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⁸²⁾

81) 서영일, 「임진강 유역 교통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133쪽.

82) 韓禎訓, 앞의 논문, 2009, 98~126쪽.

〈그림 7〉 통일신라기 간선도로(좌)와 고려시기 장단도로(우)



* 출처 : 정요근, 앞의 논문, 2006, 201/207쪽. 〈지도 3〉과 〈지도 4〉 수정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임진강을 건너는 두 개의 주요 도로가 존재했지만, 본래 주요 도로로 이용된 것은 적성지역을 건너는 장단도로였다. 물론 임진도로 상에 있는 임진현, 봉성현, 고봉현 역시 삼국시대부터 군현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오가는 교통로가 존재했겠지만, 11세기 전반까지도 이들을 지나는 임진도로가 개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간선도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헌사료나 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11세기 중반 이후 국왕의 남경 순수가 잦아지고, 장단도로 상의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하여 임진도로 방면으로 移置하면서⁸³⁾ 개경-남경을 잇는 최단 거리인 임진도로가 중요시되었고, 이전에는 장단도로의 보조 기능을 했던 임진도로가 고려 후기로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졌다(그림 7).

83) 정요근, 「고려중·후기 '임진도로(臨津渡路)'의 부상(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2006, 217쪽. 기존에 개경과 남경까지의 거리는 216리에 달했지만, 이후 166리로 줄어들어 임진도로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려 후기 임진도로의 중요성이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단도로가 중요하게 취급받았다는 점이다. 그건 바로 ‘군사도로’로서의 장단도로가 갖는 장점 때문이었다.⁸⁴⁾ 대규모 군대가 신속하게 남하해야 하는 경우 장단도로가 임진도로보다 더 유리했는데, 임진강 상류의 강폭이 좁고, 여울을 통해 도하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남쪽의 한강 횡단 시에도 적용되는데, 임진도로와 연결된 사평도보다 장단도로와 연결된 광진 방향의 도강에 유리하였다.

실제, 고려 말 우왕 연간 왜구가 양광, 경상, 전라 3도를 약탈하자 이성계의 토벌군이 장단을 거쳐 남하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군이 남경을 경유할 필요가 없었던 군사 작전은 장단도로를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⁸⁵⁾

이는 조선시대에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장단현에 속한 나루터로 두지진과 장단도 2개소가 적혀 있는데, 장단현 서남쪽의 장단도는 이미 폐기되어 高浪淵이라 불리며 흔적만 확인되고, 조선 초기에는 현 동쪽의 두지진이 주 포구로 사용되고 있었다.⁸⁶⁾ 임진왜란 발발 이후 한강 방어에 실패하고 도성을 빼앗긴 조선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대와 대치하였다. 5월 16일, 兩司[사헌부·사간원]에서 ‘임진강 상류의 얕은 여울을 잘 지키고, 하류에서 적군이 뗏목을 만들어 도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

84) 정조 5년(1781) 12월 9일, 경기 관찰사 이형규는 교동과 沁都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주의 防禦使를 이전처럼 ‘장단’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장단을 ‘畿西 제일의 요충지로서 동으로 神京도읍을 호위하고, 서로 松都[개령]를 견제하며, 남으로 심도의 門戶’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단 지역이 갖는 군사적 중요성이 조선 후기에 인식됐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85) 정요근, 앞의 논문, 2006, 211쪽.

86)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長湍縣, “豆只津: 在縣東, 有渡船, 行旅皆由於此. 長湍渡: 在縣西南, 今廢. 但有舟涉遺基, 俗稱高浪淵.”

라왔는데 특히, 두지진 위쪽의 얇은 여울을 따라 적이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⁷⁾ 더불어 비변사에서는 도원수 김명원으로 하여금 임진, 두지, 낙하 등 임진강 연안의 위아래를 방어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⁸⁸⁾ 시간이 흘러 약간의 위치 차이는 보이나, 장단현 인근의 여울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강 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김명원은 여러 장수를 배치하여 임진강의 모든 여울을 지키고 있었다. 앞서 양사와 비변사의 상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강 처 위주로 적을 방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임진강 남쪽의 언덕에 도착하여 8~9일이 지나도록 대치하다가 5월 17일, 퇴각하는 척 하며 조선군을 유인하였다. 이에 조선군은 강을 건너 추격하는데 장단현 인근의 얇은 여울을 이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군은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大敗하고, 추격군에게 죽은 자도 있었으나 강물에 빠져 죽은 자도 많았다고 한다. 『선조실록』에는 그 장소를 임진강 상류로 적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를 참고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단현의 동쪽 일대가 임진강 상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이 임진강 남쪽에 주둔했으며, 전투에 패해 물에 빠져 죽은 조선군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장단현 또는 그 하류가 戰場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전투가 끝난 후 일본군은 임진강 하류를 통해 무사히 도강하는데⁸⁹⁾, 이는 군사도로로서의 장단도로와 간선도로로서의 임진도로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7) 『宣祖實錄』 卷26 선조 25년(1592) 5월 16일 을해 3번째 기사.

88) 『宣祖實錄』 卷26 선조 25년(1592) 5월 16일 을해 4번째 기사.

89) 『宣祖實錄』 卷26 선조 25년(1592) 5월 23일 임오 3번째 기사; 『宣祖修正實錄』 卷26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19번째 기사; 朴現圭, 「임진왜란 양주 蟹諭嶺 전투 勝將 申恪의 참형 기록 고찰」, 『東亞人文學』 58, 2022, 337~338쪽.

다. ‘호로그루’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이상 호로그루 인근의 지형과 교통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호로그루 인근의 고랑포가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배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임진강은 하류에서 연천군 전곡읍 도감포까지는 유로가 동서 방향에 가깝지만, 도감포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 유로가 남북 방향으로 바뀐다. 연천에서부터 북쪽의 삭령과 조선시대 토산, 안협, 이천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남북 방향의 물길에 해당한다. 연천 북쪽으로 임진강 상류는 강 주변에 평지가 거의 없는 협곡지대에 가깝지만, 삭령 일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대지가 펼쳐져 있어 해당 지역이 교통의 거점지 역할을 하였다. 삭령을 중심으로 북쪽 방면의 이천, 남쪽 방면의 연천, 동쪽 방면의 철원, 서쪽 방면의 개성 등 사방으로 교통로가 연결되며, 작은 배는 내륙수로를 따라 안협까지 통행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토산과 안협 일대는 주변의 조세를 모아 수로를 따라 연천 왕징의 징파도로 내려보내고, 여기에서 한양까지 운송하였다. 안협과 토산 또한 임진강 상류의 수륙 교통의 결절지로 기능하였다.⁹⁰⁾

그렇게 봤을 때 호로탄 일대는 고구려가 남하하기 이전부터 남북을 잇는 주요 도강지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이전, 이곳에 도강을 감제할 만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임진강 유역을 점유했던 선주민은 문헌에 ‘말갈’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상 ‘중도문화’를 영유했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임진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

90) 서영일, 앞의 논문, 2018, 128쪽.

한 백제와 국초부터 끊임없이 相爭했으며, 백제 또한 말갈과의 대립 과정을 겪으며 성장했다. 양측의 전쟁 양상은 주로 말갈의 공격, 이에 대한 백제의 방어 및 반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말갈이 백제와 같은 영역 국가를 이루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⁹¹⁾

한편, 국초 양측의 접전 기록을 보면, 국경에서 광범위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명확하게 양측의 세력권이 나누어졌다고보다는 漸移地帶의 형태로 세력권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⁹²⁾ 즉, 임진강은 양측의 경계가 아니라 양측의 생활권에 모두 속한 '공유하천(Joint river)'⁹³⁾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후 3세기 후반까지 유지됐던 대방과 백제의 우호적인 관계⁹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을 장악한 백제가 북쪽으로 예성강⁹⁵⁾을 넘어 황해도 일원

91) 초고왕 49년(214), 진과가 이끄는 백제군 1천 명이 말갈의 石門城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백제본기」에 보인다. 이를 보면 말갈도 성을 중심으로 한 일정 영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사를 토대로 영역 국가를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92)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백제·고구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93) 박원수, 「통일 이후 한반도 공유하천의 전략적 가치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2-1, 2013, 222~223쪽. 공유하천은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이라고도 부르며 국제법 협회(ILA)에서는 이를 '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하여 유역경계(watershed)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으로서 2개국 또는 3개국의 영토로 뻗고 있고, 공동의 하류로 흘러내리는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하천은 크게 상·하류 국가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transboundary river), 하천이 경계(국경)를 이루는 경우(boundary river), 상·하류국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shared river)로 나뉘는데, 말갈과 백제는 상·하류국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훗날 고구려와 백제 또는 고구려와 신라는 하천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94) 백제 책계왕은 대방왕의 사위였으며, 책계왕 원년(286)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자 백제는 고구려와의 一戰도 각오한 채 대방을 지원하였다.

95) 진사왕 2년(386)에 구축한 관방이 예성강 유역을 경계로 구축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백제의 북계를 이루는 자연 경계는 임진강이 아닌 예성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까지 진출하면서 임진강은 백제의 경계가 아닌 내지로 인식되었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별도의 관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요구되지 않았다.⁹⁶⁾

하지만 고구려가 남하한 이래 임진강은 공유하천이 아닌 국경선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일차적으로 임진강을 따라 그 양안에 고구려의 관방시설이 구축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을 잇는 최단 거리의 중간 도강지이자, 다리를 놓지 않아도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고구려는 그 연안에 호로고루를 축조하고 호로하를 지나는 교통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연도로의 성격이 강했던 교통로는 인간의 이동을 위한 물리력이 투사된 대상으로 변했으며, 국경에 설치된 새로운 關門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된 것이다.

더불어 임진강 유역에 주둔했던 병력의 규모를 추정할 기존 연구⁹⁷⁾를 참고하면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을 중심으로 1천 명 내외의 병력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천 명 내외의 병력을 지휘하는 영천인급 지휘관과 더불어 상위의 말약급 지휘관도 주둔했다고 가정했을 때 호로고루와 육계토성이 갖는 위상은 다른 지역의 관방시설을 압도했을 것이다(그림 8).

96) 서영일, 앞의 논문, 2017, 211쪽. 백제가 임진강보다 예성강 라인을 더 중시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더불어 임진강 일대에도 도강 처를 중심으로 전방의 백제 성곽을 지원하기 위한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백제가 본격적으로 북쪽 경계에 관방체계를 구축하는 4세기 이후에는 이와 같은 해석이 적절하겠으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관방유적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백제 측이 임진강을 대하는 시각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7) 신광철, 앞의 논문, 2011a, 195쪽.

〈그림 8〉 고구려 남부전선 군사편제 추정도



* 출처 : 신광철, 앞의 논문, 2011a, 194쪽, 〈그림 4〉 수정

치미나 기와의 유무만으로 유적의 성격과 위상을 가늠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만, 다수의 명문 토기가 수습된 점이나 제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성곽마다 성격이 달랐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 보다 규모가 큰 육계토성이 군사적인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이라면 호로고루는 행정·제의와 관련된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일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흥련봉 1·2보루가 행정·제의와 관련된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이라면, 아차산 3·4보루는 군사적인 기능이 강조된 관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호로고루는 남북을 잇는 도강지 및 육상교통로를 감제하는 관문이자, 임진강 하류로 배가 출발하는 최초의 나루터(고랑포)를 통제하는 곳이었다.⁹⁸⁾ 이러한 수륙 교통의 이점을 토대로 각지의 물산이 集散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반 백성의 교역은 물론 남부전선의 군수체계에도 중요한 곳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유적 내에서 확인된 다량의 탄화 곡물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호로고루의 군창에 적재된 군량미가 자체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지로 배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유적 내에서 출토된 10여 종의 작물 중 쌀과 조의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벼 껍질을 통해 호로고루에서 탈곡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⁹⁹⁾¹⁰⁰⁾

98) 고랑포 일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밀물 시에 조수를 이용하여 상선들이 모여들어서 하항 촌락이 번성했다.

9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앞의 보고서, 2014, 466~467쪽.

1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앞의 보고서, 2007, 323쪽. 벽체 건물지에서 수습된 쌀이나 팥은 비슷한 시기 통일신라 병영터인 철곡 문화유적 출토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고, 콩은 보다 더 큰 대립종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곡물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보급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적 내에서 출토된 동물 뼈의 사용처에 대해 시조 전승 신앙과 관련된 제천행사(돼지)뿐만 아니라 수렵제(사슴 및 고라니), 전쟁 관련 우제점(소), 회맹 의식(말) 등에 쓰였다고 본 견해¹⁰¹⁾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군사상 요충지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외에도 장거리 교역 및 항해에서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전쟁이 끝난 후 전사자를 위한 제의도 했을 것이다.

한편, 호로그루에서 확인된 다수의 명문 토기는 당시 최상급 書司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호로그루에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병력과 무기의 출입, 근무와 작전에 관련된 문서 수발 등 단순한 군사·행정 업무라면 기본적인 서사 능력만 갖추고 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작전 지휘나 군수 보급, 국경에서의 通關 업무나 물자의 집산, 행정문서의 수령과 전달, 각종 제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 서사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수적이다. 이는 호로그루가 단순히 군사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관방시설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이상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 중 호로그루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경기 북부와 달리 임진강 유역에서는 시기가 빠른 고구려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파주 주월리유적은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4세기 중·후반)로 편년되는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 생활·생산유적에서는 남하한 고구려 문화가 재지계 문화와 융화된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물질자료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생활유적 인근의 고구려 횡혈식석실묘 등은 4세기 중반 이후 경기~강원 일대로 남하

101) 백종오, 앞의 논문, 2008, 140쪽.

하는 고구려의 문화가 재지 사회에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질자료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관방시설이 축조·운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구려 내지로서의 영역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 말기 남부전선이 경기 북부지역으로 후퇴할 때까지 고구려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지역의 정치·군사 거점이었다고 할만한 성곽을 비롯한 다수의 보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방유적 인근의 생활·생산유적 및 분묘유적을 통해 안정적인 영역 확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와당을 비롯한 다량의 기와, 토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임진강 도강의 길목을 통제하는 ‘호로고루’가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와의 활용처를 가늠했을 때 단순히 지휘관의 公館이나 館舍 성격이 아니라 軍政 또는 군사시설 내 종교 관련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의 숫자와 성격을 고려했을 때 임진강 유역에서 유독 기와 출토 사례가 많은 것은 분명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북한 지역인 임진강 상류에서 심동리산성을 비롯해 성산고성, 만경산성, 거성, 노기산성, 삭령산성 등이 확인된다. 성벽 둘레가 채 1km도 안 되지만, 모두 기와가 출토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거성의 500m 북쪽에서는 고구려 석실분토분이 확인된 바 있다. 황해도와 함경도에 위치하는 고구려성 대부분에서 연화문와당을 포함한 기와가 출토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임진강 유역이 여타 고구려 내지와 큰 차이가 없는 분명한 고구려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령 구조곡 및 임진강을 따라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영역화했다는 점은 당시 고구려가 인식하

는 ‘자국 영토’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¹⁰²⁾

4. 맺음말

661년 12월 10일, 김유신은 부장 9명을 이끌고 군량을 운반하기 위해 고구려의 ‘界’로 들어갔다. 그리고 662년 정월 23일, 김유신의 부대는 칠중하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자 김유신이 몸소 배를 타고 시범을 보이게 된다. 김유신의 부대가 고구려의 ‘계’에 들어갔을 때와 달리 강 건너 고구려의 ‘境’에 들어가기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당시 ‘계’와 ‘경’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와 달리 후자가 신라군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고구려의 영토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심리적 경계가 칠중하였으며, 칠중하는 같은 사료 안에서 瓢川, 瓢河, 瓠瀘河 등으로 불린 것을 보면 고랑포 또는 호로탄 일대의 임진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곧 고구려 멸망기까지 임진강 이북이 고구려의 영토로, 그 이남의 어느 범위까지는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했던 삼국 후기 호로그루가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히 변방의 성 1개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 작전에서 도하는 가

102) 강원도 내지에 고구려성이나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 신라 진출 이전까지 영역화 과정 없이 고구려가 강원도 일대를 경영할 수 있었던 이유, 강릉 일대를 영역화한 신라와 춘천 등지에 소수의 횡혈식석실분을 남긴 고구려의 차이 등과 연결해서 이해할 부분이다.

장 위험한 수준에 해당하며, 무사히 도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개전 당일인 6월 25일, 고랑포 일대에 대한 포격으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북안의 국군 제12연대는 북한군과 교전하며, 임진강을 따라 임진나루 쪽으로 후퇴하였고, 제13연대는 고랑포로 강을 건너 북한군 및 적성 방향으로부터 남하한 북한군 전차부대 등과 교전을 거듭하며, 파평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 사이 제11연대는 제12연대 병력의 철수가 완료된 후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철교 폭파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북한군은 평양-사리원-금천-개성-문산-서울로 연결되는 京義道路(1번 도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국군은 병력을 보존하면서 후퇴를 거듭하여 28~29일에 걸쳐 각 부대가 행주와 이산포 부근에서 한강 도하 작전을 펼쳤다.¹⁰³⁾ 상기 사례는 삼국시대 이래 임진강 유역에 자리했던 주요 교통로가 현대에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86년 진사왕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청목령-팔곤성-서쪽 바다에 이르는 관방을 구축하는데, 대체로 마식령산맥 서남단에서부터 황해북도 평산, 해주만으로 연결되는 선에 구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방시설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386년, 389년, 390년 전투에서 고구려는 백제를 상대로 수세에 몰린다. 하지만 결국 고구려는 백제의 북쪽 관방을 넘어 그 이남의 임진강 유역을 공격하는 데에 성공한

10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제4장 개성·문산·봉일천 지구 공방전」, 『한국전쟁전투사: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156~22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4절 개성-문산-봉일천 전투」, 『6.25 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169~243쪽.

다.¹⁰⁴⁾ 그리고 392년 광개토왕이 이끄는 병사 4만은 백제 북쪽 변경의 석현성 등 10개 성을 함락한다. 석현성의 위치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관미성과 칠중성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임진강 이남의 파주 일대로 추정 가능하다.¹⁰⁵⁾

국초 호로탄을 통해 남북을 오갔던 백제군은 말갈과의 교전에 중점을 둔 군사정책을 입안했을 가능성이 크며, 작전지역에 별도의 관방시설을 설치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말갈을 제압하고 예성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이후로는 임진강보다는 예성강을 국경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진강 연안에 별도의 관방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성강 연안의 관방체계가 붕괴하고¹⁰⁶⁾ 임진강에서 도강하는 고구려군을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강 북안의 주요 군사 거점을 상실하고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군의 진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 작전 성공의 경험은

104)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27~29쪽. 이를 두고 당시 고구려군이 수군을 동원해 백제의 관방시설을 우회 공격했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진사왕이 구축한 관방시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큰 효용성이 없었던 마지노선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105)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54~156쪽.

106) 이용호, 「백제 비유왕의 對고구려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450년 대송교섭과 455년 개로왕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北岳史論』 18, 2023, 26~27쪽;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121~123쪽. 최근 비유왕 사망과 관련하여 백제 내부의 해씨 등 온건세력과 고구려가 연계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연구(이용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475년 고구려의 한성 攻陷 당시 참전했던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을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데, 고이만년을 고이왕계 인물로서 개로왕 즉위 시 정변 세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양기석)도 있다. 정변의 배후세력으로 복부 眞氏가 거론되는 만큼 당시 정변에 실패한 백제 고위층이 고구려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백제 북방의 관방체계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고구려로 하여금 임진강 유역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구려는 임진강에 자리한 도강 지점마다 성곽을 쌓고 빠르게 교통로를 확보·통제하였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교통로를 통해 남하한 고구려군은 이내 한반도 중부 이남 각지에서 활발한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호로탄 일대를 감제하는 호로고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는 임진강을 경계로 그 이북을 영역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한강 유역을 점유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고구려의 남부전선이 확장되거나 백제·신라의 반격으로 후퇴할 때에도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역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으며, 주요 교통로인 자비령로를 통제하는 호로고루 또한 건재했다. 고구려 멸망기까지 호로고루의 위상은 단순히 임진강 유역의 성 1개소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고구려 남쪽 국경의 관문, 고구려의 주요 교통로로서 고구려군의 威力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호로하를 건너는 행위만으로도 신라군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호로고루 앞을 지나는 장단도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호로고루를 중심으로 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 위상에 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일이 되면 자비령로-장단도로가 재조명될 기회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에 따라 호로고루가 갖는 위상 또한 재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문헌사료

『舊唐書』 『世宗實錄地理志』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江漢集』 『記言』
『記言別集』 『大東地志』 『東國輿地志』 『輿圖備志』

2. 논고 및 발표문

강종훈, 「상고기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과 지방통치방식」, 『역사와 현실』
31, 1999.

권순진,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
성을 중심으로-」, 『軍史』 83, 2012.
DOI : 10.29212/mh.2012..83.163

고광의, 「남한 출토 고구려 토기 명문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
DOI : 10.35302/wdis.2021.12.27.189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2021.
DOI : <https://doi.org/10.52954/kps.2021.1.44.5>

김상호·김원·최흥식, 「한강 및 임진강의 조위영향분석」, 『韓國水資源
學會論文集』 36-2, 2003.
UCI : G704-000417.2003.36.2.008

김성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京畿道 漣川郡篇-」,
『문화재』 25, 1992.
UCI : G704-SER000010438.1992..25.011

박완수, 「통일 이후 한반도 공유하천의 전략적 가치 연구」, 『한국군사학
논총』 2-1, 2013.
DOI : 10.34166/rokms.2013.2.1.211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DOI : 10.22827/seoul.2023..113.001

- 朴現圭, 「임진왜란 양주 蟹踰嶺 전투 勝將 申恪의 참형 기록 고찰」,
『東亞人文學』 58, 2022.
DOI : 10.52639/JEAH.2022.03.58.325
-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DOI : 10.23024/pah.2007..26.279
- 백종오,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8, 2008.
DOI : 10.23024/pah.2008..28.113
- 백종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徵的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66, 2012.
UCI : G704-000848.2012..66.008
-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 방문화』 25-2, 2022.
DOI : 10.17068/lhc.2022.11.25.2.229
-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2002.
UCI : G704-000879.2002..17.015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UCI : I410-ECN-0102-2008-910-002525418
- 徐榮一,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34, 2009.
UCI : G704-001251.2009.34.34.008
-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제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DOI : 10.35300/bjclab.56.0.201702.199
- 서영일, 「임진강 유역 교통로」,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 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a.
UCI : G704-000730.2011.74.74.007

-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제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 35, 2011b.
DOI : 10.23024/pah.2011..35.189
-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백제·고구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a.
DOI : 10.35160/sjekh.2022.08.41.5
- 신광철, 「관방체제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2b.
- 신형식, 「증원고구려비의 성격」,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 沈光注,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 심광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研究』 62, 2018.
DOI : 10.34159/tkby.62..201811.003
- 안성현·박동선,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
DOI : 10.35160/sjekh.2019.08.32.425
-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文物研究』 34, 2018.
DOI : 10.23117/jcr.2018.34.34.004
- 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UCI : G704-001250.2010.36..008
-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UCI : G704-002037.2011.10.2.004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DOI : 10.35160/sjekh.2022.08.41.45

이용호, 「백제 비유왕의 對高句麗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450년 대송교섭과 455년 개로왕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北岳史論』 18, 2023.

DOI : 10.37288/bukak.2023.18.1.5

이 재 · 강성문 · 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 1993.

이정빈,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2019.

DOI : 10.31218/TRKH.2019.06.134.39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UCI : G704-001361.2004.16.3.002

李俊貞,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 · 象徵的 意味」, 『韓國考古學報』 79, 2011.

UCI : G704-000699.2011..79.004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장창은, 「신라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UCI : G704-000848.2004.33..001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運用」,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DOI : 10.35160/sjekh.2021.08.38.9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 · 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DOI : 10.35160/sjekh.2022.12.42.147

정요근, 「고려중 · 후기 ‘임진도로(臨津渡路)’의 부상(浮上)과 그 영향」, 『역사와 현실』 59, 2006.

UCI : G704-000054.2006..59.006

-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 조한정, 「박제상과 5세기 초 신라 정치」, 『東아시아古代學』 25, 2011.
UCI : G704-001430.2011..25.012
-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신라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1999.
-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教美術』 7, 1983.
-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 今西龍, 「瓠盧古壘址」, 『大正五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16.

3.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 전투』, 2005.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 徐榮一,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99.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2013.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上)』, 1990.
-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長湍郡)』, 1942.

4. 보고서

-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 경기도·경기문화재단·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곡선사박물관건립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연천 전곡리성: B·D·E지구』, 2010.

-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 京畿道博物館·坡州市, 『坡州 六溪土城: 試掘調査報告書』, 2006.
- 경기도 연천군·(재)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2018.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8.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연천군·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재)수도문물연구원, 「연천 무등리(산8번지 일원) 고성산보루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중앙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연천 은대리성』, 2018.

坡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II: 1~5次 學術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1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Ⅱ(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지역』, 1999.



(Abstract)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Horogoru' in Goguryeo's Southern Front

Shin, Kwang-cheol

The Imjingang River basin is the end point of the southern front line and remained the home of Goguryeo until the collapse of Goguryeo. As a resul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from other areas within the southern front, but a rather similar pattern to the western front has been confirmed. The basin provided advantages in terms of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secur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roop management, and territorial defense, so Goguryeo tried to occupy the Imjin River basin in a stable manner.

Currently, 20 Gwanbang sites are distributed along the river in the Imjingang River basin, which shows that fortresses and bastions were organically linked between Goguryeo and Silla to form a "line" shaped border similar to the modern border. Among them, Horogoru has many similarities in terms of Jian's domesticity, Pyongyang's Daeseongsanseong Fortres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tructure, and it can be assumed that it has functioned as a military and political army camp in the region.

In particular, Horogoru's geopolitical status is unrivaled in the Imjin River basin, as it is possible to keep watch Horogoru, the first Yeowolmok from the downstream side, in the Imjin River, which is limited to across the river due to its topography.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Goguryeo troops, which moved south through stable transportation routes, soon carried out active military operations in the south of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 starting point was Horogoru to reduce the area of Horotan. Until the collapse of Goguryeo, Horogoru's status would have been

recognized as a space where the power of Goguryeo troops operated effectively as Gateway on the southern border of Goguryeo, rather than simply being limited to one castle in the Imjin River basin.

Keywords : Goguryeo, Southern Front, Imjin River, Horotan, Horoha, Horogoru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161-220
<https://doi.org/10.29212/mh.2023..129.1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三國時期 七重城에 대한 諸檢討와 戰略的 位相*

정동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고고학 측면에서 바라 본 칠중성
3. 문헌 기록 속의 칠중성
4. 맺음말 - 칠중성의 전략적 위상-

초 록 칠중성은 경기도 파주의 칠중성으로 비정되는 성곽으로 그 위치가 명확하게 비정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칠중성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영유권 변천을 통해 당시의 접경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칠중성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제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경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백제는 토성 혹은 토루나 柵과 같은 형태의 칠중성을 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영유하면서 칠중성을 차지하였는데, 특별한 개·보수 없이 그대로 연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7세기 전반에 신라가 차지하면서 석축 형태로 개축하였다.

칠중성은 임진강의 여울인 술탄과 호로탄을 통한 도하를 감시·통제하였는데, 이를 통해 평양-서울 교통로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또한 임진강 유역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 되면서 칠중성은 남·북진 세력 모두 진군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칠중성은 7세기 전반 신라와 고구려가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만약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한다면 한강 유역 방어와 북진의 거점성 역할을 하던 북한산성으로 빠르게 진군할 수 있음으로써 한강유역 진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칠중성은 신라에 있어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기능은 나당 전쟁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칠중성은 신라의 성곽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파천로의 아미성과 수철성 그리고 설마천로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리는 거점성으로 기능하였다. 나아가 포천 반월산성과 더불어 7세기대 임진강-한탄강 방어선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주제어 : 칠중성, 임진강, 술탄, 한강, 북한산성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머리말

주지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삼국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국의 교차 지대 즉 접경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는데, 함경남도 안변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 지대를 흘러 서해로 유입되는 임진강과 그 인근 유역이 서북한과 한반도 중부를 잇는 남북중단로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¹⁾ 속에서 대표적인 접경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었다. 한편 삼국의 전투는 주로 성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임진강 유역에는 삼국이 축조한 성곽이 다수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성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칠중성(七重城)이다.

파주 칠중성은 『삼국사기』, 『당서』, 『자치통감』 등 각종 문헌에 보이는 성곽으로²⁾ 7세기경 삼국통합전 속에서 신라와 고구려 사이 그리고 나당전쟁 속에서 신라와 당(唐)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칠중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대의 성곽 가운데 삼국 관련 문헌에 보이는 성곽과 명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성곽은 매우 적는데, 이 점에서 칠중성은 역사적

1)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54쪽.

2) 조선시기에 편찬된 지리지를 보면 칠중성은 ‘吐吞(古)城’ 혹은 重城, 칠중성이 위치한 중성산은 ‘城山’으로 불렸다(『신증동국여지승람』 積城縣 古跡條; 『동국여지승람』 積城縣 古跡條; 『여지도서』 京畿道 積城 古跡條; 『대동지지』 積城 城池條). 한편 ‘토탄(古)성’에서 ‘토탄’에 대해 ‘뺏기고 빼앗는다’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칠중성이 임진강을 둘러싼 삼국간의 격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명칭으로 추정하기도 하고(홍재선, 「적성 칠중성 조사약보」, 『불교미술』 7, 1983, 22·31쪽), 임진강의 또 다른 명칭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35쪽).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삼국의 접경, 지리·교통적 그리고 군사·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임을 인정받으면서 칠중성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임진강 유역을 둘러싼 교통로와 관방 체계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 성과 속에서 대거 소개되었다.³⁾

그런데 칠중성은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하였고 이에 따른 군부대의 진지 및 참호 개설로 인해 지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⁴⁾,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곽의 형태나 구조 그리고 초축 시기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등 정확한 현황이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칠중성과 관련한 문헌 기록 또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매우 소략하여 성곽을 둘러싼 자

3)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 2005 ; 심광주,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파주시지(5)-파주역사』, 파주시, 2009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대구사학』 130, 2018 ; 지종학,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파주 적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8, 2018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김병희·서영교,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말갈 수군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18, 2021.

4) 칠중성은 1942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고(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1982년에는 동국대학교 박물관(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985~1986년에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경기도 백제문화유적』, 1986), 1992~1993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1994년에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1998~1999년에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000년에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와 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2001), 2005~2006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한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고고학적 조사와 문헌 기록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참고하면서 칠중성과 관련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를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칠중성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영유권 변천을 통해 당시의 접경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칠중성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위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고고학적 측면에서 바라 본 칠중성

가. 고고조사 내용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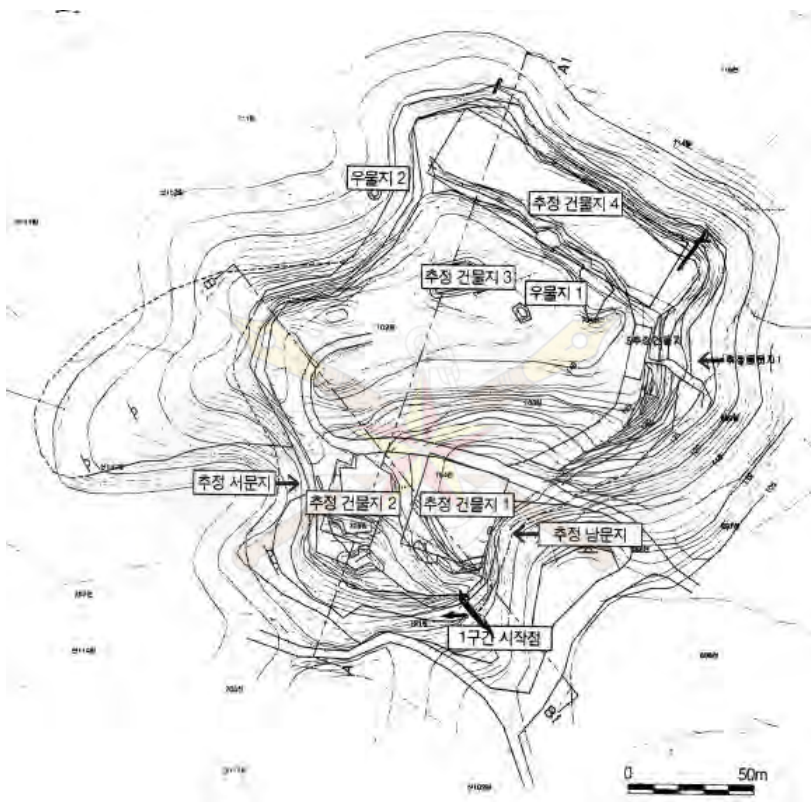
칠중성은 임진강 중류 남안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한 중성산과 그 서쪽 서봉(西峰)의 8~9부 능선상에 축성된 테피식 산성이다.⁶⁾ 칠중성이란 성곽명에 대해서 ‘겹성벽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모성(母城)으로 칠중성과 그 주변에 6개의 자성(子城)을 축조하면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등이 있지

5) 칠중성의 고고 조사에 대해서는 주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을 참고하였다.

6) 중성산을 주봉으로 하고 西峰을 연결시킨 산성(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4쪽) 혹은 중성산 북쪽으로 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내려오다가 동쪽 부분에서 작은 계곡을 감싼 산성(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으로 보면서 포곡식으로 파악하기도 하며(심광주, 앞의 논문, 2009, 66쪽), 테피식과 포곡식의 중간형태로서 산비탈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민덕식, 「백제 한성기의 한강 이북 교통로에 관한 시고(상)-백제 초기 도성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선사와 고대』 2, 1992, 112쪽).

만, 성곽 주변에 흐르는 임진강의 옛 명칭인 ‘칠중하(七重河)’⁷⁾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그림 1〉 칠중성 평면도



* 출처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131쪽.

7) 『대동지지』 권3, 積城 山水條, “戊灘 西八里 神智江下流 其次爲長端高浪津 右三處 通稱臨津江 三國時以比稱七重河”

8)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2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8~40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8~29쪽;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66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39쪽.

성곽이 위치한 중성산과 서봉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줄기로서⁹⁾ 그 해발은 각각 147m와 142m로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주변으로 낮은 구릉과 평야가 이어지고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임진강 일대 주변을 살피는 데 매우 유리한데¹⁰⁾, 북서쪽으로는 연천 호로고루와 고랑포, 북쪽으로는 파주 육계토성과 주월리 일대, 남동쪽으로는 적성면과 감악산(해발 675m), 남서쪽으로는 파평산(해발 495m)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성곽이 자리잡고 있는 입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고동저로, 북동쪽이 가장 높고 현재 성내진입로가 있는 동남쪽이 가장 낮다.¹¹⁾

성벽은 남벽 80m, 서벽 200m, 북벽 140m, 동벽 183m로 전체 둘레가 603m이고, 남북 너비는 198m, 동서 너비는 168m이다(그림 1). 화강암과 편마암 그리고 일부 현무암 석재를 면석으로 가공하여 ‘品’자형으로 쌓았으며, 뒷채움은 주로 마름모꼴에 가까운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긴 방향을 면석쪽으로 놓았고 할석과 할석이 엇물리도록 하였으며 사이의 틈에는 강돌이나 흙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축조방식으로는 외벽으로만 이루어진 편축식,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협축식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아 방어가 취약한 남벽과 동벽에서 협축식이 확인되고 있다.

성벽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벽과 남벽의 여러 구간에서 내벽, 외벽, 외벽기단부 보축성벽 등 성벽 중복이 확인된다는 점이다.¹²⁾ 예컨대 동문 근처 성벽구간에는 1차 외벽과 2차

9)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4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9쪽 ; 앞의 논문, 2005,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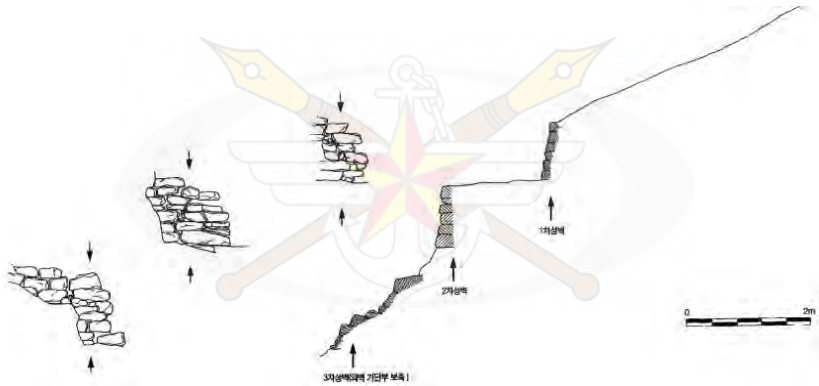
1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7쪽.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0쪽 ; 앞의 책, 2006, 84쪽.

12) 홍재선은 동·남·서편에서 이중축성, 북편에서 한겹의 축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하였지만(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7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은 겹성벽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육군사관학

외벽 그리고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이 중첩되어 있다. 1차 외벽은 가공한 장방형의 화강암·편마암 성돌로 쌓았다. 2차 외벽은 1차 외벽에서 3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암반면에 점토+모래로 다진 후 그 위에 장방형의 화강암·편마암 성돌을 쌓았다. 그리고 두 외벽 사이에는 2차 외벽의 뒤채움돌이 있다.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은 2차 외벽에서 1m 떨어진 지점에 있고, 뒷심을 기울이며 상단으로 갈수록 들여쌓기를 하여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다(그림 2).

〈그림 2〉 칠중성 동문 근처 성벽구간 단·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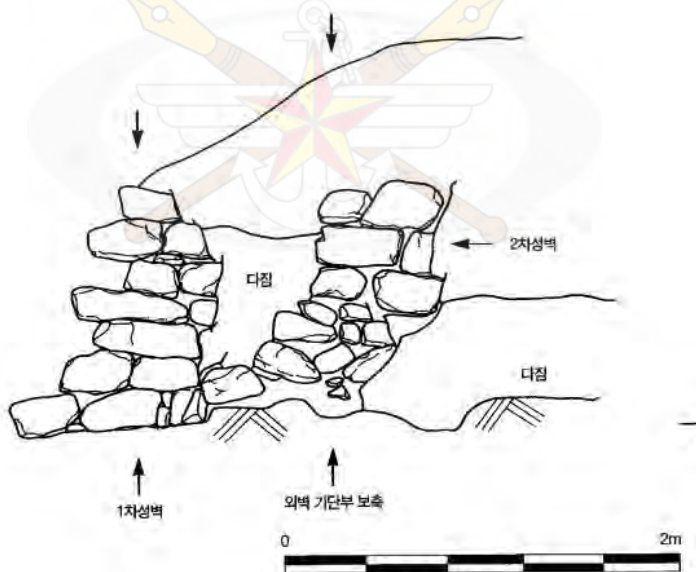
* 출처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145쪽

현재 성 내부로 들어가는 동벽진입로에도 1차 외벽과 2차 외벽 그리고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이 중첩되어 있다. 1차 외벽은

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8~40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3쪽). 한편 朝鮮總督府의 조사 보고를 보면 칠중성에 대해 ‘이중 원형’ 이라고만 기록하면서 ‘겹성벽’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내성과 외성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2, 47쪽), 홍재선은 내성과 외성(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8쪽), 민덕식은 내성과 나성(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4쪽)을 갖추었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

‘L’자형으로 삭토하고 그 위에 점토를 바른 후 장방형의 편마암 성돌을 쌓았으며, 뒷채움은 점토와 잡석을 섞어서 다졌다.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은 1차 외벽에서 90c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부정형의 할석으로 쌓았는데, 뒷심을 기울이며 쌓으면서 비스듬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2차 외벽은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을 해체한 후 그 위에 축조하였고, 1차 외벽과 같은 장방형의 편마암 성돌로 쌓았다. 1차 외벽과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로 볼 때 두 성벽이 접하는 부분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림 3).

〈그림 3〉 칠중성 동벽진입로 성벽구간 단·입면도



* 출처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 파주시, 2001, 148쪽

문지는 동문, 동남문¹³⁾, 서문 등 3곳이 확인되었다. 동문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능선,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에 있는 건물지에서 올라오는 길, 동남벽 내부의 평탄지에 있는 건물지로 내려가는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다. 동남문은 적성면 구읍리에서 올라오는 자연계곡선상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서문은 적성면 두지리에서 올라오는 계곡선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계곡 양 옆으로 토루 흔적이 있다. 한편 수구지는 동남문 근처에서 한 곳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동남벽 내부의 평탄지, 남벽 내부의 서문과 마주하는 지점, 중성산 정상부,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 동문 내부 등 5곳에서 확인되었는데, 군사시설 개설 등으로 인해 대부분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 남벽 내부의 서문과 마주하는 지점 및 중성산 정상부에 자리잡은 건물지는 성내·외의 조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각각 망대와 장대로 추정되고 있다.¹⁴⁾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에 자리잡은 건물지는 성곽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지인데, 중간에 1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하로 2개의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물지가 서북벽 바깥 20~25m 지점과 동문 내부 건물지의 서쪽 지점 등 2곳에서 확인되었다.¹⁵⁾

성곽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기와로, 모두 암키와와 수키와 등의 평기와이다.¹⁶⁾ 승문, 종선문, 사선문, 무

13) 민덕식, 국립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등은 남문으로 보고하였는데(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4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3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131쪽 도면 1), 본 고에서는 동벽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남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2쪽.

15)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2개 이외에 또 다른 우물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4쪽).

16) 칠층성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해서는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3~26·29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0~43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

문, 사격자문, 어골문, 격자문, 기하문 그리고 당초문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되었고, 또한 고구려¹⁷⁾, 백제¹⁸⁾, 신라, 고려, 조선 등 다양한 국가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신라계 기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벽 보축성벽에서 ‘七’자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성곽명과 관련해서 주목되고 있으며 사격자문 계통으로 신라계 양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기와 다음으로 출토량이 많은 유물은 토기편으로 고배, 병, 시루, (광구)호, 인화문 뚜껑, 발형 토기, 완,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²⁰⁾ 백제계²¹⁾와 고구려계²²⁾의 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신라

학과, 앞의 책, 1999, 231~235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236~237·239~240쪽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79~302쪽 등도 참고하기 바란다.

- 17) 홍재선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고구려 계통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4~25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서벽에서 출토된 니질의 승문기와 1점을 고구려 기와로 추정하였고, 당초문 기와를 고구려계로 파악하였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4쪽). 다만 삼국의 기와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18) 홍재선이 부여 청마산성과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백제계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3~24쪽), 삼국의 기와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1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254쪽.
- 20) 칠중성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서는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7~30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2~43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233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239쪽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02~307쪽 등도 참고하기 바란다.
- 21) 홍재선은 부여 청마산성 입구의 버팀발과 공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백제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고(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9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적갈색 연질의 타날문 심발형토기(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3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회백색 연질토기편과 흑색 마연토기를 백제 토기로 보았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5쪽). 다만 삼국의 토기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2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회흑색과 황갈색 토기편(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흑색의 연질토기편 일부를 고구려계로 보았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4·267쪽).

계 토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²³⁾ 기와와 토기 외에는 철기로 낫, 술, 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나. 축조 주체 및 시기 검토

칠중성은 수개축의 흔적이 있을 뿐더러²⁴⁾ 삼국의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다. 칠중성을 둘러싸고 삼국간 치열한 쟁탈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 내용과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맞물려 칠중성이 언제 그리고 어느 국가에 의해 축조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고고학적 양상을 살펴보면, 칠중성 남벽에 보이는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의 경우 가공한 장방형의 석재로 쌓았고 매단 들어쌓기를 하였으며 면석의 뒷부분을 앞부분보다 낮게 하여 부채꼴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축성벽은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연천 대전리산성 등 경기도내 신라 성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7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²⁵⁾ 한편 외벽기단부 보축성벽과 체성벽 간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보축성벽 내외부의 점토층에 혼합된 기와가 뒤채움에서 보이지 않고 보축성벽의 기단석이 체성기단석보다 높다는 점을 들면서 동시 축조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차 외벽과 2차 외벽의 경우에는 크기나 형태 그리고 축조방법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23)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5쪽.

24) 예컨대 남벽 일부 구간에서 중수 흔적이 확인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51쪽).

25)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94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2~253쪽 ; 서영일, 「6~7세기 고구려 남경 고찰」, 『고구려연구』 11, 2001, 34쪽.

고 하면서 축조시기차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데,²⁶⁾ 그렇다면 현재 보이는 석축 산성의 모습은 7세기경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신라계로, 특히 기와와 토기는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성산성, 아차산성 등 경기도내 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중심연대를 7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현재 칠중성은 7세기대의 신라 성곽과 유물의 특징이 대거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를 보면 칠중성은 638년 3월에 ‘칠중성 남쪽의 커다란 돌이 스스로 35보 움직였다’라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기사는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수록되어 있다.²⁸⁾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서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고 하여 당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²⁹⁾ 고고 자료와 문헌 기록 모두 신라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신라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고 동문지 안쪽의 평탄지에 신라 성곽에서 볼 수 있는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신라가 처음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³⁰⁾

전술하였듯이 칠중성에 대해 신라가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하나³¹⁾, 여러 정황이나 고고 자료를 감안하면 백제가 축조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³²⁾ 삼국 가운데 백제가 3세기 후반

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0·251쪽.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255~256쪽.

28)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7년 3월, “七年 春三月 七重城南大石自移三十五步”

29) 본 고 기사 A를 참고하기 바란다.

30)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231쪽.

31) 연천 옥녀봉산성 및 군자산성과 더불어 6세기 이후 고구려와 대치했던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428쪽).

32) 홍재선, 민덕식, 김덕원 등이 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홍재선, 앞의 논문).

~4세기 전반경에 임진강 유역을 처음으로 차지하였고,³³⁾ 당시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성곽을 다수 축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제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강원도 평강으로 추정되는 부현(斧縣)에서 말갈(동예)과 접경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³⁴⁾ 석두성(石頭城)과 고목성(高木城)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³⁵⁾, 석두성은 고구려의 소읍두현(所邑豆縣)으로 연천군 삭녕 일대³⁶⁾, 고목성은 고구려의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연천군 연천읍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³⁷⁾ 그리고 392년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략하면서 7월에 석현성(石峴城)을 포함한 10여 개의 성 그리고 10월에는 관미성(關彌城) 등 백제의 성을 빼앗았다고 하는데³⁸⁾ 석현성은 파주 일대³⁹⁾, 관미성은 임진강과 한강 하구의 합류처⁴⁰⁾ 그리고 10여 개의 성 가운데 일부는 임진강 유역에 위치

문, 1983, 17~22쪽 ;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3~9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39~341쪽).

33)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57~58쪽.

34)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176~177쪽.

35)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22년 8월.

36)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a, 356쪽. 石頭城은 『삼국사기』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8년 5월조와 권27, 百濟本紀5 武王 8년 5월조에도 보이지만, 이때 석두성은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기 때문에(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2002, 62쪽 ;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 2004, 30쪽) 동일한 성곽이라고 볼 수 없다.

37) 이병도, 앞의 책, 1976a, 356쪽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한국학보』 3, 1976, 120쪽.

38)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는 『삼국사기』 本紀의 기록임을 밝힌다.

39) 石峴城을 신라 波平縣 즉 波害平史의 훈차로 보면서 파주 파평면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1~182쪽). 한편으로는 關彌城과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나당전쟁기에 보이는 석현성과 동일시하면서 철중성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주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54~156쪽).

40)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70~71쪽 ; 佐伯

하였다고 추정된다.⁴¹⁾

한편으로 칠중성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파주 육계토성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백제에 의해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⁴²⁾ 즉, 3~4세기 백제와 말갈·한군현(漢郡縣)·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에서 접경을 형성하고 백제가 임진강 이남에 성곽을 다수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충지에 자리잡은 칠중성의 입지를 감안할 때 당시 백제가 축조한 성곽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⁴³⁾

칠중성 주변 입지가 백제 도성인 서울 풍납토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백제 성곽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술하였듯이 칠중성 북쪽에는 육계토성이 있다. 육계토성과 풍납토성을 비교해보면 두 성곽 모두 토성이고 각각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강 본류의 충적대지 남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육계토성의 배후에는 칠중성과 감악산, 대안(對岸)에는 연천 호로고루와 파주 이잔미성이 있고 본류에는 사마천과 석장천이 합류하는 반면, 풍납토성의 배후에는 이성산성과 남한산, 대안에는 아차산성이 있고 본류에는 중랑천과 왕숙천이 합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계토성과 풍납토성 사이에 입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유사한 입지 속에서 이성산성이 풍납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

有清,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吉川弘文館, 1977, 68쪽; 천관우,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49쪽. 구체적으로는 파주 오두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대동지지』 권3 交河城池;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 2, 1990, 126~131쪽; 김운우,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1995, 234~240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3~186쪽;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58~162쪽).

41)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53~157쪽.

42) 홍박음, 「파주 육계토성 실체를 드러내다」, 『문화재 窓』 51, 2022, 10쪽.

4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1쪽.

된 것에 대응하여 칠중성이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⁴⁴⁾ 칠중성이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를 백제가 축조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도 한다.⁴⁵⁾ 육계토성은 강안 평지에 위치한 백제의 주거지로서 이를 방어하는 배후가 반드시 필요한데, 칠중성이 그 역할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칠중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백제 축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칠중성에서는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유물도 적게나마 출토되었다. 그런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면서⁴⁶⁾ 백제 축조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⁴⁷⁾ 물론 성곽에서 백제의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초기 백제계 유물 출토를 바로 백제의 축조와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⁴⁸⁾ 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칠중성의 축조와 관련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칠중성은 7세기대의 신라 성곽과 유물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만, 성곽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연용성’⁴⁹⁾이라는 점을

44) 백종오, 「六溪土城의 調査·研究成果와 歷史的 價值」, 『선사와 고대』 68, 2022, 43쪽. 한편 동·남·서편에서 확인되는 이중 축성법이 부여 부소산성과 성흥산성 등 백제계 성곽에서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석축성(칠중성)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토성(육계토성, 가월리토성, 범바위토성)을 분포시키는 배치가 백제의 국도인 부여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백제가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18쪽).

4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7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46) 일부 백제 토기에 대해 5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47)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1쪽.

4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257쪽.

49) 백종오,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 71, 2023, 18쪽.

고려하면 축조 시기와 주체를 7세기대 신라로 한정할 수 없고, 앞에서 언급한 정황이나 고고 자료를 감안하면 백제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칠중성에서 신라에 의한 석축만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 즉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 토성이나 토성에 외면만 축성한 성곽을 축조하였고⁵⁰⁾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석축 성곽이 보급되었을 것⁵¹⁾이라는 견해를 감안하면 백제와 관련한 석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제가 중성산에 석축 성곽이 아닌 다른 관방시설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이다. 예컨대 백제는 3세기~5세기 후반에 토성 위주의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 백제가 육계토성과 같은 토성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⁵²⁾

대모산성을 참고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모산성에서는 신라가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 성벽보다 낮은 위치에서 능선이 이어지다가 평탄해진 곳과 토루처럼 발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백제 토기들이 있는 저장구덩이가 발견된 것을 감안하여 석축 성벽이 구축되기 이전 그 아래로 토루나 책(柵)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⁵³⁾ 칠중성의 성벽 외부에도 토루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신라가 석축 성벽을 구축하기 전 백제가 구축한 방어시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50) 백종오, 앞의 논문, 2023, 19쪽.

51) 윤무병, 「산성·왕성·사비군성」, 『백제연구』 21, 1990, 7쪽.

52)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39쪽.

53)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1990, 33쪽 ;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3쪽.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보자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경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백제는 중성산에 토성 혹은 토루나 책과 같은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임진강과 한강을 건너 한반도 중부로 진출 하던 상황에서 중성산의 관방시설을 차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한반도 중부에 보루를 축조하거나 백제의 관방시설을 연용하였 던 모습을 감안하면⁵⁴⁾ 기존의 관방시설을 이용하면서 군대를 주 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7세기 전반에 신라가 북진하여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하였을 때 경기도 일대에 대거 석축 성곽을 축조하는 경향 속에서⁵⁵⁾ 지금의 모습과 같은 석축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론일 뿐이고, 앞으로의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칠중성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한편 칠중성과 육계토성에서 출토된 삼국시기 유물을 비교해 보면 백제 유물은 육계토성에서 훨씬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유물의 경우 육계토성에서는 안정된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5세기 고구려 남진기에 중요 거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⁵⁶⁾ 반면 신라 유물은 칠중성에서 대거 출토되었고, 육계토성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일대의 주역이 육계토성에서 칠중성으로 넘어갔다는 근거로, 칠중성이 백제와 고구려가 차지하였을 때에는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에 불과하였지만, 7세기 전반에 신라가 차지하였을 때에는 단순히 배후 성곽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하였음을

54)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2020, 251쪽; 백종오, 앞의 논문, 2023, 11쪽.

55) 임진강 유역에 석성 축조를 유행시킨 국가에 대해 신라로 보기도 한다(민덕식, 앞의 논문, 1992, 132쪽).

56)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4쪽.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⁵⁷⁾

‘칠중성’이란 성곽명에 대해 백제가 처음 축조하였을 때에는 ‘난은별(難隱別)’이라고 불렀고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비로소 칠중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⁵⁸⁾ 반면 백제가 처음 축조한 이래 계속해서 칠중성으로 불렀다고 보기도 한다.⁵⁹⁾ 정확히 언제부터 칠중성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세기 전반 신라가 차지한 후에 칠중성의 기능이 크게 부각되면서 석축화되었고 문헌 사료에도 성곽명이 처음 등장함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본 고에서는 그 문제를 떠나서 백제가 축조한 관방시설까지 소급하여 칠중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3. 문헌 기록 속의 칠중성

가. 백제-고구려 대립과 칠중성

주지하듯이 313~314년 고구려는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소멸시켰고,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는 비로소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4세기 후반에 이르러 낙랑(樂浪)·대방(帶方)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371~377년 일련의 공방전 속에서 멸악산맥을 중심으로

57) 파주 육계토성은 강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에 비해 가용 면적이 넓고 많은 인원이 주둔할 수 있는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춘 지역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1994, 24쪽; 이재, 「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8, 1995, 112쪽;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89쪽).

5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0쪽.

5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3쪽.

접경을 형성하였다.⁶⁰⁾ 그러다가 392년 광개토왕이 대규모 백제 공략에 나섰고, 이에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과 관미성을 차지하였다.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에 백제가 빼앗긴 영역을 수복하고자 393~395년에 관미성, 수곡성(水谷城-황해북도 신계)⁶¹⁾, 패수(湍水-예성강)⁶²⁾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들 전장은 모두 예성강 일대였다. 즉, 백제의 반격으로 인해 양국의 접경이 임진강 유역에서 예성강 유역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가 영토 수복을 시도하며 맞서자 광개토왕은 396년에 다시 대규모 백제 공략에 나섰는데, 백제 도성인 한성(漢城)을 함락하고 ‘58성(城) 700촌(村)’을 차지함으로써⁶³⁾ 예성강-임진강-경기 서해안-한강 하류-북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⁶⁴⁾ 이때 백제는 고구려에 일시 항복하면서 도성과 한강 하류 유역을 되찾았다. 그리고 곧이어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404년에는 왜(倭)를 움직여 황해도 연안으로 추정되는 대방계(帶方界)를 침략하도록 하였다.⁶⁵⁾ 왜가 대방계를 공격한 이유는 당시 고구려의 북쪽 변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가 예성강 이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는 398년에 쌍현성(雙峴城)을 축조하였는데, 백제 최북단에 축조된 성곽으로서⁶⁶⁾ 그 위치에 대해서는 파주 장단이

60)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170쪽;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2006, 46~50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70~178쪽;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 49, 2014, 61~66쪽.

6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黃海道 新溪縣.

62) 『고려사』 地理志3, 黃海道 黃州牧 平州.

63) <광개토왕릉비> 永樂 6년.

64)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8~200쪽.

65) <광개토왕릉비> 永樂 14년.

66)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 72, 2008, 18쪽.

나⁶⁷⁾ 연천⁶⁸⁾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396년 이래 양국은 예성강 이남-임진강 이북을 접경공간으로 설정하고 완충지대로 삼으며 대치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이후 양국의 국경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던 475년까지 고착되었다.

392~475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는 예성강 유역 혹은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 칠중성은 고구려에 의해 운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마다 백제가 곧바로 탈환하면서 운용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므로 칠중성은 대체로 백제에 의해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96년 이래 고착화된 양국의 접경은 475년에 이르러 대변환이 이루어졌고 그 변환의 시작은 고구려의 한성 함락이었다. 이후 양국 사이의 충돌 양상을 살펴보면 512년 가불성(加弗城)과 원산성(圓山城)에서 전투를 벌여 고구려가 차지하였고, 548년에는 독산성(獨山城)에서 백제가 승리를 거두었으며, 550년에는 백제가 도살성(道薩城)을 차지하였고 고구려가 금현성(金峴城)을 포위하였다. 양국간 전투가 벌어진 가불성과 원산성은 충남 천안 일대⁷⁰⁾, 독산성은 충남 예산⁷¹⁾, 도살성과 금현성은 각각 충북 증평 도안 일대와 세종 전의면 일대⁷²⁾로 비정된다. 이로 보

67) 문안식, 앞의 책, 2006, 194쪽; 서영일, 앞의 논문, 2008, 18쪽.

68) 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40~41쪽.

69)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74~175쪽.

70)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2013, 138~139쪽.

71) 문안식, 앞의 책, 2006, 342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0쪽.

72) 양기석,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12·13, 1999, 371쪽; 김영관,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47, 2008, 49~51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2쪽;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 2018, 82~83쪽.

아 양국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차령산맥과 금강 지류인 미호천 유역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접경을 형성하였다고 여겨진다.⁷³⁾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가 차령산맥과 미호천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데, 4세기 후반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편입하였을 때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에 있어서 임진강 유역은 4세기 후반에는 전방이었지만,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는 후방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군사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지역 지배를 위한 거점적 성격의 시설을 다수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강안)평지성인 호로그루, 연천 당포성, 연천 은대리성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⁷⁴⁾

이와 같이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의 지배를 염두하면서 지방 거점적 성격의 시설들을 축조하였지만 기존의 성곽인 칠중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 임진강, 남쪽에 감악산이 있는 상황에서 칠중성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⁵⁾ 그렇다면 칠중성은 특별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제가 축조한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73)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36~145쪽.

74)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77~79쪽. 연천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 5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105쪽).

75)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1쪽.

나. 고구려-신라 대립과 칠중성

전술하였듯이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는 차령산맥과 미호천 유역까지 진출하였는데, 551년에 대변환이 일어났다. 백제와 신라가 군사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죽령(竹嶺)과 강원도 철령으로 비정⁷⁶⁾되는 고현(高峴) 사이의 고구려 10성(군)을 차지함으로써⁷⁷⁾ 한강 중상류유역을 차지하였고, 백제는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로 추정되는 한성과 아차산 일대로 비정되는 평양(平壤)을 차지함으로써 한강 하류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⁷⁸⁾ 하지만 백제의 한강 하류유역 차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552년 고구려와 신라가 밀약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려 하면서 553년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에서 자진 퇴각하였던 것인데⁷⁹⁾, 이 틈을 타 신라가 한성과 평양을 차지하면서 한강 하류유역마저 차지하게 된다.

신라가 차지한 한성과 평양은 전술하였듯이 각각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와 아차산 일대로서 북한산 이남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북한산에 세워져 있는 <북한산순수비>는 정제미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⁸⁰⁾, 북한산 이북에서는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⁸¹⁾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신라는 553년에 한강 하류유역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산을

76)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b, 671쪽.

77) 『삼국사기』 권44, 列傳4, 居柒夫.

78)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2년.

79)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429~435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45~148쪽.

80)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83~85쪽.

81)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97~201쪽.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순수비〉의 경우 비문에 전하는 ‘남천주(南川州)’가 568년 10월에 설치되었다는 점, 비문에 나오는 인물인 내부지(內부智), 무력지(武力智) 등의 관등이 568년에 건립된 〈황초령순수비〉나 〈마운령순수비〉에 나오는 관등과 동일하다는 점, 세 순수비 모두 ‘욕노뢰여유충신정성(欲勞賴如有忠信精誠)’이란 표현이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68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⁸²⁾, 그렇다면 최소한 568년까지는 신라가 북한산을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551년부터 고구려가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는 603년까지 양국간 충돌 기사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7세기 초반까지 신라와 고구려는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접경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³⁾

이와 같이 6세기 중반~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가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접경을 형성하면서 임진강 유역은 여전히 고구려의 영역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제 임진강 유역은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변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에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축조하면서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호로고루를 석축화한 것처럼⁸⁴⁾ 기존 성곽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거나 임진강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보루를 축조하여 차단·통제하고자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때 보루는 신라와의 밀약을 통해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으로 국경이 정해진 만큼 그 인근에는 축조하지 못하고⁸⁵⁾ 감악산 계곡을 지나는 도로상에

82) 김창호,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1)』, 『대구사학』 22, 1983 ; 한국고대사학회 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신라1·가야편)』, 가락사적개발연구원, 1992, 68~69쪽.

83)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85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80~81쪽.

84) 연천 호로고루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석축화에 대해 6세기 중반경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양시은, 앞의 논문, 2011, 127쪽).

축조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예컨대 노리천로상에 있는 파주 파평 산보루와 파주 노고산보루, 감악산 서쪽의 설마천로상에 있는 파주 감악산보루와 파주 무건리보루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그림 4).

한편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의 경우 칠중성을 북쪽에 두고 삼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칠중성이 배후로서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렸다고 볼 수 있고,⁸⁶⁾ 지역 거점성으로서의 중요성이 비로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와 신라 간 소강기는 603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함으로써 끝이 난다. 즉, 7세기 초반부터 다시 양국간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때부터 칠중성이 문헌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A-①. (선덕여왕 7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범하자 백성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선덕여)왕은 대장군(大將軍) 알천(閼川)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정시키게 하였다. 11월에 알천이 고구려 병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병사가 매우 많았다.⁸⁷⁾

A-②. (영류왕) 21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범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閼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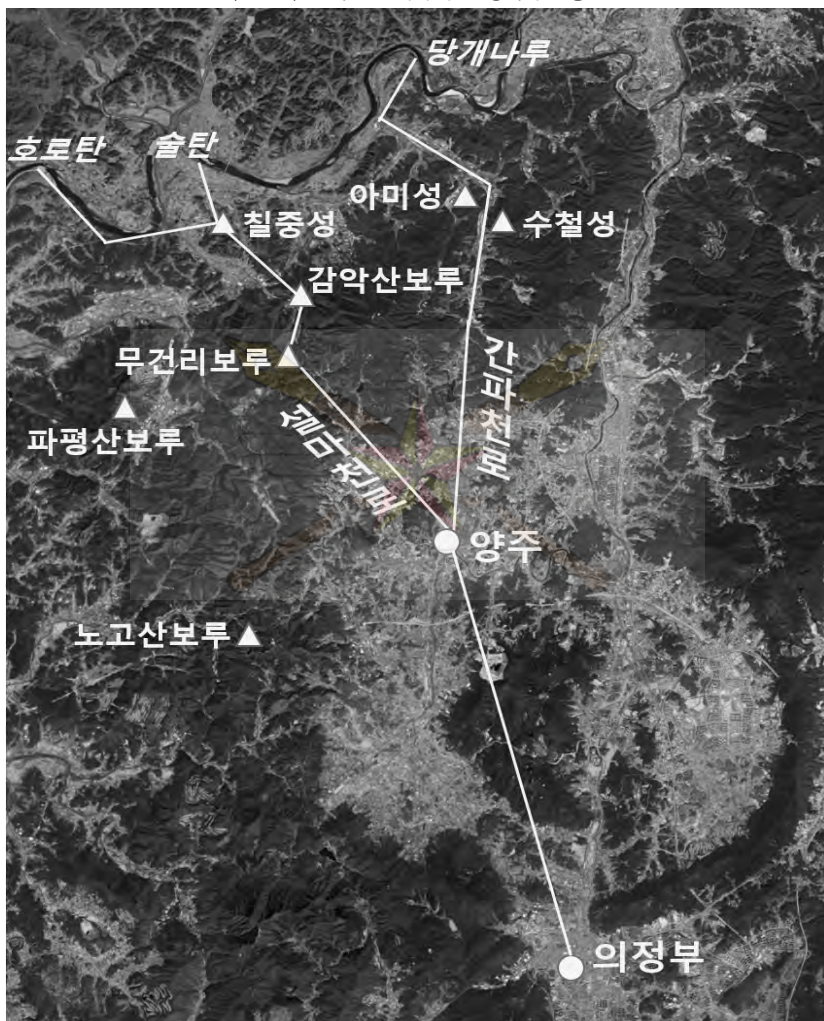
85)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87쪽.

86)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77·382쪽.

87)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7년 10~11월,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入山谷 王命大將軍閼川 安集之 十一月 閼川與高句麗兵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衆”

이 이들을 맞이하여 칠중성 밖에서 싸웠는데, 우리 병사가 패배하였다.⁸⁸⁾

〈그림 4〉 감악산 일대의 주요 성곽과 교통로



88) 『삼국사기』 권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1년 10월, “二十一年 冬十月 侵新羅北邊 七重城 新羅將軍閼川逆之 戰於七重城外 我兵敗”

기사 A에는 638년 10~11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칠중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 담겨 있는데, 문헌 자료에서 칠중성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⁸⁹⁾ 기사에 따르면 고구려가 신라 칠중성을 공격하였고 이에 백성이 동요하면서 거주지를 떠나 산골짜기로 피신하자⁹⁰⁾ 신라 조정이 대장군(大將軍) 알천(閼川)을 보내 백성의 동요를 무마하는 한편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고 한다.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였을 때 신라 조정이 대장군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중앙군의 파견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앙군과 한주(漢州)의 지방군이 동원되어 칠중성 사수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라가 칠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성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칠중성의 백성이 동요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칠중성 인근 변경지역이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⁹¹⁾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백성을 동원한 성곽의 석축화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⁹²⁾ 그렇다면 신라군이 수성전 대신 성바깥에서 싸우는 전술을 펼친 것은 칠중성 성곽의 방어력에 대한 불확신성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당시 칠중성은 수성전 수행보다는 군사들에게 군량 보급이나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강한

89) 『대동지지』 권3, 積城 典故를 보면 603년에 고구려와 말갈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603년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공격’의 오기로 추정된다(김덕원, 2019, 앞의 논문, 344~345쪽).

90) 칠중성 남쪽에 위치한 감악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91) 신라가 임진강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거의 완비한 상황에서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병력을 활용한 사례로 보기도 한다(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5쪽).

92) 신라 성곽의 석축 시점에 대해 강력한 전제왕권이 확립되었고 9州 5小京과 9營 10亭이 완비되었던 신문왕(681~692년)대로 추정하기도 한다(백종오, 앞의 논문, 2022, 39쪽).

성곽⁹³⁾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본 기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638년 당시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에 위치한 성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475년 이래 고구려가 차지했던 칠중성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신라가 차지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629년 신라의 낭비성(娘臂城) 차지가 주목된다. 낭비성은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고구려(高句麗) 한산주(漢山州)에 보이는 견성군(堅城郡)의 고구려 지명인 비성군(臂城郡)으로, ‘마홀군(馬忽郡)’이라고도 불렸고 반월산성에서 ‘마홀(馬忽)’명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월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⁹⁴⁾ 그렇다면 629년부터 신라가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넘어 임진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칠중성 또한 차지하였다고 여겨진다.⁹⁵⁾

하지만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에 위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진강 유역 이남만 차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고구려가 칠중성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이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인데, 660년 10월까지 이와 같은 접경 양상은 계속 이어졌다.

B-①. (무열왕 7년-660년)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였는데, 군주(軍主) 필부(匹夫)가 죽었다.⁹⁶⁾

B-②. 태종대왕은 …… 필부(匹夫)를 칠중성의 현령(縣令)

93) 김병희·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7쪽.

94)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사학지』 28, 1995 ;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95) 서영일, 앞의 논문, 2001, 38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7~350쪽.

96)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 11월, “十一月一日 高句麗侵攻七重城 軍主匹夫死之”

으로 삼았다. 그 다음해인 경신(660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당의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하여 겨울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와서 칠중성을 포위하였다. 필부가 지키고 또한 싸운 지 20여 일이 되자, 적장은 우리의 사졸이 정성을 다해 싸울 때 자신을 돌보지 않음을 보고,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다고 일컬으며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자) 역신인 대나마(大奈麻) 비삽(比歃)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적에게 알리기를, 성내의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였으니, 만약 공격한다면 반드시 항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적이 드디어 다시 싸웠다. …… 이에 (필부가) 군사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충신과 의사(義士)는 죽을 지라도 굽히지 않는다.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 번의 싸움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먹을 쥐고 한번 외치자 병든 자까지 모두 일어나 다투어 앞에 올랐다. 그러나 사기가 피곤하며 죽고 다친 자가 반을 넘었다. 적은 바람을 타면서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여 들이닥쳤다. 필부는 상간(上干) 본숙(本宿), 모지(謀支), 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맞서 활을 쏘았으나 날아오는 화살이 비 오듯 하였는데, 몸이 뚫리고 터지면서 피가 흘러 발꿈치에 이르렀고 이에 쓰러져 죽었다. (태종)대왕이 이를 듣고 매우 슬피 울면서 급찬으로 추증하였다.⁹⁷⁾

97) 『삼국사기』 권47, 列傳7, 匹夫, “太宗大王 ……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 高句麗疾我 以冬十月發兵 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賊將見我士卒盡誠 闕不內顧 謂不可猝拔 便欲引還 逆臣大奈麻比歃密遣人告賊 以城內食盡力窮 若攻之必降 賊遂復戰 …… 乃告軍士曰 忠臣義士 死且不屈 勉哉努力 城之存亡 在此一戰 乃奮拳一呼 病者皆起 爭先登 而士氣疲乏 死傷過半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干李宿·謀支·美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 大王聞之 哭甚痛 追贈級煊”

기사 B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직후인 660년 10~11월에⁹⁸⁾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를 보면 전투가 일어나기 전 칠중성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655년에 고구려는 백제 및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33성을 탈취한 바 있다. 그런데 660년 당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칠중성은 고구려에 빼앗긴 33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33성의 범위는 임진강 유역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⁹⁹⁾ 전투 직전까지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660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양국이 임진강 유역에서 대치하면서 이북은 고구려,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구려는 칠중성을 차지하기 위해 장기전을 감수하였다. 그리고 신라 조정은 칠중성 전투에 대비하면서 필부(匹夫)를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양국 모두 칠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략과 사수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¹⁰⁰⁾ 한편 필부의 파견 당시 관명에 대해서 기사 B-①에는 ‘군주(軍主)’, 기사 B-②에는 ‘현령(縣令)’으로 나온다. 필부는 그 아버지가 제6관등 아찬(阿飡)이었고 전투가 끝난 후 제9관등 급찬(級飡)으로 추증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칠중성 파견 당시 6두품 출신의 제10관등 대나마(大奈麻)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군주는 군단의 지휘관이자 주(州)의 장관으로 급찬~이찬(伊飡)이 임명되었는데,¹⁰¹⁾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필부는 현령으로 임명되어 칠중

98) 칠중성 전투의 개시 시점에 대해 기사 B-①에는 11월 1일, 기사 B-②에는 10월 이라고 나오는데, 대체로 10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9) 신라 33성의 범위에 대한 견해와 참고 문헌은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한 산주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51~5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00) 이영재, 앞의 논문, 2018, 21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3쪽.

10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1쪽.

성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¹⁰²⁾

필부는 휘하에 ‘상간(上干)’을 거느리고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상간은 지방세력에게 부여하는 외위(外位) 가운데 제5관등이다. 즉, 필부는 중앙군이 백제 부흥운동 진압에 나섬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¹⁰³⁾ 상간을 통해 칠중성의 지방민을 동원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칠중성 전투에 비삽(比敵)이 대나마로 참전하였다고 하는데, 필부가 현령으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관등이 대나마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삽 또한 중앙에서 파견된 현령으로서 전투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⁴⁾ 그렇다면 다른 현(縣)에서도 지방민이 동원되어 전투에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즉, 신라는 칠중성 관할 현과 그 주변 현의 병력을 동원하여 칠중성 사수에 나섰던 것이다.

양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는데, 고구려군은 원사 공격과 화공 위주로 칠중성 공략에 나섰다. 이는 날씨와 성곽의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전술이었다. 전투가 전개된 시기는 1월 겨울이었다. 그리고 칠중성은 상대적으로 동쪽과 남쪽이 낮다. 즉, 결빙기에 맞추어¹⁰⁵⁾ 임진강을 도하하면서 겨울에 부는 북서풍을 이용한 원사 공격과 화공으로 칠중성에서 가

102) 기사 B-①에 나오는 ‘軍主’에 대하여 관직명이 아닌 일반명사로 이해하기도 한 대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4쪽).

10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161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2~73쪽 ;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0~62쪽.

104) 기사 B-②에 나오는 ‘七重城下縣令’을 ‘칠중성 관할 현의 현령’으로 해석하면 서 匹夫와 比敵 모두 칠중성 관할 현의 현령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칠중성에 대해 여러 현을 거느린 郡城이나 이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거점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4~65쪽). 그러나 칠중성이 郡으로 승격된 적이 없고 來蘇郡에 속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105) 임진강의 결빙기는 대체로 1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라고 한다(이준선, 앞의 논문, 2005, 164쪽).

장 취약한 동남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던 것이다.

당시 칠중성 전투는 ‘고구려가 다시 임진강 이남을 차지하면서 북한산과 임진강-한강 분수령으로 국경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신라가 ‘이를 저지하느냐’라는 기로의 전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결과에 따라 양국의 접경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위의 기사를 보면 누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전황을 보면 고구려가 원사 공격과 화공으로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세였고, 신라는 전투 수행과정에서 반역자가 발생하고 병사는 피로하였으며 사상자가 절반이 넘었고 전투의 최고 지휘관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전황은 고구려가 승리하여 칠중성을 차지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¹⁰⁶⁾

하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C-①. (문무왕 2년(662년) 1월) (문무)왕이 (김)유신(庾信)과 (김)인문(仁問), (김)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천여 대로 쌀 4천 석과 조(租)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18일에는 풍수촌(風樹村)에서 묵었다. 얼음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지나갈 수 없어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싣었다. 23일에는 칠중하(七重河)를 건너 산양(蒜壤)에 이르렀다. 귀당(貴幢) 제감(弟監) 성천(星川)과 군사(軍師) 술천(述川) 등은 이현(梨峴)에

10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33쪽; 서영일, 앞의 논문, 2001, 40~41쪽; 노태돈, 앞의 책, 2009, 161쪽;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1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8, 18쪽;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 2019, 60쪽;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7쪽; 김병희·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7쪽;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68쪽.

서 적병(고구려군)을 만났는데 그들을 공격하여 죽였다. 2월 1일에 유신 등은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평양에서 36,000보 떨어져 있었다.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 등 15인을 보내 당(唐)의 군영에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동사하였다. 6일에는 양오(楊澳)에 이르렀다. 유신이 아찬(阿飡) 양도와 대감(大監) 인선(仁仙) 등을 보내 군량을 내주었고, …… 소정방(蘇定方)은 군량을 얻고는 곧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유신 등은 당의 군사가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또한 군대를 돌려 과천(瓢川)을 건넜다.¹⁰⁷⁾

- C-②.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부장군(副將軍) (김)인문(仁問), (김)진복(眞服), (김)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과 더불어 병사를 이끌며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 임술(662년) 정월 23일에 칠중하(七重河)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배에) 먼저 오르지 않았다. …… (김유신이) 마침내 먼저 스스로 배에 올라 건너자 모든 장졸이 서로 쫓아서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길에서 잠복하였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험한 데로 행군하였다. 산양(蒜壤)에 이르러 …… 이에 북을 치면서 행군하였다. 길에서 적병을 만났는데, 반격하여 그들을 이겼고 획득한 갑옷과 병사가 매우 많았다. 장새(障塞)의 험한 곳

107)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1~2월,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 十八日 宿風樹村 冰滑道險 車不得行 並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蒜壤 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 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二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風雪寒沍 人馬多凍死 六日 至楊澳 庾信遣阿飡良圖·大監仁仙等致軍糧 …… 定方得軍糧 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瓢川”

에 이르러 매서운 추위를 만났고, 사람과 말은 몹시 피로하여 이따금 엎어져 죽었다. …… 마침내 험한 곳을 지나고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 (열기가) 드디어 장사(壯士) 구근(仇近) 등 15명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여 소장군(蘇將軍-소정방)을 만나 말하길, “유신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군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미 가까운 곳에 도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유신 등의 행렬이 양오(楊陝)에 이르러 …… 당(唐)의 진영에 왕의 뜻으로써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소)정방(定方)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능히 싸울 수 없었는데, 군량을 얻자 곧 당으로 돌아갔다. 양도는 병사 800명으로써 바다로 환국하였다. 이때 (고구)려인이 병사를 매복시켜 아군을 돌아오는 길에 요격하고자 하였다. …… (신라군은) 밤중에 몰래 행군하여 표하(虬河)에 이르렀고 (김유신은) 급하게 (강을) 건너 언덕에서 병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고구)려인이 이를 알고 추격하였다.¹⁰⁸⁾

기사 C에는 662년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서 평양성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당군에게 군량을 보급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기사

108) 『삼국사기』 권42, 列傳2, 金庾信, “十二月十日 與副將軍仁問·真服·良圖等九將軍 率兵載糧 入高句麗之界 壬戌正月二十三日 至七重河 人皆恐懼 不敢先登 …… 遂先自上船而濟 諸將卒相隨渡河 入高句麗之境 慮麗人要於大路 遂自險隘以行 至於蒜壤 …… 乃鼓行向平壤 路逢賊兵 逆擊克之 所得甲兵甚多 至獐塞之險 會天寒烈 人馬疲憊 往往僵仆 …… 遂過險 距平壤不遠 …… 遂與壯士仇近等十五人 詣平壤 見蘇將軍曰 庾信等領兵致資糧 已達近境 …… 庾信等行抵楊驪 …… 達唐營以王旨餽軍糧 定方以食盡兵疲 不能力戰 及得糧 便迴唐 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 時麗人伏兵 欲要擊我軍於歸路 …… 夜半潛行至虬河 急渡岸休兵 麗人知之來追”

에 따르면 신라군은 1월에 출발하여 풍수촌(風樹村)-칠중하-산양(蒜壤)-이현(梨峴)-장새(獐塞)-양오(楊陂)를 거쳐 당군에게 군량을 전달하였다. 신라가 경유한 곳 가운데 비교적 명확하게 위치 비정이 가능한 것은 칠중하와 장새이다.¹⁰⁹⁾ 칠중하는 칠중성 근처에 흐르는 임진강, 장새는 신라 한주(漢州) 오관군(五關郡) 장새현(獐塞縣)으로 황해북도 수안으로 비정되는데¹¹⁰⁾, 그렇다면 신라군은 설마천로나¹¹¹⁾ 혹은 감악산 동쪽의 간파천로를 이용해 임진강에 이르렀고, 임진강을 건넌 다음에는 멸악산맥을 넘는 여러 고갯길 가운데 하나인 신계-수안로를 통해 수안을 거친 후¹¹²⁾ 방원령을 통해 연진산맥을 넘고 황해북도 연산을 지나¹¹³⁾ 평양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의 식량 운송은 육로보다는 해로가 유리하다. 하지만 신라는 해로 대신 육로 운송을 택하였다. 만약 신라군이 해로로 운송한다면 우선 해주만을 지나야 하는데, 그 일대는 고구려가 수군기지를 두고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¹¹⁴⁾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야 하는 황해도 장산곶 앞바다는 고려~조선시

109) 임진강 이북과 황해북도 수안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蒜壤과 梨峴에 대해 각각 황해북도 금천 일대의 달래가 많았던 한 평탄지, 멸악산맥 일대의 배나무가 많았던 한 고개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 『국방연구』 55-3, 2012, 105~108쪽). 그리고 楊陂에 대해서는 평양시 강동군(이병도, 앞의 책, 1976a, 631쪽)이나 버드나무가 많은 대동강 연안의 유포리(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14쪽)로 비정하기도 한다.

110) 『삼국사기』 권35, 雜志4, 地理2, 新羅 獐塞縣.

111)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 2005, 197쪽;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52쪽.

112)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257쪽. 신라군이 임진강 도하 후에 개성과 삭녕 사이의 마식령산맥을 넘어 그대로 북상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황해도 장단과 금천을 잇는 소로를 이용하여 은밀히 행군하였다는 것이다(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07쪽).

113)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4쪽.

114)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28쪽.

기에 조운선 왕래를 꺼려할 만큼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¹¹⁵⁾ 마지막으로 지나야하는 대동강의 경우는 계절상 결빙으로 인해 운송 선단에 적지 않은 장애를 주었으리라 여겨진다.¹¹⁶⁾ 즉, 해로를 통한 운송은 많은 난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고구려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군량을 수송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육로 그것도 멸악산맥을 넘는 데 있어 가장 험준한 고개를 이용하고 언진산맥을 통과하는 고난의 길을 택해야만 했다.

기사 C-①에 따르면 신라군은 칠중하를 건너 이현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의 첫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사 C-②에 따르면 신라군이 칠중하 도하를 두려워하였고, 군량 보급을 마친 후에는 서둘러 돌아오면서 표하(虜河, 과천(瓢川)), 즉 임진강을 건너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는데, 두 기사 모두 여전히 임진강이 양국의 국경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사 C-②에 보이는 ‘신라군이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는 기록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662년 1~2월까지도 여전히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660년 11월 칠중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 양국의 국경은 임진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661년 1~2월에도 양국의 국경이 임진강 유역이었다고 한다면 660년 11월 칠중성 전투는 신라가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62년에 신라군이 풍수촌에서 순조롭게 칠중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¹¹⁷⁾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임진강 이남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사 B-②에서 보이듯이 무열왕은 전투 중에 전사한 필부

115)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258~261쪽.

116) 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04쪽.

117)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3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3쪽.

를 급찬으로 추증하였는데, 그가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추증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661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한 바 있는데, 술천성(述川城)으로 우회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고 한다. 대체로 술천성은 경기도 여주 홍천면,¹¹⁸⁾ 북한산성은 아차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¹¹⁹⁾ 그렇다면 북한강 수계와 남한강 본류를 경유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칠중성에서 설마천로 혹은 간파천로를 통해 양주 분지를 지나고 중랑천을 따라 한강 본류의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최단 코스¹²⁰⁾를 이용해 진군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칠중성을 포함해 임진강 이남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위와 같이 우회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¹²¹⁾

신라는 629~638년 사이에 처음 칠중성을 차지한 이래 최소한 662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¹²²⁾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칠중성의 점유 주체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118)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97쪽.

119)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충』 81, 2014, 32쪽;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한국사학보』 74, 2019, 308쪽.

120)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6쪽.

12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4쪽;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8쪽.

122) 고구려가 660년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성곽을 차지하였지만 662년 이전에 스스로 철군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그 이유로 임진강 이남이라는 한계로 인한 지속적인 물자 보급과 대신라전 후퇴시 불리, 對 당군 침략방어 주력 등을 들기도 한다(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4~76쪽). 그러나 고구려가 성곽을 차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과 663년 즈음에 결국 차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答薛仁貴書>에 언급되었다는 점(이영재, 앞의 논문, 2018, 21쪽)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D-①. “건봉(乾封) 2년(667년)에 이르러 대총관(大揚管) 영국공(英國公-이세적)이 요(遼-고구려)를 정벌한다는 말을 듣자, 나(문무왕)는 한성주(漢城州)에 가서 병사를 보내 경계에서 가까운 지역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병마가 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우선 간자를 세 번 보냈고 배를 연이어 띄어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자가 돌아와서 모두 운운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도로를 열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英公)이 보낸 강심(江深)이 와서 운운하기를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병마는 성을 칠 필요 없이 서둘러 평양으로 나아가서 군량을 공급하고 모이라’고 하였고, 행렬이 수곡성(水谷城)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병마는 드디어 곧 빠져 나왔습니다.”¹²³⁾

D-②. (문무왕 7년(667) 7월) 가을 8월에 (문무)왕이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수도를 출발하였다. 9월에는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영공(英公-이세적)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에는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달하였다. (영공이) 이동혜(兪同兮) 촌주(村主) 대나마(大奈麻) 강심(江深)을 보냈는데, (강심은)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阿珍含城)을 거쳐 한

12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至乾封二年 聞大總管英國公征遼 某往漢城州 遣兵集於界首 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覘候大軍 細作迴來並云 大軍未到平壤 且打高麗七重城 開通道路 佇待大軍來至 其城垂垂欲破 英公使人江深來云 奉大總管處分 新羅兵馬不須打城 早赴平壤 即給兵糧遣 令赴會 行至水谷城 聞大軍已迴 新羅兵馬 遂即抽來”

성(漢城)에 이르렀다. (영공이) 편지를 전하여 출병 시기를 독촉하자 대왕이 이를 따랐다. 11월 11일에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¹²⁴⁾

기사 D에는 667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 담겨져 있는데, D-①은 신라의 당 공격에 대한 설인귀(薛仁貴)의 항의 서신을 받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냈다는 답서 이른바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의 내용 일부이고 D-②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세적(李世勣)이 이끄는 당군은 평양으로 진군하였고, 문무왕이 이끄는 신라군은 한성주(漢城州)에 주둔하면서 당군의 평양성 진군에 맞추어 합류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원래 신라군은 칠중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파주(적성)-장단-개성-금천을 거친 다음 평산-서흥로를 이용해 멸악산맥을 넘는 이른바 자비령로¹²⁵⁾를 통해 진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양성 부근에 도착한 이세적이 서둘러 평양으로 합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라군은 우회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진군 도중에 당군의 회군 소식이 들리면서 신라군 역시 회군하였는데, 회군 소식을 들은 곳에 대해 기사 D-①에는 수곡성, 기사 D-②에는 장새라고 나온다. 수곡성은 황해북도 신계, 장새는 황해북도 수안이다. 신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로는 신계-수안로를 택해 연진산맥을 넘어 대동강을 따라가는 길과 신계-서흥로를 택해 멸악산맥을

124)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7년 8~11월,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亭 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余同分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舍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遇”

125)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52쪽.

넘은 다음 재령강과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다.¹²⁶⁾ 전자의 경우 언진산맥을 넘어야 하는 험준함이 있는데, 신라군이 이세적의 독촉으로 인해 서둘러 진군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길을 통해 평양성으로 진군하려 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당의 회군 소식을 들은 곳은 수곡성으로 추정된다.

전술하였듯이 신라군은 칠중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는데, 기사 D-①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진군로를 열고자 하였다고 한다. 662~667년 사이에 신라는 고구려에게 칠중성을 빼앗긴 것이다. 고구려가 어느 시점에 칠중성을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663년 즈음에 신라가 백제 부흥세력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 틈을 타서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고구려의 점유 기간은 길지 못하였다.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629년 신라가 낭비성을 차지한 이래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40년여 간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임진강 북쪽을 총괄하는 사령부로 호로고루를 삼으면서, 임진강 북안에 파주 덕진산성 등의 성곽을 축조하거나 연천 무등리보루 등의 보루를 축조함으로써 전열을 정비하였다. 반면 신라는 임진강 남안을 따라가며 고구려 성곽에 대응하는 지점에 성곽을 축조하였는데, 칠중성을 비롯해 파주 오두산성, 파주 봉서산성, 파주 이잔미성, 연천 대전리산성 등의 대형 산성을 지형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축조하

126) 멸악산맥을 넘는 대표적인 고갯길로는 신계-수안로, 신계-서흥로, 평산-서흥로, 해주-재령로 등이 있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4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62쪽).

였고, 그 사이에는 보루를 축조하여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⁷⁾ 즉, 임진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구려의 성곽과 보루 그리고 임진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의 성곽과 보루는 당시 양국의 침예한 대립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다. 나당전쟁과 칠중성

임진강 유역은 삼국간 대립 속에서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긴장감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주지하듯이 신라와 함께 고구려 및 백제를 멸망시킨 당이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故地)는 물론 신라까지 통할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에 신라가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나당전쟁이 벌어졌다. 당군은 신라의 지원을 받은 요동(遼東)의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며 672년 7월에 평양성에 주둔하였다. 이후 당군은 8월에 대동강 하류¹²⁸⁾의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차지하였고, 황해북도 서흥으로 추정되는¹²⁹⁾ 석문(石門)에서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하면서 멸악산맥을 넘어 한반도 중남부로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673년 5월에는 호로하(瓠瀾河) 즉 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군마저 격파하면서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나당전쟁이 벌어지면서 임진강 유역이 또다시 전장이 된 것이다. 하지만 9월에 신라가 호로하에서 당군을 물리치면서 전장은 예성강 방향으로 이동되었다.¹³⁰⁾

127)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3~74쪽.

128)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83, 181쪽.

129) 이병도, 앞의 책, 1983, 181쪽.

130)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88~89쪽.

이후 나당전쟁은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에 의해 평정되면서 신라와 당 사이의 대결 양상으로 변모하였고, 짧은 소강기를 거쳐 675년 2월 당군의 침공으로 재개되었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E-①. (문무왕 5년-675년)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칠중성에서 우리(신라) 병사를 깨뜨렸다. 인궤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고, 조서를 내려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鎮撫大使)로 삼아 경략하게 하였다. (문무)왕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입공하고 사죄하자, 황제(당고종)는 그를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 그러나 (신라는)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계를 쳐서 주(州)와 군(郡)으로 삼았다. 당병이 거란 및 말갈과 더불어 침범한다는 말을 듣고 9군(九軍)을 보내 그들에 대비하였다. …… (9월)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하였는데, 아군(신라군)이 공격하여 그들을 달아나게 하고, 전마(戰馬) 30,380필을 얻었으며, 남아 있는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 당병이 거란 및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소수(小守) 유동(儒冬)이 죽었다. 당의 병사 또한 석현성(石峴城)을 에워싸고 빼앗았는데, 현령(縣令) 선백(仙伯)과 실모(悉毛)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¹³¹⁾

131)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2·9월, “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 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 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聞唐兵與契丹·靺鞨兵來侵 出九軍待之 ……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 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 ……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E-②. 상원(上元) 2년(675년) 2월에 (유)인궤(仁軌)가 칠중성에서 그 무리(신라군)를 깨뜨렸고 말갈 병사로써 바다를 건너 (신라) 남쪽 경계를 침략하였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鎮撫大使)로 삼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시켰는데, 세 번 싸워 로(虜-신라군)가 모두 패하였다.¹³²⁾

E-③. (합형) 5년(674년)에 (유)인궤가 계림도대총관(鷄林道大總管)이 되어 동쪽으로 신라를 정벌하였다. (유)인궤(仁軌)는 병사를 이끌고 호로하(瓠盧河)를 곧바로 건너 그 북방의 대진(大鎭)인 칠중성을 격파하였다.¹³³⁾

기사 E에는 675년에 있었던 신라군과 당군 사이의 일련의 전투가 담겨져 있다. 기사를 종합해보면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당군은 호로하를 건너 칠중성으로 진군하였다. 서북한에서 예성강과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으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칠중성 공격 당시 당군은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칠중성을 ‘대진(大鎭)’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나당전쟁기에도 칠중성이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인 기사 E-①과 『신당서』의 기록인 기사 E-②를 비교하면 내용상 차이가 있다. 기사 E-①에는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깨뜨린 후에 병사를 이끌

132) 『신당서』 권220, 列傳145, 新羅,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133) 『구당서』 권84, 列傳34, 劉仁軌, “五年 爲鷄林道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徑度瓠盧河 破其北方大鎭七重城”

고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반면 기사 E-②에는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깨뜨리고 말갈 군사를 신라의 남쪽 변경으로 보내 승리한 후에 병사를 이끌고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기사 E-①에는 매소성(買肖城)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나, 기사 E-②에는 당군이 승리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한국측 사료와 중국측 사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유리한 내용을 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로 한국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¹³⁴⁾

기사 E-①을 보면 당시 양국은 칠중성 외에 매소성과 석현성 등에서도 전투를 벌였다. 매소성은 대체로 대전리산성으로 비정되고 있고¹³⁵⁾, 석현성은 전술하였듯이 파주 일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75년 9월에 설인궤가 이끄는 당군이 천성(泉城)을 공격한 바 있는데, 천성은 대체로 ‘천정구(泉井口)’로 불린 임진강·한강 하구의 오두산성으로 비정된다.¹³⁶⁾ 즉, 양국은 675년에 이르러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접경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사를 보면 9월 매소성 전투 후에 신라군과 당군이 칠중성에서 또다시 전투를 벌인 것으로 나오는데, 2월 전투에서는 당군이 칠중성을 깨뜨렸다고 나오고(破) 9월 전투에서는 당군이 칠중성을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오면서(來圍), 어색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에 당군이 차지하였지만 9월 이전에 신라가 탈환하면서 당군이 재차 공격한

134)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역사학보』 44, 1969.

135) 민덕식,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179쪽;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 2007, 114쪽.

136) 장학근,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 2000, 199쪽.

것으로 보는 견해¹³⁷⁾, 2월에 당군이 함락하지 못하면서 9월에 재차 함락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¹³⁸⁾

최근에는 중국측 사료와 국내전승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695년 2월에만 전투가 벌어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¹³⁹⁾, 칠중성을 둘러싼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전개 양상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675년 2월과 9월의 칠중성 전투를 동일한 전투로 보고 기사를 종합해본다면 675년 2월 당군은 칠중성을 깨뜨렸지만 함락에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수군을 동원하여 천성을 공격하였지만 이마저도 함락에 실패하자, 칠중성보다 방어가 취약한 매소성으로 집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⁰⁾

칠중성 전투에서 당군이 승리하였다면 손쉽게 양주 분지나 한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면서 매소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매소성에서도 패배하고 만다. 반면 신라군은 매소성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이듬해인 676년 11월에 기벌포(伎伐浦)에서 당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칠중성 전투의 승리는 나아가 나당전쟁의 승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137)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15쪽.

138)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141~14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6~357쪽.

139)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299~302쪽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128~132쪽.

140) 이상훈, 앞의 논문, 2022, 149쪽.

4. 맺음말 -칠중성의 전략적 위상-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당 사이의 접경으로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임진강은 양안에 높이 10m 내외의 수직 절벽이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도하 세력에 대한 방어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량이 적고 강폭이 좁아서 수직 절벽이 발달하지 않은 구간에는 특별한 장비 없이 걸어서 도하할 수 있는 여울이나 작은 배를 이용해 건널 수 있는 나루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도하로는 임진강을 건너 남·북진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울이나 나루터 근처에는 군사시설이 대거 구축되어 있다.¹⁴¹⁾

이 가운데 사미천의 합류로 인해 형성된 술탄(가여울)과 고랑포 맞은편의 호로탄은 임진강 최하류의 여울로서 고대 이래 매우 중요한 도하로로 주목을 받았다(그림 5).¹⁴²⁾ 특히 술탄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수심이 무릎 이하이고, 폭은 300~400m에 달하면서¹⁴³⁾ 언제든지 대규모의 병력 이동이 가능하였는데, 임진강 이남에서 술탄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자리 잡은 성곽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즉, 칠중성은 술탄 도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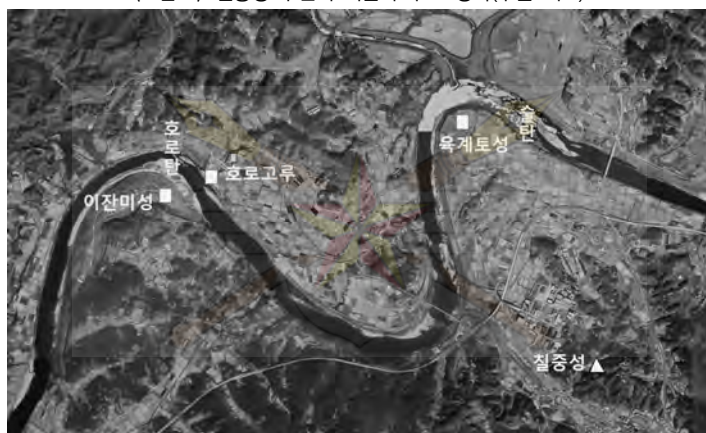
14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12~14쪽. 예컨대 수내나루, 덕진나루, 장산나루 주변에는 파주 덕진산성, 호로탄 주변에는 연천 호로그루와 파주 이잔미성, 술탄 주변에는 파주 육계토성, 당개나루 주변에는 연천 당포성, 유진나루 주변에는 연천 무등리보루, 장군나루와 한여울 주변에는 연천 대전리산성이 있다.

142)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3쪽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143)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11쪽 ; 앞의 논문, 2005, 181쪽.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칠중성에서는 호로탄에 대한 조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호로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술탄과 호로탄의 남쪽 강안에는 각각 육계토성과 이잔미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성곽은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칠중성은 육계토성과 이잔미성의 배후 성곽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칠중성 주변의 여울과 주요 성곽(구글 어스)



칠중성의 또 다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점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곽이 위치한 적성면에는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로서 감악산 서쪽으로 설마천을 따라 형성된 설마천로(감악산서로, 적성서로), 감악산 동쪽으로 간파천을 따라 형성된 간파천로(감악산동로, 적성동로)가 있는데, 두 길 모두 양주 분지(천보산맥)를 지나면서 중랑천을 따라 한강 본류로 이어진다.¹⁴⁴⁾ 즉, 두 교통로 모두 양주,

144)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6쪽.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것이다(그림 4).

한편 설마천로는 북쪽으로 술탄과 호로탄 등의 여울과 이어지고, 간파천로는 북쪽으로 당개나루와 이어진다. 즉, 북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한강 유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설마천로를 선택함이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두 교통로 가운데 설마천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칠중성은 설마천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감악산에서 양주 분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¹⁴⁵⁾

방향을 바꾸어 적성면에서 술탄이나 호로탄을 통해 임진강을 건너면 장단, 개성,¹⁴⁶⁾ 금천, 평산, 서흥, 황주를 거쳐 평양으로 이르는 교통로가 있다. 즉, 칠중성은 임진강의 여울 통제를 통해 한반도 서북부와 중부 지역을 잇는 평양-황주-서흥-평산-금천-개성-장단-양주-의정부-서울 교통로¹⁴⁷⁾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이었던 것이다(그림 6).¹⁴⁸⁾ 이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또한 임진강 유역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 되면서 칠중성은 남진세력과 북진세력 모두에게 진군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칠중성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었던 임진강 유역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성곽이었지만 처음부터 중요시된 것은 아니었다. 3세기 중반 이래 임진강을 경계로

145)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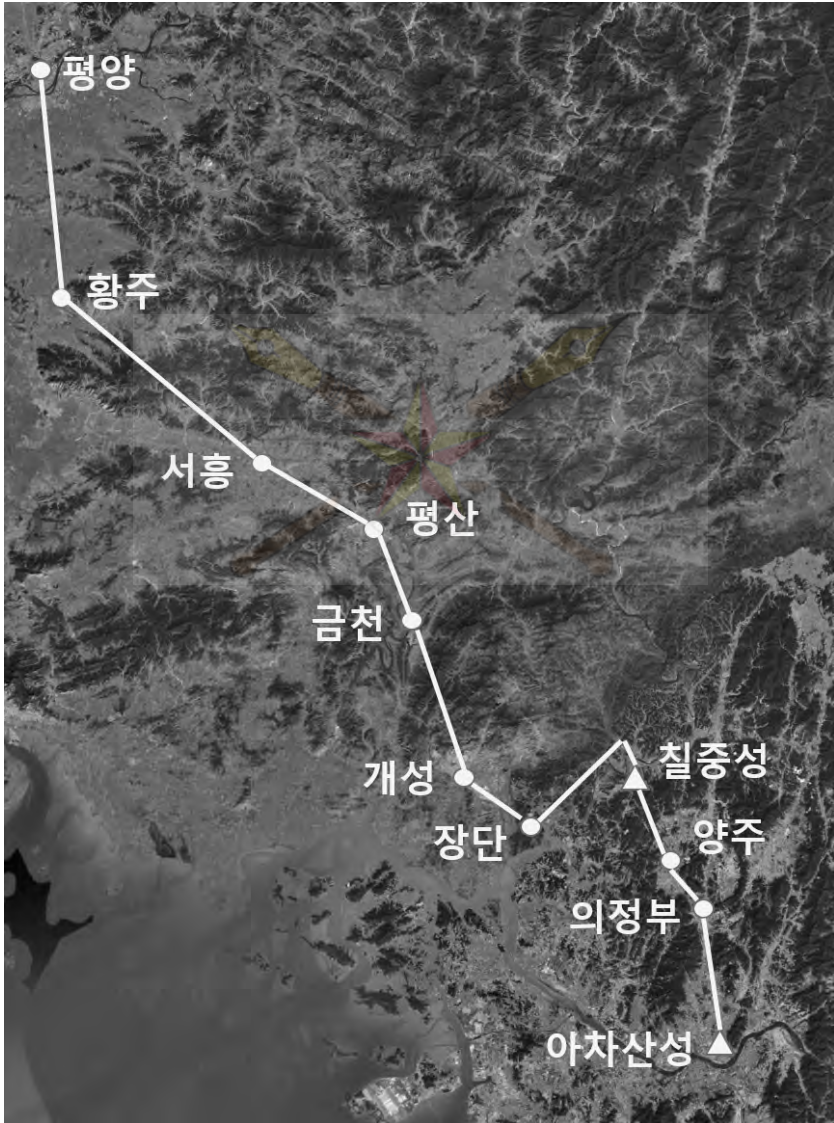
146) 개성은 해주-신원-재령으로 이어지는 길, 이른바 재령로가 지나가기도 한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5쪽).

147) 도중에 건너는 임진강의 여울이 최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단 코스가 되기도 하였다.

148) 적성면에서는 이성산성-양진-한양군-내소군-중성현-장단현-임강현-우봉군-영풍군-오관군-취성군-평양으로 이어지는 장단도로(정요근, 앞의 논문, 2005, 205쪽), 적성-장단-석주원리-구화리-위천리-금천-평산으로 이어지는 黃卵嶺路 등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김택원, 앞의 논문, 2019, 361~363쪽).

말갈과 낙랑 그리고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백제는 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성곽을 축조하면서 최전방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육계

〈그림 6〉 평양 - 서울 간 교통로(구글 어스)



토성과 파주 월룡산성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고¹⁴⁹⁾ 칠중성은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하였다.¹⁵⁰⁾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에는 후방이라는 성격 속에서 지역 지배를 위한 거점성들을 대거 축조하였다. 하지만 6세기 중반에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신라와 접경을 형성하면서 임진강 유역이 전방으로 변모하자 인근의 성곽을 개·보수하는 한편 임진강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보루를 축조하였는데, 이때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린 거점성으로서 칠중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7세기 전반에 이르면 신라와 고구려가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성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만약 고구려가 다시 남진하여 칠중성을 차지하게 되면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 그리고 북진의 거점성 역할을 하던 북한산성으로 빠르게 진군할 수 있음으로써¹⁵¹⁾ 한강 유역 진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칠중성은 신라에 있어 임진강을 건넌 고구려군의 남진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전투가 벌어지면 신라는 중앙군과 인근의 지방민까지 동원하여 사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칠중성의 기능이 나당전쟁기까지 이어짐에 따라 당군도 여러 차례 칠중성을 공략하였다. 칠중성은 한강 유역으로의 진군을 막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강하였지만, 반대로 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신라군이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할 때 칠중성을 가장 먼저 공략하고자 하였던

149)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91쪽.

150) 칠중성을 육계토성, 가월리토성, 범바위토성 등을 거느린 성곽으로 보기도 한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18쪽).

15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2쪽.

것이다.

한편 칠중성 전투에 인근 지방민까지 동원되었던 모습은 칠중성을 거점으로 신라의 성곽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당시 칠중성은 간파천로상의 아미성과 수철성 그리고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리는 거점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²⁾ 또한 칠중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세기에 반월산성과 더불어 신라 임진강-한탄강 방어선의 주요 거점성으로서 활용되었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¹⁵³⁾



152) 다만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에서는 신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는데,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였을 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5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 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참고문헌〉

1. 자료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http://uci.or.kr//G901:A-0006000682>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http://uci.or.kr//G901:A-0006154117>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http://uci.or.kr//G001+HISTORY-33039037>
-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1990.
<http://uci.or.kr//G701:B-00118426903>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http://uci.or.kr//G901:A-0008458655>
-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a.
-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83.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4-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신라1·가야편)』, 가락사적개발연구원, 1992.
- 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경기도 백제문화유적』, 1986.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http://uci.or.kr//G901:A-0008640453>

2. 저서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http://uci.or.kr//G901:A-0006217265>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http://uci.or.kr//G901:A-0006138819>
-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http://uci.or.kr//G901:A-0005982950>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b.
<http://uci.or.kr//G701:B-00115824598>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http://uci.or.kr//G901:A-0006393181>
- 佐伯有清,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吉川弘文館, 1977.
-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3. 논문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한산주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47-84
<https://doi.org/10.222827/seoul.2021..109002>
-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2019); 289-330
<http://dx.doi.org/10.37331/JKAH.2019.09.95.289>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2019); 333-371
<http://dx.doi.org/10.35160/sjekh.2019.12.33.333>
- 김병희 · 서영교,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말갈 수군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18(2021); 45-95
<http://dx.doi.org/10.29212/mh.2021..118.45>

-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2004); 23-38
<http://uci.or.kr//G704-001251.2004..24.015>
- 김영관, 「古代 靑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47(2008); 31-79
<http://uci.or.kr//G704-001252.2008..82.003>
- 김윤우, 「廣開土王의 南下征伐地에 대한 一考-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1995); 207-243
<http://uci.or.kr//G001+HISTORY-32315619>
-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 김창호,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1)」, 『대구사학』 22(1983); 1-36
http://uci.or.kr//G001+NIKH-kh_KH.NIKH.hb_041_02_000073
- 민덕식,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1989); 145-198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10742858>
- 민덕식, 「백제 한성기의 한강 이북 교통로에 관한 시고(상)-백제 초기 도성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 『선사와 고대』 2(1992); 85-115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07105189>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2011); 57-96
<http://uci.or.kr//G704-000054.2011..82.016>
-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2010); 109-152
<http://dx.doi.org/10.36093/ks.2010..17.004>
-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 49(2014); 57-82
<http://uci.or.kr//I410-ECN-0102-2015-900-002083021>
- 백종오, 「六溪土城의 調査·研究成果와 歷史的 價値」, 『선사와 고대』 68(2022); 5-60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0988313>

- 백종오,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 71(2023); 5-33
<https://doi.org/10.23024/pah.2023..71>.
-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사학지』 28(1995); 17-37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1094929>
- 서영일, 「6~7세기 고구려 남경 고찰」, 『고구려연구』 11(2001); 27-45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2368288>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공격로 고찰」, 『사학지』 38(2006); 41-67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525418>
-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 72(2008); 41-76
<http://dx.doi.org/10.22827/seoul.2008..72.002>
- 심광주,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파주시지(5)-파주역사』, 파주시(2009); 65-82
- 양기석,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12·13(1999); 357-385
<http://uci.or.kr//G901:A-0001762368>
-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2011); 101-131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1020003>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48(2012); 169-213
<http://uci.or.kr//G704-000054.2012..84.012>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 문화』 48(2013); 129-152
<http://dx.doi.org/10.35300/bjclab.1.48.201302.129>
-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 고대사연구』 99(2020); 233-274
<http://dx.doi.org/10.37331/JKAH.2020.09.99.233>
-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35-106

- 윤무병, 「산성·왕성·사비군성」, 『백제연구』 21(1990); 5-11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한국사학보』 74(2019); 289-318
<http://dx.doi.org/10.21490/jskh.2019.02.74.289>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45-78
<https://doi.org/10.35160/sjekh.2022.08.41.45>
-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 2(1990); 103-163
<http://uci.or.kr//G903:HI00118459060>
-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2007); 89-123
<http://uci.or.kr//G704-001251.2007..29.006>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2012); 97-122
<http://dx.doi.org/10.23011/jnds.2012.55.3.005>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125-157
<https://doi.org/10.35160/sjekh.2022.08.41.125>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대구사학』 130(2018); 27-64
<http://dx.doi.org/10.17751/DHR.130.27>
- 이재, 「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8(1995); 108-127
<http://uci.or.kr//G901:A-0003269542>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2019); 39-68
<http://dx.doi.org/10.31218/TRKH.2019.06.134.39>
-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1-18
<http://uci.or.kr//G704-001361.2004.16.3.002>
- 이준선, 「칠증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2005); 151-194
<http://uci.or.kr//I410-ECN-0102-2010-911-000877197>

- 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 35-78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8(2016); 65-113
<http://uci.or.kr//G704-002006.2016..38.006>
- 장학근,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2000); 181-215
<http://uci.or.kr//G901:A-0001432081>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2018); 79-112
<http://dx.doi.org/10.35300/bjclab..58.201802.79>
-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9-42
<http://dx.doi.org/10.35160/sjekh.2021.08.38.9>
-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147-184
<https://doi.org/10.35160/sjekh.2022.12.42.147>
- 정동준, 「7세기 전반기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2002); 37-72
<http://uci.or.kr//G704-000054.2002..46.003>
-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2005); 191-222
<http://uci.or.kr//G704-000361.2005..131.006>
-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역사학보』 44(1969); 1-10
<http://uci.or.kr//G001+KERIS-11136992>
- 지종학,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과주 적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2018); 73-87
<https://doi.org/10.35149/jakpg.2018.28.3.006>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한국학보』 3(1976); 112-156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0446158>

천관우,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1988); 45-60

<http://uci.or.kr//G901:A-0000731487>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충』 81 (2014); 3-36

<http://dx.doi.org/10.16957/sa..81.201401.3>

홍밖음, 「파주 육계토성 실체를 드러내다」, 『문화재 窓』 51(2022); 8-11

홍재선, 「적성 칠중성 조사약보」, 『불교미술』 7(1983); 13-31

<http://uci.or.kr//G001+KERIS-11160076>



(Abstract)

Overall review of Chiljungseong Castle and its strategic positio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Jung, Dong-Min

Chiljungseong Castle is a fortress in Paju, Gyeonggi-do province, and is highly regarded as an important historical reference point in that its location is clearly identified. First, this paper attempted to deduce the subject and tim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Next, this study approached Chiljungseong Castle, which has appeared in the literature record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identified border patterns at that time through changes in sovereignty. Lastly, this study studied the strategic position of Chiljungseong Castle.

It is believed that Baekje, which advanced to the Imjingang River basin around the late 3rd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built Chiljungseong Castle in the form of an earthen fortification, an earthwork, or a wooden fence. In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Goguryeo occupied the Imjingang River basin and occupied Chiljungseong Castle, and it is presumed that it was used as it was without significant alterations. Later, in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y, Silla occupied the castle and built a stone fortress.

Chiljungseong Castle was a place where it was possible to monitor and control whether Silla and Hwaran near the Imjingang River crossed the river, which allowed it to connect or disconnect the Pyongyang-Seoul transportation route. The castle w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point, and as the Imjingang River basin became a border between the Three Kingdoms and Silla and Tang Dynasty, Chiljungseong Castle became the first gateway to attack wherever a nation entered the South or North.

In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y, the importance of Chiljungseong

Castle emerged greatly as Silla and Goguryeo faced off on the border of the Imjingang River. This is because if Goguryeo occupied the castle, it could take the lead in advancing into the Hangang River by defending the Hangang River basin and quickly marching to Bukhansanseong Fortress, which served as a base for the north. As a result, Chiljungseong Castle became a strategic point for Silla to defend Goguryeo's southern advance, and this function continued until the NaTang War. In addition, Chiljungseong Castle served as a stronghold with Amiseong Castle, Suchulseong Castle, Gamaksan Bastion on Sulmachun Road, and Mugunri Bastion at a time when Silla's fortress defense system was in operation. Furthermore, along with Pocheon Banwolsanseong Fortress, it was reborn as the core of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defense line in the 7th century.

Keywords : Chiljungseong, Imjingang River, Sultan,
Hangang River, Bukhansanseong Fortres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221-267
<https://doi.org/10.29212/mh.2023..129.2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정덕기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목 차

1. 머리말
2. 新州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3.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陸防 체계 강화
4. 海門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의 海防 체계
5.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6~7세기 전반 신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신주의 재편 과정과 당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한 것이다. 당항성은 신라-중국을 잇는 뱃길의 시작점, 즉 신라의 ‘海門’이었다.

신라는 555~558년 대증 외교 창구로 당항성을 두었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신주의 재편과 연관되었다. 568~603년의 신주 주치는 南川이었다. 648년까지 당항성 관방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주요 적국으로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상정하고, 남천-國原小京 간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 당항성의 陸防 체계는 648년까지 기본 방향을 유지하나, 627·643년 백제가 신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강화되었다.

당항성의 海防 체계는 당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할 수 있다. 당성 일대 도서는 방어·경계 등 해방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가상의 2중 內海'를 설정한 후, 이를 5개 해역으로 세분하여 구축되었다.

주제어 : 당항성, 新州, 海門, 海防, 가상의 2중 內海

(원고투고일 : 2023. 7. 6, 심사수정일 : 2023. 8. 18, 게재확정일 : 2023. 8. 24.)



1. 머리말

신라는 중고기에 對中 外交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고기 전반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은 학술·문화 교류 및 정치 등이었다. 중고기 후반 신라는 고-수 전쟁을 이용해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켰고, 對隋 外交의 주요 목적을 請兵으로 전환하였다.¹⁾ 중고기 후반~중대 초 신라는 對唐 請兵 外交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신라의 대당 외교 활성화 요인은 여러이나, 중요 요인의 하나에는 당항성의 운영·유지가 있다. 당항성은 歸唐之路·入朝之路·貢道 등으로 불리는 신라-당 간 뱃길의 시작점, 즉 신라의 海門이었다.²⁾ 당항성 관련 지명은 党(棠)項城 등 표기를 달리한 거점 명칭, 党項津·唐恩浦 등 항구 명칭, 唐城(恩)郡 등 행정구역 명칭, 唐城鎭 등 군사 시설 명칭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성군·당은군은 고려 이후 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로 이해되었고³⁾, 党(棠)項城의 위치 비정은 조선 후기 지리지부터 “이루어졌다.” 『東國地理志』는 ‘德物島 앞 당항진’을 고려해 당항성을 南陽府 일대라 하였다.⁴⁾ 『海東釋史續』은 신라-당의 교통

1)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2021(a)).

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643) 冬 11월; 『新唐書』 권220, 列傳185, 東夷, 百濟, [太宗 貞觀 16년(642)], 6199; [宋]贊寧, 『宋高僧傳』 권4, 義解篇2-1, 唐新羅國義湘傳.

3) 『高麗史』 권56, 地理1, 楊廣道, 仁州, 唐城郡. “唐城郡, 本高句麗 唐城郡. 新羅 景德王, 改爲唐恩郡.”;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本高句麗 唐城縣, 新羅改爲唐恩郡, 高麗復古名.”; 『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京畿, 南陽都護府, 建置沿革. “本高句麗 唐城郡, 新羅 景德王改唐恩. 高麗 初, 復舊名.”

4) [朝鮮]韓百謙, 『東國地理志』, 新羅, 形勢·關防, 棠項城. “或稱, 棠項津, 中原朝貢之

로가 南陽海를 경유하므로, 남양에 가깝고 棠項과 음이 유사한 獐項口縣, 즉 安山郡(현 경기도 안산시)에 비정하였다.⁵⁾ 『大東地志』는 신라 邊界인 黨項城을 본래 백제성으로 보아 남양 일대에 당항성·당성진을 비정하고, 현 唐城 유적을 당항성의 古蹟이라 하였다.⁶⁾

당항성의 위치에 대한 『대동지지』의 비정은 근대 사학에 계승되었다. 역사지리학의 시각에서 조선 후기 지리지 기록과 1980년 경까지의 고고 자료를 비교해 당항성을 당성에 비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⁷⁾ 1998·2000년 당성 1·2차 발굴을 통해 당항성·당성 관계가 검토되었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 일부 구간, 건물지(성 안 평탄지), 복문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 당성은 토성보다 석성이 먼저 축조되었고, 통일신라~조선시대에 바다를 통한 교역거점으로 쓴 성이며, 당항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졌다.⁸⁾ 2차 발굴조사에서는 당성 本城 성벽(北門址~推定望海樓址) 중 북벽 구간, 성 안 최정상 평탄대지를 조사하였다. 이 결

路. 百濟嘗與高句麗合, 謀奪據棠項城, 絕中原往來之路. 愚案. 蘇定方之來, 新羅太宗王出次南川, 卽今 '利川'. 世子 法敏以兵船, 迎定方於德物島, 以此見之. 所謂棠項津, 似在今南陽府. 無明文可考, 不敢強解.”

5) [朝鮮]韓鎭書, 『海東釋史續』 권7, 地理考7, 新羅 城邑, 棠項城, “【鎭書】謹案. 棠項城者, 新羅通唐之路也. 當時通唐, 每由南陽海, 則棠項城. 當在南陽近地, 據新羅地志, 今, 安山郡, 本獐項口縣, 棠·獐, 音近, 所謂棠項, 似是安山也.”

6)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권4, 京畿道, 南陽. “沿革. 本百濟 黨項城. 新羅 景德王十六年, 改唐恩郡. …… 城池. 唐城古縣城. 【府東. 周三千七百七十七尺.】 唐城古鎭城. 【西二十里. 周二千四百十五尺.】 …… 石山城. 【西三十三里. 周二千九百五尺.】”;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권30, 歷代志, 方輿總志2, 新羅. “統合前疆域. …… 善德主十一年. 百濟與高句麗謀, 欲取新羅 黨項城, 以絕歸唐之路. 【『地理志』云. “黨項城, 似是, 今, 南陽.” 按. “唐城, 是黨項城之改號. 仁川府之龍流島 西岸, 有石墩, 名朝天臺, 疑朝唐時, 發船於此.”】 …… 【按. “據此, 則自德源·安邊緣金城, 鐵原·永平·積城·楊州·喬桐·江華·仁川·南陽·振威·水原·安城·鎭川·淸州·文義·沃川·茂朱·安義·雲峯, 皆其邊界.”】 營鎭. …… 唐城鎭. 【南陽.】”

7)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1980).

8)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1次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8, 208-209.

과 당성은 內(本)城·外城·子城 등을 갖춘 복합식 산성이 아니라, 외성(7세기 전후 구봉산 정상부~서쪽 능선 정상부를 감싸는 테뫼식 석축성)→본성(9세기경 구봉산 정상부~동쪽 능선 사면에 축조한 포곡식 토석혼축성) 순서로 축조되었고, 본성은 829년 唐城鎮 설치와 맞물린 산성으로 추정되었다.⁹⁾

2015~2019년 3~6차 당성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성에서 ‘唐·本彼謀·漢山·館宅’명 기와, 백제 양식 토기·중국산 백자, 삼국~고려시대 건물지 등이 발견되어 당성·당항성의 관계, 본피부·한산주와의 관련성, 1차성 축조 이전 집단 및 신라-당 교류와 당성의 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 1차성은 6~7세기에 초축되어 나말여초에 폐기하였고, 2차성은 1차성 일부를 활용해 구봉산 급경사면을 따라 확장해 축조했다고 한다. 2차성은 고려 초 전면적인 성벽 증축, 고려 중기·말기에 부분적으로 개·보충되었고, 조선 초까지 왜구 침입을 대비하는 방어성으로 기능했다고 알려졌다.¹⁰⁾

1980년의 역사지리학적 성과와 1998·200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당항성을 당성으로 본 견해가 널리 수용되며¹¹⁾, 신라사 속

9)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2次發掘調査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1, 243-245·255-256.

10)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제 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4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5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6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1~6차 발굴조사의 성과는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2021, 31-36·164-176’에 정리되어 있다. 2020~2021년 1차성 내 기단 건물지를 조사해 2023년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1차성 축조 후~통일 이전 기단 건물지에는 기단 건물지와 별도로 용도 미상의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 통일 후 조성된 기단 건물지는 불교 관련 시설 후 당성과 그 일대를 관할한 관청 관련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7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3, 242·247-248, 253-254).

1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華城市史 I -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2005, 323; 화성

당항성의 명칭·역할, 643년 당항성 전투, 당항성 일대 방어체계·경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라는 진흥왕 15년(554) 관산성의 대승으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흥왕 25년(564) 北齊에 사신을 보내며 처음 당항성을 썼다고 추정된다. 당항성은 서해 중부 횡단 항로(신라도)의 기점이다. 당항성의 명칭은 党(項)城郡(고구려, ~551년)→党(項)城郡(신라, 551~668년)→唐城郡(681~692년 이후)→唐恩郡(742~765년 중 개명)→唐城郡(829년)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唐恩郡 조, 551년 고구려의 한강 유역 상실, 618년 당의 건국, 668년 삼국통일전쟁, 神文王대(681~692) 신라-당 교류, 景德王대(742~765) 지명 개정, 興德王 4년(829) 唐城鎮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견해이다.¹²⁾ 또 당은군은 대당 교류를 기초로 ‘당의 은혜를 받거나 입는 지역’이고, 聖德王대(702~737) 활발한 대당 교류가 이루어지며 경덕왕대에 黨項城을 당은군으로 개명했다고 한다.¹³⁾

党項城이란 표기가 발생한 이유를 善德王代(632~647) 신라-당 관계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고구려에서 당항성을 부른 명칭은 알 수 없다. 신라는 618년~경덕왕 개명 이전까지 대개 ‘당으로 가는 길목(項)’이란 뜻에서 당항성을 唐[項]城으로 불렀다. 668년 党項城·党項津은 대당 항로의 출발지·종착지로 기능한 신라의 關門城·關門港이며, 唐[項]城과 党項城은 모두 당성을 말한다. 다른 표기인 党項城은 7세기 중엽 기사에만 집중적으로 보이며, 선덕왕 즉위 초 신라-당 관계에서 유래하였다.

시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쟁탈과 고려 지방사회의 성립』, 화성시, 2020, 122·126-127.

12) 전덕재,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2013): 157-165.

13) 김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34(2015): 12.

‘党·党項·党項羌’은 수·당대 탕구트를 가리킨다. 당은 太宗 貞觀 원년(627) 탕구트 통제를 시작해 정관 5년(631) 탕구트를 상당히 장악하였다. 당은 정관 8년(634) 토욕혼 원정에 탕구트를 동원하나, 정관 9년(635) 탕구트와 갈등 국면에 접어든다. 627~635년은 진평왕 말~선덕왕 초이며, 당은 선덕왕이 즉위하나 책봉하지 않았다. 여왕인 선덕왕은 정통성·정당성이 부족해 당의 책봉이 필요하였고, 633년 탕구트 관계 정보를 입수하였다. 선덕왕은 唐項을 党項으로 고쳐 당의 탕구트 장악을 축하하고, 당의 동방진출에 신라의 역할을 환기해 책봉을 받아냈다. 党項은 삼국통일전쟁기까지 고유명사로 쓰이나, 삼국통일 후 당성군의 치소가 산성에서 평지로 바뀌며 党項이란 표기도 소멸되었다.¹⁴⁾

643년의 당항성 전투는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麗·濟 連和의 실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당항성(진)은 신라의 대중 외교의 출항지·입항지이다. 신라가 인천·강화·평택 등 주변 지역을 확보해 대중 海路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동 공격을 여·제 연화의 계기로 본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⁵⁾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분리해 이해하기도 한다. 백제는 642년 7~8월 신라 왕도를 위협하였고, 643년 신라-당의 연결을 끊고자 당항성 공격을 도모하였다. 여·제 연화는 분명하지 않지만,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 일대 신라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공조를 통해 당항성 공격을 상당 기간 준비하였다.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신라에 유출되

14)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2016): 62-83.

15) 황보 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2015): 148-153·158-163. 이 글에서는 당항성 주변의 주요 관방 유적으로 평택 일대 비봉·자미·무성 등 산성을 지목하였다.

었고, 643년 11월 신라는 당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을 전하며 구원을 청했다. 백제는 전격적인 당항성 공격이 어려워지자, 당항성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고 철병하였다.¹⁶⁾ 또 외교사적 관점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 당항성 전투를 이해하기도 한다. 신라-당의 연결을 끊기 위한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이 신라에 유출되자, 신라는 당에 사신을 급파하였다. 643년 9월 4일 신라의 구원 요청과 당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643년 11월 당 사신 상리현장의 도착으로 신라의 대당 청병을 인지한 백제가 당항성에서 철병했다고도 한다.¹⁷⁾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신라의 날조에 가까운 전략적 외교술로 보아 당항성 전투를 보기도 한다. 당시 백제의 공세는 신라 下州 방면에 집중되었다. 당항성에 대한 백제의 발병·철병은 조공로 차단과 관련된 작은 전투·국지전을 신라가 당에 전달한 결과로, 신라의 일방적 주장 외 실체가 없다고 한다.¹⁸⁾

당항성 일대의 방어체계·경관 등은 신라의 안성·용인 진출과 당성의 관계를 위주로 논의되었다. 죽주산성, 장원리·반제리 고분군 출토 고고 자료는 신라가 555~567년 당항성 방어를 위해 안성 지역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안성은 직산-이천을 북동-남서로 연결해 이천·남양만 방어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¹⁹⁾ 당성 동쪽 백곡리 사지·산성 일대는 삼국~남북국시대 중요 항구도시로 기능한 대규모 취락이 있었고, 당성 남쪽 상안리 유적 I·II는 굴고개를 쓴 교통로와 연결되며, 백곡리 구릉 지대에 있던 白寺는 사신·구법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²⁰⁾ 당성

16)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軍史』 110(2019): 25-31.

17)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2022): 2-7.

18)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194-200.

19)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2017): 195-206.

과 용인 할미산성·석성산성의 관계도 검토되었다. 할미산성은 6세기 중반~7세기 중반에 쓰였고, 할미산성의 축조 목적은 이천-용인-화성 간 교통로 확보, 동-서 교통로 통제, 탄천·경안천 유역 통제이다. 석성산성은 늦어도 8세기대 할미산성 방어를 보강하고자 축조되었다. 석성산성 축조 후 할미산성은 폐기되지 않아 두 산성이 함께 쓰였을 수도 있다고 한다.²¹⁾

최근 7세기 당항진·당항성을 삼전도·삼전도 배후 성으로 보고 한강 향로 속 당항진·당항성의 낮은 위상 등을 설명하기도 하나,²²⁾ 당성 3~6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신라의 자료, 7세기에 당항진을 서울 동쪽에 둔 이유, 당항성의 구체적인 위치, 당항성-新州·漢山州의 州治 관계, 1관직-복수관위제와 鎭책임자의 상당위 관계 등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 동의가 어렵다.

당항성을 당성으로 본 선행연구는 당항성의 위상·역할·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나, 신주의 재편 과정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당항성은 천혜의 요새이자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 시작된 공간이었다. 660년 德物島에서 소정방·김법민이 접선하고, 668년 党項津에서 유인궤·김인문이 접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국통일전쟁 당시 당군의 첫 기착지가 덕물도·당항성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삼국통일전쟁 개전 당시 신라는 당군의 손실을 피해야 하였다. 덕물도·당항성에서 소정방·유인궤를 맞은 이유는 당항성의 관방 체계가 상당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항성

20) 황보 경, “화성 당성과 주변 유적의 성격 및 경관 고찰-신라~남북국시대를 중심으로-”, 『고문화』 93(2019).

21) 황보 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2020): 90-95.

22)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党項城)의 위치 재론(再論)-‘당성(唐城)’ 설 비판과 ‘한강(漢江)’ 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2021); 윤경진, “삼국-신라후기 한강 향로의 운용”, 『歷史學報』 253(2022).

은 신주 소속이므로, 당항성과 신주의 관방 체계는 관련이 있겠다.

이 글은 군사사적 시각에서 6~7세기 전반 신주의 재편과 해문 당항성의 관방 체계가 맺는 관계를 海防 체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신주의 재편 과정에서 당항성을 둔 시점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논의하겠다. Ⅲ장에서는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 陸防 체계의 강화에 대해 정리하겠다. Ⅳ장에서는 해문 당항성 일대의 도서 환경을 분석하고, ‘가상의 2중 內海’를 활용한 당항성의 海防 체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 글이 당항성 및 신라의 해방 체계를 논의할 때 기초 검토로 쓰이길 기대한다.

2. 新州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신라는 551년 9월 백제와 공조해 竹嶺 以外~高峴 以內에 있던 고구려의 10郡을 취했고²³⁾, 553년 7월 백제 故土인 동북 변경(鄙) 6郡을 취해 新州를 두고 阿飡 金武力을 軍主로 삼았다.²⁴⁾ 신주는 나제동맹의 완전 파기, 백제 적대를 전제로 취한 한강 유역의 새(新) 영역이었다. 553년 신주의 영역은 서해안에 닿지 않아, 당항성을 포괄하지 못했다.²⁵⁾ 신라는 554년 7~12월의 관산성 전투를 통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였다.²⁶⁾

23)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551);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년(551) 秋 9월; 『三國史記』 권44, 列傳4, 居柒夫【或云, 荒宗.】[眞興大王] 12년(551) 辛未.

24)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553) 秋 7월;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聖王 31년(553) 秋 7월.

25)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29-37.

26)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4, 177-207.

554년 이후 신주는 서해안 일대와 당항성을 포괄하는 행정구역으로 확대·재편되므로, 이에 수반한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진흥왕본기에서 관산성 전투 후 신주의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A로 인용하였다.

A-①. 겨울 10월. 왕이 北漢山에 순행해 封疆을 拓定하였다. 11월. 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왕이 지나온 州·郡의 1년간 租·調를 면제하고, 曲赦하여 2罪 외 죄수는 모두 사면하였다.²⁷⁾

A-②. 比列忽州를 두고 沙湌 成宗을 군주로 삼았다.²⁸⁾

A-③.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 ……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두었다.²⁹⁾

A-④. 귀족 자제와 6부의 豪民을 국원소경에 옮겨 채웠다. 奈麻 身得이 砲弩를 만들어 바치니, 그것을 성 위에 설치하였다.³⁰⁾

A-⑤. 北漢山州를 폐하고 南川州를 두었다. 또 比列忽州를 폐하고 達忽州를 두었다.³¹⁾

2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6년(555). “冬 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 皆原之.”

28)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7년(556) 秋 7월. “置比列忽州, 以沙湌 成宗爲軍主.”

2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8년(557) “以國原爲小京. …… 廢新州, 置北漢山州.”

30)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9년(558) 春 2월. “徙貴戚子弟, 及六部 豪民, 以實國原. 奈麻 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3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9년(568) 冬 10월.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A-①은 관산성 전투 약 1년 뒤인 555년 10월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封疆을 拓定하였고, 11월 북한산에서 경주로 돌아오며 순행에 수반되는 절차가³²⁾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A-①에서 “拓定封疆”이 주목된다. 대체로 “拓定”은 “확정하다”³³⁾, “넓혀 정하다”로 새기나³⁴⁾, “평안히 하였다(平定)”가 타당한 해석이다.³⁵⁾ 즉 “拓定封疆”은 “영역을 평안히 하였다”란 의미이다. 이것은 신주 주·군의 정비·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관산성 전투 약 1년 뒤, 진흥왕이 북한산까지 순행해 신주 주·군의 정비·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목적·중점은 무엇일까? 신주는 551년 얻은 10군, 553년 얻은 6군을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신라는 관산성에서 백제 가용병력 대부분을 살획하므로³⁶⁾, 554년 이후 한강 하류·서해안 일대를 장악하였다. 따라서 555년 “拓定封疆”은 553년보다 확대된 신주의 주·군 정비·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신주 영역 중 정비·안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553년 얻은 6군과 554년 이후 새로 얻은 지역이다. 553년의 6군 획득은 551년 획득한 10군의 안정에 기초하며, 554년 이후 새로 확보한 지역은 6군 인접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55년 북한산 순행과 “拓定封疆”은 신주 서북 지역 주·군의 정비·안정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후 신주는 계속 정비되었다. A-②는 556년 비열홀주를 설

32) [後漢]蔡邕, 『獨斷』 上, 40-42. “幸者, 宜幸也. 世俗謂幸, 爲僥倖. 車駕所至, 民臣被其德澤以僥倖. 故曰幸也. 先帝故事, 所至見長吏·三老·官屬, 親臨軒作樂, 賜食·皂帛·越巾·刀·珮·帶. 民爵有級數, 或賜田租之半, 是故謂之幸, 皆非其所當必而得之.”

33) 김부식 지음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6, 95.

34)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149.

35) [南宋]劉義慶, 『世說新語』 26편, 輕詆 16조, 31-32. “桓公欲遷都, 以張拓定之業”

36) 聖王대 백제의 가용병력, 관산성 전투의 동원병력에 대해서는 정덕기, 앞의 논문 (2022), 14-17·31 참고.

치하고 책임자를 둔 기사이다. 비열홀은 현 강원도 安邊에 비정된다.³⁷⁾ 556년 비열홀주의 영역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주는 州治 기준으로 몇몇 郡·縣을 배속시킨 것이다. 556년 비열홀주는 신라가 551년 취한 10군 일부를 기반으로 성립했을 것이므로, 신주의 동북 군·현 일부는 556년 비열홀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신주의 관할 범위 축소와 남은 신주 영역에 주치의 행정력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A-③은 국원소경의 설치와 신주 주치가 북한산(현 서울)으로³⁸⁾ 이동함을 보여준다. 553년의 신주 주치는 알기 어렵지만, 남천(현 이천)으로 본 견해가 있다.³⁹⁾ 善德王 6년(637) 한산주·수약주 분리 전 신주의 주치는 ① 남천(진흥왕 14년(553)) → ② 북한산(진흥왕 18년(557)) → ③ 남천(진흥왕 29년(568)) → ④ 북한산(진평왕 26년(604)) 등으로 변화하였다.⁴⁰⁾ 553~637년의 85년간 신주 주치가 유지된 기간은 북한산·남천이 45년간·40년간이므로, 북한산·남천은 신주 주치 후보지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이다. 신주 주치의 변화는 국원소경과 연결되고, 신주 설치의 목적은 국원소경의 전방거점 확보이므로⁴¹⁾, A-③은 북한산~남천~국원소경 사이 지역의 정비·안정과 직결되었다.

A-④는 국원소경에 貴戚子弟·6부 豪民을 사민해 국원소경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砲弩 등 신무기를 배치해 국원소경의 방비를 확충했음을 보여준다.

A-⑤는 568년 신주·비열홀주 주치가 남천·달홀로 이동하였음

37)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朔州, 朔庭郡. “本 高句麗 比列忽郡. 眞興王 十七年·梁 太平 元年爲比列州, 置軍主.”

38) 장창은, 앞의 책, 2014, 172-178.

39)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100-109.

40)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2009): 13-15.

41) 정덕기, 앞의 논문(2022): 38-45.

을 보여준다. 달홀은 현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에 비정된다.⁴²⁾ 이것은 신라 북방에 둔 2주의 주치가 이전 주치보다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신주의 주치가 남천으로 이동하며 주치의 행정력은 남천 일대에 강도 높게 투사되었다. 이상 신주의 정비·안정과 관련된 조치는 북한산~남천~국원소경을 포괄하는 권역에 적용되었다.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 일대의 관방 체계를 구축한 시점은 언제일까? 『삼국사기』, 지리지는 党項城을 비정하지 않았고⁴³⁾, 당은군은 한주의 9번째 군으로 2개의 領縣을 설명하나 경덕왕 이전 당은군과 2개 領縣의 연혁은 소략하게 서술하였다.⁴⁴⁾

당항성을 둔 시점은 진흥왕의 대증 외교가 활성화된 시점을 참고할 수 있다. 진흥왕은 564년 북제에 사신을 보냈고⁴⁵⁾, 북제 武成帝는 565년 2월 甲寅(1일, 565.03.18)에 진흥왕을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⁴⁶⁾ 564년 출발한 신라 사신은 북제의 수도인 鄴에 도착하였고, 565년 2월 1일 무성

42)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302.

43) 『三國史記』 권37, 雜志6, 地理5, 三國有名未詳地分. “党項城”

44)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漢州. “唐恩郡. “本, 高句麗 唐城郡. 景德王改名. 今, 復故. 領縣, 二. 車城縣. 本, 高句麗 上【一作, ‘車’】忽縣. 景德王改名. 今, 龍城縣. 振威縣. 本, 高句麗 釜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권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唐城郡. 上忽【一云, ‘車忽’】. 釜山縣【一云, ‘松村活達’】”

4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5년(564). “遣使北齊朝貢.”; 『北齊書』 권7, 帝紀7, 世祖 武成帝 河清 3년(564) 是歲, 93. “高麗·靺鞨·新羅並遣使朝貢.”; 『北史』 권8, 齊本紀 下8, 世祖 武成皇帝 河清 3년(564) 是歲, 285. “高麗·靺鞨·新羅並遣使朝貢.”

46)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565) 春 2월. “北齊 武成皇帝, 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北齊書』 권7, 帝紀7, 世祖 武成帝 河清 4년(565) 2월 甲寅, 94. “詔, 以新羅國王 金眞興, 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北史』 권8, 齊本紀 下8, 世祖 武成皇帝 河清 4년(565) 2월 甲寅, 285. “詔, 以新羅國王 金眞興, 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이하 中·西曆 환산은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歷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참고.

제가 내린 조서를 받아 진흥왕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진흥왕은 북제에 1회, 진에 5회의 사신을 보냈고, 진에서도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진흥왕은 564년부터 대충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므로,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점은 564년이다.

신주의 정비·안정과 관련된 조치, 당항성이 활발히 운영된 시점을 고려하면, 555~564년의 10년 사이에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 일대의 관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관 조치는 555~558년에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 A-①~④는 연속성이 있고, 북한산~남천~국원소경을 포괄하는 범위에 작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A-⑤는 A-①~④와 10년의 시차가 있고,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이후에 나타난 조치이다. A-⑤는 555~558년 대충 외교 창구로 둔 당항성이 활성화되자, 신주 주치를 당항성과 가까운 남천으로 옮겼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항성 관방 체계의 변화는 신주의 주치 변화와 연결되며,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신주의 주치는 553~556년, 568~603년의 40년간 남천에 있었고, 당항성은 555~558년에 두어 564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당항성 설치 및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기에 신주의 주치·주치정은 남천에 있었다.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568~603년의 36년 동안 남천-국원소경 위주 관방 체계에 편입되며 골격이 잡혔다. 6세기 중후반 용인 할미산성 등이 당항성~남천 간 교통로에 축조된 것 등은 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3.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陸防 체계 강화

555~558년에 둔 당항성은 564년부터 대중 외교 창구로 활성화 되었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568~603년 남천-국원소경의 관방 체계와 맞물려 골격이 구축되었다. 신라의 대수·대당 외교는 594·621년부터 전개되었다. 한편 신라는 진평왕 47년(625) 11월 고구려의 朝貢路 차단을⁴⁷⁾, 선덕왕 11년(642) 7월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시도를 당에 거론하였다.⁴⁸⁾ 신라의 대중 외교는 중고기 전반에 시작되나, 고구려·백제가 신라의 대중 외교를 차단하려 한 것은 중고기 후반이다. 당항성은 신라 대중 외교의 창구이므로, 이상의 흐름은 당항성의 위상 및 당항성의 관방 체계 변화와 연동되었다. 본 장에서는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陸防 체계 강화를 위주로 논의하겠다.

진흥왕 29년(568)~진흥왕 홍거년·진지왕 원년(576)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진지왕 2~4년(577~579) 신라·백제는 추풍령로에서 각축하였다.⁴⁹⁾ 진지왕 홍거년·진평왕 즉위년(579)~진평왕 19년(597)의 삼국은 국가별 내부 사정상 본기에 기록할만한 큰 전쟁이 없는 시기, 즉 소강·휴전기를 맞았다.⁵⁰⁾ 소강·휴전기의 영향은 진평왕 23년(601)까지 지속되었다.

4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년(625) 冬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48)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8월. “[百濟王 義慈]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49) 전우식, “백제 위덕왕대 대신라 정책의 전개와 결과”, 『한국학논총』 32(2009): 145-149.

50) 정덕기, 앞의 논문(2021(a)): 15-17.

이후 신라는 진평왕 24년(602)·25년(603)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받았다. 1차 아막성 전투(602)는 신라·백제의 大會戰에서 신라가 승리한 전투였다.⁵¹⁾ 북한산성 전투(603)는 진평왕이 친히 兵 1만을 이끌고 북한산성을 구원해 승리했지만,⁵²⁾ 604년 신주 주치가 북한산으로 환원되는⁵³⁾ 계기로 작용했다고 이해된다. 이후 신주·한산주 주치는 계속 북한산에 있었다.

568~603년 당항성의 관방 체계, 특히 육방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지리적으로 당항성은 백제와의 접경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기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주요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었다. 당시 백제는 당항성 등 한강 유역보다 추풍령로·아막성 등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며, 기본 방향 수정 및 육방 체계 재편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604년 신주 주치는 북한산으로 환원되나,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대개 유지되었다.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604년 신주의 주치 환원은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항성-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는 36년간 구축한 산물이었다. 당항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이상,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많지 않았다.

둘째, 604년 이후 백제의 주요 공격은 신주·한산주 방면이 아닌, 下·上州 방면에 집중되었다. 武王의 신라 공격은 하주 방면 진출이 주요 목적이고, 간간히 상주 방면을 공격하였다. 신주·한

51) 602년 아막성 전투의 전황은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 85(2012)’ 참고.

52)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5년(603) 秋 8월.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4년(603).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眾我寡, 恐不克而退.”

53)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6년(604) 秋 7월.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산주 방면 공격은 勒努縣(괴산) 전투에 불과하다. 백제는 신라가 북변·서변의 고구려·백제를 함께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굳이 신주·한산주 방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의자왕대 對新羅戰은 648년까지 무왕대의 전략이 유지되고, 649년부터 신주·한산주 방면 공격이 진행되었다.⁵⁴⁾ 이상에서 적어도 648년까지의 신라는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많지 않았다.

다만 604~648년 당항성 육방 체계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무왕의 웅진 주둔(627),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모의(643)가 있어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B를 보자.

B-①. [627] 백제 將軍 沙乞이 [百濟本紀：新羅] 西鄙 2성을 함락하고 남녀 300餘口를 잡아갔다. [百濟本紀：①왕이 신라가 침탈한 땅을 되찾고자 군사를 크게(大) 일으켜 나아가(出) 熊津에 주둔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그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당에 급함을 고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곧 그쳤다.]⁵⁵⁾

B-②. [642] 가을 7월. 백제왕 의자가 군사를 크게(大) 일으켜 나라 서쪽 40餘城을 공격해 취하였다. 8월. [백제왕 의자가] 또 고구려와 더불어 党項城을 취해 당으로 가는 길(歸唐之路)을 끊고자(絶) 모의(謀)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唐] 太宗에게 급함을 고하였다.⁵⁶⁾

54) 박종욱, 앞의 논문(2022): 189-193.

5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9년(627) 秋 7월. “百濟 將軍 沙乞, 拔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28년(627) 秋 7월. “王命將軍 沙乞, 拔新羅 西鄙 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 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 乃止.”

56)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秋 七月. 百濟王 義慈, 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百濟王 義慈]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B-③. [642] 가을 7월. [의자]왕이 친히 군사를 통수해 신라를 침범하고, 獼猴 등 40餘城을 떨어뜨렸다(下).⁵⁷⁾

B-④. [643] 겨울 11월. [의자]왕이 또 고구려와 新羅 黨項城을 취해 [신라의] 入朝하는 길을 막고자(塞) 하였다. ⑥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당항성(=之)을 공격하였다.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어 당에 구원을 청하였다. ⑦ [의자]왕이 그것을 듣고 병사를 파하였다.⁵⁸⁾

B-⑤. [643, ④淵蓋蘇文列傳 : 마침(會=643년 3월)] 가을 9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言)[淵蓋蘇文列傳 : 告]. “백제가 우리나라 40餘城을 공격해 취했습니다. 다시 고구려와 병사를 합쳐 入朝하는 길을 끊고자(絶) 모의(謀)하였습니다. [④蓋蘇文列傳 : 小國이 부득이 군사를 내려 합니

다. 앞드려 바라건대] 병사를 빌려 구원해 주십시오.”⁵⁹⁾

B-①은 627년 7월 백제 장군 沙乞의 신라 서쪽 변방 2성 함락,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철병을 보여준다. 신라본기는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철병을 서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평왕이 당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이 무력시위로 끝났기 때문이겠다.

B-①은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王遣使，告急於太宗.”

57)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2년(642). “秋 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獼猴等四十餘城.”

58)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643). “冬 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 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 德曼 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59)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년(643). “秋 九月. 新羅遣使於唐, 言.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乞兵救援.””; 『三國史記』 권49, 列傳9, 蓋蘇文. “會新羅入唐, 告.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小國不得已出師, 伏乞天兵救援.””

B-①-③는 무왕이 “신라가 침탈한 땅을 되찾고자(欲復新羅侵奪地分)” 대병을 웅진에 주둔했다고 하므로, 무왕의 공격 목표는 신주나 신주 남부이다. 554~627년 신라는 대개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이 기간 신라의 백제 공격전은 3회이다. 578년 알야산성 및 605년 백제 東鄙 공격은 실패로 보이며, 618년 椴岑城 전투는 611년 백제가 뺏은 가잠성을 신라가 수복한 전투이다.⁶⁰⁾ 따라서 B-①-③의 “신라가 침탈한 땅”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신주·신주 남부뿐이다. 626년 신라·백제는 고구려의 조공로 차단을 당-삼국 간 외교 문제로 삼았고⁶¹⁾, 진평왕은 무왕의 군사행동을 “遣使告急於唐”으로 대응하였다. 즉 무왕의 주요 공격 목표는 당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긴 시간 동안 육방 체계를 구축한 당항성이 포함되었다. 무왕은 사결의 서쪽 변경 2성 함락을 통해 신라의 방어병력을 서쪽 변경으로 집중시킨 후, 대병으로 당항성 등 신주·신주 남부를 뺏으려 하였다. 그러나 진평왕이 당에 개입을 요청하자 무왕이 철병하였고,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은 대병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무왕이 당항성 등 신주·신주 남부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으므로, 이 사건은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 계기로 작용하였다.

B-②·④~⑤는 643년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 기사로 자료별 시점과 사건의 실체가 분분하다. B-②의 642년 7월은 『舊唐書』, 百濟傳을 옮기다 발생한 杜撰이며, 643년 사건이

60) 611·618년 1~2차 가잠성 전투의 전황은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椴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2023): 173-183 참고.

6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년(625) 冬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8년(626) 秋 7월. “唐 高祖 遣朱子奢來, 詔諭與高句麗連和.”;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27년(626). “遣使入唐, 獻明光鑑. 因訟高句麗使道路, 不許來朝上國. 高祖遣散騎常侍 朱子奢, 來詔諭我及高句麗平其怨.”

라 한다.⁶²⁾ 신라본기는 B-② 이후 642년 겨울 김춘추가 고구려에 請兵使로 갔으므로, 사건 전개가 어색하기 때문이다.⁶³⁾ 당자료에서 B-②와 유사한 기사는 『資治通鑑』만 전하며, 643년 9월 庚辰에 서술되었다.⁶⁴⁾ 淵蓋蘇文列傳은 이 기사의 시점을 “會”라 하고, 연개소문이 당에 도교를 청한 기사에 이어 썼다. 고구려본기는 643년 3월 연개소문이 당에 도교를 청했다고 하고,⁶⁵⁾ 643년 9월에 B-⑤를 썼다. 백제본기는 643년 11월에 B-④를 썼다. 이로 인해 9월은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 시점, 11월은 당항성을 공격한 백제의 철수 시점이라거나⁶⁶⁾, 9·11월에 신라가 견사할 수 있고, 특히 11월은 백제의 공격과 신라의 견사가 이루어진 시점이며, 백제·고구려의 연화는 상정하기 어렵다고도 한다.⁶⁷⁾ 또 백제·고구려의 연화는 백제의 해명이 있었으므로, 신라가 외교적으로 날조한 일방적 주장 및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형 사건이다. 당항성 공격은 백제의 단독 계획이며, 11월은 백제의 신라 조공로 차단을 위한 작은 전투·국지전이 발생해 신라의 견사를 듣고 철수한 시점이라고 한다.⁶⁸⁾

B-②·④~⑤는 백제의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 일대의 단독 공격, 신라의 외교적 술수가 복합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62)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1997, 서울: 一潮閣, 23.

63)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2007): 15.

64) 『資治通鑑』 권197, 唐紀13, 太宗 貞觀 17년(643) 9월 庚辰(4일, 643.10.21), 6204. “新羅遣使言. “百濟攻取其國四十餘城. 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乞兵救援.”

65)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년(643) 3월. “蘇文告王曰. “三教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教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教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王喜, 取僧寺館之.”

66) 윤성환, 앞의 논문(2019): 29-31; 최희준, 앞의 논문(2022): 5-6.

67)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인식”, 『사학연구』 141(2021): 12-14.

68) 박종욱, 앞의 논문(2022): 194-200.

“遂發兵攻之·王聞之罷兵”(B-④), 백제의 여제연화 부인⁶⁹⁾ 등을 고려하면, 백제는 단독으로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를 공격·철병하였다. 이것은 627년 사결의 신라 서비 2성 함락 후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철병과 전쟁 수행방식이 유사하다. 백제는 642년 신라 서쪽의 미후성 등 40餘城을 함락하고, 신라가 서변에 방어력을 집중하는 틈에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당의 개입을 통해 위기를 타파하려 하였고, 백제는 당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철병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 공격은 실효를 얻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643년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쫓은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642년 8월 대야성 함락으로 신라는 백제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동맹·원병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사로 파견되었다. 둘째, 고구려는 신라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신라의 청병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신라는 당과의 동맹 및 당의 원병이 필요하였고, 당은 백제·신라보다 고구려 정벌에 관심이 많았다. 신라는 공세를 펼치는 백제와 청병을 거절한 고구려를 한통속으로 몰았다. 또 당이 신라를 도와주면, 신라는 당의 고구려 정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은근히 비추었다.

신라가 당에 고한 급박한 상황은 나라 서쪽 40여성 함락과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뿐이며, B-②·④~⑤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개소문열전에서 신라의 원병 요청은 “신라가 먼저 군사를 낼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졌다(B-⑤-㉔). 신라는 최대 위기인 대야성 함락을 은폐하며 급한 일만 도와달라는 형태로 당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B-②·④~⑤가 나타났다.

69) [唐]許敬宗 篇, 『文館詞林』 권664,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 一首, 251. “前得新羅表, 稱王與高麗每興土衆, 不遵朝旨, 同侵新羅. 朕便疑王必與高麗協契. 覽王今表, 及問康信, 王與高麗, 不爲阿黨.”

643년 백제의 공격 규모는 알기 어렵지만, 이 사건으로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강화되어야 하였다. 642년 신라는 백제에 의해 서쪽의 40여성·대야성을 잃었고, 고구려는 신라의 청병을 거절하였다. 백제가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에 대한 공격의도를 드러낸 이상, 신라는 당항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백제는 649년부터 전략을 전환해 한산주 남부에 공세를 집중하나,⁷⁰⁾ 신라는 당항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것은 604~648년 2회에 걸쳐 당항성의 육방 체계가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海門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의 海防 체계

본 장에서는 당항성 일대 도서 환경을 위주로 海門의 의미와 당항성의 海防 체계를 논의하겠다. C와 <그림 1>을 보자.

C-①. 승려 義湘은 俗姓이朴이고, 鷄林府 사람이다. …… 나이 弱冠에 이르자, 당(唐土)에 敎宗이 鼎盛하다고 들어 元曉法師와 함께 서쪽으로 유학(西遊)할 뜻을 같이하였다. 가서 ‘本國의 海門과 唐州의 境界’에 이르러 巨艦을 구하길 계획하고, 장차 滄波를 넘고자 하였다.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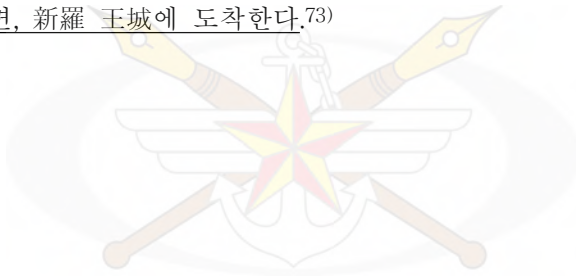
C-②. 당의 의상은 新羅國 鷄林府 사람이다. 나이 弱冠에 중국의 敎法이 융성함을 알고, 곧 同志 元曉法師와 책을

70) 박종욱, 앞의 논문(2022): 212-220.

71) [宋]贊寧, 『宋高僧傳』 권4, 義解篇2-1, 唐新羅國義湘傳. “釋 義湘, 俗姓, 朴. 雞林府人也. …… 年臨弱冠, 聞唐土敎宗鼎盛, 與元曉法師, 同志西遊. 行至本國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

지고 서쪽(西)으로 갔다. 이윽고 海岸을 따라가니(遵), 말하기를 ‘唐州’라 하였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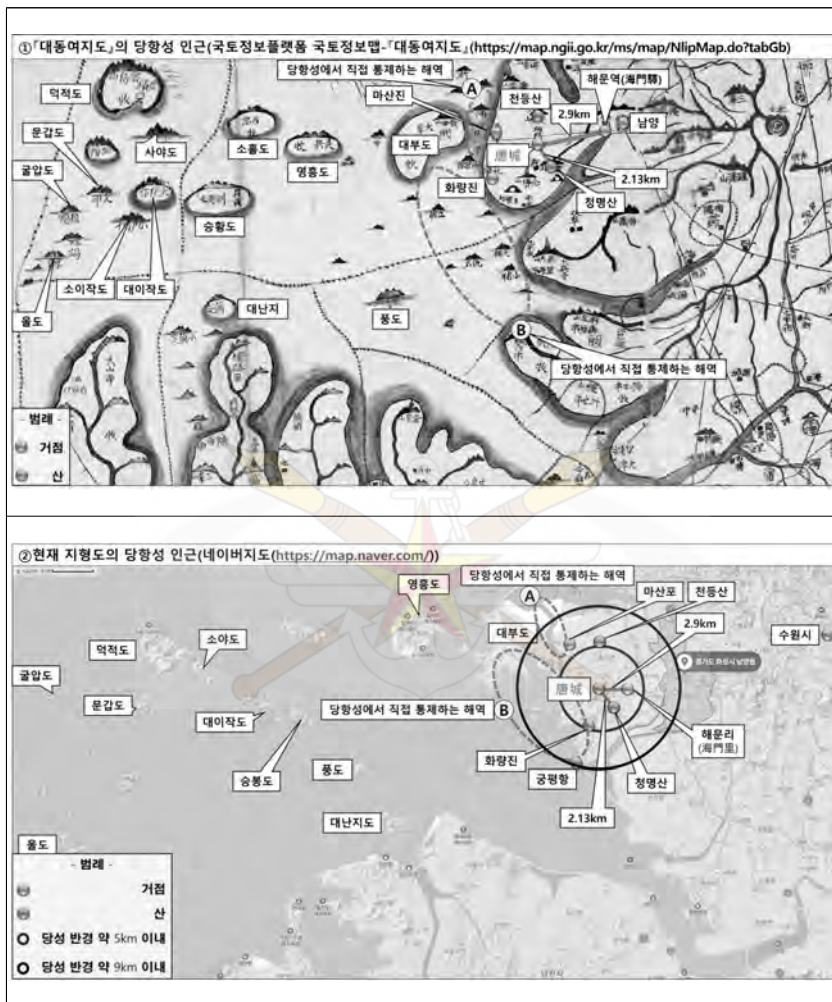
C-③. ①登州에서 동북쪽으로 항해해 大謝島·龜歆島·末島·烏湖島를 거치면 300里이다. 북쪽으로 烏湖海를 건너 馬石山 동쪽 都里鎮에 이르면 200里이다. ②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해 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橐駝灣·烏骨江을 거치면 800里이다. ③또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해 烏牧島·貝江口·椒島를 거치면, 新羅 西北 長口鎮에 도착한다. ④또 秦王石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를 거치면 1,000里이고, 鴨渌江·唐恩浦口에 이른다. ⑤또 동남쪽 육로로 700里를 가면, 新羅 王城에 도착한다.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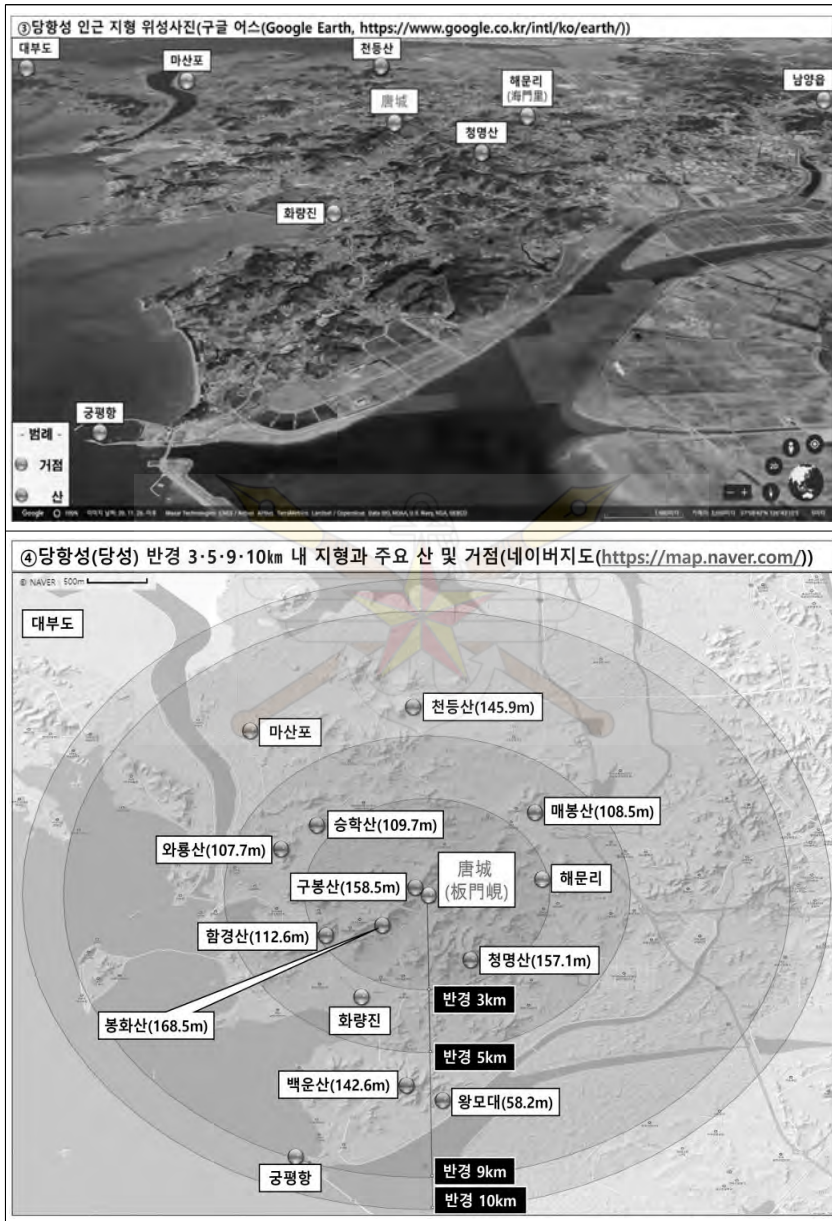


72) [元]曇噩, 『新修科分六學僧傳』. “唐 義湘, 新羅國 鷄林府人也. 年弱冠, 稔聞中國教法之盛, 乃與同志元曉法師, 負笈而西. 既遵海岸, 曰唐州者.”

73) 『新唐書』 권43下, 志33下, 地理7下, 1147.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歆島·末島·烏湖島, 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 二百里. 東傍海濡, 過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橐駝灣·烏骨江 八百里. 乃南傍海濡, 過烏牧島·貝江口·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鎮. 又過秦王石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 千里至鴨渌江·唐恩浦口. 乃東南陸行七百里, 至新羅 王城.”

〈그림 1〉 당성 일대의 지형-『대동여지도』·네이버 지도 중 지형도·구글어스





C는 『宋高僧傳』·『新修科分六學僧傳』 중 의상의 入唐 과정 일부, 『新唐書』, 地理志의 당-신라 간 뱃길 관계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그림 1〉은 당항성 일대 도서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C-①·②에서 의상·원효는 海岸을 따라(遵)(C-②) 신라 海門인 唐州의 경계로 갔고, 巨艦을 구해 서해를 건너 당(中國·西·唐土)에 가려 하였다(C-①). 문장 구조상 해문은 당주의 별칭이다(C-①). 두 승려는 해안을 따라 당주 경계에서 큰 배를 구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해문인 당주의 끝은 바다에 접해 큰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신라 자료에서 唐州란 지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인조 12년(1634) 편찬된 洪聖民의 『拙翁集』은 단종 3년(1455) 남양의 지리서로 편찬된 『[남양]계고요람』을 인용하여 당주를 唐恩郡의 별칭이라 하였다.⁷⁴⁾

『대동여지도』는 남양 앞까지 바다가 들어옴을 보여주며, 역참인 海門을 표기하였다. 해문은 현 화성시 마도면 海門里이다. 해문리는 약 500년 전 조차를 활용해 산간 저지대에 있는 마을 입구를 배로 출입하였다거나, 海門仇火驛이 있어 유래한 이름이라 한다.⁷⁵⁾ 해문은 1861년에 당성 반경 약 3km까지 바다가 들어옴을 보여준다. 당성은 간척 전 조차가 심해 구봉산 일대까지 바다가 들어와 섬으로 변했다. 당성 동쪽은 육지·갯강이 분리되어 육지와 가깝고, 썰물 때는 육지와 소통이 원활했다고 한다.⁷⁶⁾

『대동여지도』는 당성 근처에 板門峴을 표기하였다. 당성은 남양 반도에서 천등산-청명산 간 교통로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당성이 있는 구봉산은 높이 158.5m로, 봉화산(높이 168.5m) 외

74) 朝鮮洪聖民, 『拙翁集』 所引 『朝鮮宋後 等撰 / 趙仲旻 교정·편집, 『[南陽]稽古要覽』. “[南陽府, 古號唐恩郡, 又稱唐州.] 유관 서지는 한국고전번역원, “남양계고요람·계고요람”, 고전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itkc.or.kr/dir/list.jsessionid>)(검색일 : 2023.06.16) 참고

75) 화성시, “海門里·海門驛”,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검색일 : 2023.06.16).

76) 황보 경, 앞의 논문(2015): 154.

남양반도의 모든 산 중 가장 높다. 당성이 구봉산에 있는 이유는 구봉산·봉화산의 고도 차이가 크지 않아 남양반도 조망에 무리가 없고, 반경 3km 이내 산들의 중심에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성은 대부도~마산포 간 수로(<그림-1>-①·②-①), 대부도~제부도~궁평항 일대 해역(<그림-1>-①·②-②)을 항상 감시하는 위치에 있다. 이상에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海門이었다.

진흥왕이 대중 외교 창구를 당항성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C-③과 당항성의 해양 지형을 고려해 생각해보자. C-③은 唐德宗 貞元 연간(785~805) 재상을 지낸 賈耽이 801년 『古今郡國縣道四夷述』을 찬진하며 四夷述에 쓴 『皇華四達記』(일명 『道里記』)의 「登州海行入高麗渤海」 逸文에 기초한다.⁷⁷⁾ 『고금군국현도사이술』은 762~764년 ‘당→발해→신라→당’으로 사행한 唐使 韓朝彩의 견문에 기초하므로⁷⁸⁾, C-③은 8세기 중반 登州(山東省 蓬萊)~경주 간 교통로를 보여준다.

등주~경주 간 길은 廟島列島~道里鎮(㉔)→老鐵山水道~長山列島~烏骨江(㉕)→烏牧島~신라 북쪽 長口鎮(㉖)→秦王石橋~唐恩浦口(㉗)→당항성 동남쪽 700리 되는 육로(㉘)의 5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5개 구간 중 ㉔는 장구진에서 진왕석교~마전도~고사도~득물도를 거쳐 당은포에 가는 길로, 웅진반도(장구진)~남양반도(당항성)를 잇는다. 장구진은 장산곶 남동쪽 靑叉浦(장연군 해안면 구진리)⁷⁹⁾, 진왕석교는 웅진반도 일대⁸⁰⁾, 마전도·고

77) 榎一雄, “賈耽の地理書と都里記の稱とに就いて”, 『榎一雄著作集 7』, 東京: 汲古書院, 1994, 197-200.

78) 아카바메 마사요시(赤羽目匡由) 저 / 김선숙 역, “8세기 중엽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의 통교관계-『三國史記』 인용,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逸文의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32(2008): 300-302.

79) 이상훈, “신라 장구진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 『北岳史論』 15(2022): 19-29.

80) 도도로키 히로시, “신라 북요통 복원 서설”, 『아시아리뷰』 8-2(2019): 147.

사도는 교동도·강화도⁸¹⁾, 대청도·연평도⁸²⁾, 경기만 일대 섬에 지정된다.⁸³⁾ 덕물도는 덕적도이다. C-③의 해로는 당항성(당성)이 종점이며, 일찍부터 쓴 길이다.⁸⁴⁾ 따라서 당항성 설치 당시 신라-중국 항로도 이와 유사하였다.

서해안을 장악한 진흥왕이 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가 아닌 남양반도에 대중 외교 창구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한산주·수약주 분리(637) 전 신주 주치는 북한산·남천을 옮겨 다녔고, 중고기 주치에는 停을 두었다. 강화만~경기만~서울에 대중 외교 창구를 두면 2가지 장점이 있다. 남한강을 통해 충주로 연결되고, 유사시 주치정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왕은 당항성을 대중 외교 창구로 선정하였다. 당항성(진)·덕물도는 660년 백제 공격을 위해 신라 병선 100척-당군이 합세하고, 668년 고구려 공격을 위해 신라-당군이 합세한 지점이다.⁸⁵⁾ 따라서 당항성(진)·덕물도는 삼국통일전쟁의 실질적 개전 지점이었다. 또 663년 백제부흥운동 진압을 위한 당의 대군도 덕물도를 거쳐 웅진에 들어갔다.⁸⁶⁾ 반면 강화도의 穴口鎮은 下代인 文聖王 8년(844)에 두므로⁸⁷⁾, 당항성보다 개발이

81) 內藤雋輔,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頌壽紀念史學論叢』, 京都: 弘文堂書房, 1927; 『朝鮮史研究』, 京都: 東洋史研究會, 1961, 373-374.

82)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249-250.

83)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서울: 일조각, 2012, 179.

84)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중부횡단항로와 남부사단항로 개설 시기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21(2011): 109.

85)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660) 6월 21일[庚寅]. “王遣太子 法敏, 領兵船一百艘, 迎定方於德物島.”;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3, 義慈王 20년(660) 6월 [21일[庚寅]]. “蘇定方引軍, 自城山濟海, 至國西 德物島.”;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3, 文武王 8년(668) 6월 12일[乙丑]. “遼東道 安撫副大使 遼東行軍 副大總管, 兼熊津道 安撫大使 行軍總管 右相 檢校太子左中護 上柱國 樂城縣 開國男 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 沙湊 金三光, 到党項津. 王使角干 金仁問, 延迎之以大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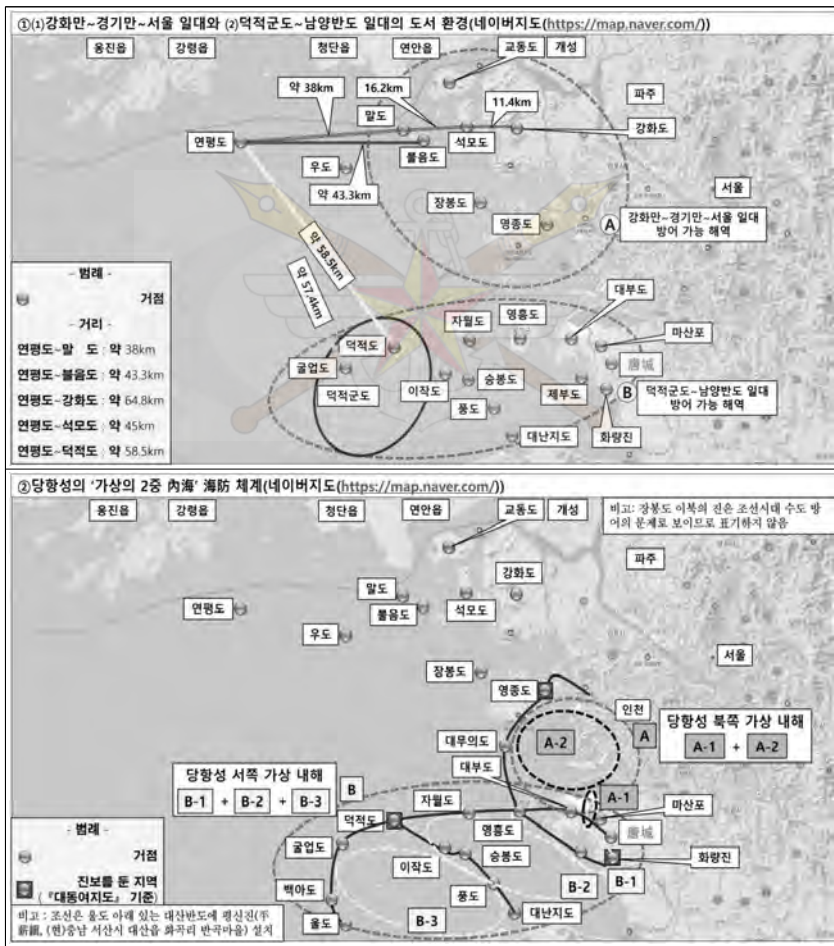
86)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3, 文武王 3년(663) 5월. “仁軌與仁願合, 解甲休士. 乃請益兵, 詔遣右威衛將軍 孫仁師, 率兵四十萬, 至德物島, 就熊津府城.”

87)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 文聖王 6년(844) 秋 8월. “置穴口鎮, 以阿湌 啓弘爲鎮頭.”

늦었다. 또 당곳(唐串) 등 당과의 교류를 전제로 형성된 지명은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남양반도에 더 많이 남았다.

이것은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당항성의 군사적 가치와 해방 체계를 설명하고자 <그림 2>를 작성하였다.

<그림 2> ① (1)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와 (2)덕적군도~남양반도 일대의 도서 환경, ② 당항성의 海防 체계



〈그림 2〉-①은 (1)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 (2)덕적군도~남양반도 일대의 도서 환경·방어 가능 해역을 표기한 것이다. (1)의 방어 가능 해역은 교동도~말도~석모도~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범위(㉔)로, (2)의 방어 가능 해역은 대부도~영흥도~자월도~덕적군도~대난지도~남양반도를 잇는 범위(㉕)로 상정된다. (1)·(2)의 방어 가능 해역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㉕는 ㉔보다 방어 가능 해역이 넓고, 방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㉔는 말도~장봉도~영종도가 사선을 이루어 방어 가능 해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불음도~장봉도 간 섬이 적어 방어 거점이 많지 않다. 반면 ㉕는 덕적군도 및 덕적도~자월도~영흥도~대부도가 각각 서쪽과 북쪽에서 일종의 자연 전선을 이루고 있다. 또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가 일종의 자연 전선을 이루어 넓은 해역을 반분하고 있다.

둘째, ㉕는 ㉔보다 서쪽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고, (2)보다 (1)이 대중 교류에 유리하다. ㉔와 ㉕의 가장 西端에 있는 섬은 말도와 굴업도·백야도이나, 섬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하면 대중 항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서단의 섬은 불음도와 덕적도로 판단된다. (1)·(2) 중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던, 중국으로 항해하려면 연평도→옹진반도를 거쳐야 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1)·(2)에서 출발할 때의 대중 항로를 구성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강화만~경기만~서울에서 중국으로 항해를 출발하면 불음도→연평도→옹진반도로 진입한다. 이 항로는 현 개성·연안읍·청단읍·강령읍·옹진읍 등과 같은 지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나가며, 고구려의 위협·감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부도→영종도를 지나 (1)에 진입해 강화도→석모도→불음도를 거쳐, 연평도→옹진반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다른 하나

는 대부도→영흥도→자월도→덕적도를 거쳐, 덕적도에서 연평도→옹진반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전자는 (1)에서 출발하는 항로와 큰 차이가 없다. 후자는 덕적도까지 서쪽으로 향해하다 연평도로 복상하는 항로로, 당항성에서 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항로이다.

(1)·(2)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의 조건은 대개 유사하나, 덕적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는 불음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보다 15.2km가 많다. 따라서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1)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 항로보다 약간 길다. 그러나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받는 지점을 강령읍·옹진읍 등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피해야 할 때는 (1)보다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유리하다.

고구려는 신라가 서해안을 장악한 후에도 한강 유역을 공격하거나, 신라 사신을 위협하였다. 603년 고승의 북한산성 공격이나, 진덕왕 2년(648) 入唐한 후 신라로 귀국하던 김춘추를 살해하려는 시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신라-당 사이의 뱃길은 「乞師表」 등 중요 國書·조공품·회사품 등이 授受되어 가치가 큰 정보·물자가 유통되나, 고구려의 위협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였다.⁸⁸⁾ (1)에서 출발하는 경로보다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경로는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축소할 수 있었고, 기밀 보장이 쉬워 사행·군사행동 등이 더욱 유리하였다. 660·668년 덕적도·당항성(진)에서 신라와 당이 합세한 이유는 신라-당 연합군의 軍期·목표 등을 고도로 감추며 공격을 실행하려는 의도 등과 직결되겠다. 이상에서 (1)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2)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았고, 대중 외

88) 정덕기, “신라 上·中代 船府(署)의 정비와 水軍”, 『한국고대사탐구』 38(2021(c)): 116-118.

교 창구로 더 적절한 지역은 남양반도를 한눈에 조망하며 통제할 수 있는 당항성이었다.

진흥왕은 당항성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상세 보고를 북한산 순행과정에서 받았다고 판단된다. 554년 관산성 전투 후 신주의 재편을 보여주는 사건은 555년 북한산 순행 당시의 “拓定封疆”이다. 진흥왕의 북한산 순행 경로에 당항성의 포함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경유한 주군(所經州郡) 및 그 인근 주군은 지역별 중요·상세 정보를 진흥왕에게 보고했다고 이해된다. 진흥왕은 유관 정보를 비교하여 555~558년 당항성을 설치·개발하였고, 564년 이후 당항성은 대중 외교 창구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당항성은 언제부터 ‘海門’이라 불렸을까? 신라 대중 외교·교류의 활성화는 중·북부 서해 장악과 연관되므로, 船府署를 처음 둔 진평왕 5년(583)이 주목된다.⁸⁹⁾ 선부서는 中代 船府의 前身으로, 수군의 軍政權을 장악해 신라 水軍·兵船軍의 운용, 海運을 관장하였다. 또 선부(서)는 신라의 해양 국경선 확대와 궤를 같이해 정비되었다.⁹⁰⁾ 선부서 설치의 관할 해역의 증대를 반증하므로, 583년 이후 당항성을 해문으로 불렀다고 이해된다. 이후 중고기 전반 신라인의 중국 유학이 성행하고,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이 학술·문화 교류에서 請兵으로 전환되며⁹¹⁾ 당항성은 ‘신라의 海門’이란 위상을 굳혀갔다.

당항성의 海防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신라는 마립간시기에 “設關守備” 위주의 거점 방어를 육방 전략의 하나로 수립하였고, 이것은 海防에 통용되었다. 상고기 말 우산국 정벌은 동해

8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5년(583) 春 正月.

90) 정덕기, 앞의 논문(2021(c)): 113-121.

91) 정덕기, 앞의 논문(2021(a)): 17-38; 정덕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학술 인식과 新 지식인 元曉」, 이영호·정덕기·정동락·박광연·배상현·김영미 편, 『시대를 앞서간 고승 원효』, 경산: 도서출판 온샘, 2021(b), 57-78.

에 해방 거점을 마련해 공세적 방어를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기 말의 대외방어전략은 중고기의 대외방어전략으로 계승되었다.⁹²⁾ 따라서 당항성의 방어체계는 <그림 2>-②-[A]·[B]에 포함된 섬을 규모에 따라 방어·경계 거점으로 삼아 구축되었다. <그림 2>-②-[A]·[B]에 포함된 섬을 연결하면, 당항성 서쪽·북쪽에 일종의 ‘가상 內海’ 2곳이 설정된다. 신라는 가상 내해별로 2·3개의 해역을 나누어 海防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된다.

당항성 북쪽 가상 내해(<그림 2>-②-[A])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의 대부도~남양반도 해역([A-1]), 영종도~대무의도~대부도 해역([A-2])으로 세분된다. 전자는 당항성 직접 통제 해역으로, 당항성 북쪽에서의 진입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이다. 후자는 [A-1]을 방어한다.

당항성 서쪽 가상 내해(<그림 2>-②-[B])는 당항성 기준 반경 10km 안·밖과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세분된다. 대부도~제부도~궁평항([B-1]) 해역은 당항성 반경 10km 안의 당항성 직접 통제 해역으로, 당항성 서쪽에서의 침입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이다. 영흥도~자월도~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 해역([B-2])은 [B-1]을 방어한다. 덕적도~굴업도~백아도~율도와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 간 해역([B-3])은 [B-2]를 방어한다.

‘가상의 2중 內海’는 몇몇 수군 기지·정박 시설을 두어 관리했다고 이해된다. 선행연구에서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을 덕적도에, 전초기지를 당항성 서쪽 외곽에, 대중국 교역항을 마산포·화랑진에 두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⁹³⁾ 660·663년 덕적도·당항성(진)에 기향한 신라 병선 100척과 당의 대군을 고려하

92) 정덕기, “신라 上古期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于山國 征伐”, 『新羅史學報』 50(2020).

93) 황보 경, 앞의 논문(2015): 150-151.

면, 덕적도에는 병선 100척이나 대군이 기항·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대동여지도』의 ‘鎭堡’ 위치가 주목된다. 『대동여지도』는 덕적도·紫燕島(현 영종도)·화랑진에 성이 없는 진보를 표기하였다. 조선 영조 16년(1740) 덕적도에 덕적진을 두며, 덕적진은 덕적도 남서쪽에 있는 진리 해변 서측 일대~비조봉 입산로 초입(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대)에 위치한 만 형태의 지형에 있었다고 추정된다.⁹⁴⁾ 자연도의 진보는 본래 南陽都護府의 永宗浦萬戶를 옮기며 둔 것이다.⁹⁵⁾ 또 마산포는 바로 앞에 있는 漁島로 인해 큰 바다에서 부는 바람·파도를 막기에 유리하고, 다른 곳 대비 수심이 깊고 조차가 적다. 마산포는 신라-중국의 교역로로 알려져 있고, 제물포 개항 이전 가장 번창한 포구였다.⁹⁶⁾ 이상에서 대규모 수군기지·정박 시설은 덕적도·화랑진이나 덕적도·화랑진·마산포에 두었다고 이해된다. 당항성 북쪽·서쪽에 설정된 가상 내해를 5개의 해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점, 해문 당항성의 위상·중요성을 고려하면, 신라는 2~3개 지점(덕적도와 화랑진 혹은 마산포)에 수군·병선군을 주둔시켜 당항성을 방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제동맹의 완전 파기를 전제로 신주를 둔 신라는 중고기 전반부터 최대 판도를 누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⁹⁷⁾ 555~558년 ‘가상의 2중 內海’를 골격으로 삼은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항성이 해문의 위상을 가진 것은 583년

9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19-덕적도 I』,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190-198.

95)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關防, 二, 永宗浦,【在府南, 水軍萬戶守禦】花之梁.【在府西, 右道水軍僉節制使守禦.】;【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권4, 京畿道, 永宗浦鎭. “孝宗 四年. 移南陽 永宗浦 萬戶, 于紫燕島.”

96) 화성시, “마산포”,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 (검색일 : 2023.06.18).

97) 정덕기, 앞의 논문(2022).

이후이다. 따라서 ‘가상의 2중 內海’를 쓴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583년 이후 구축되었고,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면서 강화·완비되었다.

5. 맺음말

신라의 당항성은 대중 외교 창구이며, 海門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성이다. 본고에서는 6~7세기 신주의 재편과 관방 체계의 변화과정에 기초해 당항성의 관방 체계 변화를 살피고, 당항성의 해방 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라는 나제동맹을 활용하여 551년 고구려의 10군을 취했고, 553년 나제동맹을 파기하며 백제의 고지인 6군을 취해 신주를 두었다. 553년의 신주는 남한강·북한강 일대 16군을 위주로 성립했지만, 서해안에 연접하지 않았다. 신라는 554년 7~12월 관산성 전투에서 대승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였다. 555년 이후 신주의 확대·재편이 지속되므로, 신주의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555년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단행한 “拓定封疆”은 신주의 정비·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신주가 재편되며 비열홀주 분리, 신주 주치 이동, 국원소경의 설치·개발·방어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555~558년 신라는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564년 이후 신라의 對南北朝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므로, 당항성의 운영이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당항성의 운영이 활성화되자, 568년 신주의 주치는 남천으로 이동하

였다.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이 있자, 604년 신주 주치는 북한산으로 환원되었다. 568~603년의 36년간 신주 주치는 남천에 있었고,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의 골격은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568~603년 당항성 陸防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다. 이 기간 백제는 신주 방면을 공격하지 않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백제는 649년 이후 신주(한산주) 방면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 따라서 648년까지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어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604~648년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2회 이상 강화되었다. 627년 무왕이 웅진에 주둔하고, 643년 의자왕이 한산주 남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모두 신라의 서쪽 변방에 대한 공격을 성공한 후, 신라의 방어력이 서변에 집중된 틈을 타 신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려 한 것이다. 신라는 두 사건 모두 ‘조공로 차단’을 명분으로 삼아 당을 개입시키려 하였다. 특히 643년 사건은 신라 서변 40성 및 대야성 함락 이후 사건이며, 중고기 신라가 맞은 최대의 위기였다. 이로 인해 643년 사건은 고구려·백제를 한통속으로 몰아 당을 개입시키려 한 신라의 외교적 술수가 복합되어 나타났다. 두 사건은 당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백제의 의도가 작용하며 무력시위 후 철병 및 한산주 남부 공격 후 철병으로 종결되었다. 백제는 두 사건으로 신주·한산주 공격 의지를 드러내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신라는 당항성 일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였으므로, 두 사건은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한산주 남부 공격이 강화되는 649년 이후에도 신라가 당항

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당항성의 海防 체계에 대한 자료는 적지만, 당항성의 별칭인 ‘海門’의 의미와 당항성(현 당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하였다. 현 당성 일대는 근대 이후 간척으로 인한 현상변경이 많지만, 전근대에는 조차가 심해 남양 앞과 당항성 반경 3km까지 바다가 들어왔다. 당성은 남양반도에서 봉화산(168.5m) 외 가장 높은 산인 구봉산(158.5m)에 축조되었다. 당성은 반경 10km 내 남양반도의 교통로를 통제하며 조망을 침해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 대부도~마산포 해역과 대부도~제부도~궁평항 해역을 직접 통제하였다. 따라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통제하는 해문이었다.

555~558년 대중 외교 창구로 경기만·교동도·강화도·서울 등이 아닌 당항성이 선정된 것은 2가지 이유에서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첫째, 전자보다 후자가 방어 가능 해역이 넓고, 방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는 덕적군도가 경도와 약간 평행하게 놓여 있어 서쪽에 일종의 자연 전선을 형성하며, 덕적도~자월도~영흥도~대부도가 위도와 평행하게 놓여 있어 북쪽에 일종의 자연 전선을 형성한다. 둘째, 전자보다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이 서쪽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고, 중국과 관계를 맺기에 유리하다. 양자 모두 중국으로 항해하려면, 연평도→옹진반도를 거쳐야 한다. 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서 서단의 섬은 불음도이고,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서 서단의 섬은 덕적도이다. 덕적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는 불음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보다 15.2km가 많다. 그러나 당항성→덕적도→연평도→옹진반도로 진입하면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축소되었고, 기밀 보장이 쉬워 사행·군사행동에 유리하였다. 이것

은 660·668년 신라-당이 덕적도에서 합세한 이유와 직결된다. 양국 군이 덕적도에서 합세해 신라-당 연합군의 軍期·목표 등을 감추며 공격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삼국 통일전쟁의 전황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당항성을 해문으로 부른 시점은 병부의 속사로 선부서를 둔 583년으로 이해된다. 선부서는 수군의 군정권, 수군·병선군 운용, 해운을 맡는 관청으로, 신라의 해양 국경선 확대와 궤를 같이해 정비되기 때문이다. 당항성 관리의 중요성이 583년 선부서 설치의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고, 이후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이 청병으로 변화하며 당항성은 해문이란 위상을 굳혀갔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마립간시기 이래 유지된 “設關守備”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당항성 일대의 도서는 방어·경계 등을 수행하는 해방의 거점이었다. 당항성 일대의 도서를 이어보면, 당항성 북쪽·서쪽에 일종의 ‘가상 內海’를 설정할 수 있다. ‘당항성 북쪽 가상 내해’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으로 세분된다. ‘당항성 서쪽 가상 내해’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으로 세분되며, 반경 10km 밖 내해는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를 잇는 선 기준으로 동·서로 세분된다. 따라서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가상의 2중 내해(북쪽·서쪽 내해)’를 기준으로, 2중 내해에 5개의 해역을 세분하여 구축되었다. 5개 해역의 방비를 위해 2개 지점(덕적도와 화랑진 혹은 마산포)이나 3개 지점(덕적도·화랑진·마산포)에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 등을 갖추고, 수군·병선군을 주둔시켰다.

555~558년 당항성을 둘 때는 ‘가상의 2중 내해’를 골격으로 하는 당항성의 해방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선부서·선부 정비가 시작되는 583년부터 구축되었고, 삼국 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며 강화·완비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北齊書』 『北史』 『新唐書』 『資治通鑑』

(中國 正史·『資治通鑑』은 ‘北京：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참고)

[後漢]蔡邕, 『獨斷』(판본 : 김만원, 『文淵閣欽定四庫全書本-독단·고금주·증화고금주 역주』, 서울: 역락, 2019)

[南宋]劉義慶, 『世說新語』(판본 : [송]유익경 찬 / 양 유효표 주 / 김장환 역주, 『세상의 참신한 이야기-세설신어 3』, 서울: 신서원, 2008)
<http://uci.or.kr//G901:A-0006219106>

[唐]許敬宗 篇, 『文館詞林』(판본 : [唐]許敬宗 篇 / 羅國威 整理, 『日藏弘仁本文館詞林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1)

[宋]贊寧, 『宋高僧傳』

[元]曇噩, 『新修科分六學僧傳』

[朝鮮]洪聖民, 『拙翁集』

[朝鮮]韓百謙, 『東國地理志』

[朝鮮]韓鎮書, 『海東繹史續』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19-덕적도 I』,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1次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8.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2次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1.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4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5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6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7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3.

2. 저서

-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서울: 일조각, 2012.
<http://uci.or.kr//G901:A-0006418140>
-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서울: 一潮閣, 1997.
<http://uci.or.kr//G901:A-0008478864>
- 김부식 지음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4.
<http://uci.or.kr//G901:A-0006492644>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2-번 역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379942>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 석편(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379942>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http://uci.or.kr//G901:A-0006241602>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華城市史 I -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2005.
<http://uci.or.kr//G901:A-0006103992>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쟁탈과 고려 지방사회의 성립』, 화성시, 2020.

3. 논문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http://uci.or.kr//G701:B-00052468035@N2M>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중부횡단항로와 남부사단항로 개설 시기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21(2011).

<http://uci.or.kr//G901:A-0003463540@N2M>

김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34(2015).

<http://uci.or.kr//G901:A-0003805672@N2M>

도도로키 히로시, “신라 복요통 복원 서설”, 『아시아리뷰』 8-2(2019).

<http://doi.org/10.24987/SNUACAR.2019.02.8.2.139>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2007).

<http://uci.or.kr//G901:A-0002359579@N2M>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http://uci.or.kr//G901:A-0011027782@N2M>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인식”, 『사학연구』 141(2021).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648795@N2M>

아카바메 마사요시(赤羽目匡由) 저 / 김선숙 역, “8세기 중엽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의 통교관계-『三國史記』 인용,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逸文의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32(2008).

<http://uci.or.kr//G701:C-00056343242@N2M>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党項城)의 위치 재론(再論)-‘당성(唐城)’설 비판과 ‘한강(漢江)’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2021).

<http://uci.or.kr//G901:A-0010575210@N2M>

- 윤경진, “삼국-신라후기 한강 항로의 운용”, 『歷史學報』 253(2022).
<http://uci.or.kr//G901:A-0010705887@N2M>
-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軍史』 110(2019).
<http://doi.org/10.29212/mh.2019..110.1>
- 이상훈, “신라 장구진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 『北岳史論』 15(2022).
<http://uci.or.kr//G901:A-0010949477@N2M>
-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1980).
<http://uci.or.kr//G901:A-0000444444@N2M>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2009).
<http://doi.org/10.22827/seoul.2009..73.003>
- 전덕재,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2013).
<http://uci.or.kr//G901:A-0003482513@N2M>
- 전우식, “백제 위덕왕대 대신라 정책의 전개와 결과”, 『한국학논총』 32 (2009).
<http://uci.or.kr//G901:A-0002766142@N2M>
- 정덕기, “신라 上古期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于山國 征伐”, 『新羅史學報』 50(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418753@N2M>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2021(a)).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985571@N2M>
- 정덕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학술 인식과 新 지식인 元曉”, 이영호·정덕기·정동락·박광연·배상현·김영미 편, 『시대를 앞서간 고승 원효』, 경산: 도서출판 온샘, 2021(b).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7909401@N2M>
- 정덕기, “신라 上·中代 船府(署)의 정비와 水軍”, 『한국고대사탐구』 38(2021(c)).
<http://doi.org/10.35160/sjekh.2021.08.38.85>
-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http://uci.or.kr//G901:A-0011027778@N2M>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假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

<http://doi.org/10.37288/bukak.2023.18.5.151>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2016).

<http://doi.org/10.23024/pah.2016..47.59>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2022).

<http://uci.or.kr//I410-ECN-0101-2022-911-001505346@N2M>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 85(2012).

<http://doi.org/10.29212/mh.2012..85.29>

황보 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2015).

<http://doi.org/10.29212/mh.2015..96.135>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2017).

<http://doi.org/10.35160/sjekh.2017.04.25.181>

황보 경, “화성 당성과 주변 유적의 성격 및 경관 고찰-신라~남북국 시대를 중심으로-”, 『고문화』 93(2019).

<http://doi.org/10.23072/kmh.2019..93.002>

황보 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2020). <http://doi.org/10.23024/pah.2020..62.77>

內藤雋輔,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頌壽紀念史學論叢』, 京都: 弘文堂書房, 1927; 『朝鮮史研究』, 京都: 東洋史研究會, 1961.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0964@N2M

榎一雄, “賈耽の地理書と都里記の稱とに就いて”, 『榎一雄著作集 7』, 東京: 汲古書院, 1994.

4. 인터넷자료

구글 어쓰(<https://www.google.co.kr/intl/ko/earth/>)(검색일 : 2023.06.16).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대동여지도』

(<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검색
일 : 2023.06.16).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검색일 : 2023.06.16).

한국고전번역원, “남양계고요람, 계고요람”, 고전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dir/list.jsessionid>)(검색일 :
2023.06.16).

화성시, “海門里·海門驛·마산포”,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검색일 :
2023.06.16).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歷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검색일 : 2023.06.16).

(Abstract)

Reorganization of Sinju and the Defense System of ‘Sea Gate’ Danghangseong Fortress in Silla from the 6th to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ies

Jung, Duk-gi

The study examines the official defense system of Danghangseong Fortress in Silla from the 6th to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ies by analyz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Sinju(新州) and the environment of insular areas around Dangseong Fortress. The fortres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ea route connecting Silla and China, in other words, the ‘sea gate (海門)’ of Silla.

From 555 to 558, Silla established Danghangseong Fortress as a diplomatic channel to China and its defense system was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Sinju. The provincial capital of Sinju was Namcheon (南川) from 568 to 603. Until 648, the basic orientation of the Danghangseong Fortress defense system was to assume Baekje as a major enemy nation and to build a defense system between Namcheon and Gukwon-sogyong (國原小京).

The land defense system maintained its basic posture until 648, but was more reinforced when Baekje showed its willingness to attack Sinju and the southern part of Hansanju (漢山州) in 627 and 643. The sea defense system on the other hand can be approached by analyzing the environments of the islands around Dangseong Fortress. The islands were used as a base for the defense of the sea such as resistance and vigilance. The sea defense system was established by setting a ‘virtual double inland sea’ and then subdividing it into five sea sectors.

Keywords : Danghangseong Fortress, Sinju (新州), sea gate, sea defense, virtual double inland sea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269-324
<https://doi.org/10.29212/mh.2023..129.26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나당전쟁기 漢山州의 關防體系 정비와 畫長城의 位相*

권창혁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 수료

목 차

1. 머리말
2. 672년 漢山州 관내 畫長城 築城의 의미 再考
3. 나당전쟁기 신라의 방어 전략과 畫長城의 역할
4. 맺음말

초 록 672년 완공된 畫長城(현 남한산성)은 한강 유역, 즉 漢山州 방면 최대의 병참 지원기지이자 비상시의 淸野入保까지도 수행 가능한 거점으로서, 그 전례 없는 규모 및 입지, 발전된 축성 기술 등의 요소를 통해 볼 때 해당 지역의 기존 關防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는 남한강 수로를 매개로 國原(小京)城과 州治 사이의 연계를 보다 강화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하면서 王京 및 남부 방면의 인력과 물자 등을 漢山州 방면까지 원활히 유통시키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다.

이 晝長城은 본래 668년 이래로 전후 처리를 둘러싼 나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신라가 옛 고구려의 영토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북진경략을 추진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러한 신라의 전략적 움직임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처음 계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672년 8월 석문전투의 패전을 계기로 직후 守城·持久戰 전략이 채택됨 따라 다소 급박하게 완공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완공 이후 이 晝長城은 그 특별한 규모 및 입지를 활용하여 인력과 물자의 수용·집결 및 보급과 같은 병참 지원 및 비상시의 淸野入保를 통해 漢山州 관내의 중심 방어망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군사조직으로서 (漢山州)節末幢과 같은 부대가 晝長城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漢山州의 晝長城을 필두로 國原城 등의 新·增築을 통한 전국적인 關防 체계의 준비가 완성된 673년 후반부터, 부담스러운 장거리 원정을 강요받았던 당군에 비해 병참 등의 諸요소에 있어 신라군이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이는 당연히 將兵들의 전반적인 사기 증진 및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되는 요인이었던 만큼, 궁극적으로는 나당전쟁 자체가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까운 형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한산주, 주장성, 국원성, 관방체계, 병참체계, 남한강 수로

1. 머리말

현 경기도 광주시·성남시·하남시 일대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은 본래 672년 8월 신라 문무왕에 의해 축조되었던 둘레 4,360步(약 8km)의 晝長城(혹은 日長山城)이었던 것으로 비정되어 왔으며¹⁾, 오늘날에도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 672년(문무왕 12)은 때마침 나당전쟁(670~676)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만큼, 기왕에 이 晝長城의 축조 또한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즉, 대체로 이 晝長城은 전쟁 중 예상되는 당군의 대규모 침공을 이른바 ‘堅壁清野’ 전술로서 대비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入保用 성곽으로서 이해되었는데²⁾, 이는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이전 시기의 여타 삼국시대 성곽들과는 차별화되는 입지 및 규모와 더불어 근래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바 조선시대 이전의 선대 성벽 및 병영 혹은 군수창고 등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 등의 여러 독특한 양상을 통해서도 뒷받침되었다.³⁾ 다른 한편 그 축조 배경에 있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석문전투의 패전

1)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2年 8月 ;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廣州牧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 廣州牧 古跡.

2)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 심광주, 「주장성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 21, 2012 ; 박성현, 「신라 통일기 주·소경의 성곽과 그 활용」, 『한국성곽학보』 21, 2012.

3) 중원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조사보고총서 제46책, 2007 ; 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남한행궁지 -제7·8차 조사보고서-』, 토지주택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9집, 2010.

(672.8)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晝長城의 축조 자체는 석문전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 보다는 앞서 나당전쟁의 발발(670.3)과 함께 신라의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⁴⁾

어쨌든 이 晝長城은 672년 완공된 이래로 漢山州 일대의 신라 關防體系에 있어 극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같은 시기 이 漢山州 방면, 즉 현 임진강·한강 유역이 남하하는 당군의 침공에 노출되면서 주된 격전지가 되었던 일련의 사례들 역시 감안했을 때, 나당전쟁 중 신라군의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晝長城 築城의 의미와 그 역할·위상 등을 보다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는 작업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왕에는 대체로 석문전투 패전 이래 전국에 걸친 다수의 축성 작업이라는 큰 범주 아래 晝長城의 사례가 간략하게만 언급되었을 뿐이며, 그나마도 ‘堅壁淸野’ 혹은 ‘入保’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단순한 틀에 한정하여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상 실질적인 전략상의 의미나 지역 관방체계와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이 晝長城 자체에 초점을 맞춘 상세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래 당군의 예상 남하 경로에 따라 왕경을 중심으로 2, 3중에 걸친 전방위적 방어체계의 보완·정비라는 측면에서 晝長城을 포함한 일련의 축성 전략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겠으며⁵⁾, 여기에 더하여 가장 최근에는 충주(=國原小京) 방면과도 연결되는바 남한강 수로를 통한 물자 운송·집결·보급 등 兵站의 諸측면과 관련하여 이 晝

4)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2002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

5) 이상훈, 앞의 글, 2016, 79~80쪽.

晝長城의 입지 및 기능을 언급했던 연구도 있어 주목된다.⁶⁾ 아울러 이 문제와도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바, 비록 나당전쟁 시기 및 晝長城 자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시론적인 입장에서 漢山州를 비롯한 신라의 6~7세기 대 漕運 체계의 존재를 상정했던 최근의 여타 연구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기왕의 주요 연구 및 고고학적 조사 성과 등을 참고하면서, 우선 나당전쟁을 전후한 7세기 무렵 漢山州 방면의 신라 관방·병참체계 등의 전모를 살펴보는 한편 여기에서 晝長城은 또한 어떠한 위상 및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나당전쟁 시기, 특히 672~673년 전후의 역사적 상황과 연계하면서 당시 신라의 방어 전략의 한 단면 및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보겠다.

2. 672년 漢山州 관내 晝長城 築城의 의미 再考

익히 알려진 것처럼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시기 한강 유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진평왕 시기 낭비성 전투(629)를 전후한 7세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대략 임진·한탄강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신라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州·郡·縣 및

6) 서영교,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유지와 국원」, 『영남학』 83, 2022, 218~220쪽.

7) 김창석, 「한국 고대의 輸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2021; 박성현, 「신라 통일기 漢州의 물자 이동과 漕運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a.

8)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29쪽.

停 군단을 비롯한 일련의 행정기구와 군사조직들을 배치하는 한편⁹⁾, 다수의 성곽들을 축조하면서 이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관방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관련하여 문헌상에서 이 漢州(=漢山州) 소속으로 전하는 주요 州·郡·縣들과 현존하는 임진·한탄강 이남의 6~7세기 대 신라 성곽 유적들을 대응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면서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겠다.



9) 익히 알려진바 중고기 이래 신라의 '州'는 광역의 행정구역 겸 군관구 전체와 그 중심지(治所)이자 군사기지인 州治(停)를 포괄하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며, 후자인 州治(停)의 경우 당대의 전략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면서 명칭 또한 그 소재지에 따라 바뀌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1997, 91~103쪽). 漢山州의 경우에도 문헌상 6~7세기 동안 신주/한성주-북한산주-남천주-(남/북)한산주와 같이 지속적인 州治(停) 소재지의 이동 및 명칭 변경이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54~256쪽; 박성현, 「신라의 '남·북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2021b, 89~94쪽).

시기	553~557	557~568	568~604	604~637	637~660?	660?~664	664~672?
(廣域)州	신주 (553~637)				한산주 (637~757) *637년 기준 신주 관할 영역을 한산주/우수주로 분할		
州治(停)	한성 =(남)한산	(북)한산	남천	(북)한산	(남)한산	남천	(남?북?)한산
소재지 (*추정)	이성산성 (하남)	아차산성 (서울)	설봉산성 (이천)	아차산성 (서울)	이성산성 (하남)	설봉산성 (이천)	아차산성(서울) or 이성산성(하남)

〈표 1〉 7세기 대 임진·한탄강 이남의 신라 행정단위 및 대응하는 성곽 유적

단 위		현존 위치 비정	문헌상 지명
소경		총주	국원소경 / 중원경
신주/ 한산주 (광역)	주치(停)	하남 이성산성	(남)한산주 / 한주
	영현	이천 설봉산성	남천현 / 황무현
	영현	용인 할미산성	구성현 / 거칠현
	군	괴산 서부리토성	잉근내군 / 괴양군
	군	여주 파사성	술천군 / 소천군(기천군)
	영현	여주 북성산성	골내근현 / 황호현
	영현	양평 부용산성	양근현 / 빈양현
	군	진천 도당산성	금물노군 / 흑양군(황양군)
	영현	증평 도안면(?)	도서현(道西縣) / 도서현(都西縣)
	영현	음성 수정산성	잉홀현 / 음성현
	군	안성 죽주산성	개차산군 / 개산군
	영현	이천 설성산성	노음죽현 / 음죽현
	군	안성 비봉산성	내혜홀 / 백성군
	영현	안성 무한성	사복홀 / 적성현(赤城縣)
	영현	천안 사산성	사산현
	군	오산 독산성	매홀군 / 수성군
	군	화성 당성	당성군 / 당은군
	영현	평택 자미산성	상홀현(차홀현) / 차성현
	영현	평택 무봉산성	부산현 / 진위현
	군	과천(?)	율목군 / 율진군
	영현	서울 호암산성	잉벌노현 / 곡양현

	영현	서울 양천고성	제차파의현 / 공암현
	영현	인천 문학산성	매소홀현 / 소성현
	군	안산(?)	장항구현 / 장구군
	군	인천 계양산성	주부토군 / 장제군
	영현	김포 수안산성	수이홀 / 수성현
	영현	김포 북성산성	검포현 / 김포현
	영현	김포 동성산성	동자홀현(동산현) / 동성현
	영현	김포 월곶면(?)	평유압현 / 분진현
	군	서울 아차산성	(북)한산군 / 한양군
	영현	남양주 퇴미산성	골의노현 / 황양현
	영현	고양 행주산성	개백현(왕봉현) / 우왕현
	군	양주 대모산성	매성현 / 내소군
	영현	파주 칠중성	칠중현 / 중성현
	영현	파주 파평면(?)	파해평사현 / 파평현
	군	파주 오두산성	천정구현 / 교하군
	영현	파주 봉서산성	술이홀현 / 봉성현
	영현	고양 고봉산성	달을성현 / 고봉현
	군	포천 반월산성	마홀군 / 견성군
	영현	연천 대전리산성	내을매현 / 사천현
	영현	포천 성동리산성	양골현 / 동음현

* 출처 : 서영일, 앞의 책, 1999, 224~302쪽 ; 서영일, 앞의 글, 2010, 134~139쪽 ; 박성현, 「6~8세기 신라 한주 군현성과 그 성격」, 『한국사론』 47, 2002, 157쪽 ; 2021, 앞의 글, 86~87쪽 ; 윤성호, 앞의 글, 2018, 270~272쪽 등을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이를 보면 신라는 대략 ‘북한산(서울 아차산성)’-‘남한산(하남 이성산성)’-‘남천(이천 설봉산성)’-‘국원소경(충주)’을 잇는 남북 축선을 따라 중심 거점, 즉 州治 및 주력 군단(停)을 배치하고 수시로 왕복시키는 한편, 그 주변부를 다시 부채꼴처럼 둘러싸는 형태로서 郡과 소속 領縣들을 배치하는 체계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도 익히 지적되었던 바와 같다.¹⁰⁾ 즉, 이러한 양상은 한강·남한강 수계를 따라 형성된 간선 교통로 및 여기에서 뻗어져 나온 여러 지류 하천 혹은 지선 교통로들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수로를 통해 중심 권역으로 직접 진입·타격할 수 있는 지점들인 河口나 海岸, 그 외 上陸·渡河가 가능한 지점 등에 대한 감시·통제 또한 고려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¹¹⁾ 그에 따라 가장 전방에 위치한 城(村)이나 縣 단위의 성곽들에서부터 배후에서 이를 통솔하는 郡 단위의 성곽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지휘소인 州治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4단계에 이르는 방어망이 수로와 육로를 막론하고 주요 교통로상의 길목마다 중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중심 방어(Defence in depth)와도 같이 단계적으로 적의 공세를 지연·소모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²⁾ 익히 지적된 것처럼, 각각의 개별 성곽은 금방 무너뜨릴 수 있더라도 그러한 성곽들이 다수 모인 조밀한 방어망 자체를 돌파하거나 우회하는 것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작전 수행 및 병참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¹³⁾

10) 서영일, 앞의 책, 1999, 271~272쪽; 서영일, 앞의 글, 2010, 133~138쪽; 윤성호, 앞의 글, 2018, 269~274쪽; 박성현, 앞의 글, 2021, 83~88쪽.

11) 서영일, 앞의 글, 2010, 123~127쪽; 윤성호, 앞의 글, 2018, 273~274쪽; 박성현, 앞의 글, 2021, 85~88쪽.

12) 서영일, 앞의 책, 1999, 272쪽; 앞의 글, 2010, 136~138쪽.

13) 서영교, 앞의 글, 2002, 66~68쪽.

물론 이 같은 漢山州 방면 신라 관방체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이후 그 주체가 고구려에서 당(안동도호부)으로 바뀌었을 뿐인 나당전쟁 시기에 들어서도 상당 부분 효력을 발휘하며 유지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같은 시기 阿達城(안협/현 북한 철원읍) 등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¹⁴⁾ 668년을 전후하여 신라의 영역 자체가 기왕의 국경을 넘어 더욱 확대되는 한편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부흥세력들과도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졌던 만큼 최전선의 領縣들 및 방어 체계 역시 그에 맞추어 조정되었을 것이다.¹⁵⁾

그런데 이 와중에 漢山州 관내, 특히 한강 이남-이북 지역을 관할하는 양대 治所였던 북한산주(아차산성)·남한산주(이성산성)와 극히 인접한 지점에 4,360步(약 8km) 규모의 晝長城이 새로이 축조되었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바 晝長城이 완공된 것 자체는 672년이었지만, 그 전례 없는 입지·규모 및 그에 따른 공·방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앞서 고구려 멸망(668.9), 혹은 나당전쟁 발발(670.3)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미 축

14) 『三國史記』 卷47, 列傳7 素那 “…素那雄豪 有父風 百濟滅後 漢州都督都儒公請大王 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 이 阿達城은 대체로 지리지에 보이는바 阿珍押(=아달압)의 지명을 매개로 안협(현 북한 행정구역상 철원읍)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병도, 『역주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83, 144쪽). 아울러 ‘漢州都督都儒公(=『答薛仁貴書』의 朴都儒)’의 재임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소나의 阿達城 배치는 사료 상 ‘百濟滅後’라고 다소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668~670년 사이의 어느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김수미, 「박도유 모반사건으로 본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갈등」, 『백제문화』 44, 2011, 143~144쪽). 즉 이 같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668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漢山州가 관할하는 영역이 적어도 안협 등지의 임진강 중·상류 방면까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며, 더하여 이후 675년 당군의 침공 당시에도 이 阿達城을 비롯한 여러 縣 단위의 성곽들이 가장 먼저 공격 받았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해당 시점의 방어체계 역시 것처럼 북방으로 확대된 영역의 최전선에 따라 일정 부분 재배치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5)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2021, 175~176쪽.

성이 계획·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분명 타당하다.¹⁶⁾ 그렇다면 해당 시점에 이러한 축성 계획이란 단순히 일시 피난하기 위한 淸野·入保用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략상의 이유를 추가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위와 같은 기존의 관방체계와 그에 따른 중심 방어망 하에서 이러한 초대형의 신축, 혹은 증축 산성들이 결합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을까?

관련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이전 시기보다 크게 증가한 대규모의 병력을 수용하고 또한 유사시 이들이 장기간 주둔, 거주 혹은 농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晝長城과 같은 초대형의 산성들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다. 특히 적대세력과 인접한 변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실제 이 漢山州 관내에는 기왕의 州(停)兵 이외에도 漢山州誓나 (漢山州)關幢·弓尺·萬步幢·邊守幢·節末幢 등의 다수의 군사조직들이 특히 7세기 중·후반 무렵에 집중적으로 창설·배치되었던 사실을 새삼 상기해보고 싶다.¹⁷⁾ 물론 사료의

16) 서영교, 앞의 글, 2002, 64쪽; 이상훈, 앞의 글, 2016, 84~85쪽.

17) 『三國史記』에 전하는바 해당 시기 漢山州 방면에 배치된 주요 군사조직들의 명칭 및 창설시기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 下 凡軍號).

軍 號	衿色	창설 시기	비 고
(六停) 漢山停	黃靑	553년 (진흥왕 14)	-
(二弓) 漢山州弓尺	없음	652년 (진덕여왕 6)	-
(二關幢/外關) 漢山州關幢	關	*654년 (무열왕 1)	職官志에는 창설 시기를 '무열왕 17년'으로 전하나, 이는 오류. 실상 무열왕 원년에 왕실 직할로 계급당/한산주계당이 창설되었으며, 이후 그를 기반으로 우수주계당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됨(한준수, 2017).
(五州誓) 漢山州誓	紫綠	672년 (문무왕 12)	-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군사조직들의 주둔지, 혹은 위수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드물며, 그것이 또한 晝長城 자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지도 현재로서는 추정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았을 때, 戰時에 위와 같은 여러 군사조직들이 일제히 漢山州 관내에서 동원·전개될 경우 晝長城과 같이 전선 후방에서 이들 모두를 충분히 지원 가능한 본격 요새화된 거점의 존재 유무는 사기나 전투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로서 필히 고려되어야만 했으리라 생각된다. 즉,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거점(stronghold)이란 단순히 수동적인 피난처(refug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방어의 장소로서, 적의 기습이나 수적인 우세로부터도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필요시 언제든지 출격하여 적 세력을 타격하거나 인근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¹⁸⁾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료들을 살펴보아도,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행군·원정 경로상의 중간 집결지로 활용되는 등 漢山州 방면의 전략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그를 뒷받침할 보다 새롭고 규모가 큰 관방시설의 필요성도 늘어났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三邊守幢) 漢山邊	없음	*690년 (신문왕 10)	職官志에는 창설 시기를 690년으로 전하나, 이는 실상 '三邊守幢'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개편이 이루어진 시기로 추정됨. 개별 부대로서 漢山邊 자체의 활동 시기는 그보다 더 이전 시점이었을 것(한준수, 2016)
(二節末幢) (漢山州)節末幢	紫綠 (*추정)	미상	職官志에는 명확한 창설 시기나 배치 지역 등이 모두 전하지 않으나, 여러 정황상 나당전쟁 중 한산주·우수주의 두 방면의 전선에 대응하여 창설·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한준수, 2021).
(漢山州)萬步幢	黃黑 黃綠	미상	9세 정비 이후로는 각 州마다 2개 부대가 주둔

18) John Keegan 저·유병진 역, 『세계전쟁사』, 까치글방, 1996, 204~205쪽.

A-1. (660년) 3월에 唐 高宗이 명을 내려 左武衛大將軍 蘇定方을 神丘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金仁問을 副大總管으로 삼으며 左驍衛將軍 劉伯英 등 수륙 30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왕(무열왕)에게도 조칙을 내려 嶠夷道行軍總管으로 삼고 장병들을 거느리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여름 5월 26일에 왕이 庾信·眞珠·天存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王京을 나섰다. 6월 18일에 南川停에 이르렀다.¹⁹⁾

A-2. (667년 7월) (唐) 高宗이 명을 내려 劉仁願·金仁泰는 卑列道を 따라가고 또 우리 군대를 징발하여 多谷·海谷의 2道を 따라가서 平壤에서 만나도록 하였다. 가을 8월에 왕(문무왕)이 大角干 金庾信 등 30인의將軍을 거느리고 王京을 나섰다. 9월에 漢城停에 이르러 英公(李勣)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에 英公이 平壤城 북쪽의 200리에 이르렀는데, 尙同兮村主 大奈麻 江深을 뽑아 보내니 契丹 기병 80여인을 거느리고 阿珍舍城을 거쳐 漢城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독촉하므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 11월 11일에 獐塞(현 황해도 수안)에 이르렀는데 英公(의 군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 역시 돌아왔다.²⁰⁾

19)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 武烈王 7年 “三月 唐高宗命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神丘道行軍大總管 金仁問爲副大總管 帥左驍衛將軍劉伯英等水陸十三萬□□伐百濟 勅王爲嶠夷道行軍總管 使將兵爲之聲援 夏五月二十六日 王與庾信眞珠天存等 領兵出京 六月十八日 次南川停”

20)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7年 “(七月) 高宗命劉仁願金仁泰從卑列道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停 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尙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舍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還”

A-3. (668년 6월 22일) 仁問·天存·都儒 등이 一善州 등 七郡 및 漢城州의 군대를 거느리고 唐의 軍營에 나아갔다. 27일에 왕(문무왕)이 王京을 나서 唐 군대를 향해 나아갔다. …… 가을 7월 26일에 왕이 漢城州에 행차하여 여러 총관들이 나아가 (唐)의 大軍과 합류하도록 명하였다. 9월 20일에 (唐의) 大軍과 합하여 平壤을 포위하였다. …… 처음에 (唐의) 大軍이 高句麗를 평정하였을 때 왕은 漢城을 나서서 平壤을 향하였는데 盼次壤에 이르러 唐의 諸將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 역시) 돌아와 漢城에 이르렀다. …… (10월) 25일에 왕이 王京으로 돌아가는 길에 褥突驛에 이르러 國原仕臣 龍長 大阿滄이 사사로이 연회를 베풀어 왕 및 여러 시종들을 접대하였다. …… 11월 5일 왕이 포로로 잡은 고구려인 7천명을 데리고 王京으로 들어왔다.²¹⁾

이를 보면 A-1·A-2·A-3 사료와 같이 660년의 對百濟 원정 및 667년·668년의 對高句麗 원정 시 신라군의 집결지 혹은 행군 중의 경유지·귀환지로서 南川停·漢城州(停)·國原(小京) 등 漢山州 일대의 거점들이 활용되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원정들에서는 대부분 국왕이 親征에 나섰던 만큼, 그 수행원 및 신료·군 수뇌부·사실상 신라가 동원할 수 있는 全軍의 병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언제나 함께 이동하며 해당 지역에 장기간 주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후술

2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年 “(六月二十二日) 仁問天存都儒等 領一善州等七郡及漢城州兵馬 赴唐軍營 二十七日 王發京 赴唐兵 ……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教諸總管往會大軍 九月二十一日 與大軍合圍平壤……初大軍平高句麗 王發漢城指平壤 次盼次壤 聞唐諸將已歸 還至漢城 …… (十月)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滄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하겠지만 나당전쟁 시기에 들어서도 이 漢山州 방면이 곧 주요 전장으로서 당군의 대공세에 노출되었다는 점 역시 감안한다면, 현지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라군 방어 병력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집결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²²⁾

그런데 익히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이 晝長城보다 이전 단계에 설치·운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신라의 산성 및 보루 등의 관방시설들은 대체로 고도 100~200m 내외, 둘레 300~600m 내외로서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으며²³⁾, 州治·郡治나 停 소재지 등의 중심지에 입지한 가장 큰 규모의 성곽들이라도 보통 고도 200~300m 내외, 둘레 1,500~2,000m 내외 정도인 경우가 많았다.²⁴⁾ 그렇다면 위 A군의 사례들처럼 전례 없이 크게 증가한 신라군의 병력 규모 및 이들의 잦은 군사 활동을 수용·지원하는데 있어, 기존 漢山州 관내의 관방시설 및 체계로서는 일정

22) 이 시기 한반도에 투입된 당군의 총 병력은 최소 4만, 대체로 10~20만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서 약 3~4개 정도의 行軍으로 구성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06~212쪽). 익히 알려진바 이는 이전 시기 고구려·백제 등이 동원할 수 있었던 침공 병력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던 만큼, 나당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 하에서 신라의 병력 동원 및 각종 관방 시설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새로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23) 이에 관련하여 6세기~7세기 초반의 이른바 ‘북진기’ 시점에 축조된 신라 성곽들은 인근 지역의 감시·통제 및 보급로 확보 등과 같은 순수한 군사적 기능에 더욱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정하기도 한다(권순진, 『경기지역 신라 ‘북진기성곽’에 관한 일고찰』, 『신라사학보』 9, 2007, 29~39쪽).

24) 일례로 아차산성(북한산주/군)의 경우 둘레 약 1,038m, 고도 203m 정도의 규모이며(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충』 81, 2014, 18쪽), 이성산성(남한산주)의 경우 둘레 약 1,665m, 고도 209m 정도의 규모(심광주 외,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2003, 182~183쪽), 설봉산성(남천주/정 소재지)의 경우 둘레 약 1,079m, 고도 394m 정도 규모(심광주 외, 앞의 책, 2003, 209~210쪽)로서, 여타 縣급의 성곽이나 보루들보다는 확실히 크지만 晝長城(둘레 약 8km, 고도 약 515m)과 같이 나당전쟁 시기에 신·증축된 초대형 성곽들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한계에 봉착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처럼 對백제·고구려 원정 및 나당전쟁이라는 7세기 후반 일련의 군사적 경험을 얻은 신라로서는, 그러한 戰訓에 맞추어 晝長城 등과 같이 기존의 여타 성곽들과 차별화되는 입지와 규모를 갖춘 초대형 시설에 대한 신·증축 작업을 시도할 이유 자체는 충분했던 셈이다. 아울러 築城 기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라의 지방 거점성들의 경우 시기상 7세기 중·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版築 위주의 土城에서 대규모 石築 산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지적 역시 참고가 된다.²⁵⁾

다른 한편 이러한 晝長城의 역할 및 활용 양상과 관련하여, 비단 병력(인적 자원)만이 아니라 물적 자원, 즉 식량·군수물자 등의 수송 및 보관·분배와 같은 병참 차원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었을 가능성 역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일례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바 있지만 남한산성 내 행궁지 일대에 대한 7·8차 발굴조사(2005~2008) 결과 확인되었던 전면 16칸(53.5m), 측면 6칸(17.5m)의 통일신라 시기 대형 벽체 건물지 유구의 성격을 오늘날 대체로 晝長城 내에 설치되었던 군수창고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²⁶⁾, 이것이 곧 당시 晝長城이 발휘하였던 핵심적인 기

25) 백종오, 「옥천 이성산성의 성내 시설물 검토와 축성사적 의미」, 『한국사학보』 87, 2022, 52~56쪽.

26) 해당 건물지에서는 상부의 생활면이 대부분 삭평되었으며 기와 외의 다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용도를 추측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단면 1.8~2m 가량의 두터운 판축 벽체 및 외부 퇴칸을 활용한 사방 회랑 등 막대한 하중을 감당하기 위한 구조를 통해 볼 때 군사용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하여 목탄 시료를 통한 절대연대 측정 결과 서기 660~880년이 제시되었던 만큼, 해당 건물지는 아마도 672년 주장성 축성과 비슷한 시기에 최초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운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0, 335~341쪽 ; 381~382쪽). 아울러 이 건물지 유구 내부에서 발견된 목탄 및 자갈 등의 흔적을 토대로 경주 남산신성 右倉址의 사례와 유사하게 곡물 보관을 위한 건물 바닥면의 마루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다(차순철, 「신라 창고의 규모와 특징」, 『신라문화』 59, 2021, 395~398쪽).

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서 이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재차 말하자면 이 晝長城은 漢山州 방면에 있어 전선 후방에서 대량의 인력 및 물자를 집결·수용하며 또 이를 필요한 곳에 유통·배분하는 일종의 병참지원기지와의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리라 추정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晝長城 자체의 입지 및 환경,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여타 정황 등을 다시금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심증이 더욱 명확해진다. 아래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晝長城, 즉 현 남한산성은 기왕에 (漢山)州治로 비정되어 온 이성산성과 상당히 인접해 있으며, 아울러 이 두 성곽은 모두 현 하남시 선동·미사동 등의 한강변까지 도보로도 약 2~3시간 정도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다. 즉 이러한 성곽들이야말로 곧 한강-남한강 수로를 통해 漢山州 방면으로 이동하는 인력과 물자들을 1차적으로 수용·집결시키기에 적절한 입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²⁷⁾ 더 나아가 익히 알려진바 이 같은 한강-남한강 수로는 곧 현 충주 일대의 國原小京과도 이어지는데, 이 國原小京은 대표적인 鐵의 산지일 뿐 아니라 또한 鷄立嶺路를 통해 소백산맥 이남의 原신라 영역 및 王京까지도 연계 가능한 중간 지점이라는 사실도 새삼 상기해보고 싶다.²⁸⁾

27) 이러한 입지야말로 곧 6세기 무렵 신라의 新州 설치 이래로 나당전쟁 시기, 그리고 더 후대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도 한강 유역 일대의 영유·수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기왕의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서영교, 앞의 글, 2022, 217~220쪽).

28) 관련하여 고대 로마의 군단 요새·주둔지들 또한 수륙 교통로를 통해 주요 鐵 산지와 연결되는 지점에 배치된 사례가 많으며, 이는 신라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의 주요 성곽 및 제철 유적들의 입지와도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많은 참고가 된다(배은숙, 「고대 동서양의 군주둔지와 제철 지역의 병참선 연구 -로마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5, 2018, 243~257쪽).

아울러 그러한 양상을 감안한다면 이 나당전쟁 중 진행되었던 전국적인 방어 체계의 정비에 있어 특히 漢山州 방면에서는 이 晝長城(672.8)과 國原城

뿐만 아니라 비록 후대 고려·조선 시기 廣州邑治의 양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러한 이성산성 / 남한산성을 포함한 현 하남시 일대에는 선동(船洞)·상사창동(上司倉洞)·하사창동(下司倉洞) 등과 같이 浦口 및 漕運, 그리고 관영창고(=司倉)의 존재를 암시하는 지명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당대의 창고나 관아·객사에 대한 고고학적 사례들도 확인된다는 점 또한 상당한 참고가 된다.²⁹⁾ 아울러 조선 후기에 들어서도 이 지역에는 守禦廳의 관할 하에 남한산성에 딸린 부속 시설로서 松波倉을 비롯한 여러 外倉들이 존재하여 한강 수로를 거쳐 오는 三南 및 湖西 등지의 곡식과 각종 물자를 집결·보관하고 유사시 산성 내로 운반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³⁰⁾, 이 역시도 신라의 晝長城 및 그 인근 지역의 입지 및 기능,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673.9)의 두 지점에서만 여타 성곽들과 규모를 달리하는 초대형 성곽들이 신축되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신라의 철저한 전략적 안배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고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때의 國原城의 실체에 대해서는 현 충주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른바 ‘逢峴城止(현 호암동 토성)’로 비정하면서 小京의 중심부를 둘러싼 羅城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박태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18, 1987, 66~67쪽; 황인호, 「국원소경에서 중원소경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 12-3, 2013, 233~238쪽), 혹은 시가지 동남쪽 해발 487.5m의 산지에 위치한 현 대림산성(둘레 4,906m)으로 비정하면서 배후의 入保用 山城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박성현, 앞의 글, 2012, 47쪽; 노병식, 「충주지역 신라축성의 변화」, 『중원문화연구』 22, 2014, 72~75쪽), 학계의 견해가 다소 갈리고 있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바 이러한 성곽들은 결국 나당전쟁 상황과의 밀접한 관련 아래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무왕 대의 國原城은 곧 현 대림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 쪽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이 대림산성 역시도 달천 및 남한강의 수로와 매우 인접해 있는 입지인 만큼, 晝長城과의 어떠한 공통점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9) 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16~30쪽.

30) 김미성, 「조선 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군사』 122, 2022, 135~144쪽.

실상 중고기 이래로 신라가 지역 내 거점 산성들을 중심으로 인근의 城·村 단위에서 보내온 곡식 등의 물품을 운송·보관 혹은 분배하였던 양상은 함안 성산산성·대구 팔거산성 등지에서 발견된 여러 짐꼬리표(荷札, 혹은 附札) 목간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³¹⁾ 물론 이러한 목간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城下口~’ 등의 그 유형 및 기재방식에 따라 주변 지역 단위에서 수취하여 성 내로 운송하였던 稅穀의 표기로 이해할 것인지³²⁾, 이와 반대로 築城 혹은 軍役 등에 동원된 인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수하물, 혹은 이들에게 지급되었던 식량(곡식)의 표기 등으로 이해할 것인지³³⁾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긴 하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신라가 오래 전부터 성곽을 중심으로 인력(노동력&병력) 및 소모 물자를 집결·운용하였으며 그 출납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아울러

31) 이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이래로 방대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대략적인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근 논고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2016 ; 윤선태,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지방목간」, 『신라학리뷰』 창간호, 2022.

홍승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목간과 문자』 21, 2018 ; 홍승우,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목간 검토」, 『대구사학』 149, 2022.

이경섭,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7, 2020.

32)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2011 ;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립』 41, 2012 ; 이수훈, 「성산산성 목간의 ‘성하맥’과 수송체계」, 『지역과 역사』 30, 2012 ;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본 신라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2016 ; 이용현,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신라의 지방경영과 곡물·인력 관리」, 『동서인문』 17, 2021.

33)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사학보』 40 ; 이재환,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사학보』 182, 2018 ; 하시모토 시게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王私’와 ‘城下麥」, 『신라사학보』 54, 2022.

이 시기 여타의 지방 거점성들에서도 창고로 추정되는 성 내부의 石壁建物址들에 대한 고고학적 실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³⁴⁾ 이처럼 인력과 물자의 수송·집결·보관·출납 등의 병참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성곽을 비롯한 관방 체계 및 그와 연계된 수륙교통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신라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익숙한 방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성산산성 등지의 중고기 목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甘文(김천)·古陴(안동)·黼文(의성)·及伐(영주) 등 당시 上州 관할에 해당하는 현 경북 북부 일대의 지명들이 언급될 뿐 아니라 이러한 지역들에서 낙동강의 수운을 통해 성산산성(함안) 방면까지 인력·물자의 원거리 이동이 이루어졌던 양상으로서 이해된다는 점³⁵⁾ 역시도 많은 참고가 된다.

따라서 더 후대 나당전쟁 시기 晝長城 등의 기능 및 운영 역시도 전에 없이 막대한 규모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일단은 위와 같은 중고기 이래 전통적인 관방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 성곽으로 漢山州 관내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 기존 중심지인 州治(이성산성, 아차산성 등)와 인접하면서도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산세의 정상부 능선이라는 입지

34) 이러한 신라 성곽 내 창고 유적들에 대한 문헌 및 고고학적 연구 성과 역시도 근래까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김창석, 「신라 창고제의 성립과 조세 운송」,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石壁建物의 성격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 42, 2010 ; 서정석, 「한국 고대의 지방 郡縣과 治所城-牙山 鶴城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4, 2016 ; 서정석, 「통일신라기 州의 治所城의 구조와 물자유통-全州 東固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6, 2017

이동주, 「신라의 창고 관리와 운영」, 『신라문화』 58, 2021.

차순철, 「신라 창고의 규모와 특징」, 『신라문화』 59, 2021.

35) 이경섭, 2011, 앞의 글, 539~546쪽 ; 이수훈, 2012, 앞의 글, 167~169쪽 ; 김창석, 2016, 앞의 글, 170~173쪽 ; 이용현, 2021, 앞의 글, 38~43쪽.

등 晝長城만의 새로운 특징은 후술하겠지만 당이라는 거대 제국과의 전면전, 특히 672년의 패전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淸野入保의 필요성 또한 여실히 고려된 결과로 생각된다.³⁶⁾ 즉, 晝長城은 기존의 漢山州 관내의 관방 및 병참체계를 토대로 한 중심 방어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수륙교통로의 통제 및 병참 지원과 같은 기존 성곽들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 혹은 보완하는 한편, 규모 및 입지상의 새로운 특징을 활용하면서 비상시 淸野入保를 통한 장기간의 방어전까지도 가능케 하는 전천후의 요새였던 셈이다.

더하여 아직까지는 試論에 가까운 단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신라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漕運의 존재를 논급하였던 일련의 견해들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러한 견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현 하남시 선동(船洞) 등지에서 발견되었던 ‘군현

36) 기존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바, 이러한 晝長城의 규모 및 입지란 이전의 삼국시대 성곽들보다는 마치 후대 고려·조선시기의 본격적인 피난성들과 더 유사하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심광주, 앞의 글, 2012, 131쪽 ; 박성현, 앞의 글, 2012, 47~48쪽).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남한산성 본성의 현존 성벽 아래층에서 단면 사다리꼴의 기단보축 및 배수시설 등 신라 성곽의 특징을 갖춘 선대 초축성벽들이 확인되었던 점을 감안하면(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성곽 발굴조사 -암문(4)·수구지 일대 완료 약보고서-』, 2005, 30~33쪽), 17세기 당시 남한산성의 수축 자체를 옛터를 따라 큰 변경 없이 거의 그대로 활용할 만큼 본래 7세기 대 晝長城의 설계 자체가 충분히 유효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아울러 이처럼 기존의 중소규모 성곽으로 구성된 중심 방어 위주의 관방체계에 새로이 병참상의 후방 지원 혹은 장기간의 입보농성까지도 고려한 대형 성곽을 상호 결합시키는 양상은, 백제·고구려의 멸망 이후 그 인력 혹은 축성 기술이나 관련된 전훈(戰訓)이 수용된 결과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수·당의 대규모 침공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았던 고구려의 경우, 그에 대응하여 요동방면의 주요 방어선마다 백암성(둘레 2.5km), 건안성(둘레 5km), 오골성(둘레 15km) 등의 대형 성곽들이 다수 설치된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나당전쟁을 전후하여 고구려 세력과 신라의 연계가 두드러질 뿐 아니라 고구려인 자체가 신라 영내로 유입된 경우도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신라의 축성 및 관방체계를 한층 진일보시킨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명+受(+國)+蟹口(+船家 또는 船宇)’ 등의 명문 기와를 근거로, 현 고덕천과 한강의 합류 지점에 해당하는 ‘蟹口(蟹川, 계내)’의 포구를 중심으로 기와(瓦草) 같은 물품들이 수로를 통해 漢山州 관내 州·郡·縣 단위 사이로 운송·배분되는 ‘船家(宇)’, 즉 국가적 통제 하의 漕運 체계를 상징하였던 것이다.³⁷⁾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정황 및 기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다면, 적어도 나당전쟁 시기를 전후한 漢山州 방면에서는 임진강·한강 및 지류 하천 등을 근간으로 각 郡·縣 단위, 즉 최전방의 성곽들까지도 인력과 물자를 수송·보급하는 체계가 치밀하게 잘 갖춰져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晝長城과 國原(小京)城이야말로 그 경로 중간에 이를 집결·보관하는 신라군 병참 체계상의 허브(hub)를 이루는 두 축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지만, 세계사상의 여러 사례로 보아도 철도 및 도로망의 발전 이전 전 근대 군대의 병참체계란 실상 현지 조달(*실질적으로는 약탈)과 같은 몇몇 수단을 제외하면 궁극적으로는 강이나 해안 등의 수로를 통한 선박 운송에 상당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³⁸⁾ 말하자면 신라 역시도 그러한 보편적인 군사 원칙에 따라 수운을 기반으로 한 병참체계와 晝長城과 같은 거점 성곽들을 기반으로 한 관방체계, 그 兩者를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漢山州 방면, 특히 임진강-한강 이남의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정비·운용하였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하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37) 김창석, 앞의 글, 2021, 84~96쪽 ; 박성현, 앞의 글, 2021, 36~56쪽 ; 서영교, 앞의 글, 2022, 210~213쪽.

38) John Keegan 저·유병진 역, 앞의 글, 1996, 428~432쪽 ; Martin van Creveld 저·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31~36쪽 ; 서영교, 앞의 글, 2022, 199~200쪽.

나당전쟁 중 신라군의 방어전 양상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이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나당전쟁기 신라의 방어 전략과 晝長城의 역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왕에 신라는 漢山州 방면에 있어 수륙 교통로상의 중심 방어를 염두에 두고 州-郡-縣(城)의 지방 행정단위와 결합된 일련의 관방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아울러 나당전쟁이 임박한 상황 아래 晝長城 역시도 병력 수용 및 병참 지원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거점으로서 축조되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 아래 실제 나당전쟁 중 이 晝長城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또한 신라의 방어 전략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 물론 관련하여 사료상의 명시적인 언급은 찾기 어렵지만, 이 시기 漢山州 방면과 관련된 여러 양상들을 간략히 일별해보면서 비록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그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668년 10월 고구려의 멸망 이래 그 故地를 安東都護府로 편제하면서, 당 제국은 靺鞨府州 체제를 통한 요동~한반도 방면의 지배를 강력히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鴨綠水以北未降十一城’ 등과 같은 여러 기록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직후부터 이는 고구려인들의 대대적인 이탈 및 저항에 부딪치면서 지배체제의 근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³⁹⁾ 뿐만 아니라 신라 역시도 그 같은

39)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6 總章 2年 2月;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구려 멸망 이후 669년 무렵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즉 해당 시기 안동도호부 관할 하에 고구려고지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압록강 이북의 요동 방면 등을 중심으로 당

정세에 편승하며 은밀히 高延武·安勝 등의 고구려 유민들과 연계하는 한편⁴⁰⁾, 앞서 언급한 阿達城(안협) 및 泉井郡(덕원)·比列忽(안변)·各連郡(회양)과 같은 일부 지역은 직접 점유하고 安東都護府로의 반환 요구도 거부하는 등⁴¹⁾, 고구려고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진출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는 과거 648년에 당 태종으로부터 약정 받았던바 ‘平壤(溟江)以南 지역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전략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이 고구려고지에 인접한 漢山州 방면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을 것인데, 특히 전략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과 물자들 역시 필연적으로 이 漢山州 방면을 거쳐 집결·

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저항하는 지역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던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이해된다(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63~70쪽).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의 강압적인 지배질서 강요는 본래 당 측에 항복하여 ‘酋渠·有功者’로 편입되었던 지방의 城主 혹은 군사 지휘관 등 유력자 계층의 반발·이탈을 심화시키면서, 추후 고구려고지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부흥운동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김종복,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람』 19, 2003, 19~20쪽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141~142쪽).

40)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3月 ; 同書 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附 唐 高宗 總章 2年 2月.

4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9年 5月 ;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평양성 함락 이래 신라가 점유하였던 比列忽(안변) 등지에 대해 당 측이 ‘고구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다는 언급이 보인다(『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答薛仁貴書」). 맥락상 여기서의 ‘고구려’는 곧 안동도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후처리 과정 중 당 측에서는 신라가 점유한 일부 고구려고지에 대해 安東都護府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49~250쪽). 그러나 위 669년(문무왕 9) 5월 기사에 보이는바 당시까지도 신라가 이 比列忽 및 인근 군현들에 대해 賑恤을 행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참고한다면, 해당 지역들이 안동도호부에 실제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결국 신라가 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점령지를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상훈, 「나당전쟁의 군사적 원인과 신라의 전쟁 준비」, 『역사와 경계』 19, 2011, 78쪽).

이동해야 했던 만큼 晝長城의 축조도 본래 이 문제를 고려하여 최초 계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신라의 고구려고지에 대한 개입은 비슷한 시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적 점령 작전이 시도되었던 백제고지 방면만큼 직접적이고 절박한 양상은 아니었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신라 조정이 해당 지역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B-1. 백제가 멸망한 후, 漢州都督 都儒公이 大王에게 청하여 素那를 阿達城(안협)으로 옮겨 북쪽 변경을 방비하도록 하였다. …… 처음에 素那는 阿達城이 敵國에 인접해 있으므로 홀로 떠나고 그 아내는 집에 머무르도록 하였다……⁴²⁾

B-2. 沙湊 須彌山을 보내어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 그 冊文에서 말하기를 “咸亨 원년(670) 경오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이 고구려의 계승자 安勝에게 명을 전한다. …… 先王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公(=安勝) 뿐이니 제사를 주관하는 것 또한 公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삼가 一吉湊 金須彌山 등을 보내어 나아가 策命을 펼쳐 公을 고구려왕으로 삼으니, 公은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으며 옛 업적을 계승하고 일으켜서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힘쓸지어다. 삼가고 또 삼갈지어다. 겸하여 맷쌀(粳米) 2천석과 갑옷을 갖춘 말 1필, 무늬 있는 비단(綾) 5필, 명주(絹)와 곱게 짠 베

42) 『三國史記』 卷47, 列傳7 素那 “百濟滅後 漢州都督都儒公請大王 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 初素那以阿達城鄰敵國 獨行留其妻而在家……”

(細布) 각 10필, 솜(綿) 15칭(15稱=225斤=약45kg)을 보내니, 왕은 이를 받도록 하라.⁴³⁾

B-3. 처음에 법민왕(=문무왕)이 고구려의 반란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여 지키니 唐高宗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였다. 당군과 靺鞨이 더불어 石門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니 왕이 將軍 義福·春長 등을 보내 막도록 하여 帶方の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 이때 長槍幢이 홀로 따로 주둔하다가 당병 3천여 명을 만나 붙잡아 大將軍의 진영으로 보냈다. 이에 여러 幢이 함께 말하기를 “長槍營이 홀로 처하였다가 공을 이루었으니 반드시 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여서 주둔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스스로 수고롭게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각각 따로 군대를 나누니 당병과 말갈이 미처 진을 치지 못한 틈을 쳐서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고 將軍 曉川·義文 등이 죽었다. …… (패잔병들이) 上將軍을 따라 蕪荑嶺으로 나왔는데, 당병의 추격이 이르자 居烈州의 大監인 阿珍含一吉干이 上將軍에게 말하기를 “公 등은 힘써 빨리 가시오. 내 나이가 이미 70세이니 능히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소?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요.”라고 하고 戢(戟)을 비껴 잡고 적진에 돌격하여 죽었으며 그 아들도 역시 따라서 죽었다. ……⁴⁴⁾

43)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7月 “遣沙浪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 先王正嗣 唯公而已 主於祭祀 非公而誰 謹遣使一吉浪金須彌山等 就披策命 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匹 綿十五稱 王其領之”

44)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附 金元述 “初法敏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有之 唐高宗大怒 遣師來討 唐軍與靺鞨 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여기서 B-1의 경우, 중앙의 재가 하에 漢山州 관내 城 단위의 지방관 및 주둔 병력들이 당시의 전략적 상황에 발맞추어 최전방 전선으로 대거 이동·재배치된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는 아마도 668년 무렵을 전후하여 신라가 새로이 진출·점유한 고구려 고지의 거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고구려 멸망 이후 卑列城(=比列忽, 현 안변) 등지를 신라가 되찾으면서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수비하게 하였다(……卑列之城 本是新羅 高麗打得三十餘年 新羅還得此城 移配百姓 置官守捉……)’라고 전하는 「答薛仁貴書」 상의 내용과도 대응된다.⁴⁶⁾ 즉, 이 같은 양상을 고려했을 때 나당전쟁 발발 직전까지, 혹은 나당전쟁 중에 漢山州 관내에서는 신규 점령지들을 확보하고 또한 후방 지역으로부터 병력을 징발, 편성하고 재배치하는 등 일련의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에 수반하는 형태로서 阿達城과 같은 최전방 지역으로의 인력 및 물자의 이동을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670년 이래 安勝·劍牟岑·高延武 등의 주도 하에 현 평안도~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격화되면서, 위 B-2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라는 이들 고구려 세력과의 연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한편 식량 및 물자도 지원해주었다. 물론 사료상의 묘사로 이는 어디까지나 安勝에 대한 책봉 의례의

營於帶方之野 …… 時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 諸幢共言 長槍營獨處成功 必得厚賞 吾等不戢屯聚 徒自勞耳 遂各別兵分散 唐兵與靺鞨乘其未陣擊之 吾人大敗 將軍曉川義文等死之 …… 隨上將軍出蕪荑嶺 唐兵追及之 居烈州大監阿珍舍一吉干 謂上將軍曰 公等努力速去 吾年已七十 能得幾時活也 此時是吾死日也 便橫戟突陣而死 其子亦隨而死……”

45) 익히 지적된 바와 같이 사료 상으로 이러한 이동은 素那 일개인에 한정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素那라는 유력자(=지휘관)를 매개로 징발·편성된 白城郡 蛇山 지역 단위의 병력, 즉 ‘城兵’ 집단의 이동 및 재배치로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된다(이문기, 앞의 책, 1997, 169쪽).

46)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7月 26日 「答薛仁貴書」.

일환으로서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일부 물품을 소량 사여한 것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물품 중 맵쌀(粳米)이나 솜(綿) 등은 그 기재된 수량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충분히 군량미나 군수품(피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병참 물자 지원을 의미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겠다. 아울러 이후로도 적어도 673년 무렵까지는 고구려 세력과 신라 사이의 밀접한 연계가 나타나는 만큼, 그에 대해 병참 물자를 포함한 신라의 여러 지원 방안 역시도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일회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처럼 고구려 세력에게 전달되었을 식량이나 피복 등의 물자 역시 마찬가지로 漢山州 방면을 거쳐 집결·수송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다른 한편 B-3에 보이는 672년의 이른바 ‘석문 전투’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즉 익히 지적된 것처럼 이 전투 당시 신라는 고구려 세력 지원 및 당군의 남하 저지를 목적으로 ‘長檣幢(672년 창설)’ 등의 정예 중앙군 부대들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편성하여 고구려고지로 파견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위 사료상에 언급되는 바만 살펴봐도 大將軍·上將軍과 그 이하 대략 4인 내외의 ‘將軍’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또한 해당 사료상에서는 ‘居烈州의 大監인 阿珍舍’이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당시 이 전투에는 왕경의 중앙군 부대들만이 아니라 현 경남 거창 일대를 관할하는 광역의 停인 居烈州(停)와 같은 지방 군사조직들도 포함하여 전국적인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⁴⁷⁾ 즉, 671년 7월

47) 이 居烈州(停)는 대체로 665년(문무왕 5) 기존의 上·下州 영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歙良州 등과 함께 새로이 설치된 광역의 州(停)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문기, 앞의 책, 1997, 120~121쪽). 그보다 앞서 663년(문무왕 3) 2월에 신라군이 백제 부흥세력으로부터 居烈城 등지를 탈취하여 점령하였다는 기록이

무렵 石城 전투의 승전 및 所夫里州의 설치를 통해 백제고지 방면에 대한 공략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신라 조정은, 이를 기회로 고구려고지 방면에도 보다 적극적인 방침 아래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마침 남하하던 당군에게도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고지 방면으로 남하하던 당군은 高侃·李謹行 휘하 東州道·燕山道の 2개行軍 4만 명 정도의 규모였던 만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라군의 병력 또한 적어도 그와 동등하거나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⁴⁸⁾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군뿐 아니라 居列州(停) 등의 지방의 군사조직들도 거국적으로 동원·편성되며 북방으로 이동하였을 것인데, 이때의 병력 이동 역시 왕경 및 각지의 주둔지로부터 國原(小京)－漢山州 방면을 거쳐 집결한 후 ‘石門之野’·‘帶方之野’, 즉 현 황해도 일대까지 북상하는 경로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병력 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병참 물자 등의 수송도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나당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대략 670~672년까지도 신라는 고구려고지 방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상당한 병력과 물자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와중에 漢山州 일대는

전하므로(『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3年 2月),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라가 새로이 점령한 현 경남 서부 방면의 백제고지를 포함하는 광역의 행정구역이자 주둔 군단으로서 居列州(停)가 창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672년 7월 무렵에 이르러서는 고구려고지에 파견될 원정군에 징발·편성되어 북방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 48) 다만 신라본기 및 중국 측의 여타 기록들을 참고했을 때 신라군 이외에도 고구려 세력 또한 해당 전투에 함께 참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신라-고구려 연합군을 총합한 전력이 4만 내외의 규모였을 여지도 있겠다(『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2年 8月; 『冊府元龜』卷358, 將帥部19 立功 高侃;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그러나 여러 기록들에서 정황상 신라군이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고구려군보다는 신라군의 비중이 더 크고 주력을 이루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북방 경략에 있어 후방 지원을 위한 병력 집결지 겸 병참기지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던바 北漢山城(현 아차산성)·南漢山城(현 이성산성) 등 기왕에 존재하던 漢山州 관내의 성곽들의 경우 것처럼 폭증하는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기에 규모나 시설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중심지인 州治의 인근에 초대형 성곽의 신축이 계획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위 B-3에서 보이듯이 672년 8월의 석문 전투에서 신라군은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으며, 익히 알려진바 그로 인해 이전까지와 같은 적극적인 북방 경략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석문 전투 이래 673년 후반까지 이어진 당군의 공세로 인한 고구려 동맹 세력의 붕괴 및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위협 앞에서, 당시 신라 수뇌부로서는 거점 수비 및 지구전 위주의 방어 전략을 채택하며 가급적 시간을 버는 한편 그 와중에 큰 타격을 입은 군사력을 재건해야만 했던 것이다.⁴⁹⁾ 이 같은 전략적 고심은 다음과 같은 사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C-1. ……大將軍 등이 몰래 왕경으로 들어오니 대왕이 이를 듣고는 김유신에게 묻기를 “우리 군대의 패배가 이와 같으니 어찌합니까?”라고 하였다.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들의 계략이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장졸들로 하여금 각 요해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⁵⁰⁾

49) 서영교, 앞의 글, 2002, 65~69쪽; 이상훈, 앞의 글, 2016, 82~88쪽.

50) 『三國史記』卷43, 列傳3 金庾信 下附 金元述 “……大將軍等 微行入京 大王聞之 問庾信曰 軍敗如此 奈何 對曰 唐人之謀 不可測也 宜使將卒 各守要害……”

C-2. 셋째는 백금서당이다. 문무왕 12년(672)에 백제민으로 군단(幢)을 만들었다. 衿의 색깔은 白靑이다.⁵¹⁾

C-3. (673년 겨울) 처음에 太宗(무열왕)이 백제를 멸하고 나서 변방에서 수자리하는 병사(戍兵)를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두었다.⁵²⁾

실제 위 C-2·3과 같이 본토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수비 병력(戍兵)을 재배치하는 한편, 과거부터 오랜 적대감이 누적되어 있던 백제민 등의 이민족까지 동원하면서 신라는 군사력의 재건을 서둘렀다. 아울러 C-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요해처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김유신의 건의를 토대로 672년 후반부터 왕경 주변부 및 임진강 이남의 신라 전 영역에 걸쳐 당군의 예상 남하 경로를 따라 대규모 신·증축 성곽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일제히 완공되었는데, 특히 그 필두가 바로 漢山州 관내의 晝長城 및 國原(小京)城이었던 것이다. 그 관련 양상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 <표 2>와 같다.

51)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三曰白衿靑幢 文武王十二年 以百濟民爲幢 衿色白靑

52)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冬 “初太宗王滅百濟 罷戍兵 至是復置”

〈표 2〉 석문 전투(672.8) 이후 신라의 축성 양상

시 기	명 칭	소재지	비 고
672.8	晝長城	현 남한산성	漢山州
673.2	西兄山城	경북 경주	王京/증축
673.8	沙熱山城	충북 제천	증축
673.9	國原城	충북 충주	國原小京
	北兄山城	경북 경주	王京
	召文城	경북 의성	
	耳山城	경북 고령	
	走壤城	강원 춘천	首若州(牛首州)
	主岑城	강원 고성	達倉郡
	萬興寺山城	경남 거창	居列州
	骨爭峴城	경남 양산	敵良州

* 출처 : 이상훈, 앞의 글, 2016, 83~84쪽 [표 1] 내용을 기초로 발췌·보완

전술했던바 이 晝長城 등은 본래 북진전략에 필요한 대량의 인력 및 물자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계획되었겠지만, 672년 후반의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당군의 전면 침공으로 인해 기존 漢山州 방면의 중심 방어망들이 돌파될지도 모른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민 및 병력의 淸野入保를 위한 최후의 방어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했기에 대단히 급박하게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강 유역 방어선의 중심이 그 남안의 칠중성이었던 것처럼, 한강 남안에 위치한 주장성이 한강 유역 방어선의 중심 거점으로서 재차 자리 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던바 주장성이 맡은 가장 큰 역할은 역시 國原(小京)城과 더불어 남한강 수로 및 계림령·죽령을 따라 王京까지 이어지는 경로의 확보 및 이를 통해 최전방까지 운송되는 인력과 물자를 집결·보급하는 병참선상의 허브(hub)였다는 점은 변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성의 기능은 673년 후반에 이르러 임진·한탄강 이남의 신라 본토, 즉

漢山州·牛首州 등지에 대한 당군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도 이후 신라군의 방어전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겠다.

D-1. (673년 9월) 왕이 大阿湊 徹川 등을 보내어 兵船 100척을 거느리고 西海를 鎮守하도록 하였다. 唐兵이 靺鞨·契丹兵과 함께 北邊을 침공해오니 모두 9번 싸워 우리 군대가 이기고 2천여 급을 목 베었다. 唐兵 중에 瓠瀟·王逢 두 강에 빠져 죽거나 전사한 자가 셀 수 없었다.⁵³⁾

D-2. ① (675년) 2월에 劉仁軌가 우리 군대를 七重城에서 깨뜨렸다. 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자 (당 조정에서) 詔書로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아 經略하게 하였다. 왕이 사절을 보내어 조공하고 또 사죄하자 황제가 용서하고 왕의 官爵을 복구시켜 주었다. 金仁問은 중도에서 돌아가 다시 臨海君公으로 봉해졌다. ② 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땅을 많이 취하였으며 고구려의 南境을 쳐서 州郡으로 삼았다. 당군이 契丹·靺鞨兵과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병력(=九軍)을 출동시켜 대비하게 하였다. ③ 가을 9월에 薛仁貴는 宿衛學生 風訓의 아버지 金眞珠가 본국에서 처형당하였으므로 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泉城을 공격해왔다. 우리 장군 文訓 등이 맞아 싸워 이겼는데 목 벤 것이 1천 4백급이었고 兵船 40척을 빼앗았으며 仁貴가 포위를 풀고 달아나자 戰馬

53)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九月) 王遣大阿湊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鎮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 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瀟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1천 필을 얻었다. ④ 29일에 李謹行이 20만 군대를 이끌고 買肖城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대가 치자 달아났다. 戰馬 3만 3백 80필을 얻었으며 나머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 ⑤ 靺鞨이 阿達城에 들어와 약탈을 벌였는데 城主 素那가 맞아 싸우다가 죽었다. 당군과 契丹·靺鞨兵이 와서 七重城을 포위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으나 少守 儒冬이 죽었다. 또 靺鞨이 赤木城을 포위하고 다 죽었는데 縣令 脫起가 백성들을 이끌고 막았으나 힘이 다하여 함께 죽었다. 또 당군이 石峴城을 포위하여 함락시켰는데 縣令 仙伯·悉毛 등이 힘써 싸웠으나 죽었다. ⑥ 또 우리 군대가 당군과 크고 작은 18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으며 목 벤 것이 6천 40여 급이었고 戰馬 2백 필을 얻었다.⁵⁴⁾

위 D군 사료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군은 거란·말갈병 등과 더불어 673년 9월 및 675년 2~9월에 걸쳐 漢山州 방면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침공 모두 당군이 瓠瀟河·王逢河나 七重城(파주 적성)·買肖城(연천 전곡)·泉城(파주 탄현) 등 현 임진강~한강 유역의 신라 방어망들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반

5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5年 “① 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金仁問中路而還 改封臨海郡公 ② 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聞唐兵與契丹靺鞨兵來侵 出九軍待之 ③ 秋九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④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⑤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⑥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대로 말하자면 이 漢山州 방면에 대한 신라군의 방어 전략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⁵⁵⁾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였을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를 감안하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로서는 역시나 병참 측면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당전쟁 중 당군의 한반도 방면 군사 활동이 병참 요소, 특히 수로를 통한 보급 등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실상은 선학들도 익히 지적한 바 있다.⁵⁶⁾ 즉, 671년 10월 신라 수군에 의해 당군 보급선단(=漕船) 70여 척이 격파되었던 사례나⁵⁷⁾, 위 D-2에서도 보이듯이 675년 9월의 泉城 전투에서 임진강-한강 하구 방면으로 돌입하려던 薛仁貴 휘하의 수군 함대가 신라군에게 패퇴한 직후 買肖城 방면에서 대치하던 李謹行 휘하 육군도 급히 철수했던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이 당시 당군의 작전 방침은 기본적으로 수군과 육군이 함께 움직이면서 특히 수군이 선박 운송 및 교두보 확보 등을 통해 진격하는 육군에 대한 지원·재보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水陸竝進’ 전략이었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⁵⁸⁾

다만 나당전쟁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당군의 전

55) 특히 675년 중 阿達城·七重城·買肖城 등 임진·한탄강 방면의 방어선을 둘러싼 나당 간의 일련의 전투들, 즉 이른바 ‘買肖城 戰役’의 구체적인 전개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 3> 및 <그림 6>과 같이 재구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6)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221~238쪽; 이상훈, 앞의 책, 2012, 133~176쪽.

57)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10月 6日; 이러한 670~671년 무렵의 역사적 경험 및 서해안(대체로 경기만 일대)의 해양 환경 등을 종교적 설화 형태로 각색한 것이 이른바 ‘文豆婁秘密法’과 관련된 일련의 전승들로 이해할 수 있겠다(이상훈, 앞의 책, 2012, 154~164쪽; 임동민, 「경기만의 해양 환경과 신라 문무왕대 ‘문두루 비법’의 해양사적 의미」, 『신라문화』 61, 2022, 41~50쪽).

58) 서영교, 앞의 책, 2006, 225~238쪽;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03~104쪽.

략은 오히려 해상의 수군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군대 전체의 진격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역으로 그것이 어려울 경우 심각한 전투력의 저하를 감수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철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약점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당군이 의도했던 수륙병진이란 어디까지나 수군력의 압도적 우위 아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에야 가장 이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익히 알려진바 이 전쟁은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게 전개되었으며 도리어 한반도 연안의 제해권은 신라 수군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 가까웠던 것이다.⁵⁹⁾

그러한 만큼 위 D군 사료들에서도 확인되는바 당군은 그들이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깥, 즉 임진강 이남의 漢山州 등지로 진출하여 공세를 취할 때마다 격심한 병참 문제하에 예상보다 빠르게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 breakpoint)을 맞이하면서 신라군의 극히 두터운 중심 방어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패

59) 이처럼 나당전쟁 중 당 수군이 신라 수군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다소 일반론적이지만 한반도, 특히 서해 연안의 기후나 복잡한 지형 및 물길, 심한 潮汐 변화와 같은 여러 변수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즉, 이전 660년대 시점에는 동맹이었던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바로 그 신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당 수군이 내포한 위와 같은 본질적인 약점이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신라의 경우 본래 그들 자신부터가 한반도 연안의 항해에 더 익숙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요소에서 현지의 고구려계 주민들과도 연계하면서 수군 활동을 통한 제해권 장악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례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바 670~671년 무렵의 ‘文豆婁秘密法’과 관련된 전승에서도 당시 한반도 연안에 도착한 당 수군에 관련된 정보 및 동향을 신라 왕정에 보고했던 주체로서 ‘貞州(현 개풍군 일대)’에서 파견된 사자가 언급된다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겠다(『三國遺事』卷2, 紀異2 文虎王法敏,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迴槩海上 王召明朗曰 事已逼至如何……”). 아울러 675년 9월 泉城 전투 시점에서 당 수군의 작전을 담당하던 薛仁貴가 이전과는 달리 風訓과 같은 신라 출신의 ‘嚮導(길잡이)’를 대동했던 이유 역시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짐작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퇴 혹은 철수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특히 위 사료들에서 신라군과 당군 간에 9번(673년), 혹은 18번(675)에 걸쳐 ‘大小戰’, 즉 크고 작은 교전이 빈발하였던 사실이 주목되는데, 앞서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선박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송·보급이 어려울 경우 전근대 군대에서 그를 충당할 대안은 사실상 현지조달에 의지할 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의 당군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673년과 675년 모두 당군은 수군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 하에 漢山州 방면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의 거점이나 거주지 등을 하나 하나 함락시켜 탈취하는 방법으로 식량·물자 등을 현지 조달할 필요가 있었기에 상당수의 병력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견대로 나누어 보내야만 했으며⁶¹⁾, 이에 대치하던 신라군과 충돌하

60)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대 당 조정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군을 지휘하던 薛仁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학들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설인귀는 670~671년 무렵 雞林道行軍總管으로서 한 반도 전선에 투입되어 수군 작전을 담당하였으나 여러 차례 패전을 겪었고, 이후 귀국하여 673년 중 洛陽에서 황실을 위한 불상을 건립하면서 造像記를 남겼다. 따라서 D-1의 673년 후반 당군의 공세에 설인귀는 참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674~675년 劉仁軌 지휘 하의 원정군이 편성되어 신라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섬에 따라 薛仁貴도 역시 전선으로 복귀하였으나, 위 D-2에서처럼 薛仁貴 및 그 휘하의 수군 함대가 실제로 움직였던 것은 공세 막바지 시점의 9월(즉, 泉城 전투)에 이르러서였다(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42~49쪽). 아마도 薛仁貴 개인의 입장으로는 이전 670~671년 무렵 일련의 패전 경험으로 인해 신중한, 혹은 소극적인 태도로 작전에 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당군 전체로서 보면 그로 인해 교두보 확보 및 선박을 통한 물자 보급 등과 같은 수군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나당전쟁 종결 이후 참전한 당군 지휘관 중 유독 薛仁貴만이 ‘털끝만큼도 공이 없다(無功尺寸)’라는 탄핵을 받고 이후 象州로 유배까지 당하는 등(『舊唐書』 卷83, 列傳33 薛仁貴; 同書 卷92, 列傳42 魏元忠), 사실상 패전의 책임을 대부분 떠맡았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61) 관련 사료를 통해 본다면 아마도 부용세력으로 동원했던 靺鞨·契丹 등의 蕃兵 집단을 당군이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일례로 여러 중국 측 기록들에서는 675년 초반의 공세 당시 劉仁軌가 靺鞨兵으로 하

면서 수십 차례에 달하는 소규모 교전이 지속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육군이 신라군의 방어망을 돌파하고 선박의 보다 접근이 용이한 한강 하구 등지까지 남하에 성공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수군이 확보해 두었던 교두보와 재차 접촉·연계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끝내 어느 쪽도 달성하지 못하였던 만큼, 673년과 675년의 두 번에 걸친 당군의 공세는 애초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신라군의 경우는 이러한 당군의 상황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조건 하에 있었다. 즉,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바, 王京→國原(小京)城→晝長城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수로의 축선을 매개로 신라 전역, 특히 남부 방면의 병력과 물자를 漢山州 방면까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晝長城을 중심으로 수용·집결된 물자 등을 다시금 관내의 漕運이나 陸運 체계를 통해 최전방까지도 보급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던바 하남 船洞 및 한산주 관내의 여러 성곽들(ex: 포천 반월산성 등)에서 散見되는 ‘군현명+受(+國)+蟹口(+船家 또는 船宇)’ 양식의 명문와에서는 ‘松岳(개성)’·‘泉口(泉井口, 泉城 / 파주 교하)’·‘買省(양주)’·‘馬城(馬忽 / 포천)’·童城(童子 / 김포) 등 전방의 郡·縣 단위 지명들이 다수 기재되

여금(신라의?) 南境을 습격·약탈하도록 하였다고 언급되며(『冊府元龜』卷986, 外臣部31 征討5;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 또한 『三國史記』 기록에서도 비슷한 시기 阿達城 내에 기습적으로 진입한 靺鞨兵들이 가장 먼저 물자 약탈에 주력했던 양상이 확인된다(『三國史記』卷47, 列傳7 素那).

말하자면 이 당시 한반도에 전개된 당군 내에는 말갈계 番將이었던 李謹行의 휘하, 혹은 그와 별개로 동원·편성된 다양한 이민족 집단들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뛰어나고 운신이 자유로웠던 이들의 성격을 살려 침투·정찰·약탈·통상과괴 등의 비정규전을 맡은 일종의 遊兵(=유격대)으로서 활용하였으리라 상정된다(권창혁, 「730년대 발해-당 전쟁 시기의 ‘海賊’과 신라의 북진경략」, 『백산학보』 125, 2023, 73~74쪽).

어 있는 만큼, 이러한 거점들과 州治(=畫長城) 간 쌍방의 물류 유통 역시 상정할 수 있겠다. 아울러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유통망은 곧 전선에 병력 혹은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병참선으로도 충분히 기능하였으리라 추정해 보고 싶다.⁶²⁾ 아울러 675년 중 최전선에 위치했던 阿達城에서 지방관(太守)의 명령에 따라 거주민들이 삼베(麻)의 경작에 동원되었던 사례를 참고한다면,⁶³⁾ 그러한 각각의 거점들에서는 일종의 屯田과 유사한 방식으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또 이를 비축하는 것도 가능했지 않을까 한다.⁶⁴⁾ 당시 신라군은 어디까지나 방어자의 입장이었던 만큼, 적 세력이 당도하여 그 공격에 직접 노출되기 전까지는 성곽 등의 관방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권역의 통제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근래 신라의 23軍號 중 하나인 二節末幢의 경우 그 명칭상 ‘節(度)·節末’ 등의 어원 및 용례를 참고했을 때 軍糧·軍資 등의 병참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사조직이었을 가

62) 물론 이러한 명문와들은 대체로 평시의, 그리고 후대 8~9세기 무렵의 양상으로 이해되며 유통이 확인되는 물품 또한 일단은 瓦草(기와)의 사례에 한정되는 만큼 나당전쟁 시기의 전선 보급 상황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더하여 이러한 명문 기재 양식상 ‘受’는 대체로 ‘할당받다’라는 의미로서 각 郡·縣 단위에서 할당량을 받아 제작한 瓦草 등의 물자를 漕運 체계를 통해 州治 인근의 蟹口에 위치한 국영 船家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구도인 셈이다(김창식, 앞의 글, 2021, 89~91쪽; 박성현, 앞의 글, 2021, 36~45쪽).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러한 각 郡·縣 단위와 州治를 연결하는 물류 체계의 존재 자체로, 이를 통한 물류가 반드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평시에 瓦草와 같은 귀중하고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漢山州 관내에서 원활히 유통·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식량 및 무기·피복 등의 병참 물자의 보급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63) 『三國史記』卷47, 列傳7 素那 “……上元二年 乙亥 春 阿達城太守級漚漢宣教民 以某日 齊出種麻 不得違令……”

64) 김창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141~143쪽.

능성이 높으며, 특히 7세기 후반 무렵 나당전쟁 중의 전선 상황에 대응하여 漢山州·牛首州의 두 곳에 나뉘어 배치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⁶⁵⁾ 이 역시 지금까지 논했던 바와 맥락이 상통하는 부분인 만큼, 그렇다면 다른 아닌 이 (漢山州)節末幢이야말로 아마도 그러한 晝長城을 중심으로 형성된 漢山州 관내의 병참 체계를 관할하던 주체로 비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즉 王京↔國原(小京)城↔晝長城을 잇는 남한강 수계의 주요 병참선을 확보·수비하는 한편, 그를 통해 漢山州 방면에 집결된 인력과 물자들을 다시 전선의 각 거점에 이를 운반·보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수송 수단(즉 輜重 혹은 漕運) 및 인력, 경비·호송 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리라 추정된다.⁶⁶⁾

4.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다시금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672년 8월 완공된 이 晝長城(현 남한산성)은, 즉 漢山州 방면 최대의 병참 지원기지이자 비상시의 淸野入保까지도 수행 가능한 거점 요새로서, 그 전례 없는 규모 및 입지, 발전된 축성 기술 등으로

65) 한준수, 「신라 통일기 이절말당의 창설과 병참 지원」,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280~2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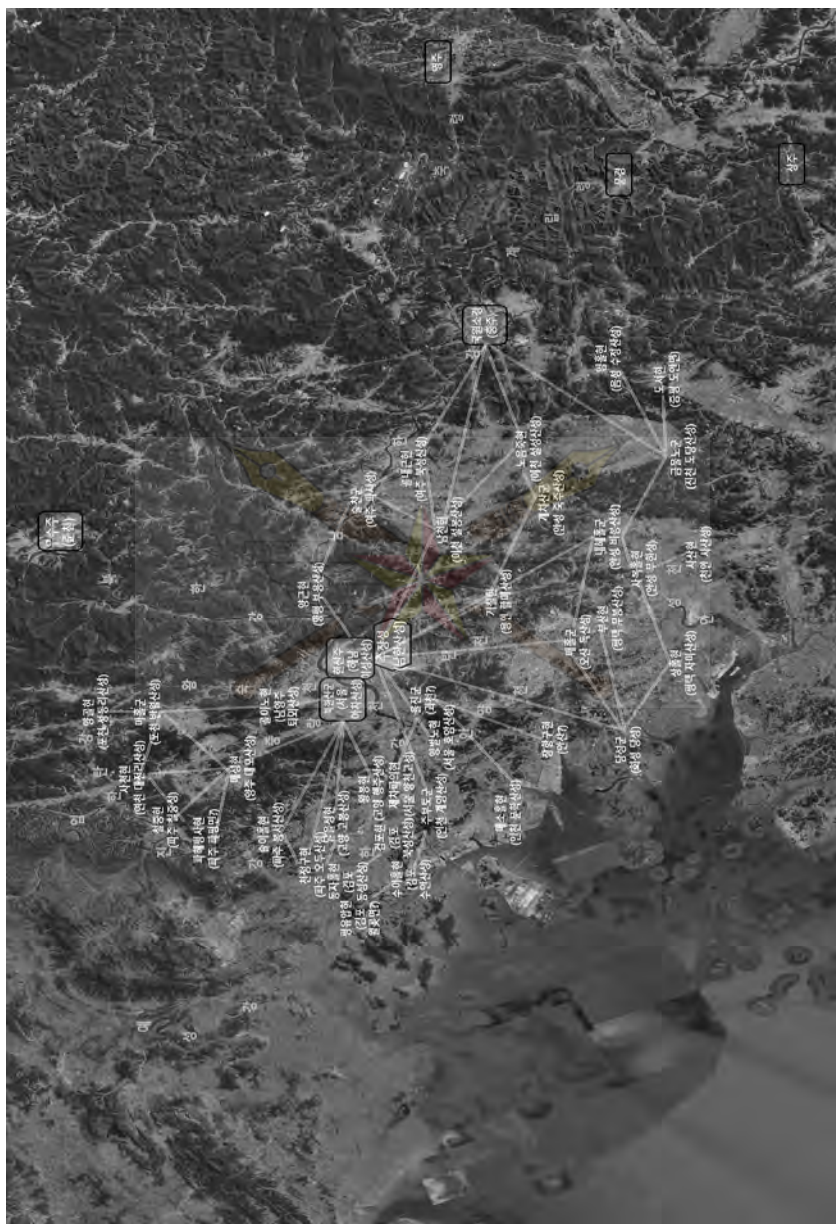
66) 다만 같은 시기 당의 제도를 참고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곡이나 각종 물품의 출납 및 (수목)운송 업무는 戶部 산하의 度支·倉部郎中과 員外郎, 그리고 轉運使(司) 등이 관할하는 영역이었다(『唐六典』 卷3, 尙書戶部). 신라에서도 일단 倉部·調府와 같이 비슷한 영역을 관할하던 중앙 관아들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만큼, 그와 대비했을 때 節末幢의 역할이란 어디까지나 戰時 상황, 혹은 州 단위에서의 軍糧·軍資 및 기타 兵站 등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볼 때 해당 지역의 기존 關防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남한강 수로를 매개로 國原(小京)과 州治 사이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王京 및 남부 방면의 인력과 물자 등을 漢山州 방면까지 원활히 유통시키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본래 이 晝長城은 668년 이래로 전후 처리를 둘러싼 나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북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처음 계획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672년 8월 석문전투의 패전을 계기로 직후 守城·持久戰 전략의 채택에 따라 다소 급박하게 완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완공 이후 이 晝長城은 그 특별한 규모 및 입지를 활용하여 인력과 물자의 수용·집결 및 보급과 같은 병참 지원 및 비상시의 淸野入保을 통해 漢山州 관내의 중심 방어망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군사조직으로서 (漢山州)節末幢과 같은 부대가 晝長城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漢山州의 晝長城을 필두로 國原城 등의 新·増築을 통한 전국적인 關防 체계의 정비가 완성된 673년 후반 이래, 부담스러운 장거리 원정을 감행해야 했던 당군에 비해 신라군이 병참 등의 諸 요소에 있어 그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이는 당연히 將兵들의 전반적인 사기 증진 및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되는 요인이었던 만큼, 궁극적으로는 나당전쟁 자체가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까운 형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중대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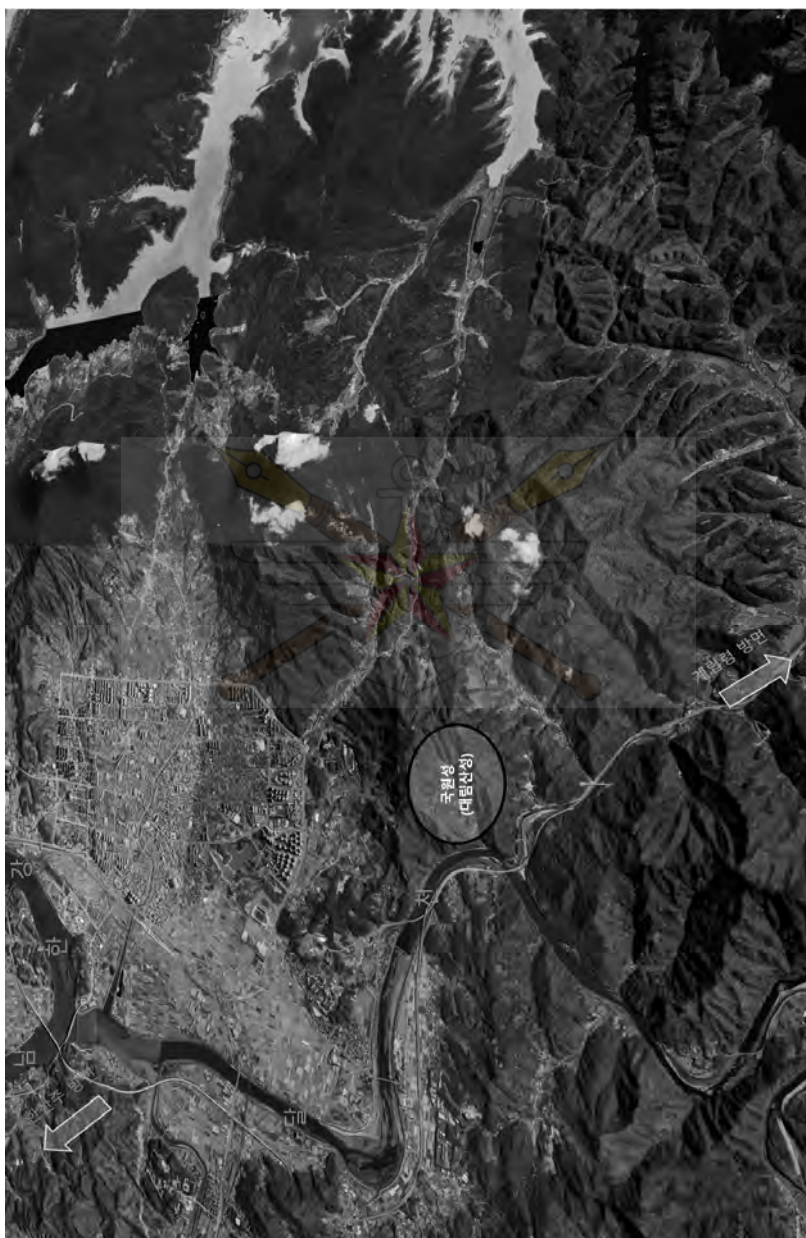
〈그림 1〉 7세기 대 임진·한탄강 이남 지역의 신라 행정단위 배치



〈그림 2〉 晝長城 및 인근 지역의 입지



〈그림 3〉 대림산성(國原城 추정지) 및 인근 지역의 입지



〈그림 4〉 (上) 남한산성 수구부 일대 선·후대성벽 단면도



* 출처 : 중원문화재연구원 · 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07, 41쪽에서 轉載

〈그림 5〉 행궁지 내 대형 벽체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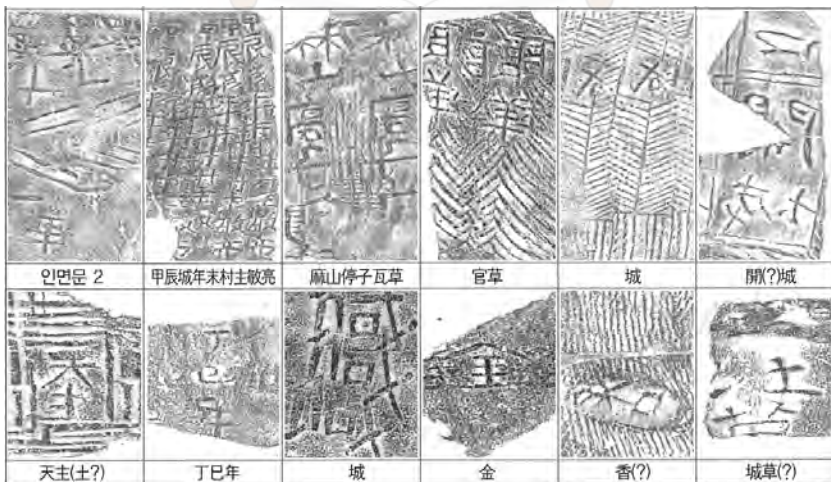
* 출처 : 토지주택박물관 · 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0에서 轉載

〈그림 6〉 (左)하남 선동 출토 명문와 / (右)포천 반월산성 출토 명문와



* 출처 : (左) 박성현, 앞의 글, 2021a, 37쪽에서 轉載
(右) 김창석, 앞의 글, 2021, 90쪽에서 轉載

〈그림 7〉 남한산성 출토 명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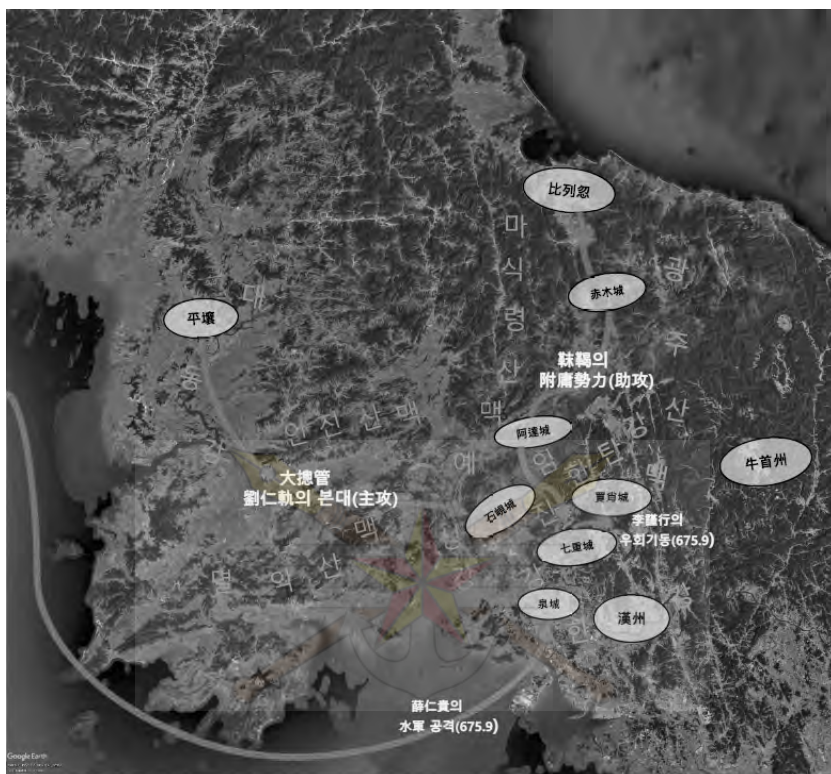
* 출처 : 토지주택박물관 · 경기문화재단, 앞의 보고서, 2010에서 일부 轉載

〈표 3〉 675년 중 나당 간의 전투 재구성

西北 방면 (主攻)	시기	675년 초? (미상)		675.2	
	장소	石峴城 (개풍)		七重城 (파주)	
	공격 주체	唐兵 (미상)		唐兵·契丹·靺鞨 (劉仁軌)	
	방어 주체	신라 (縣令 仙伯, 悉毛 등)		신라 (小守 儒冬)	
	경과	* 唐兵에 의해 함락 * 仙伯, 悉毛 등 戰死		* 劉仁軌가 신라군을 대파하였으나 ‘이기지 못함(不克)’, 儒冬이 戰士 * 劉仁軌가 ‘靺鞨’을 바다로 보내 ‘(新羅) 南境’을 공략(?) * 신라의 謝罪史 파견, 당 조정의 문무왕 관작 회복 및 金仁問 귀국 조치	
	출처	D-2의 ⑥ (* 시기 및 위치는 정황상 추정)		D-2의 ①, D-2의 ⑥ 『冊府元龜』 등	
東北 방면 (助攻)	시기	675년 초? (미상)		675.春	
	장소	赤木城 (회양)		阿達城 (안협)	
	공격 주체	靺鞨 (미상)		靺鞨 (某酋長)	
	방어 주체	신라 (縣令 脫起)		신라 (城主 혹은 縣令 素那)	
	경과	* 靺鞨이 城을 포위 * 脫起가 백성들과 함께 저항, 전멸		- 靺鞨의 기습, - 素那가 분전했으나 戰死	
	출처	D-2의 ⑥ (*시기 및 위치는 정황상 추정)		D-2의 ⑥ 素那 列傳	
主攻+ 助攻의 합류	시기	675년 중? (미상)	675년 중? (미상)	675.9	675.9.29
	장소	賈肖城 (연천)	미상	泉城(파주)	賈肖城(연천)
	공격 주체	唐兵·契丹·靺鞨 (李謹行)	唐兵 (미상)	唐兵(薛仁貴)	唐兵·契丹·靺鞨 (李謹行)
	방어 주체	新羅 (미상)	新羅 (미상)	新羅(將軍 文訓)	新羅 (미상)
	경과	* 劉仁軌·金仁問 등 귀국, 詔書를 통해 李謹行에 지휘권 인계 * 李謹行의 賈肖城 주둔(=도하 가능 지점으로 우회기동 추정), ‘세 번 싸워서 모두 이김(三戰皆捷)’	* ‘大小十八戰’ 모두 신라군 승리 * 당 측 전사자 6,047명 * 戰馬 200필 노획	* 薛仁貴가 宿衛 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침공, 신라군에 의해 격퇴 * 당 측 전사자 1,400여 명 * 戰馬 1천필, 兵船 40척 노획	* 賈肖城에 주둔하던 李謹行이 철수 * 戰馬 30,381필 및 병장기 다수 노획
	출처	『冊府元龜』 등	D-2의 ⑦	D-2의 ③	D-2의 ④

* 출처 : 권창혁, 「675년 아달성 전투와 신라의 말갈 인식」, 『신라문화』 60, 2022, 211쪽에서 轉載, 일부 수정 보완

〈그림 8〉 675년 중 당군의 對新라 공세 전략



* 출처 : 권창혁, 앞의 글, 2022, 210쪽에서 轉載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唐六典』

2. 단행본 및 보고서

김강훈,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2022.
김택민 외, 『역주 당육전(상)·(중)·(하)』, 신서원, 2003.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심광주 외,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2003.
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1997.
이병도, 『역주삼국사기 (상)·(하)』, 을유문화사, 1983.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중원문화재연구원, 『남한산성 성곽 발굴조사 -암문(4)·수구지 일대 완료
약보고서-』, 2005.
중원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
조사』, 조사보고총서 제46책, 2007.
토지주택박물관·경기문화재단, 『남한행궁지 -제7·8차 조사보고서-』,
토지주택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9집, 2010.
Martin van Creveld 저·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John Keegan 저·유병진 역, 『세계전쟁사』, 까치글방, 1996.

3. 연구논문

- 권순진, 「경기지역 신라 ‘북진기성곽’에 관한 일고찰」, 『신라사학보』 9, 2007.
- 권창혁,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2021.
- 권창혁, 「675년 아달성 전투와 신라의 말갈 인식」, 『신라문화』 60, 2022.
(<http://doi.org/10.37280/JRISC.2022.6.60.201>)
- 권창혁, 「730년대 발해-당 전쟁 시기의 ‘海賊’과 신라의 북진전략」, 『백산학보』 125, 2023.
- 김미성,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군사』 122, 2022.
(<http://doi.org/10.29212/mh.2022.122.117>)
- 김병희,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http://uci.or.kr/I804:41002-000000056112>)
- 김수미, 「박도유 모반사건으로 본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갈등」, 『백제문화』 44, 2011.
(<http://uci.or.kr/I410-ECN-0102-2012-520-002411936>)
- 김종복,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림』 19, 2003.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2365818>)
- 김창석, 「신라 창고제의 성립과 조세 운송」,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4519270>)
- 김창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6215948>)
- 김창석, 「함안 성산산성 목간을 통해 본 신라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백제문화』 54, 2016.
(<http://uci.or.kr/I410-ECN-0102-2016-910-000688348>)
- 김창석, 「한국 고대의 輪役과 漕運 -船家の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동서인문』 17, 2021.
(<https://doi.org/10.22856/jewh.2021.17.53>)

- 노병식, 「충주지역 신라축성의 변화」, 『중원문화연구』 22, 2014.
- 박남수,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 사학보』 40, 2017.
- 박성현, 「6~8세기 신라 한주 군현성과 그 성격」, 『한국사론』 47, 2002.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3793256>)
- 박성현, 「신라 통일기 주·소경의 성곽과 그 활용」, 『한국성곽학보』 21, 2012.
- 박성현, 「신라 통일기 漢州의 물자 이동과 漕運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a.
(<https://doi.org/10.35865/YWH.2021.09.121.33>)
- 박성현, 「신라의 ‘남·북한산성’ 축조와 경영」, 『역사문화연구』 79, 2021b.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1.79.75>)
- 박태우,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18, 1987.
- 배은숙, 「고대 동서양의 군 주둔지와 제철 지역의 병참선 연구 -로마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5, 2018.
(<https://doi.org/10.17934/jmhs..145.201806.237>)
- 백종오, 「옥천 이성산성의 성내 시설물 검토와 축성사적 의미」, 『한국 사학보』 87, 2022.
(<https://doi.org/10.21490/jskh.2022.5.87.33>)
-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2002.
(<http://uci.or.kr/I410-ECN-0102-2009-900-001706068>)
- 서영교,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유지와 국원」, 『영남학』 83, 2022.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1220607>)
-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1019891>)
-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石壁建物の 성격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 42, 2010.
(<http://uci.or.kr/I410-ECN-0102-2012-910-000865189>)

- 서정석, 「한국 고대의 지방 郡縣과 治所城-牙山 鶴城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4, 2016.
(<http://uci.or.kr/I410-ECN-0102-2016-910-000688333>)
- 서정석, 「통일신라기 州의 治所城의 구조와 물자유통 -全州 東固山城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6, 2017.
(<http://uci.or.kr/I410-ECN-0102-2018-900-000440620>)
- 심광주, 「주장성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 21, 2012.
- 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http://uci.or.kr/I410-ECN-0102-2022-900-000785589>)
-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 41, 2012.
(<http://uci.or.kr/I410-ECN-0102-2012-900-002940285>)
-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2016.
- 윤선태,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지방목간」, 『신라학리뷰』 창간호, 2022.
(<https://data.doi.or.kr/10.23132/jssr.2022.6.1.35>)
- 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2011.
- 이경섭,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7, 2020.
(<https://doi.org/10.37331/JKAH.2020.03.97.175>)
- 이동주, 「신라의 창고 관리와 운영」, 『신라문화』 58, 2021.
(<https://doi.org/10.37280/JRISC.2021.06.58.313>)
- 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8415582>)
- 이상훈, 「나당전쟁의 군사적 원인과 신라의 전쟁준비」, 『역사와 경계』 19, 2011.

-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
(<https://doi.org/10.35160/sjekh.2016.08.23.79>)
- 이수훈, 「성산산성 목간의 ‘성하맥’과 수송체계」, 『지역과 역사』 30, 2012.
(<http://uci.or.kr/I410-ECN-0102-2021-000-000557653>)
- 이용현,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신라의 지방경영과 곡물·인력 관리」, 『동서인문』 17, 2021.
(<https://doi.org/10.22856/jewh.2021.17.5>)
- 이재환,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사학보』 182, 2018.
(<https://doi.org/10.31791/JKH.2018.09.182.29>)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8481051>)
- 임동민, 「경기만의 해양 환경과 신라 문무왕대 ‘문두루 비법’의 해양사적 의미」, 『신라문화』 61, 2022.
(<https://doi.org/10.37280/JRISC.2022.12.61.35>)
- 차순철, 「신라 창고의 규모와 특징」, 『신라문화』 59, 2021.
(<https://doi.org/10.37280/JRISC.2021.12.59.391>)
-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총』 81, 2014.
(<https://doi.org/10.16957/sa..81.201401.3>)
- 하시모토 시게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王私’와 ‘城下麥」」, 『신라사학보』 54, 2022.
- 한준수, 「신라 통일기 삼변수당의 성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https://doi.org/10.35160/sjekh.2016.04.22.233>)
- 한준수, 「신라 통일기 계금당·이계당의 설치와 확대」, 『한국학논총』 47, 2017.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17.47..004>)

한준수, 「신라 통일기 이절말당의 창설과 병참 지원」,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https://doi.org/10.35160/sjekh.2021.04.37.253>)

홍승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물품 기재방식과 성하목간의 서식」, 『목간과 문자』 21, 2018.

(<https://doi.org/10.35302/wdis.2018.12.21.77>)

홍승우, 「대구 팔거산성 출토 신라 목간 검토」, 『대구사학』 149, 2022.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0814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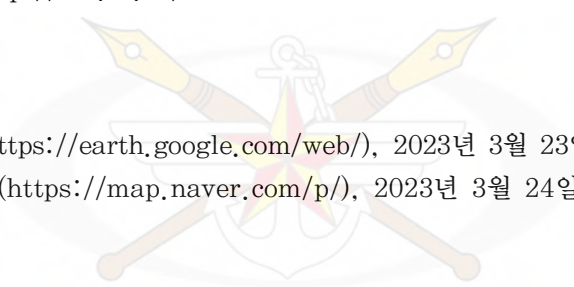
황인호, 「국원소경에서 증원소경으로의 변천과정 연구」, 『고고학』 12-3, 2013.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1020285>)

4. 기타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2023년 3월 23일자 자료.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p/>), 2023년 3월 24일자 자료.



(Abstract)

Organization of Hansanju Province(漢山州)’s defense system and the status of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during the Silla-Tang War

Kwon, Chang-Hyuck

Completed in 672,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currently Namhansanseong Fortress) was the largest logistics support base in Hansanju Province(漢山州), and was a base capable of even long-term sit-in warfare in times of emergenc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its unprecedented size, location, and advanced fortification technology, these fortress appear to have been built with the intention of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defense-in-depth system in the Han River basin. Ultimately, this served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Gukwonseong Fortress(國原城/國原小京, currently Chungju) and the provincial capital of Hansanju(漢山州) through the waterway transportation of the Namhangang River(南漢江) and allowed for the smooth distribution of manpower and materials from the capital of Silla(王京) and the southern region of the realm.

This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was originally planned to support Silla's strategic movements during the historical period in which the conflict between Silla and Tang Empire over post-war handling had intensified since 668, while Silla was pursuing a more active northward expansion strategy targeting the territory and residents of the old Goguryeo kingdom. But it was completed in a somewhat hasty manner as part of a war of attrition strategy that centered on castle defense that was adopted immediately following the defeat at the Battle of Seokmun Field(石門戰鬪) in August 672. However, since its completion, this Fortress, based on

its special size and location, contributed to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strong defense-in-depth system within Hansanju Province through providing logistical support such as with regard to accommodation, concentration and supply of manpower and materials, as well as preparation for long-term sit-in warfare in case of emergency.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legions such as Julmaldang(節末幢), as a specialized military organization to carry out these logistical missions, were active in places such as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In conclusion, starting in late 673, when the nationwide defense system was completed through new construction, expansion, or remodeling of various castles, such as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and Gukwonseong Fortress(國原城), the Silla army gained a relative advantage over the Tang army in terms of factors such as logistics. Conversely, the Tang army was forced to undertake burdensome long-distance expedi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it to demonstrate its combat capabilities properly. Furthermore, as this was a factor directly related to improving the overall morale of the soldiers and maintaining their fighting power, it can be understood that it was ultimately one of the important driving forces that led to the Silla-Tang War ending with Silla's victory.

Keywords : Hansanju Province(漢山州),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Gukwonseong Fortress(國原城), Defence system(國防體系), Logistics system(兵站體系), the Waterway transportation of the Namhangang River(南漢江 水路).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325-361
<https://doi.org/10.29212/mh.2023..129.3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전기 전라우수영의 설치와 위치 변화 연구*

박세나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목 차

1. 머리말
2. 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전라우영의 설치
3.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와 입지 조건
4. 맺음말

초 록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수군은 육군과 별도의 지휘 체계가 아닌
일원화되어 있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수군은 육군과는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되었다. 조선 조정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바로 수군을 창설한 배
경을 살펴보면 왜구를 빼놓을 수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통한 외적의 침입은 항상 있었지만 1350년(충정왕
2)부터 왜구의 침입 성격이 변화하였다. ‘경인의 왜구’라고 불리는 1350년
이후의 왜구는 대규모화하기 시작하였고, 고려는 왜구의 침입에 속수무책
으로 당하였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

* 본 논문은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립된 병종으로서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군선 건조에 역점을 두었다. 조선 조정은 수군액 확보와 군선이 신속히 출항할 수 있는 정박 거점을 찾는 등 왜구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

전라도는 왜구 침입 경로에 있고 물산이 풍부하여 잦은 침입을 당하였다. 조선 전기 서해로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전라수영이 옥구현(현 군산시)에 설치되었다. 옥구는 바다와 만나는 접경에 있어 수상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수군진의 입지로는 최적지였다.

왜구의 활동이 태종대 급증하자 조정은 병선을 배치하기 위해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옥구는 전라도 전 지역을 방어할 때 너무 위쪽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 서남해안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를 막기에 한계가 있어 전라수영은 옥구에서 무안현 대굴포로 이설한다. 무안현 대굴포 전라수영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은폐하기 좋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극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 범위와 작전 반경, 기동성을 높여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지키는 전라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이 당시에 해안 안쪽으로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밖으로 끌어내는 전환은 전국 곳곳에 보이는 군사 전략의 특징이다. 전라수영도 내륙에 있던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곳으로 이설한다.

해남 황원곳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사랑진왜변·을묘왜변 등 빈번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분립하게 된다.

수군진의 이설과 편제 변화는 왜구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전라우수영도 왜구의 이동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서남해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전라우수영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몇 차례의 이설 과정을 겪었다.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를 통해 당시의 해상 방어 전략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 전라우수영, 전라수영, 수군진, 수군, 전라우수사, 왜구, 전라도

1. 머리말

조선의 수군은 왜구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설치되었다. 여말선초 이래로 왜구는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침탈하였고, 이러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은 요해처에 主鎮·巨鎮·諸鎮을 설치하였다. 주진은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곳을 말하며,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가 파견되는 곳을 거진이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제진이라 하여 만호가 파견되었다. 이 중에서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수영은 주진으로서 산하 제진을 총지휘하여 왜구를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전라도에도 확장되었는데, 서남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전라우영이 설치되었다. 본래 전라우영은 단일 조직으로 서남해안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설을 거쳐 세종 22년(1440) 해남 황원곶에 자리 잡았다. 또 순천 내례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종 10년(1479)에 전라좌수영이 설치되자, 전라우영은 전라좌·우수영으로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전라우수영은 고종 32년(1895)에 廢營될 때까지 약 450여 년 동안 전라도 서남해 도서 연안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수군과 수군진, 해상 방어 체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수군에 동원된 군역 문제, 조직 체계 정비, 왜구 방어를 위한 시설과 훈련, 지휘 체계 등이 다뤄졌다.¹⁾ 수군 관련 연구는 일일이 다 열거할

1) 조선 전기 수군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강남석, 「여말선초의 수군정비와 대왜구 활동에 대한 소고」,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개별 수군진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²⁾ 반면, 전라우수영에 대한 연구는 전라우수영 산하 제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면서 전라우수영을 주진으로만 언급하거나 혹은 유적지에 대한 기초 조사가 검토된 정도이다. 전라우수영은 서남해안을 방어하였던 수군 최고의 지휘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조선 전기 독립된 병종으로서 수군이 창설되고, 이 속에서 전라우수영이 설치되는 과정과 위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의 해상 방어 정책과 전라우수영의 특성을 단면적으로나마 이해하고자 한다.

위논문, 1986 ; 김위현, 「선조의 수군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 김재근, 「조선왕조의 수군」, 『해양전략』 5, 해군사관학교, 1981 ; 방상현, 「浦鎭의 정비와 海防體制의 확립」,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석남, 『한국수군사연구』, 명양사, 1964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韓國研究叢書』 46, 한국연구원, 1983 ;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사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오봉근,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1998 ; 이만웅, 「제5장 해상방어체제의 정비와 수군」, 『한국군사사 5-조선전기 1』, 경인문화사, 2012 ; 이재룡, 「朝鮮前期의 水軍-軍役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5, 1970 ;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단국대출판부, 1973 ;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사와 경계』, 경남사학회, 2019.

2) 각 지역 수군진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주식, 「전라도 서해안의 수군 유적지에 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31,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 남호현, 「고려말~조선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제18호, 2023 ; 송은일, 「조선전기 고흥지역 수군진 설치와 수군 동향」,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2016 ; 신운호,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수군의 편제 및 운용 연구」,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2018 ; 신재덕, 「충청수영에 관한 연구」, 『대보문화』 2, 대보문화연구회, 1992 ; 이호주, 「鰲川水營의 기능변화에 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강길, 「조선후기의 충청병영과 수영」,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의천, 「朝鮮時代 忠清水營과 屬鎭의 위치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6, 2007.

2. 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전라우영의 설치

가. 조선 전기 수군 창설과 해상 방어 체제 정비

고려시대까지 수군은 육군과 별도의 지휘 체계가 아닌 일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 수군은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되었다. 조선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바로 수군을 창설한 배경을 살펴보면 왜구의 위협을 빼놓을 수 없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통한 외적의 침입은 항상 있었지만 1350년(충정왕 2)부터 왜구의 침구 성격이 변화하였다. ‘경인의 왜구’라고 불리는 1350년 이후의 왜구는 대규 모화하기 시작하였고, 고려는 왜구의 침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고려의 수군은 대규모로 몰려오는 왜구를 감당할 만큼 육성되어 있지 않았고, 시급히 수군을 양성해야 했지만, 홍건적의 침공을 비롯한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

근래 왜구가 강역을 침범해 성상께 밤낮으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 지금 계획은 두 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육지에서 지키는 것과 바다에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 육지만 지키고 바다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여겨 쉼 수 없을 만큼 나타날 경우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이며,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저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것이니, 이와 같다면 둘 다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³⁾

앞의 글은 1352년(공민왕 원년) 이색이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의 수군은 왜구를 감당할 만큼 육성되어 있지 않아 해상 방어를 포기하고 육상 방어에 치중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왜구는 전에 비해 큰 규모와 잦은 빈도로 고려왕조를 위협하였고, 고려왕조가 수군 독립 문제를 논의한 것은 한층 격심해진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 독립된 병종으로서 수군의 필요성을 최초로 역설한 이 주장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왜구의 증가로 인해 그 의미가 부각되었다.

고려는 전 해역에 걸친 해상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병선과 수군이 필요했다. 대규모 수군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군의 편제 방식과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가 이러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본격적인 해상 방어 체제는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다.⁴⁾

조선 초기 수군의 정확한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조실록에서 水軍都節制使⁵⁾ · 水軍僉節制使⁶⁾가 태조 2년(1393) · 3년(1394)에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태조 초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수군 편제는 수군도절제사 · 수군첨절제사의 휘하에 만호(3품 이하), 천호(4품 이상), 백호(5품 이상) 등을 두었으나, 태종 13년(1413)에 만호(4품), 부만호(4품), 천호(5품), 부천호(6품)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백호는 사라졌다.⁷⁾ 세종 2년(1420)에는 수군도절제사가 수군도안무처치사로 개칭되었으며,

3) 『高麗史』 권115, 「열전」 28, 諸臣, 이색.

4) 남호현, 「고려말~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18, 2023, 166쪽.

5) 『太祖實錄』 卷3, 太祖 2年 3月 19日.

6) 『太祖實錄』 卷3, 太祖 3年 2月 13日.

7)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7月 9日.

세종 25년(1443)에는 3·4품을 만호로, 5·6품을 천호로 개칭하였다.⁸⁾

이와 같이 정비된 수군의 편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수군의 편제

道 名	編 制		
京畿道	水軍僉節制使 2員	×	萬戶 4員
忠淸道	水軍都按撫處置使 1員	都萬戶 2員	萬戶 5員
慶尙道	水軍都按撫處置使 2員	都萬戶 2員	萬戶 17員
全羅道	水軍處置使 1員	都萬戶 2員	萬戶 13員
黃海道	水軍僉節制使 1員	×	萬戶 6員
江原道	×	×	萬戶 6員
平安道	水軍僉節制使 3員	×	×
咸吉道	×	×	萬戶 2員

* 출처: 『세종실록지리지』

위의 표를 보면, 지역에 따라 관직명 및 배속 인원의 수가 다르게 배정되는 등,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배치된 수군의 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은 수군도안무처치사와 도만호, 만호가 많이 배치되었다.

고려·조선왕조가 해상 방어 전략을 수립할 때 치명적인 약점은 선제공격과 기습의 주도권을 왜구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수군을 해안선 곳곳에 배치하면 병력이 분산되고, 병력을 집중시

8) 정청주,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3.

키면 방어가 허술한 지역이 발생한다. 왜구는 이 약점을 노려 병력이 분산되면 각개격파를 하고, 병력을 집중하면 빈 곳을 노렸다.⁹⁾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립된 병종으로 정비하면서 군선 건조에도 주력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 왜구와의 전쟁을 몸소 경험하여 “국가에서 근심하는 것이 왜적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¹⁰⁾, 왜구 토벌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앞장섰다.

태조가 구상한 해방 전략의 기본적인 틀은 왜구의 침입을 연해상에서 ‘군선과 수군’으로 격퇴하는 것이었다.¹¹⁾ 태조~세종대에는 병선 건조와 수군액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태종은 태조의 해방 전략을 계승하여 군선 185척을 추가 건조하도록 하고¹²⁾, 군선이 신속히 출항할 수 있는 정박 거점을 찾는 등 왜구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¹³⁾

조선 초기 수군은 왜구와의 海戰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군이 성장하는데 큰 사건이 발생한다. 세종 1년(1419)에 ‘기해동정’을 강행한 것이다. 원거리 대규모 해상 정벌의 경험은 수군의 전반적인 역량의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대마도 정벌에는 삼도도체찰사 이종무 지휘하에 군선 227척(경기 10척, 충청도 32척, 전라도 59척, 경상도 126척), 수군 17,285명이 동원되었다.¹⁴⁾ ‘기해동정’ 이후 조선은 倭船보다 빠른 선속과 내구성을 갖기 위해 군선의 성능을 개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험, 개량

9)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2009, 71쪽.

10) 『太祖實錄』卷3, 太祖 2年 5月 7日.

11) 민장원, 「조선시대 서해안 해방전략과 충청도 태안의 전략적 위상 변화」, 『역사와 담론』 제105집, 2023, 43쪽.

12) 『太宗實錄』卷15, 太宗 8年 3月 21日.

13) 『太宗實錄』卷25, 太宗 14年 8月 7日.

14) 『世宗實錄』卷4, 世宗 1年 6月 17日.

했다. 동시에 군선을 외해나 수로 상에 전진 배치하고, 전투 효율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였다.¹⁵⁾ 이를 계기로 조선 수군은 왜구에 대항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종 연간의 전투에서는 대개 조선 수군이 왜선을 추격하여 공격·나포했다.¹⁶⁾

해방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수군은 황폐화된 연해 지역을 복구하고, 수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군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해상 방어를 위한 조치로서 수군에게 둔전을 운영하게 하였고, 魚鹽之利를 보장해줘 연해 지역의 방어 효과를 높였다.¹⁷⁾ 한편, 수군의 천역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海領職을 설치하는 등 고역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⁸⁾ 수군과 병선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수군의 비율은 양계지방을 제외하면, 6도 지방군의 70%에 달하였으며, 병선은 전라도의 경우 1408년(태종 8) 81척에서 1425년(세종 7) 221척까지 늘어났다.¹⁹⁾

수군이 해방 전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조세 수취의 방법이 陸運에서 漕運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왜구의 잦은 침구로 삼남지방의 조세를 한동안 육로로 운송하였다. 엄청난 교통의 발달을 이룬 지금도 많은 화물은 바다로 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과 교통의 상황이 비교도 되지 않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육운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1401년(태종 1) 다시 조운으로 전환하고, 수군에게 조운선을 호송하는

15) 민장원, 「병선(兵船) 운영을 통해 본 조선 세종대 해양방어 전략전술」, 『해양과 인문학』, 2022, 94~107쪽.

16)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0月 3日 ; 『世宗實錄』 卷25, 世宗 6年 9月 20日 ; 『世宗實錄』 卷26, 世宗 6年 11月 7日 ;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 3月 7日 ; 『世宗實錄』 卷42, 世宗 10年 10月 16日 ; 『世宗實錄』 卷64, 世宗 16年 4月 21日.

17) 윤훈표, 『여말선초 군제개혁연구』, 혜안, 2000, 264쪽.

18) 노영구, 「조선초기 수군과 해령직의 변화」, 『韓國史論』33, 1995, 27쪽.

19) 임용한, 위의 논문, 2009, 81쪽.

임무를 맡겼다.²⁰⁾ 조선 초기 수군은 연해 지역을 개간하고, 개척을 단행하며 해안 지역 군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려 말부터 세종 이전에 개설한 수군진은 주로 해변의 주요 군현에 설치되었고, 이곳을 기반으로 주변의 요충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수군진의 설치 시기와 위치 변화를 밝히는 것은 당시 해방의 전략 정책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조선의 해방 전략 속에서 서남해안을 守禦한 전라우수영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나. 전라우영의 설치

경상도와 전라도는 왜구 침입 경로에 있고 물산이 풍부하여 잦은 침구를 당하였다. 조선 전기 서해로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전라우영이 옥구현(현 군산시)에 설치되었다. 전라우영은 전라도 인근의 浦鎭을 지휘하여 왜적을 방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라도수군도절제사(全羅道水軍都節制使)가 사의(事宜) 두어 조목을 올렸다.…옥구(沃溝)의 수영(水營)은 해로(海路)의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수(鎭戍)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읍건대, 수영(水營)을 모두 옥구진(沃溝鎭)에 붙이고, 해도(海島)의 중앙인 무안현(務安縣)의 대굴포(大幅浦)로 수영을 옮기소서.…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으나, 오직 수영(水營)을 옮기자는 일절(一節)만은 도관찰사에게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²¹⁾

20) 『太宗實錄』 卷2, 太宗 1年 8月 2日.

21) 『太祖實錄』 卷16, 太祖 8年 12月 24日.

전라우수영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올린 조목에서 ‘옥구의 전라우수영’을 확인할 수 있다. 옥구는 일찍이 지리적 이점과 전략적 위치로 수군진이 설치되었다. 조선 태조 초, 要害가 되는 연안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鎭이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옥구였다. 다음은 태조 때의 수군 편제 내용이다.

각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各鎭의 첨절제사를 두어 소속 부근 고을의 병마를 거느려 守禦에 대비하고, 도관찰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 경상도는 4鎭인데, 함포·강주·영해·동래이고, 전라도의 4진은 목포·조양·옥구·홍덕이고, 충청도의 3진은 순성·남포·이산이고, 풍해도의 2진은 풍주·웅진이고, 강원도의 2진은 삼척·간성이다.²²⁾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태조 6년(1397)에 병마도절제사를 폐지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파견하였다. 당시 설치된 진은 모두 15개소에 달하며, 전라도에는 목포, 조양(현 보성), 옥구, 홍덕에 첨절제사가 배치되었다. 조선 초기 병선 배치 지역과 육·수군의 주둔지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²³⁾ 鎭은 해안의 요충지에 설치되어 왜구들이 해상에서 육지로 상륙할 경우 격퇴하거나, 浦에 배치된 수군과 협공 작전을 수행하였다.²⁴⁾ 이때의 수군진은 내륙·연안 지역 방어에 주력하였다.²⁵⁾

22) 『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5月 2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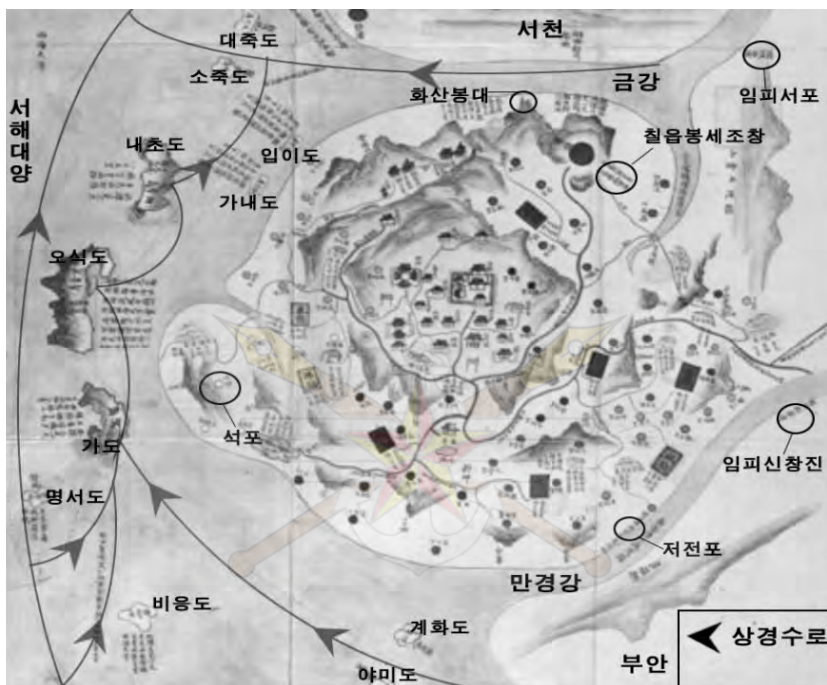
23) 『世宗實錄』 卷60, 世宗 15年 6月 27日.

24)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184쪽.

25) 민현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확립」, 『한국군제사-근세조선시대편』, 1968, 11쪽.

전라수영이 옥구에 입지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1>이 참고된다.

<그림 1> <1872년 지방도>(옥구현)



* 출처 : 서울대 규장각 소장

위의 <그림 1>은 1872년 옥구현 일대를 그린 지방도로, 옥구의 지리적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옥구현은 오늘날 전북 군산시 시내와 옥구읍, 옥서면, 옥산면, 회현면 일대에 해당하며, 금강과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들어가 바다와 만나는 접경에 위치하고 있다. 위의 지도에서 보건대 조운선과 상선의 해로가 옥구현과 주변의 섬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어, 수상 교통의 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도 북쪽에 있는 七邑捧稅漕倉은 옥구의

지정학적 위치를 부각시켜주는데, 옥구·전주·태인·금구·임실·진안·장수 등의 7개 고을 조세를 모아 서울 京倉으로 보냈던 곳이다.²⁶⁾ 이렇듯 옥구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조운제도의 중심 기능을 유지하였다.

또한, 옥구현 서쪽 해상에는 다수의 섬들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부터 살펴보면, 煙島, 大竹島, 小竹島, 內草島, 入耳島, 加乃島, 箕食島, 駕島, 明嶼島, 飛鷹島, 萬頃古群山, 夜味島, 界火島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섬들은 조운선들이 정박하면서 바람을 기다렸던 곳으로, 옥구를 호위하듯 입지하여 방어의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서쪽의 箕食島는 삼남지방의 세곡선이 모이는 곳으로 섬 안은 평온하여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관방의 요충지였다. 이 밖에 동서남북으로는 舒川浦·石浦·臨陂西浦·楮田浦 등이 있고, 군사시설로는 臨陂新滄津·花山烽臺 등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군사적 중요성으로 미루어 보아, 옥구는 당시 浦鎭의 입지 조건과 일맥상통한데, 세종 때의 황해도 경차관 黃垺의 啓文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海州 槌串에 머무르고 있는 병선을 無知串으로 이박시키는데 대한 편의 여부를 신 등이 살펴보니, 무지관은 해중의 섬들이 바라보이어 진실로 요해지가 되기는 하오나, 동남쪽이 모두 큰 바다이며, 돌도 많고 바람도 심하여 병선을 간직해 두는 곳으로는 마땅치 않고, 오직 퇴관 서쪽 1백 보쯤 되는 곳에 한 浦口가 병선을 모아 머무르게 할 만하였습니다.… 存伊浦도 역시 방어상 가장 긴요한 곳이기에는 하오나, 물과 샘이 없고, 또 큰 바다가 환히 통해 보이어 은폐할 곳이 없어, 소수의 병선이 정박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阿郎浦는 태양이 바라보이

26) 1872년 지방도, 옥구현조 해제(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먼서 포구 안에 바람도 잠잠하여 병선을 정박시킬 만하오
니...²⁷⁾

앞의 사료에서 보건대, 병선 주둔지로 적합한 浦鎭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예컨대 浦鎭의 조건은 ① 바람이 없는 곳, ② 방어상 은폐할 수 있는 곳, ③ 선박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는 곳, ④ 물과 샘이 풍부한 곳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전라도 옥구현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병선 주둔지로 적합했다. 특히 섬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바람이 없고, 방어상 은폐하기에 적합하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여 조운선이 자유롭게 정박하기에 용이했다.

3.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와 입지 조건

가. 옥구현에서 무안현 대굴포로 이설

왜구의 활동이 태종 6년(1406)과 8년(1408)에 또 다시 급증하자 태종은 병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정박하기 적당한 곳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방 전략 전술에서 정박 위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투 선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옥구에 설치되었던 전라우수영은 ‘전라도’ 해상을 방어하는 데 한계점이 드러난다. 옥구는 전라도 전 지역을 방어

27)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 2月 25日.

28) 민장원, 「조선 세종시대 병선의 해방 전략·전술」, 『STRATEGY』 21, 2018, 199쪽.

할 때 너무 위쪽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 왜구의 침입이 남해안 일대를 급습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남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라우영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 전기 왜구 침입 사례를 살펴보면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²⁹⁾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태종대(1401~1418)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선 태종대 왜구 침입 지역

연대	왜구 침입 지역
1401	見乃梁(거제) · 紫燕島(인천) · 三木島(인천) · 高灣梁(보령) · 固城縣(고성)
1402	釜山浦(부산) · 仙左島(남양) · 興德(고창)
1403	羽溪縣(강릉) · 長鬚(포항) · 樊溪浦(고성) · 豆毛浦(부산) · 甘北浦(경상도) · 樂安浦(벌교)
1404	제주 · 南陽(경기도) · 安行梁(충청도) · 영광
1406	장흥부 · 제주 · 乃而浦(진해) · 巖臺島(인천) · 三木島(인천) · 安行梁(충청도) · 小知島(인천) · 楸子島(제주)
1407	三陟府(삼척) · 목포 · 紫葱島(경기도) · 耽津(강진) · 興德(고창) · 楮島(통영)
1408	兆陽鎮(보성) · 巖臺島(신안) · 靈光郡(영광) · 충청수영 · 結城(충청도) · 唐津(충청도) · 沔州(충청도) · 鋤近梁(서천) · 倉浦(마산) · 長淵(황해도) · 楸子島(제주) · 加羅島(경상도) · 會寧縣(장흥) · 光陽縣(광양) · 寧朔縣(평안도)
1409	欲知島(통영) · 仙山島(완도) · 제주 · 洪州(충청도) · 長淵(황해도)
1415	제주
1417	于山島(독도)

29) 나종우, 『한국중세 대일교섭사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211쪽.

위의 <표 1>의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전라도가 19회로 가장 많고, 경상도 12회, 충청도 9회, 경기도 8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도는 수영이 약탈당할 정도였다.³⁰⁾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군사적인 방어책의 강화로 이어졌다.³¹⁾ 그 결과 韓雍으로 하여금 충청·전라도의 監戰散差官을 삼아 왜구를 방지하고³²⁾, 安瑗을 東·西江 등의 병마도절제사 겸 수군절제사로 삼았으며, 대호군 李培를 助戰僉節制使로 삼아 감사 1백 명을 각 도에 나누어 보내어 보강하였다.³³⁾ 결국 서남해 전역으로 침입해오는 왜구로 인해 전라수영의 이설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태종 8년(1408)에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올린 조목에서 확인된다.³⁴⁾ 전라도 수군도절제사가 옥구의 수영을 무안현의 대굴포로 옮기자고 건의한 것이다. 옥구는 해로의 중앙이 아니라는 이유로 鎭戍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海島의 중앙인 무안현의 대굴포로 수영을 옮기자고 주장했다.

대굴포는 강어귀에 위치해 내륙수로 연결되는 곳이다.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은 은폐 효과가 크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어 태세로 해석될 수 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체로 수륙의 방어는 국경을 굳게 지키고 멀리 나가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면, 공을 세우려다 백성을 상하게 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옵니다. 국가에서 처

30)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3月 6日.

31) 태조대에 잠시 주춤했던 왜구들이 태종대에는 적극적인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자, 태종은 내륙과 해안의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제도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해방 전략을 펼쳤다.

32)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5月 14日.

33) 『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5月 17日.

34) 『太宗實錄』 卷16, 太宗 8年 12月 24日.

음 병선을 만들어 요해지에 정박하게 하고자 함은 寇賊를 막을 뿐이요, 바다 밖까지 멀리 쫓으라는 명령은 없었사온 데,…”³⁵⁾

위 기사에서 처음 병선을 만들었을 때 요해지에 정박해서 왜구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고, 바다로 추격하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해방 전략은 병선을 내륙 중심으로 배치하여 주요 군현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³⁶⁾ 세종대 까지도 해안 가까운 곳에서는 병선이나 수비군의 보호가 미치지 않아 수백 결의 가경지를 두고도 주민이 경작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였다.³⁷⁾ 이런 사정이다 보니 군진이나 읍치도 내륙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⁸⁾

전라우수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대굴포는 현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수영과 관련된 지명이 현전한다.³⁹⁾ 즉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水統幕, 동쪽의 초소였다는 東幕, 외래객을 맞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賓亭, 마을 사람들이 糧倉·창골·창등이라 부르는 江所倉·船所倉 등이 있다.

무안현 대굴포는 지리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림 2〉를 통해 살펴보자.⁴⁰⁾

35) 『世宗實錄』卷83, 世宗 20年 10月 1日.

36) 민장원, 위의 논문, 2018,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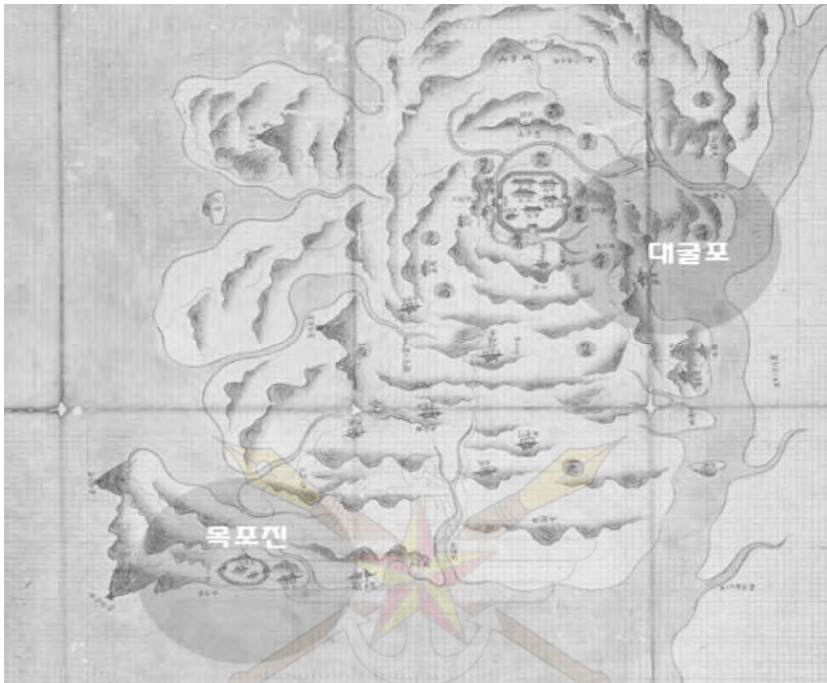
37) 『世宗實錄』卷60, 世宗 15年 6月 27日.

38) 『世宗實錄』卷88, 世宗 22年 3月 11日.

3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전라도』 함평군편, 1983.

40) 『備邊司印 方眼地圖』 「호남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1745~1765.

〈그림 2〉『備邊司印 方眼地圖』「호남지도」



* 출처 :『備邊司印 方眼地圖』「호남지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 1745~1765

위의 〈그림 2〉에서 보건대, 대굴포는 조운선의 발진 포구 기능을 하였던 沙湖津, 그 아래로 영산강을 따라 東倉과 船所, 전라수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굴포 일대는 영산강 하구언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조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지역이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수상 교통로가 발달하였고, 내륙과 해안이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었다. 또한 대굴포는 서남해로부터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영산강에 접해있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입지를 제공하여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가졌다.

나. 무안현 대굴포에서 목포로 이설 논의

병선 이동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병선의 배치 변화는 세종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라수영의 이설 논의도 제기된다. 세종 11년(1429) 전라감사가 대굴포의 지리적 여건을 이유로 병선을 蘭梁(현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으로 옮길 것을 건의한다.

전라감사가 계하기를, “이번에 수군처치사와 함께 蛇梁의 병선을 獨臺梁으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의 여부를 살펴보니, 독대량에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쉽지만 왜적이 들어오는 첫 어귀가 아니므로 혹여 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제때에 쫓아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처치사의 병선이 정박해 있는 대굴포는 배를 대는 곳이 깊고 멀 뿐만 아니라, 포구도 좁고 굽어서 이 또한 때에 맞게 응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처치사로 하여금 영의 병선은 蘭梁으로, 난량의 병선은 達梁으로, 달량의 것은 마량으로, 마량의 것은 회령포로, 회령포의 것은 녹도로, 녹도의 것은 축두로, 축두의 것은 사랑으로 옮기고 사랑의 병선은 변란에 대응할 수 있는 요해지 여도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려보내게 하였다.⁴¹⁾

대굴포는 배를 정박하는 곳이 깊고 멀뿐만 아니라, 포구도 좁고 굽어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세종 14년(1432)에 前 制摠 李恪이 대굴포 전라수영의 단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목포로 이설할 것을 강조하였다.

41)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4月 12日.

前 制摠 李恪이 상서하기를, “전함을 두어 요해지를 지키는 것은 변방을 튼튼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해상과 육상의 방어책이 모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처치사의 군영 가운데 목포 만호가 지키는 곳이 포구에 있는데도 바다까지 거의 2식경이나 되는 대굴포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출입할 때도 조수를 두 번이나 꺾어야 하고 만약 바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하루 이틀 안에 바다에 이를 수조차 없으니, 혹시 변고가 생긴다면 어찌 제때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처치사의 병선은 모두 단단하고 빠르며 그 수효 또한 각 浦의 것보다 배나 되는데, 늘 포구에 깊숙이 정박해 두어 쉽사리 출입할 수가 없게 된다면 장차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⁴²⁾

위의 啓文에서 보듯이, 대굴포가 목포만호의 포구로부터 무려 2식경, 즉 60리(2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조수가 급변하여 선박의 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산강은 간만의 차가 커서 조수 때 넓은 갯벌이 드러나 작은 배만 겨우 수로를 타고 운항할 수 있었다.⁴³⁾ 또 하루에 간조를 두 번이나 꺾어야 하고, 바람이 불 때는 하루 이틀 안에 바다로 나갈 수 없었다. 이러한 입지적 특징으로 대굴포는 해안 방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도순찰사 정흠지로 하여금 이설 장소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⁴⁾ 다음은 도순찰사 정흠지의 보고 내용이다.

42) 『世宗實錄』 卷57, 世宗 14年 8月 5日.

43)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함평 대굴포 전라수영』, 무돌, 2003, 37쪽.

44) 『世宗實錄』 卷57, 世宗 14年 9月 9日.

a-1. 都巡察使 資憲 刑曹判書 鄭欽之와 從事官 朝奉副知 敦寧府事 겸 宗親府典籤 閔恭이 移營址를 살피는 일로 9월 나주에 왔다가 21일에 발행하여 진도·황원·토주 등지를 돌아본 후 30일에 나주로 돌아왔다가 상경하였다.⁴⁵⁾

a-2. 전라도 도순찰사 정흠지가 아뢰기를, “본도의 수영을 목포에 옮겨 설치하고, 목포의 병선을 황원의 남면 周梁에 옮겨 碇泊하게 하고, 珍島의 西面蘇可浦에 수영의 병선 3, 4척을 매달 윤번으로 세워 정박하여 수호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이를 의정부·諸曹·三軍都鎭撫에 명을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뢰 바에 따르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좇았다.⁴⁶⁾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당시 병선이 거의 3배로 늘었다고 하지만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⁴⁷⁾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범위와 작전 반경, 기동성을 향상시켜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수군의 꾸준한 노력으로 향상된 전력과 왜구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가능한 전략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⁸⁾

45) 『錦城日記』 宣德 7년 壬子, 世宗大王 14年.

46) 『世宗實錄』 卷58, 世宗 14年 10月 20日.

47) 『世宗實錄』 卷86, 世宗 21年 9月 2日.

48) 임용한, 위의 논문, 2009, 85쪽.

다. 해남 황원곶으로의 이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전라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위해 강어귀 깊은 곳이 아닌 전라수영을 비롯한 여러 수군진과 병영을 해안가에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나타난 군사 전략의 특징 중 하나로, 해안 안쪽에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전라수영은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곶으로 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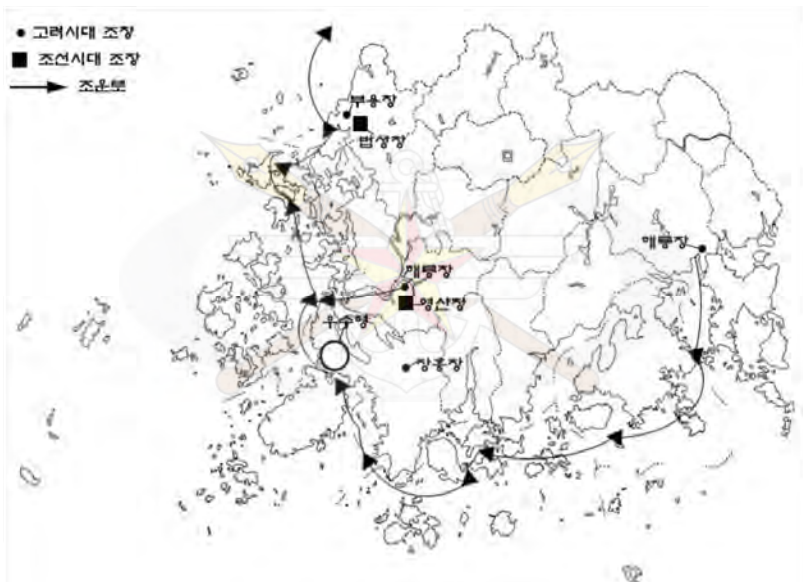
전라수영이 이설된 해남 황원곶(현 해남군 문내면 일원)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황원곶은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또 황원곶 주변으로 여러 섬이 분포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대동여지도』 「전라우수영의 입지」(1861년)



앞의 <그림 3>에서 보듯이 해남 인근 해역에 우악도, 죽도, 골도, 양도, 고도, 송도, 감배도, 징이도, 부소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 진도와는 鳴梁項⁴⁹⁾이라는 해로를 마주 보고 있다. 해남과 진도 사이를 통과하는 명량항은 통일신라 이래로 이용된 중국과 일본의 교역로였다.⁵⁰⁾ 또한 조운로 상의 해로이기도 하였다.

<그림 4> 고려·조선시대의 조창·조운로



* 출처 : 『고려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조창과 조운로를 표시한 것이다.

- 49) 대동여지도를 보면 전라우수영과 진도 사이의 바다에 '鳴梁項'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울돌목'이라고 한다. 밀물과 썰물 때 물의 흐름이 홍수 때의 하천보다도 더 빨라져 직접 가서 들으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 50) 통일신라 말 장보고의 청해진과 당시 국제포구였던 구림의 상대포에서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닷길이 이용되었다. 즉 청해진을 출발하여 해남반도를 따라 가다 울돌목을 지나고, 여기에서 북상하여 화원반도 땅끝과 달리도 사이의 해협('대나리목')을 지나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구림의 상대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강봉룡, 「고대 한·중 항로와 흑산도」, 『2009 국제학술대회 -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9, 49쪽.

앞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라우수영은 순천에서 부용창까지의 중간 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영남과 개경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해로로 사용되어왔으며, 각종 세곡을 개경 등지로 운반하는 조운로로도 활용되었다. 결국, 해남과 진도 사이의 이 해로에 위치한 황원곶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이 위치는 선조 31년(1598)의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둬 중요성을 입증하게 된다.

세종대 새로운 공격적인 해방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왜구의 통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수군진을 적의 시야로부터 은폐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고, 바다가 깊어 항상 배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주변 군진과의 거리, 포구의 폭 등도 고려사항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전라우수영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해남 황원곶에 안착하게 되었다.

해남 황원곶은 수군진의 입지로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전라우수영 포구는 현재의 남상리와 서하리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갯벌이 아니라 평평한 갯바위로 형성되어 있다. 둘째, 좁은 해협에 형성된 울돌목이 있다.⁵¹⁾ 울돌목은 ‘鳴梁’ 또는 ‘울돌목’이라고 불리며, 이 지역의 물길은 潮流가 빠른 곳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물길을 지나는 선박은 조류가 발생할 때에는 待潮港으로 대피하였다. 셋째, 전라우수영 앞에는 ‘羊島’라는 섬이 있어 울돌목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물살이 빠른 울돌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우수영이 황원곶에 설치된 이유 중 하나는 羊島라는 섬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우수영 포구 내

51) 그 중요성은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5일 벽파진에서 우수영으로 진을 옮긴 뒤 장병들에게 좁은 수로를 막아 싸우려 한다는 전술을 설명한 뒤 “一夫當逕 足懼千夫”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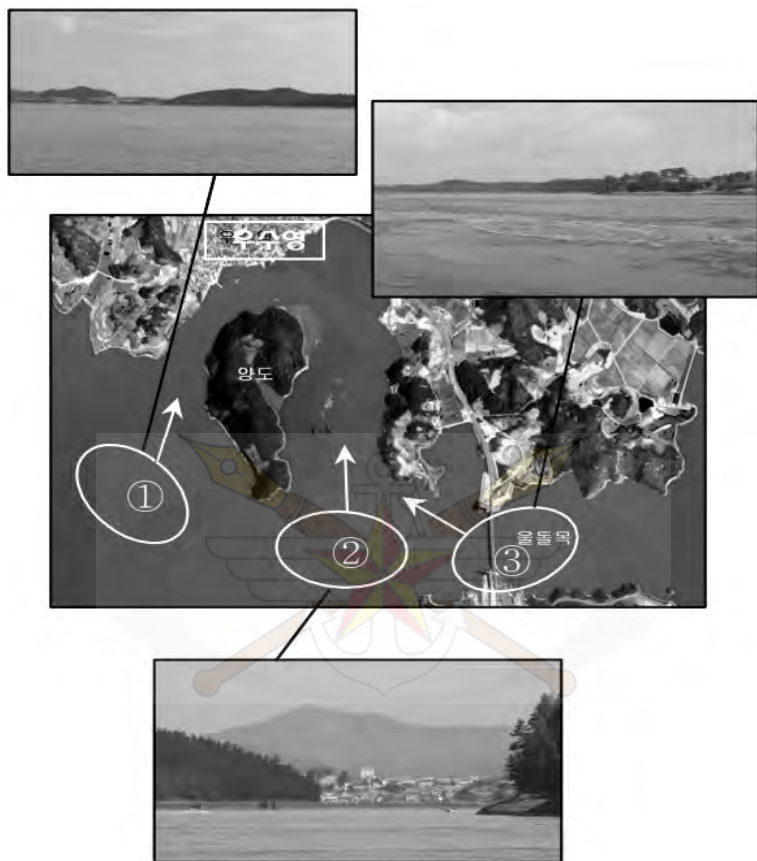
의 조류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선박이 정박하기에 적합하였다. 그 결과 전라우수영의 포구는 많은 배들의 피항처가 되었다. 이는 다음의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망루에서 본 전라우수영의 포구 모습



위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라우수영 포구는 L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많은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6>을 통해 해남의 입지와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 해로에서 본 전라우수영의 입지 환경



위의 〈그림 6〉은 진도와 전라우수영 사이의 해로를 따라 살펴본 것이다. ①번 사진은 영암에서 해남 방향으로 향할 때 양도로 인해 우수영 포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③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양도와 길게 늘어진 육지면이 합해져 하나로 연결된 육지로 보일 정도인데, 이는 지형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②번 사진의 경우 울돌목을 지나야 우수영 포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지형적인 장애물을 통해 전라우수영이 위치한

곳이 천혜의 요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라우수영이 설치된 해남 황원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떠했을까? 바로 전라우수영은 전라도 해로상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는 다음 사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b-1. 東萊의 南乃浦에서 光陽에 이르기까지는 서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약간 돌아서 남쪽으로 가며, 順天의 서쪽에서 海南에 이르기까지는 서남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치어서 간다.⁵²⁾

b-2. 海南 鳴洋의 서쪽에서부터 扶安에 이르기까지는 북쪽을 향하여 가다가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지고, 萬頃에서부터 瑞山에 이르기까지는 북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뻗어나가 서산에서부터 동쪽을 향하다가 꺾어져 돌아서...⁵³⁾

위의 사료에 의하면 남해와 서해의 분기점이 해남이라는 사실은 황원곶이 전라도 해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통제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해와 서해의 해로를 통제하면서, 전략적인 위치에서 적절한 방어 및 통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대 새로운 방어 전략을 펼치고자 할 때 이 지역을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남 황원곶은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전라우수영이 입지한 화원반도는 해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토지가 분포한 곳으로, 경지 면적이 완도군의 전체 경지 면적보다 넓다. 또 魚鹽 생산이 풍부하고, 주변 임야에서 땀감 채취가

52) 『增補文獻備考』 권32, 여지도20, 관방8, 海防, 남해의 해안편.

53) 『增補文獻備考』 권33, 여지도21, 관방9, 海防, 서해의 해안편.

용이하였다.

이외에 전라수영의 해남 이설은 군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수군이 육군과 별개의 병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21년(1439)에 수륙군이 협공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처해야 한다는 추세였다.⁵⁴⁾ 이는 수군과 육군의 방어 전략에서 구체화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의 군사 체제가 진관체제로 정비되고 수륙군과 연해·내륙을 한데 묶는 방어 체제로 개편되었다.⁵⁵⁾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전라수영이 육군과 수군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해남으로 이설되었다. 다시 말해서 병영이 있던 강진과 가까웠던 해남의 지리적인 위치는 수군과 육군이 합동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해남 황원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성종 10년(1479)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순천부 내례포(현 여수시)에 전라좌수영이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남 황원곶의 전라수영은 전라우수영으로 분립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남 황원곶은 옥구와 대굴포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이었다. 즉 전라도 해로의 중간에 있으며, 포구에 갯벌이 없고, 조수가 발생하지 않아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울돌목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양도의 입지는 수영을 은폐하기에 중요했고, 그 결과 해남 황원곶은 수영이 입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전라수영은 몇 차례 이설 논의가 있었지만, 고종 32년(1895)에 병영과 수영이廢營될 때까지 서남해안을 지키는 수군 최고 지휘부로 활약하게 되었다.

54) 『世宗實錄』卷85, 世宗 21年 6月 16日.

55)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67쪽.

4. 맺음말

이상으로 전라우수영의 설치 과정과 위치 변화를 통해 수군진의 입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왜구 방비를 위해 수군을 독립된 병종으로 창설하고 법제적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방어 체계를 수립하였다. 수군진은 해변의 주요 군현에 설치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주변의 요충지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각 연해 지역의 요충지에 주진·거진·제진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전라우수영은 이 중 주진으로서 서해안 방어를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라우수영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옥구에서 출발하여 대굴포, 그리고 황원곶으로 이동하면서 입지 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최초 설치된 장소는 옥구현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은 바다와 접해있어 수상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조운선과 상선이 지나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정박이 용이하고 바람이 적어 은폐하기 쉬운 지형으로, 수군진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태종대 지역별 침입 횟수를 살펴보면 서남해안이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구에 설치되었던 전라우수영은 서남해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전라우수영은 옥구에서 무안현 대굴포로 이설하게 된다.

대굴포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바다로 침입해오는 왜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대굴포는 강어귀에 위치해 내륙수로

로 연결되는 곳이다.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은 은폐 효과가 크고, 해변으로 진입하는 왜선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방어 태세로 보여진다. 조선 초기의 해방 전략은 병선이 경계와 방어에 치중했기 때문에 만 안쪽 깊은 곳에 병선을 배치하였다.

세종대에 병선을 깊은 곳에 두면서 병선 배치 지역을 확대하려다 보니 병선과 수군의 증강액이 끝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병선의 경계 범위와 작전 반경, 기동성을 높여 병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수동적인 거점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공격적인 방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을 지키는 전라수영의 이설이 필요했다. 서남해안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강어귀 깊은 곳이 아닌 전라수영을 비롯한 수군진과 병영을 해안가로 옮겨 설치하였다. 이 당시에 해안 안쪽으로 설치된 군사 거점을 밖으로 끌어내는 전환은 전국 곳곳에 보이는 군사 전략의 특징이다. 전라수영도 내륙에 있던 대굴포에서 바닷가에 인접한 해남 황원곶으로 이설된 것이다.

해남 황원곶의 입지 환경은 전라도 해로의 중앙에 있으며, 포구에 갯벌이 없어 선박이 정박하기에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울돌목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장애물이었다. 특히 우수영 앞에 입지한 양도라는 섬은 수영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해남 황원곶은 수영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해남 황원곶에 정착한 전라수영은 사랑진왜변·을묘왜변 등 빈번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분립하게 된다. 당시 전라도 순천부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따라서 조정은 남해안 지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내레포에 전라좌수영

을 설치하고, 반면 황원곶을 전라우수영으로 편제하였다. 그 결과 전라좌·우도수군절도사가 각각 전라좌·우도의 수군을 각각 통솔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즉, 수군진의 이설과 편제 변화는 왜구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전라우수영도 왜구의 이동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서남해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전라우수영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몇 차례의 이설 과정을 겪었다. 전라우수영의 위치 변화를 통해 당시의 해상 방어 전략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錦城日記』

『全羅右水營誌』

『增補文獻備考』

『湖南鎮誌』

2.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1993.

<http://www.uci.or.kr/G500:1310377-00000000124824>

나종우, 『한국중세 대일교섭사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함평 대굴포 전라수영』, 무돌, 2003.

명지대학교, 『전라우수영 망해루지 및 복문지 발굴조사 보고서』, 해남군, 2004.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http://www.uci.or.kr/G701:B-00047867238>

윤훈표, 『여말선초 군제개혁연구』, 해안, 2000.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단대출판부, 1973.

<http://www.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05990516>

차용길, 『고려말 · 조선전기 대왜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8.

3. 논문

- 강봉룡, “고대 한·중 항로와 흑산도”, 『2009국제학술대회 -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9.
<http://www.uci.or.kr/G704-001430.2009..20.008>
- 국방군사연구소, “浦鎭의 정비와 海防體制의 확립”,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김주식, “전라도 서해안의 수군 유적지에 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31,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2003
- 남호현, “고려 말~조선 전기 수군의 창설과 경기지역 수군진의 특성”, 『해양문화재』 1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3.
- 노영구, “조선초기 수군과 해령직의 변화”, 『韓國史論』 33, 서울대학교, 1995.
- 민장원, “조선시대 서해안 해방전략과 충청도 태안의 전략적 위상 변화”, 『역사와 담론』 제105집, 호서사학회, 2023.
- 민장원, “병선(兵船) 운영을 통해 본 조선 세종대 해양방어 전략전술”, 『해양과 인문학』, 글로벌콘텐츠, 2022.
- 민장원, “조선 세종시대 병선의 해방 전략·전술”, 『STRATEGY』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
- 민현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확립”, 『한국군제사-근세조선시대편』, 육군본부, 1968.
- 방상현, “朝鮮初期水軍의 鎭管體制로의 改編”, 『韓國軍事史論文選集』, 국방군사연구소
-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선소’ 연구”, 『군사』 제105호, 국방부, 2017.
- 신윤희, “조선 초기 전라우도 수군진 설치 및 연혁 검토”,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22.
- 신윤희, “임진왜란 시기 전라도수군의 편제와 운용”, 『歷史學研究』 제72집, 호남사학회, 2018.
-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 이현석, “15세기초 전라수영 대굴포의 위치”, 『향토사연구』 1,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89.
-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군사』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http://www.uci.or.kr/G704-001528.2009..72.007>
-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7.
- 장학근, “임란기 선조의 전략사고와 수군의 입장”, 『사학지』 28, 단국사학회, 1995.
- 정진술, “이순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이순신연구논총』 제38집,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3.
- 조원래, “임란초기 해전의 실상과 조선수군의 전력”,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http://www.uci.or.kr/G704-000303.2004..29.002>
- 정청주,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3.
- 최영창, “조선초기의 수군과 수군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가와 경계』 111, 경남사학회, 2019.
- 한성일, “16세기 중·후반 연해 군현의 戰船 배치와 운용”, 『지역과 역사』 42, 부경역사연구소, 2018.
<http://doi.org/10.19120/cy.2018.4.42.229>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Location Changes of the Jeolla Usuyeong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Park Se-Na

Before and during the Goryeo Dynasty, naval forces were unified with the army and did not have a separate command structure.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the naval forces were created as an independent branch of the military. When examining the background of why the Joseon government, shortly after its founding, established the naval forces as a separate military branch, one cannot ignore the threat of foreign invasions, particularly from Japanese pirates known as 'Waegyu.'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ad always been vulnerable to external invasions via the sea. However, the nature of Japanese pirate invasions changed significantly after 1350 (the reign of King Chungjeong). After 1350, the 'Waegyu of Gyeongin' started to organize on a larger scale, and Goryeo was defenseless against their raids. In response, the Joseon Dynasty not only established the naval forces as an independent branch to counter the Waegyu threat but also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The Joseon government made efforts to create a strategic plan for dealing with the Waegyu threa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aval bases and dockyards to ensure rapid deployment of naval forces.

Jeolla Province was located along the route of Japanese pirate invasions and was frequently targeted due to its abundant maritime resources. To prevent the incursions of Japanese pirates into the western sea, Jeolla Suyong (naval command) was established in Okguhyeon (present-day Gunsan). Okgu was strategically located at the juncture of the sea and was an ideal position for naval transportation.

As Japanese pirate activities increas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 central government began searching for a suitable location to station military ships. Okgu's location at the northernmost part of Jeolla Province created a problem in defending the southwestern coast against pirate incursions. Therefore, Jeolla Suyeong was relocated from Okgu to Daegulpo in Muanhyeon, Muanhyeon, deep in the inland, had the advantage of being concealed and able to easily detect Japanese pirate ships entering the coastline, but it could only provide passive defens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endless expansion of naval forces and the placement of military ships in remote areas, the solution w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naval forces by enhancing the boundaries, operational range, and mobility of the naval forces. In other words, there was a shift from passive defense to an aggressive defense strategy. To implement this aggressive defense strategy, it was necessary to relocate Jeolla Suyeong, which was tasked with defending the southwestern coast.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 trend of relocating military bases located inland to coastal areas, which was seen throughout the country. Jeolla Suyeong also moved from Daegulpo, which was located inland, to Hwangwongot in Haenam, adjacent to the coast.

Upon settling in Hwangwongot, Jeolla Suyeong was divided into Usuyeong (Right Naval Command) and Jwasuyeong (Left Naval Command) due to frequent Japanese pirate invasions such as the Saryangjin Incident and Eulmyo Incident.

The reloc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naval forces were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Waegyeu threat, a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Jeolla Usuyeong based on the movement of Waegyeu. Understanding the shifting positions of Jeolla Usuyeong allows u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maritime defense strategies during that time.

Keywords : Jeolla Usuyeong (Right Naval Command of Jeolla), Jeolla Suyeong (Naval Command of Jeolla), naval base, navy, Jeolla Ususa (Right Naval Commander of Jeolla), Japanese pirates, and Jeolla-do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363-403
<https://doi.org/10.29212/mh.2023..129.3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정유재란기 泗川 전투 재검토

- 패전 원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

문형준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목 차

1. 서론
2.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 작전과 사천
3. 전투의 전개
4. 사천 전투의 패인 및 영향
5.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정유재란 막바지인 1598년에 벌어졌던 사천 전투를 패전 원인과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전투의 재구성과 임진전쟁의 실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정유재란 초기의 일본군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에 나선 조명연합군은 울산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양호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사로병진 작전을 입안했고, 사천이 작전목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본군은 1597년 이곳을 요새화했고,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1만 5천 명의 병력이 오

늘날의 선진리왜성인 사천왜성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1598년 9월 동일원의 지휘하는 2만 9천의 조명연합군은 진격을 개시했고, 지성들을 함락하며 사천왜성에 육박했다. 처음에는 조명연합군이 우세했지만 화약 폭발사고로 인해 진영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일본군의 역습에 명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패주하게 되었다.

비록 화약폭발 사고가 패전의 결정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조명연합군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요새화된 왜성을 공격하기에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보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혼합군으로 구성된 명군의 결속력은 약했으며, 북병으로 구성된 기병은 공성전에 적합한 병종이 아니었다. 반면 일본군은 최대한 전력을 보존하면서 노련하게 조명연합군을 상대했다.

사천 전투의 패전 후 명군의 전투의지는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사천 전투는 정유재란 막바지에 명의 입장을 바꾼 결정적 전투였다.

주제어 : 정유재란, 사천, 선진리왜성, 사로병진작전, 조명연합군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서론

1598년(선조 31년) 조명연합군이 벌인 사로병진 작전은 임진 전쟁 막바지에 벌어진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다. 조명연합군이 육로 3방향과 해로 1방향에서 동시에 진격하여 남해안에 산개한 일본군을 개별적으로 격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泗川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기존의 사로병진 작전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순신의 조선수군이 서로군과 합동작전을 벌였던 순천 왜교성 전투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다.¹⁾ 하지만 왜교성 전투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지만, 조명연합군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작전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전투는 사천 전투였다.²⁾ 뿐만 아니라 사천 전투는 명군이 전쟁수행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전쟁의 전개가 바뀌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사적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천 전투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

1) 趙浚來, “정유재란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호(2003):213-237;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호(2007):827-852; 이옥, “순천 왜교성 전투와 조선민중의 동향”, 『한국사학보』 54호(2014):191-219; 이민웅, “朝·明 聯合艦隊의 형성과 露梁海戰 경과”, 『역사학보』 178호(2003):83-112; 崔斗煥,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2) 임진왜란을 통틀어 사천에서 주목할 만한 격전은 2번 벌어졌다. 첫 번째는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사이에 벌어진 사천포 해전이고, 두 번째는 159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로병진 작전 기간에 사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사천 전투는 두 번째 전투이다. 사천(왜)성 전투라고도 지칭되지만, 후술하듯이 1597년 9월 19일부터 사천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천 전투로 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를 통해 전투의 전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초전의 승리에 명군 사령관 동일원이 전황을 안일하게 판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정(敵情) 판단에 실패했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다. 또한 패전의 영향에 대해서도 사로병진 작전의 실패와 노량해전의 변수가 되었다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사천 전투는 조선을 무대로 조선과 명, 두 나라의 기획과 준비 아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개 및 전투의 파장을 살핀다면 참전국들이 저마다 가진 입장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유재란의 전황 및 사천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이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조·명·일의 제반 사료를 통해 전투의 전개 양상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던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사천 전투를 계기로 명군의 전쟁 수

3) 가장 먼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일본 군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의 활약과 전술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 측 기록을 근거로 전투의 전개를 정리하면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일본군의 활약을 강조했다(參謀本部 編, 『日本戰史 朝鮮役』(全3卷) 東京: 偕行社, 1924) 한국에서는 이형석의 연구서(이형석, 『壬辰戰亂史』, 서울: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를 통해 개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들이 전쟁의 상황과 전투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李章熙·成大慶·申解淳,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 19호(1989): 156-185; 村井章介, “島津史料로 본 泗川戰鬪”, 『남명학연구』 8호(1998): 181-204; 이상훈, “정유재란 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충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0호(2006): 263-296; 孫衛國, “董一元與泗川之役略考”, 『新亞學報』 34(2017): 165-212. 그 외에 중국학계에서는 쑤웨이이가 3국의 사료를 토대로 사천 전투의 각종 異說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孫衛國, “董一元與泗川之役略考”, 『新亞學報』 34(2017): 231-258.

행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것이 이후 전쟁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측 기록 외에도, 일본 및 명 3국의 기록을 고루 검토했다.⁴⁾ 사천 전투의 전개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은 조선 측의 연대기 사료를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 및 교차검증을 위해서는 명 측과 일본 측의 사료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료를 검토하였다. 우선 명 측 사료로는 정사인 『명사(明史)』와 『명실록(明實錄)』 외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과 모서징(茅瑞徵)의 『만력삼대정고(萬曆三大征考)』 등을 활용하였다.⁵⁾ 일본 측 사료로는 시마즈 요시히로의 영지였던 사쓰마[薩摩] 번에서 작성된 가와카미 히사쿠니[川上久國], 오시게 헤이로쿠[大重平六], 후치노베 모토자네[淵辺元真] 등의 회고록[覺書]을 포함하여 『정한록(征韓錄)』, 『도진국사(島津国史)』, 에도시대 후기에 선행 문헌을 편년체로 편집한 『정한위략(征韓偉略)』 등을 참고하였다.⁶⁾

4) 조선 측 사료의 해제는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역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pp.393~457을 참조.

5) 임진왜란 직후에 전란 과정을 기술한 사료들이다. 영인본 자료의 해제 및 원문은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壬辰之役史料匯輯(下)』, 서울:국학자료원, 1992를 참고하였다.

6) 가와카미 히사쿠니, 오시게 헤이로쿠, 후치노베 모토자네 등은 모두 정유재란기 시마즈 가문을 따라 조선에 왔던 인물들로, 이들이 작성한 회고록[覺書]들은 『정한록』을 비롯한 시마즈 가문 관련 기록의 편찬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료는 北島万次,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 3 一五九六~一五九八年』, 東京: 平凡社, 2017; 東郷吉太郎 編, 『泗川新寨戦捷之偉蹟』, 東京: 薩藩史料調査会, 1918; 續群書類従完成會, 『續群書類従(第20輯下)』, 東京: 續群書類従完成會, 1923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사료들의 해제와 특징은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근세편』, 서울: 도서출판 문, 2010, pp.145~166; 김광옥, “일본 에도시대 임진왜란 기록물에 대한 연구-島津氏の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호 (2006):1-32 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들은 당사자 위주의 일방적인 기술이 종종 이루어졌는데, 특히 일본 측 사료들은 계량적인 사안들에서 거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⁷⁾ 하지만 어느 한 쪽의 사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사자의 내부 사정과 인식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살피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천 전투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서술을 극복하고 임진전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 작전과 사천

가. 정유재란의 전개와 사로병진 작전

1596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한 재침을 선언하면서 정유재란이 발발했다.⁸⁾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필두로 1597년 1월부터 도해했고⁹⁾, 명군은 1597년 5월 8일에 副總兵 楊元, 6월 14일에는 遊擊 吳惟忠이 이끄는 병력이 한성에 도착했다.¹⁰⁾ 그러나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은 6월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은 명군의 행동과는 별개로 수군을 동원하여 일본

7) 가령 후치노베 모토히사네는 육지의 3로군이 모두 50만 명이고, 그 중 중로군만 20만 명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로군 숫자만으로도 실제 4로군 전체 조명연합군의 2배가량 되는 숫자이다(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p.366~367).

8) 『宣祖修正實錄』卷30, 宣祖 29年 9月 1日 甲午. “朝鮮有四大罪, 王子放還後, 迄不來謝, 使臣必以卑官, 苟充入送. 爾乃小邦, 自前侮我, 歲貢不修, 朝聘不至. 且冊使逃還, 皆汝國所爲.”

9)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1月 21日 壬子.

10) 『宣祖實錄』卷88, 宣祖 30年 5月 8日 戊戌; 卷89, 宣祖 30年 6月 14日 癸酉.

군을 견제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¹¹⁾

실망한 조선 조정은 수군통제사 원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일본 군을 공격할 것을 독려했지만, 되려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전멸당했다.¹²⁾ 조선 수군이 사라지면서 일본군은 수륙 양면으로 전라도 지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며 진군했다.¹³⁾ 8월 16일 일본군은 남원성을 함락시켰고, 8월 19일에는 명군 유격 진우충이 버리고 도주한 전주를 점령했다.¹⁴⁾

이런 일본군의 기세는 조명연합군을 위축시켰고, 欽差提督南北官兵禦倭總兵官 後軍都督府都督同知(이하 提督으로 약칭) 麻貴는 서울을 포기하고 수비선을 압록강으로 물리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¹⁵⁾ 그러나 欽差經理朝鮮軍務 都察院右僉都御史(이하 經理로 약칭) 楊鎬는 한성으로 와서 마귀의 소극적인 행위를 질타하고, 병력을 파견하여 복상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도록 했다.¹⁶⁾ 직산에서 교전 끝에 일본군이 물러나고, 9월 16일에는 조선 수군이 명량 해전의 승리로 일본군의 서해진출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¹⁷⁾

일본군은 다시 복상을 시도하는 대신 西生浦에서부터 順天에 이르는 지역에 倭城을 쌓고 한반도 남부에 장기 주둔할 계획을 세웠다.¹⁸⁾ 이에 맞서 조명연합군은 1597년 말에 공세로 전환, 가토가 이끄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울산을 공격했다.¹⁹⁾ 일

11) 『宣祖實錄』卷89, 宣祖 30年 6月 14日 癸酉.

12) 『宣祖實錄』卷90, 宣祖 30年 7月 10日 己亥; 22日 辛亥.

13)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pp.210~213.

14) 『亂中雜錄』3 丁酉年 8月 16日; 8月 17日; 8月 19日.

15) 『明史』卷320, 「列傳」第208 朝鮮列傳.

16) 『宣祖修正實錄』卷31, 宣祖 30年 9月 1日 己丑.

17) 이민웅, 2004, p.234.

18) 『宣祖實錄』卷95, 宣祖 30年 12月 3日 己未.

19) 『懲毖錄』卷2, “十二月, 楊經理·麻提督, 領騎·步兵數萬, 下慶尙道, 進攻蔚山賊營.”

본군은 도산성으로 후퇴하여 수성전으로 대응했고, 조명연합군은 도산성을 포위공격 했지만 함락하지 못했고, 도리어 일본군의 구원병이 울산에 도착해 1598년 1월 포위를 풀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다.²⁰⁾

비록 도산성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싸울 전의를 잃지는 않았다. 양호는 일본군을 섬멸하기 위해 1598년 2월 2일 새로운 작전을 입안했다.²¹⁾ 울산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소수 병력으로 가토를 지원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²²⁾ 이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양호는 조선이 거리가 멀고 산천이 險阻해 병력을 한 군데 취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10만 이상의 대군을 동원하되, 이를 육군 3路和 수로까지 합해 도합 4路로 나누어 육군 3로는 양남 지방에서 일본군의 주요 거점을 동시에 공격해서 일본군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이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²³⁾ 서로군은 순천, 동로군은 울산,

20) 이상훈, 『전략전술의 한국사-국가전략에서 도하전까지』, 서울: 푸른역사, 2014, pp.220~249.

21) 김경태는 양호가 울산성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대안으로 강화교섭을 들고 왔으며, 양호의 탄핵으로 인해 강화노선이 초기화되면서 사로병진 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았다(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p.232~242). 그러나 양호가 일본군의 섬멸을 목표로 한 사로병진 작전을 구상했기 때문에, 양호의 강화교섭이 명군 지휘부의 태도가 변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양호는 강화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유경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했으며, 울산성 공격 실패로 인해 “‘싸움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니, 羈縻策이 제일이다’는 의논이 어지럽게 일어나 軍情이 소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宣祖實錄』 卷101, 宣祖 31年 6月 20日 癸酉).

22) 『明神宗實錄』 卷317, 萬曆 25年 12月 30日 丁亥, “專攻清正, 恐行長自金山來援, 令中協兵馬, 近宜城, 東援兩協, 西扼援倭, 又于三協中, 摘馬兵千五百, 與朝鮮合營, 由天安·全州·南原而下, 大張旗鼓, 詐攻順天等處, 以牽行長.”

23)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2日 丁巳; 中野等, 『秀吉의 軍令과 大陸侵攻』, 東京: 吉川弘文館, 2006, p.360.

중로군이 사천을 공격하고 수로군이 퇴로를 막기로 최종적으로 입안되었고, 이 작전이 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 經略禦倭兼理糧餉 兵部尙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이하 經略으로 약칭) 邢玠의 동의를 거쳐 실행되게 되었다.²⁴⁾ 이것이 이른바 명군에 의해 주도된 사로병진 작전 계획이다.

2월 3일부터 조명연합 4로군이 작전에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의 집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수군을 포함한 병력이 추가로 파견되었다.²⁵⁾ 그 결과 조명연합군은 사로병진 작전 개시를 위한 10여만의 병력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한편, 처음 계획과 달리 1598년 작전 준비 기간 중에 인선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작전을 세웠던 경리 양호는 울산성 전투 결과에 대한 허위보고로 인해 主事 丁應泰의 탄핵을 받아 萬世德으로 교체되었고, 원래 중로군을 맡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李如梅는 그가 요동에서 전투 도중 전사한 형 李如松을 대신해서 요동에 부임하게 되면서 欽差提督中路禦倭總兵 中軍都督府左都督 太子太保 董一元으로 교체되었다.²⁶⁾ 그 결과, 작전을 입안했던 양호 대신 경략 형개가 작전을 총괄하고, 동일원이 이어매를 대

24) 『武備志』에는 이 작전의 구상이 형개의 의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전이 입안된 시점은 1598년 2월이었으며, 이덕형에게 직접 작전의 구상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양호였다. 따라서 양호의 구상이 형개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武備志』 卷239, 「朝鮮考」;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2日 丁巳).

25)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3日 戊午; 卷98, 宣祖 31年 3月 29日 甲寅. 3월 29일자로 양호가 병사를 집결지에 파견하고 나서 올린 자문에 의하면 명나라 본국에서 아직 조선에 도착하지 않은 병력의 규모는 26,100여 명이었다.

26) 『明史』 卷259, 「列傳」 第147 楊鎬列傳; 『明神宗實錄』 卷321, 萬曆 26年 4月 17日 辛未. 董一元은 대대로 무인이었던 가문 출신으로, 부친 董錫은 宣府游擊將軍으로 활약하다 전사했다. 동일원 역시 薊鎮游擊將軍으로 북방 민족 격퇴에 공을 세웠다. 병으로 귀향했으나 정유재란에 다시 참전하게 되었다(『明史』 卷239, 「列傳」 第127 董一元列傳).

신해서 중로군의 지휘를 맡아 사천 지역을 공격하게 되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인선의 교체는 사로병진 작전의 실행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아니었고, 9월 중순부터 일본군의 섬멸을 목표로 한 사로병진 작전이 실행됨에 따라 목표지인 순천·사천·울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²⁸⁾

나. 사천의 전략적 가치

1597년 북상을 멈추고 남하한 일본군은 사천, 남해, 양산, 부산, 울산, 순천 등 주요 거점들에 왜성을 구축했다.²⁹⁾ 앞서 서술했듯이 조명연합군은 1597년 말 이들 가운데 울산을 공격했었는데, 사로병진 작전의 대상지역으로는 이미 공격에 실패했던 울산과 함께 순천과 사천이 선택되었다. 그 중 사천을 조명연합군이 공격 목표로 선택한 이유는 지리적 입지와 이를 토대로 계산된 전략적 요인 때문이었다.

지리적 입지를 보면 사천은 전라도로 통하는 진주와 직결되는 요충지로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왜구를 상대하는 최남방 요해지[極南要害之地]였고, 사천 전투 이전에도 여러 번 교전이 벌어졌던 곳이다.³⁰⁾ 임진왜란기에는 주로 진주 쪽으로 진격하는 일본

27) 만세택이 양호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지만, 그가 조선에 들어온 것은 사로병진 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인 11월 25일이었다(『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5日 丙午).

28)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로병진 작전의 개시에 관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사로 인한 일본군의 철수와 이를 추격하기 위한 작전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기타치마 만지(北島万次),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서울: 경인문화사, 2008, pp.241~242). 그러나 이는 시간적 우연에 따른 인과관계의 혼동이라고 생각된다. 조명연합군은 계속되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히데요시의 사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선조와 參政 王士琦의 대화에서 두 사람은 히데요시 사망설에 대해 믿을 소리가 못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宣祖實錄』 卷103, 宣祖 31年 8月 17日 庚午).

29) 北島万次, 2017, p.774.

군과 조선군의 전투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정유재란기 일본군은 사천지역을 대대적으로 요새화하였다. 일본군은 기존에 있었던 사천 읍성과는 별도로 히데요시의 지시에 따라 사천 읍성 서남쪽에 왜성을 신축하고 요새화했다. 모리 요시나리[森可成], 조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 元親], 시마즈 도요히사[島津豊久], 나카가와 히데나리[中川秀成], 아키즈키 다네나가[秋月種長],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등이 축성을 담당했고, 12월에 거의 완성한 성을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인도했다.³¹⁾ 이곳에 주둔한 이후 일본군은 인근 지역들을 약탈하며 조명연합군과 교전을 벌였다.³²⁾

이때 새롭게 축조된 왜성은 오늘날의 선진리왜성, 즉 사천왜성으로, 명 측 사료에는 기존의 故館, 즉 사천읍성과 구별하여 新塞로 기술된 곳이다.³³⁾ 이 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토성인 通洋倉城, 즉 통양성을 근간으로 쌓은 성으로, 전체 규모는 사방 500m 정도였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동서 250m, 남북 200m 정도이다. 여타 왜성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天守臺를 갖추었으며, 주곽은 모두 석축이었다. 통양성의 유구를 사용해서 축성했기 때문에 광대한 외곽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⁴⁾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慶尙道 泗川縣.

31) 太田秀春, 2019, “사천왜성을 통해 본 한일관계: 왜성에서 船津공원으로”,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서울: 푸른역사, p.333.

32) 이상훈, 2006, pp.272~273.

33) 일본군은 사천읍성을 舊城·古館으로 불렀다. 시마즈는 1597년 10월부터 2개월 정도 사천읍성을 본진삼아 주둔했다(太田秀春, 2019, pp.338). 그리고 『난중잡록』은 동일원의 패전 장소를 法叱島로 기술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법질도가 곧 선진임이 밝혀진 바 있다(『亂中雜錄』 3, 戊戌年 9月 26日; 李章熙·成大慶·申解淳,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 19호(1989), p.171).

34) 太田秀春, 2019, pp.333~335; 이형재,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研究”, 동아대 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32~33.

현재는 간척으로 인해 주변이 모두 육지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동쪽 면만 육지로 통하는 지형이었다.³⁵⁾ 성의 규모는 여타 왜성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일본군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해자를 구축하고 성 아래쪽에 함대를 정박시켜 후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요새를 구축했다.³⁶⁾ 여기에 더해 시마즈는 永春·望津·旆州·사천읍성·昆陽에 支城, 즉 성 밖에 별도로 축성한 작은 성을 설치하여 이 진영들이 서로 구원할 수 있도록 했다.³⁷⁾

이곳을 공격하는 조명연합군의 전략적 의도에 관해서는 먼저 유성룡이 1598년 초에 올린 상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⁸⁾ 그에 따르면 경상우도 지역은 울산성 전투로 병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공백지대가 되어 일본군의 활동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일본군은 주변에 진영을 구축하면서 다시 점차적으로 진격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유성룡은 조선군을 증원해서 진주와 사천의 일본군을 몰아내면 조선군이 岐江과 鼎津을 경계로 지킬 수 있게 되고, 이에 후방의 백성들을 불러 생업에 종하게 하면 진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유성룡의 의도는 사천 지역 공략을 통해 조명연합군이 영남 내

35) 1912~1916년간 육지측량부에 의해 작성된 『朝鮮半島五万分之一地圖』를 보면 개간되기 전의 지형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36)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242.

37) 『征韓偉略』 卷5. 『萬歷三大征考』는 김해와 고성을 좌우익으로 삼고, 가운데로는 東陽倉으로 통하도록 축조되었다고 기술했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242). 해당 요새들 가운데 永春의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망진을 함락한 후 동쪽으로 병사를 나누어 보내 영춘을 함락시켰다는 『양조평양록』의 기록을 감안하면 망진과 사천읍성의 동쪽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2)

38) 『西厓集』 卷6, 「承有旨處置道內軍民後上去狀」. 정확한 시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辰巳錄』에 1598년 1월에 올린 상소 뒤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륙지역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일본군을 해안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도 사천을 조명연합군이 목표로 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울산성 전투가 끝난 후 조선에 주둔하던 다이묘들은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를 통해 가토를 서생포로, 고니시를 사천으로, 시마즈 요시히로를 固城으로 옮겨 공격을 받을 때 서로 구원이 용이하도록 전선을 축소해 줄 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건의했고, 그 근거로 순천이 큰 강 너머에 있어 길이 끊겨져 수륙 양면으로 가세하여 공격하면 방어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³⁹⁾ 다이묘들의 건의는 만일 조명연합군이 일본군 주둔 지역의 중앙 부분인 사천 공략에 성공하면, 섬진강을 경계로 일본군은 동서로 분리된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제안에 대해 ‘言語道斷’이라며 단번에 거절했고, 대신 조명연합군이 다시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하여 각 성에 비축된 군량의 양을 늘려서 개별 전선의 방어력을 높이도록 지시한다.⁴⁰⁾

다. 양측의 군세 및 구성

공격에 나서는 조명연합군의 규모는 제독 동일원이 지휘하는 명군 2만 6,800명과 경상우병사 정기룡 휘하 조선군 2,200여 명⁴¹⁾을 합하여 2만 9천 명이었으며, 구성은 【표 1】과 같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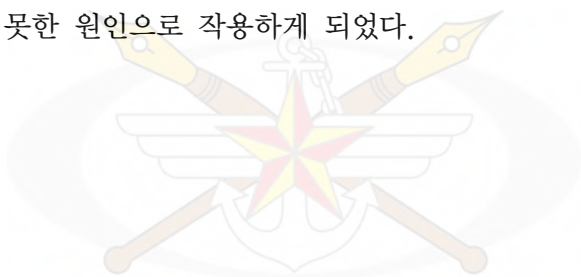
39) 北島万次, 2017, pp.910~911. 주목할 것은 이 건의에서 진지를 옮겨달라고 거론된 지명들이 모두 사로병진 작전의 격전지였다는 점이다.

40) 기타지마 만지 지음, 김유성·이민웅 옮김, 2008, pp.234~235; 中野等, 2006, pp.346~347.

41) 『매천실기』에는 1598년 초 명의 부총병 李梈이 함양군 사근역에서 전투 도중 전사했는데, 그의 소속 병사들이 정기룡에게 예속되길 원해서 명 조정이 특별히 정기룡을 禦倭總兵官으로 임명해서 명군을 지휘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梅軒實』

다.⁴²⁾ 이 표에 의하면 조명연합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명군은 주로 요동과 대동 등 北兵으로 이루어진 기병과 절강 출신의 南兵과 대동·준화의 北兵이 혼합된 보병으로 구성되었다. 편제상으로는 동일원 휘하의 혼합부대였지만, 실제 전투에서 휘하 부대는 직속 지휘관의 지휘에 좌우되었다.⁴³⁾

출신과 원적이 확인되는 명군 장수들을 보면, 모국기를 제외한 많은 장수들이 만리장성 변경에서 북방민족을 상대하던 장수들이었다. 또한 조승훈과 섭방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유재란 때 처음 조선에 파병되었다. 이는 실제 전투에서 북방 유목민족과는 다른, 보병중심의 전술을 구사하는 일본군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記』卷1, 「年譜」). 시점과 장소, 직책을 보면 해당 기록에서 말하는 부총병은 李寧으로, 요동의 기병 2천기를 이끌고 파병되었다가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1598년 4월에 전사했다(『象村集』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宣祖實錄』卷99, 宣祖 31年 4月 20日 甲戌). 그런데 1598년 5월 2일 선조와의 대화에서 조승훈은 경리, 즉 양호가 성주 방면에 이 총병이 전사하여 의지할 곳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南下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였다(『宣祖實錄』卷100, 宣祖 31年 5月 2日 丙戌). 조승훈과 이령 두 사람 모두 이성량 가문 휘하에서 요동의 군사를 지휘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조승훈이 이령의 군사를 지휘하도록 파견되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정기룡을 총병관에 임명하고 명군을 그에게 예속시켰다는 기록은 『매헌실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후대에 편찬하는 과정에서 첨언된 것으로 보인다.

42) 『宣祖實錄』卷105, 宣祖 31年 10月 12日 甲子; 『象村集』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중로군의 구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象村集』과 『宣祖實錄』의 기록을 대조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근사치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43)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明軍의 구성과 朝·明聯合軍”, 『한일관계사연구』 57호 (2017), pp.149~150.

【표 1】조명연합군의 군세 및 구성

성명	출신	원적	직책	병력	파병 시점
董一元	宣府前衛	宣府	禦倭總兵	騎兵 5,000	1597년 12월
李寧	遼東鐵嶺衛	遼東	副總兵	騎兵 2,000	1592년 12월 (1598년 4월 전사)
祖承訓	寧遠衛	遼東	副總兵	遵化, 步兵 7,000	1592년 6월
茅國器	浙江紹興衛	浙江	游擊將軍	浙兵, 步兵 3,100	1597년 9월
葉邦榮		薊鎮	游擊將軍	浙兵 1,500	1592년
盧得功			游擊將軍	騎兵 3,000	1597년 11월
彭信古	武昌府江夏縣		游擊將軍	步兵 3,000	1598년 5월
郝三聘	大同府平虜衛	大同	游擊將軍	騎兵 1,000	1598년 8월
師道立	大同右衛	大同	游擊將軍	步兵 2,480	1598년 5월
馬呈文	宣府右衛	宣府	游擊將軍	騎兵 2,000	1598년 8월
柴登科		遵化	游擊將軍	騎兵 1,350	1597년 9월
藍芳威	江西饒州府江西縣	江西	游擊將軍	南兵 3,300	1598년 1월
편제상: 기병 14,350명, 보병 20,380명, 합계 34,730명 실제 인원: 합계 26,800명					
鄭起龍	昆陽	慶尚右道	兵馬節度使	步兵, 騎兵 2,200	-

* 출처: 『象村集』 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이런 조명연합군에 맞서는 일본군은 시마즈[島津] 가문이 지휘하는 사쓰마 번의 병력이었다. 정유재란 당시 시마즈 가문은 총 인원수로는 히데요시가 계획했던 1만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했는데, 구성은 【표 2】와 같다.⁴⁴⁾

【표 2】일본군의 군세 및 구성

소 속	馬 匹	人 員
시마즈 씨 직속	272	12,433
시마즈 모치히사[島津以久]	9	332
이쥬인 타다무네[伊集院忠棟]	69	2,332
합계	350	15,097

* 출처: 『島津家文書』刊本 964, 「唐入軍役人数船数等島津家分覺書」

형식적으로는 시마즈 타다츠네[島津忠恒]가 시마즈 가문 밑 가신 이쥬인[伊集院] 가문의 군대를 지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인 5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명목상 사령관이었던 시마즈 타다츠네 소속 외에도 별도로 시마즈 요시히로, 요시히사[義久] 형제의 군단이 존재했고, 또 카마쿠라 막부 시대에 시마즈 본家로부터 갈라져 나와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던 이쥬인 가문의 타다무네, 혼고우[北郷] 가문의 미츠히사[北郷三久]가

44)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마즈에게 정유재란을 위해 차출하도록 계획한 병력은 1만 명이었다(北島万次, 2017, pp.450~452). 하지만 1593년 5월에 영지의 일부를 몰수당했던 시마즈 가문으로서 히데요시 정권에게 충성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에 건너왔던 것이다(中野等, 2019, “정유재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세 판단과 정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서울: 푸른역사, pp.88).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 참가한 뒤 시마즈는 8월에 남원성 전투에 참가했고, 부여까지 북상했다가 남하해서 사천읍성에 주둔하다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선진리왜성에 입거했다(北島万次, 『壬辰倭乱と秀吉・島津・李舜臣』, 東京: 校倉書房, 2002, pp.69~78). 참전 후 산발적인 교전을 제외하면 시마즈가 크게 병력을 잃을만한 패전이 없었기 때문에, 1598년 9월 말 사천 전투 당시 사천성 부근에 집결한 일본군의 군세는 1만 5천 가량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거느리는 군단이 별도로 존재했다.⁴⁵⁾ 실제적인 지휘는 타다츠네의 아버지 요시히로가 총괄했다.

이들의 군세는 1만 5천 명 정도였지만, 실제적인 전투 병력은 아시가루에 붙은 인부[夫丸] 1,900명과 여타 인부 2,665명, 선원[加子] 2천명을 제외하면 8천 5백여 명 정도였다.⁴⁶⁾ 이 군세가 사천왜성 본성에 주둔하는 시마즈의 본대 1만 명을 중심으로 사천왜성과 지성에 분산되어 주둔하고 있었다.⁴⁷⁾

양측 모두 독립된 군단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적으로는 조명연합군이 일본군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출신과 원적이 제각각인 부대들로 구성된 조명연합군에 비해, 같은 사쓰마 현 출신으로 구성된 일본군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3. 전투의 전개

사천 전투는 사로병진 작전의 시작과 함께 개시되었다. 먼저 조선 수군과 합류한 진린을 제외한 나머지 사로대장은 8월 18일 작전개시를 위해 한양을 출발했다.⁴⁸⁾ 이 중 사천 지역을 공격하기로 한 중로군은 동일원의 지휘 하에 경상우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9월 7일부터 내린 비로 하천이 넘쳐 조명연합군의 진격은 지체되었다.⁴⁹⁾

45) 村井章介, 1998, pp.5~8.

46) 北島万次, 2017, pp.322~324.

47) 東郷吉太郎 編, 1918, p.104.

48) 진린이 조선수군에 합류한 것은 7월 16일이었다(『李忠武公全書』卷9, 「行錄(從子正郎芬)」). 『宣祖實錄』卷103, 宣祖 31年 8月 18日 辛未.

49) 『宣祖實錄』卷104, 宣祖 31年 9月 15日 丁酉.

조명연합군은 9월 18일이 되어서야 성주와 고령을 거쳐 진주로 진격했고, 19일에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망진성을 마주하여 포진했다.⁵⁰⁾ 유격 모국기는 일본군의 형세가 긴 뱀[長蛇]과 같아 머리를 부수면 파죽지세로 격파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의 말에 따라 조명연합군은 20일 남강에 주둔한 일본군을 습격하여 이들을 퇴각시키면서 수급 7급을 베고 포로 4백 명을 색환했다.⁵¹⁾ 진주성과 남강 마주 건너 위치한 망진성에 주둔하고 있던 데라야마 히사카네[寺山久兼]가 2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조명연합군의 도강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조명연합군은 가볍게 일본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강을 건너 망진의 요새를 함락했다.⁵²⁾ 이날 오후 동일원은 병력을 나누어 보내 동쪽의 영춘성을 함락했고, 이어서 21일에는 5경, 즉 새벽 4시에 교전을 벌인 끝에 서쪽의 곤양을 함락시켰다.⁵³⁾

조명연합군은 서로군과 진군을 맞추기 위해 7일가량 주둔하다가 다시 진격을 개시하여 28일 사천에 이르렀다.⁵⁴⁾ 카와가미 타다자네[川上忠實]가 이끄는 300명의 일본군이 舊館, 즉 사천읍성에서 조명연합군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150명의 전

50) 『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51) 『宣祖實錄』 卷104, 宣祖 31年 9月 25日 丁未. 『양조평양록』은 이 때 망진의 일본군 군영에 있던 명나라 사람 郭國安이 명군에게 내용해서 일본군의 군영에 불을 질렀고, 그 틈을 타서 조명연합군이 강을 건너 일본군을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0~172).

52) 『征韓偉略』 卷5. 가와가미 히사쿠니는 3백 명이라고 하였다(東郷吉太郎 編, 1918, pp.54~55).

53)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2~173 참고. 곤양의 위치를 감안하면 영춘성을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견대를 파견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신흠은 동일원이 휘하의 健騎를 보내 12급을 베었다고 하였다(『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54) 신흠은 이때 동일원이 서로군의 소식을 기다리며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장수들이 결전을 주장하자 정기룡을 선봉으로 삼아 진격했다고 한다(『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사자를 내고 사천성으로 퇴각했다.⁵⁵⁾ 이 과정에서 명군 유격 노득공이 조충에 맞아 전사했지만⁵⁶⁾,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수급 80여 급을 거두는 전과를 올렸다.⁵⁷⁾

9월 29일 조명연합군은 사천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모국기는 동일원에게 사천성과 서로 구원 위치에 있는 고성(高城)의 병력이 적으니 고성을 먼저 공격한 뒤 사천성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다.⁵⁸⁾ 그러나 동일원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사천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⁵⁹⁾ 가와카미 히사쿠니는 이날 조명연합군이 팻말에다 10월 1일 진시, 즉 오전 7시~9시부터 성을 공격하겠다고 써서 성 앞에 세워놓았고, 10월 1일에 그 말대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록했다.⁶⁰⁾

『만력삼대정고』와 『무비지』를 비롯한 명 측 사료들은 대부분 이 때 동일원이 초전의 승리로 인해 적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사천왜성을 곧바로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들

55) 『征韓偉略』 卷5;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4日 丙辰. 『宣祖實錄』에서 접반사 이충원은 일본군의 규모를 4백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56) 『兩朝平壤錄』에 의하면 노득공이 기병으로 일본군에게 돌격했으나 조충에 맞아 전사하고, 보병이 역전해서 일본군이 패주했다고 한다. 『兩朝平壤錄』은 이때 大同의 기병을 이끌던 이령도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총병 이령이 매복에 걸려 전사한 것은 사천 전투가 벌어지기 전인 1598년 4월의 일이고, 그가 이끌던 병력은 대동의 기병이 아니다. 한자까지 같은 同名異인이 있었기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3; 『象村集』 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57) 『상촌집』은 조명연합군이 수급 130급을 참했다고 하고 있으며, 『매현실기』는 방어하던 일본군 5백 명을 거의 섬멸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보다 과장된 수치로 생각된다(『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梅軒實記』 卷1, 「年譜」).

58) 이형석은 이때 정기룡도 모국기와 동일한 제안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매현실기』를 제외하면 여타 사료들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梅軒實記』 卷1, 「年譜」; 이형석, 1967, p.1096).

59)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4-175.

60) 東郷吉太郎 編, 1918, p.57.

또한 동일원의 안이한 적정 판단을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⁶¹⁾ 그러나 단순히 동일원의 안이한 판단을 지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당시 조명연합군이 파악한 일본군의 규모는 사천현 7~8천 또는 1만여 명, 고성현 6~7천 명이였다.⁶²⁾ 조명연합군이 파악한 고성현에 주둔한 일본군의 규모는 모국기의 제안처럼 고성을 단시간에 함락시킬 수 있는지 동일원이 의심하기 충분한 수치로 생각된다. 또한 고성은 사천의 동남쪽에 있는데, 성주-진주-곤양-사천읍성 선로를 통해 내려온 조명연합군이 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사천왜성의 일본군은 조명연합군의 측면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이 위협을 막기 위해 병력을 분산하기에는 2만 9천여 명이라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에 일본군을 절대적으로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당시 조명연합군의 군량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로병진 작전 준비 기간부터 조명연합군은 군량보급 문제에 시달렸다.⁶³⁾ 그리고 공격에 나선 시점에도 조명연합군의 군량 보급은 여유로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⁶⁴⁾ 8월 6일자

61) 특히 『武備志』에 모국기의 제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모국기와 같은 가문 출신이었던 저자 茅元儀가 모국기를 옹호하기 위한 논조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兩朝平攘錄』은 팽신고가 “내가 직접 왜적의 정세를 살펴보니, 성안에서 밥 짓는 연기가 많이 오르지 않는바, 성채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일원을 부추겼다고 기록하고 있다(『武備志』卷239, 「朝鮮考」;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4-175). 사천 전투에 관해 기존의 패전 원인 연구는 이형석, 1967, p.1099; 이상훈, 2006, p.283; 제장명, 2020, pp.202-203 참고.

62) 『宣祖實錄』卷104, 宣祖 31年 9月 28日 庚戌.

63) 오호성, 2017, 『임진왜란과 조명일의 군수시스템』, 경인문화사, pp.102~109.

64)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宣祖實錄』卷105, 宣祖 31年 7月 庚寅의 기록을 인용해 전라도의 水陸官兵 3만 명에게 1달에 소요되는 곡식이 8천여 석이고, 이를 통해 군사 1만 명이 1달에 2,700석의 군량을 소비한다고 추산해서 사로에 지급되던 군량이 제대로 이송되었다면 군량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사를 검토하면 1만 8천 석이고, 다시 계산하면 군사 1만 명

자문에 의하면 2만 1천여 명의 병력과 말 7,700필을 보유한 중로군에게는 매월 총 1만 6,380석의 쌀과 콩이 필요했는데, 사천성을 공격할 시점에 조명연합군의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난 2만 9천 명 정도였다.⁶⁵⁾ 그런데 이때 조명연합군이 비축한 식량은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에 의하면 2천 석, 『난중잡록』에 의하면 2만 석이었다.⁶⁶⁾ 10배 차이가 나는 수치이고, 『난중잡록』의 숫자는 공식 기록이 아니기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해도 조명연합군의 군량 비축량은 1달치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동일원의 판단으로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이 일본군에 비해 압도적이지도 않고, 보급도 장기전을 하기에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감안하면 동일원은 사천왜성을 두고 고성을 먼저 공격하는 제안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성이 높은 작전이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천왜성을 공격하던 시점까지는 그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때까지는 조명연합군의 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0월 초 1일, 동일원은 보병과 기병을 나누어 사천성을 협공했다. 보병유격 모국기, 섭방영, 팽신고가 이끄는 3명의 군사들이 전면에서 공격하고, 기병유격 학삼빙, 마정문, 사도립, 시등과가 지휘하는 4명의 군사들이 좌우로 나누어 후방에 매복해서 응원했다. 보병유격 남방위가 동북쪽의 수문을 공격했고, 부장 조승훈이 포위공격의 후군을 맡았다.⁶⁷⁾ 남병을 주력으로 한 보

이 1달에 소모하는 군량은 쌀만 6,000석이 된다. 이송이 제대로 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인 군사작전을 계획하기엔 무리한 양이라고 판단된다.

65) 『事大文軌』 卷28, 「整飭遼陽寬奠等處海防兵備兼朝鮮中路監軍梁(祖齡)咨朝鮮國王(梁參議查催兵糧)」(萬曆 26年 8月 6日).

66)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0日 壬戌: 『亂中雜錄』 3, 戊戌年 9月 26日.

67)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242-243.

병이 공성전의 주된 공격을 맡고, 북병으로 구성된 기병이 좌우에서 후원하는 형태의 포진이었다.

이에 맞서 시마즈의 일본군은 수성전으로 맞섰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대부분의 병사들을 사천왜성에 집결시켰다. 그는 여러 차례 성 밖으로 나가 결전을 벌이자는 아들 시마즈 타다츠네의 주장을 거절하고 성문을 닫고 조명연합군에게 조총사격으로 대응했다.⁶⁸⁾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사격에 대응하며 북문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다.⁶⁹⁾ 모국기와 섭방영은 卯時(오전 5시~7시)부터 巳時(오전 9시~11시)까지, 팽신고는 辰時(오전 7시~9시)부터 未時(오후 1시~3시)까지 공격을 지속했다.⁷⁰⁾ 치열한 공격 끝에 조명연합군은 木槓과 같은 공성무기와 大將軍砲를 이용하여 성문 한쪽과 성벽 몇 곳을 파괴하는데 성공했다.⁷¹⁾

이때의 상황에 관해 후치노베 모토자네는 조명연합군이 20만 명인 반면, 시마즈의 일본군은 2천 명에 불과하여 “그 어려움을 붓과 종으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더 이상의 방어가 어려워 일전을 준비했다고 회고했다.⁷²⁾ 그의 기술은 양측의 병력 기술에 보이듯이 과장이 심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68) 東郷吉太郎 編, 1918, pp.201-205; 北島万次, 2017, p.1010.

69)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367.

70) 가와카미 히사쿠니의 표현에 따르면 조총이 뜨거워져 수건에 물을 적서 조총을 닦아도 식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고 한다(東郷吉太郎 編, 1918, p.58).

71)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5, 243 참고. 스위프는 木槓을 공성추(battering ram)로 해석했다(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p.270). 그러나 당시 조명연합군의 화약무기가 일본성의 석축을 무너뜨리는데 역부족이었던 것과 목적을 뽑았다(拔柵)는 『명사』 ‘조선열전’의 기록을 종합하면 성벽 외곽의 목책 일부를 부순 정도였을 것이다(『宣祖實錄』 卷96, 宣祖 31年 1月 丁亥; 『明史』, 「列傳」 第208 ‘朝鮮列傳’ 참고).

72)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367.

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마즈가 조명연합군의 허점을 노리고 일전을 결심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허점은 명군 진영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겼다. 성을 공격하던 명군 진영에서 화약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폭발로 인해 생긴 화약 연기가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명군은 혼란에 빠졌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천성의 일본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성문을 열고 명군을 급습했다.

이때 명군 진영에서 벌어진 화약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들이 일관되지 않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조실록』에 기재된 조선 측의 보고에서는 모국기의 진영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⁷³⁾ 하지만 孫衛國이 지적했듯이, 명 측의 기록과 『선조실록』의 史評을 종합하면 사고가 일어난 진영은 팽신고의 진영이 맞다.⁷⁴⁾

그 다음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의 문제이다. 『난중잡록』은 일본군이 약세를 보이며 명군을 끌어들인 후, 염초 몇 섬을 가져다 몰래 성밖에 묻어놓고 옆으로 구멍을 뚫어 불을 가지고 잠복하게 한 뒤, 거짓으로 패하는 척 명군을 유인하고는 불을 붙여 조명연합군의 혼란을 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⁵⁾ 반면에 명측의 기록인 『양조평양록』과 『만력삼대정고』는 공성무기의 화약이 폭발했다고 증언하는데, 특히 『양조평양록』은 팽신고 진영의 군기 해이 및 훈련부족을 지목하고 있다.⁷⁶⁾

일본군의 기록은 여기서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본군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증언이 엇갈린

73) 『宣祖實錄』 卷105, 宣祖 32年 10月 8日 庚申; 10月 10日 壬戌. 각각 군문도감과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의 보고이다.

74) 孫衛國, 2017, pp.246~247; 『宣祖實錄』 卷110, 宣祖 32年 3月 7日 丙戌.

75) 『亂中雜錄』 3, 戊戌年 9月 26日.

76)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5, 243.

다. 오시게 헤이로쿠는 많은 적군 속에 있는 화약 항아리에 불을 넣었다고만 하고 있다.⁷⁷⁾ 반면 가와카미 히사쿠니는 명군이 성을 불태우려고 마련한 화약 항아리를 철포로 쏘아 부수었고, 이에 불이 들어가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⁸⁾ 이 기록대로라면 명군의 화약사고는 『난중잡록』이 증언한 것처럼 시종일관 치밀하게 계획해서 벌인 것이 아니라, 명군이 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인 약점을 일본군이 우연히 포착한 것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사고가 우연히 났다는 것이다. 후치노베 모토사네에 의하면, 결전을 준비하던 터에 명군 진영에 놓여있던 화약통 가운데 하나에 불이 날아들었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고 한다. 그는 이 증언에 덧붙여 앞서 붉은색 여우와 흰색 여우가 성에서 조명연합군의 진영으로 달려 나갔고,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 일본군이 용기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⁷⁹⁾ 이 기록은 사고가 우연히 났다는 명 측 기록과 거의 유사하지만, 신령의 가호를 받았다는 식의 神異적 이야기가 첨언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⁸⁰⁾

일본측 기록이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공과 지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군 진영의 화약 사고와 관련하여 시마즈의 계책이나 이를 강조하는 서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화약사고가 일본군의 사전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는 기록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⁸¹⁾

77) 北島万次, 2017, p.1010.

78) 東郷吉太郎 編, 1918, p.57.

79)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續群書類從(第20輯下)』, p.367.

80) 이는 시마즈 가문의 조상인 시마즈 타다히사(島津忠久)를 구해주었던 스미요시(住吉) 신이 자신의 使臣인 여우를 보내 시마즈 군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첨부된 것이다(김시덕 지음, 『그들이 본 임진왜란』, 서울: 학고재, 2012, pp.203~204).

81) 시마즈 가문의 무공을 중심으로 사쓰마 번의 正史를 편찬하고자 시도했던 『島津國史』에서도 시마즈가 조명연합군을 상대로 화약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렇게 계획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島津國

결과적으로는 팽신고의 진영에서 일어난 화약 사고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고를 일본군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화약 폭발 사고를 근거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⁸²⁾ 분명한 것은 훈련도가 낮았던 팽신고의 부대에서 발생한 화약 폭발 사고로 인해 조명연합군에게 허점이 생겼고, 일본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⁸³⁾ 여기에 조명연합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승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혼란에 빠진 조명연합군의 진영을 습격했고, 여기에 고성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이 도착하여 협공했다.⁸⁴⁾ 사고로 인해 혼란 상태에 있던 팽신고의 진영은 그대로 패주했고, 공황이 퍼지면서 학삼빙과 마정문의 기병도 덩달아 도주했다. 모국기와 섭방영은 분전했지만 증원병이 합세해서 전세를 가다듬은 일본군의 공격에 사상자가 늘어났고, 10리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던 남방위 또한 퇴로가 끊어지게 되자 후퇴하게 되었다.⁸⁵⁾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지원해야 할 동일원이

史』卷21). 더욱이 孫衛國이 지적했듯이, 『난중잡록』을 제외한 여타 조선측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약사고를 일본군이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기록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린다(孫衛國, 2017, p.241).

82) 이상훈은 일본군의 전략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화약사고에 대한 『亂中雜錄』의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난전 중의 승리를 후대에 서술하는 과정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 또한 제시하였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기록을 검토하지는 않았다(이상훈, 2006, pp.283~284).

83) 일본군의 기록에 의하면 폭발 사고가 명군의 취급 부주의 또는 일본군의 공격에 노출된 곳에 화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리이다. 어느 쪽이건 명군의 훈련도가 낮아 화약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수렴한다.

84)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243.

85) 오시게 헤이로쿠는 명군을 공격하면서 일본군도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었는데, 시마즈 다다나가(島津忠長) 등이 합세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北島

제시간에 맞춰 지원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조명연합군의 중로군 전체가 패주하게 되었다.⁸⁶⁾

이때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린 監察御史 陳效는 海防道右參議 梁祖齡의 보고를 인용했는데, 양조령은 패전의 원인에 대해 “온 군대가 모두 출전하는데 老營, 즉 본영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병과 보병이 일제히 공격함에 모두 후원병이 없었다.”고 하며 계책이 허술했다고 비판하였다.⁸⁷⁾ 그의 말대로 화약 사고가 생긴 틈을 타서 일본군이 역습으로 나오자, 명군은 부대 간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도주했다.

이때 명군이 부대 간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무너졌던 것은 명군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각 장수들의 휘하 병력은 사실상 그들의 사병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자산이 되는 병력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조적으로 싸울 동기가 별로 없었다.⁸⁸⁾ 때문에 여러 병력이 혼합된 구성으로 이루어진 명군은 유대감이 낮았고, 그 결과 일본군의 역습에 제각기 도주해버렸다.⁸⁹⁾ 반면 일본군도 연합부대의 성격이 있었지만, 모두 사쓰마 지역 출신으로 동질성은 조명연합군보다 높았다.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는 일본군 장수들 가운데서도 명성이 높았고, 그의 병력은 당시 일본에서도 높은 전투력으로 유명한 정

万次, 2017, p.1010).

86)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5.

87) 『宣祖實錄』卷105, 宣祖 31年 10月 17日 己巳. 진효는 여기에 덧붙여 장수들이 “끝내 머리를 싸쥐고 귀처럼 도망쳤다.”며 비판했다.

88) 軍戶制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군제가 붕괴되면서 명의 장수들은 병사들을 모집해 급료를 지불하고 훈련시켜 전투에 나갔고, 이 부대는 家軍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사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레이 황은 戚繼光이 이끌던 戚家軍만 거론하였지만, 실제로는 俞大猷가 지휘한 俞家軍과 같이 다른 장수들의 병력 또한 “家軍”으로 지칭된 사례가 있다(『明史』, 「列傳」卷212, 「列傳」第100 ‘俞大猷列傳’; 레이 황 지음, 김한식 외 옮김, 『1587,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서울: 새물결, 2004, pp.279~280).

89) 김경록, 2017, pp.149~150.

예병이었다.⁹⁰⁾ 조명연합군과는 달리 일본군은 알맞은 시간에 부대 간 상호지원을 구축해서 싸웠다.⁹¹⁾

일본군의 역습으로 패주하는 과정에서 조명연합군은 중간에 병력을 수습할 거점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패배에도 성주까지 후퇴해야 했다.⁹²⁾ 종로군은 날이 다하도록 사천-합천-성주에 이르는 길로 후퇴했고, 일본군은 망진까지 조명연합군을 추격했다.⁹³⁾ 전투는 申時, 즉 오후 3시~5시 무렵 끝났지만, 조명연합군은 추위 속에 산길을 따라 퇴각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추가로 잃었다. 퇴각 도중에 모국기는 병력을 수습해서 남강의 도하 지점인 망진을 방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동일원은 이곳이 고립된 지점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모국기의 제안을 거부하고 성주로 퇴각했다.⁹⁴⁾

4. 사천 전투의 패인 및 영향

가. 사천 전투의 패전 원인

결과적으로 사천 전투의 패전은 조명연합군이 우세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방심으로 패전한 전투라고 보기 어렵다. 조명연합군의 전력은 수적 우위에 있긴 했지만, 철저히 요새화된 왜성을

90) 『看羊錄』,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91) 『島津国史』 卷21.

92) 뒷날 差官으로 일본에 갔던 河應潮와 汪洋은 이날 명군이 250리를 후퇴하고 나서야 진영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海上錄』 卷1, 己亥年 6月 19日).

93)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369; 『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94)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6.

지키고 있는 일본군을 압도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 왜성처럼 잘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의 전력은 일본군의 2배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혼합군으로 구성된 명군의 전력은 동질성이 낮았고, 병력에서 큰 비중을 가진 북병으로 구성된 기병은 왜성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전력이 아니었다. 여기에 총사령관 동일원을 비롯한 많은 주요 지휘관들이 정유재란 때 처음 조선에 파병된 인물들이었고, 이들에게는 일본군이나 왜구를 상대했던 경험이 부족했다.⁹⁵⁾ 단순히 동일원의 안일한 판단으로 패전했다고 하기에 조명연합군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일본군은 조명연합군을 상대하면서 노련하게 대응했다. 『난중잡록』의 기록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화약 사고를 조장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최대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며 반격을 가할 틈을 노렸다. 마침 명군 진영에서 화약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일본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부대 간의 협조체계를 이루어 모국기와 섭방영의 명군을 공격했다. 반면 조명연합군은 초반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화약 폭발 사고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군의 역습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다.

사천성의 패전에서 조명연합군이 입은 피해는 컸다. 비록 조선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추측되지만, 문제는 주력이었던 명군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만 7천 명 이상의 전사자에 3~4백

95) 마귀는 동일원을 놓고 “처음으로 와서倭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일본군의 정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조였지만, 동일원의 경력을 놓고 보면 사실성이 높은 발언이었다(『明史』卷239, 「列傳」第127 “董一元列傳”; 『宣祖實錄』卷103, 宣祖 31年 8月 15日 戊辰).

여 명의 포로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증로군 전체 병력의 1/4이 넘는 병력을 한 번의 전투로 잃어버린 대패였다.⁹⁶⁾

나. 패전의 영향

사천 전투의 패배 소식은 서로군과 동로군이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사로병진 작전의 주요 전제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전면적 공격으로 주요 거점에 위치한 일본군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증로군이 사천 방면의 패배와 함께 후퇴하면서 사천에 주둔한 일본군이 여타 전선의 일본군을 구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⁹⁷⁾ 수군을 제외한 3로군이 모두 후퇴하면서 조명연합군이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준비했던 사로병진 작전 자체가 실패하게 되었다.⁹⁸⁾

더 나아가 사천 전투는 일본군에 대한 명군 지휘부의 태도를 바꾸었다. 정유재란이 시작될 무렵 명군의 전쟁 수행 의지는 임

96) 조선군들의 지휘관들이 크게 처벌받지 않은데다 모국기가 정기룡에 대해 호평하며 그의 체직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보면 조선군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宣祖實錄』 卷108, 宣祖 32年 1月 20日 辛丑). 결국 명군의 피해가 관건인데, 동일원의 차관이 군문도감에 보고한 수치는 7~8천,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8日 庚申)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는 7천 명으로 보고하고 있고(『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0日 壬戌), 급사 서관란이 최종적으로 들은 숫자는 전사자 7천으로 기록되어 있다(『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24日 丙子). 그러나 유성룡과 오국성이 사망자를 만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다, 7천이라는 숫자도 사망자만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는 이보다 컸을 가능성이 있다(『西厓集』 卷16, 「記壬辰以後請兵事」; 『問月堂集』 卷3, 「壬辰日記 下」). 포로에 관한 내용은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23日 乙亥 참고.

97) 제장명은 서로군의 전의 상실에 초점을 두었지만, 작전의 주요 전제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사천에 주둔하던 시마즈의 일본군이 순천에 고립된 고니시의 일본군을 구원하려는 과정에서 노량 해전이 벌어진 것을 감안하면 서로군이나 동로군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상훈, 2006, pp.285-286; 제장명, 2020, pp.203-204.

98)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2日 甲子.

진왜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로병진 작전이 개시될 무렵까지만 해도 명군 지휘부는 일본군을 섬멸할 것을 강조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본군을 공격할 의사를 보였다.⁹⁹⁾ 그러나 사천 전투의 패배와 함께 사로병진 작전이 실패로 귀결되자 명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전투의 패배로 명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¹⁰⁰⁾

사천 전투 후 조선에 파견된 명군 수뇌부는 이전과는 달리 군량을 빌미로 퇴군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0월 27일 右參政 王士琦는 조선이 군량 수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숫자로 보고하여 명군이 며칠째 굶주리고 있으며, 식량이 없으면 퇴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선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연이어서 형개의 旗鼓官 張九經은 선조에게 형개와 진효의 의사를 선조에게 통보했는데, “대군이 굶주린다면 일찍 철수하여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며 군량을 빌미로 퇴군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이 군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있으며, 군대를 철수한다는 말까지 하였으니, 그(왕사기: 인용자 주)의 의향을 알 수 있다고 반응할 정도로 명의 태도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¹⁰¹⁾

마침 8월 18일 히데요시가 사망했고, 공식적인 일본군의 철군

99) 『宣祖實錄』 卷103, 宣祖 31年 8月 4日 丁巳; 17日 庚午; 『宣祖實錄』 卷104, 宣祖 31年 9月 2日 甲申. 특히 9월 2일 형개는 김명원과의 대화에서 히데요시의 사망 여부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전투가 벌어진 이상 廟殺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00) 사천 전투 이후 벌어진 노량 해전에서 승리한 후 형개는 시마즈 요시히로를 죽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 실제로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사하지 않았고 명군도 이를 알았지만, 그런 거짓말로 위신을 세워야 할 정도로 명군이 받은 충격이 컸던 것이다. 『明神宗實錄』 卷329, 萬曆 26年 12月 15日 丙寅; 『宣祖實錄』 卷108, 宣祖 32年 1月 20日 辛丑 참고.

101)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27日 己卯.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은 10월 1일 부산에 도착했는데, 조명 연합군이 사천에서 패한 바로 그날이었다.¹⁰²⁾ 여기서 전의를 상실한 명군과 일본군의 필요가 부합했다.

11월 1일부터 명군은 다시 남하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유정과 동일원은 형개의 허가 아래 강화교섭을 진행했고, 家丁을 인질로 보내 일본군의 퇴로를 보장했다.¹⁰³⁾ 겉으로는 “조각배[片船]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조선 측에 일본군을 공격한다고 하였지만, 조선이 이런 언행을 “스스로 해명하는 계책”으로 볼 정도로 공공연한 협상이 이루어졌다.¹⁰⁴⁾ 결국 중로군과 동로군은 18일, 서로군은 11월 19일에 별다른 교전 없이 일본군이 버려둔 빈 왜성을 점거하는데 그쳤다.¹⁰⁵⁾ 선조도 “왜적이 天兵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까닭 없이 일시에 물러갔지만 事勢로 헤아려 보건대 그럴 리가 없다. 실제로 天兵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반드시 天將이 甘言利說로 화친하자고 꾀어 물러가게 한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군의 철수는 사천 전투 후 서로의 필요가 부합한 일본군과 명군이 강화협상을 벌인 결과였다.¹⁰⁶⁾

102) 北島万次, 2017, p.1003. 해당 명령서는 조선·명측과 교섭해서 조선의 왕자가 인질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찮으면 공물로 대체해도 좋고, 그 밖의 구체적인 협상안은 현지의 판단에 맡긴다고 지침을 내렸다(北島万次, 2017, pp.977-978 참고).

103) 김경태, 2014, pp.242~244. 흔히 형개가 말한 명의 전쟁 수행 원칙이 “陽戰陰和, 陽剿陰撫”라고 해서 일본군과의 전투 의지가 크게 없었다고 거론되지만, 해당 발언의 시점은 1597년 8월이고, 정유재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 원칙이 시종일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明史紀事本末』 卷62 ‘援朝鮮’ 참고)

104)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6日 丁未.

105)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5日 丙午; 26日 丁未; 23日 甲辰. 이때 조명연합군이 올린 전과는 중로군이 사천성에서 얻은 일본군의 수급 2급과 서로군이 순천왜성에서 발견한 조선인 3명과 牛馬 4필이 전부였다.

106)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9日 庚戌.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천 전투의 결과가 사로병진 작전의 실패와 더불어 노량해전의 변수가 되었음을 거론한 바 있다.¹⁰⁷⁾ 여기에 더 나아가 사천 전투는 사로병진 작전을 실패로 끝나게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명이 별다른 교전 의사 없이 전쟁을 끝내고 싶게 했다는 점에서 벽제관 전투 못지않은 결정적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벽제관 전투가 임진왜란 초기 명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사천 전투는 정유재란의 막바지에 명군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유재란 막바지에 벌어졌던 사천 전투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패인을 분석하고, 전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논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조·명·일 3국의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1597년 말 울산 공격에 실패한 조명연합군은 1598년 2월 다시 대군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사로병진 작전을 구상했다. 일본군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기로 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전선의 중앙에 위치한 동시에 내륙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점인 사천이 작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598년 9월 말부터 동일원이 이끄는 2만 9천 규모의 조명연합군과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1만 5천가량의 일본군이 포진한 사천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107) 조명연합군의 패배로 순천 왜성에 고립된 고니시 유키나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이상훈, 2006, pp.285~286).

9월 20일 남강을 도하해서 망진의 요새를 함락시킨 조명연합군은 연이어 곤양과 영춘, 사천읍성을 함락하고 10월 1일 사천왜성 공격에 돌입했다. 여기까지는 조명연합군의 기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격 도중 훈련도가 낮았던 팽신고의 명군 진영에서 화약 사고가 일어났고, 전력을 보존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군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부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명연합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다.

패전의 원인에 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주로 초반의 승세로 사령관 동일원이 敵情을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을 패전 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의 실상은 단순히 사령관 한 사람의 안일한 판단보다 좀 더 근본적인 패전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공세로 나서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이 일본군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았다. 최소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했지만, 현실은 2배 정도에 불과했다. 둘째로 군량미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보급 문제로 인해 조명연합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급하게 사천왜성을 공격해야 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구성은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많은 명군이 일본군을 상대해본 적이 없는 북방의 기병이었고, 이들은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전력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명군 진영에서 벌어진 화약 사고를 노련한 일본군이 놓치지 않고 역습으로 나왔고, 조명연합군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패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조명연합군은 전체 전력의 1/4이 넘는 손실을 입고 패주했다.

사천 전투의 패배로 사로병진 작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명군 지휘부의 태도는 변했다. 겉으로는 일본군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보급 문제를 핑계로 철군을 거론하는 데서 보이듯이 명군

지휘부는 전의를 상실했다. 여기에 때마침 도착한 히데요시의 사망에 따른 철군 명령이 맞물리면서 명군은 일본군과 타협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결국 강화협상이 진행되었고, 수로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선의 명군은 일본군의 퇴로를 보장하면서 별다른 교전 없이 버려진 왜성을 점거하는 데 그쳤다.

사천 전투의 패전 원인과 영향은 정유재란 당시 조명연합군의 실상과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명연합군에게는 일본군을 섬멸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고, 이는 사천 전투의 패전으로 이어졌다. 패전 후, 한쪽으로는 공격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적은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생각이 명군 지휘부를 타협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사천 전투는 결정적 전투였다. 결국 수군을 제외한 명군 수뇌부의 묵인 아래 일본군은 철수했고, 조선과 명의 승리 아닌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

〈참고문헌〉

1. 사료

한국: 『朝鮮王朝實錄』, 『懲毖錄』, 『西厓集』, 『象村集』, 『月沙集』, 『看羊錄』, 『海上錄』, 『問月堂集』, 『大東野乘』, 『梅軒實記』, 『李忠武公全書』
 중국: 『明史』, 『明史紀事本末』, 『明神宗實錄』, 『兩朝平攘錄』, 『萬曆三大征考』, 『武備志』
 일본: 『豊臣秀吉譜』, 『島津家高麗軍秘錄』, 『征韓偉略』, 『島津国史』

2. 연구저서

허남린 · 김경태 ·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 완밍(萬明) · 천상승(陳尙勝) · 노영구 · 나동욱 · 도리쓰 료지(鳥津亮二) ·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서울: 푸른역사, 2019.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김유성 · 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서울: 경인문화사, 2008.
 김시덕 지음, 『그들이 본 임진왜란』, 서울: 학고재, 2012.
 레이 황, 김한식 외 옮김, 『1587,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서울: 새물결, 2004.
 정두희 ·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서강대학교, 2007.
 서인한, 『壬辰倭亂史』, 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 『한국연합작전사(삼국-조선 편)』,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국역 매헌실기』, 상주: 상주시, 1999.
 오호성, 『임진왜란과 조 · 명 · 일의 군수시스템』, 서울: 경인문화사, 2017.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이상훈, 『전략전술의 한국사-국가전략에서 도하전까지』, 서울: 푸른역사, 2014.
 이형석, 『壬辰戰亂史』, 서울: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 趙浚來,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성남: 아세아문화사, 2011.
- 趙浚來·北島万次·陈尚胜 외, 『韓中日共同研究 정유재란사』, 파주: 범우사, 2019.
- 최 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근세편』, 서울: 도서출판 문, 2010.
-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엮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엮음,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서울: 경인문화사, 2010.
- 東郷吉太郎 編, 『泗川新寨戰捷之偉蹟』, 東京: 薩藩史料調査会, 1918.
- 北島万次, 『壬辰倭乱と秀吉・島津・李舜臣』, 東京: 校倉書房, 2002.
- _____,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 3 一五九六~一五九八年』, 東京: 平凡社, 2017.
- 續群書類從完成會, 『續群書類從(第20輯下)』, 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東京: 吉川弘文館, 2006.
- _____, 『文祿・慶長の役』, 東京: 吉川弘文館, 2008.
- 参謀本部 編, 『日本戦史 朝鮮役』(全3卷) 東京: 偕行社, 1924.
- 黒田慶一 編, 『韓国の倭城と壬辰倭乱』 東京: 岩田書院, 2004.
- Samuel Hawley, *The Imjin War: Japan's Sixteenth-Century Invasion of Korea and Attempt to Conquer China*, Seoul: Royal Asiatic Society-Korea Branch, 2005
- Edited by James B. Lewis, *The East Asian War, 1592-1598: International Relations, Violence and Memory*, London: Routledge, 2017

- 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 Stephen Turnbull, *Samurai Invasion: Japan's Korean War 1592-1598*, London: Cassell, 2002

3. 연구논문

-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軍史』 100호(2016):67-118.
<http://doi.org/10.29212/mh.2016..100.67>
- , “정유재란기 파병 明軍의 구성과 朝·明聯合軍”, 『한일관계사 연구』 57호(2017):123-166.
<http://uci.or.kr/I410-ECN-0101-2018-349-001263422>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831879>
- 김광옥, “일본 에도시대 임진왜란 기록물에 대한 연구-島津氏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호(2006):1-32.
<http://uci.or.kr/G704-001560.2006..27.017>
- 박재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2권(2005):47-104.
- 孫衛國, “董一元與泗川之役略考”, 『新亞學報』 34(2017):231-258.
- 劉寶全, “중국학계의 임진왜란사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학보』 45(2011):181-206.
<http://uci.or.kr/G704-000690.2011..45.007>
- 이민웅, “朝·明 聯合艦隊의 형성과 露梁海戰 경과”, 『역사학보』 178호(2003):83-112.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860094>

- 이상훈, “정유재란 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총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0호(2006):263-296.
<http://uci.or.kr/G704-001262.2006..20.007>
- 이 욱, “순천 왜교성전투와 조선민중의 동향”, 『한국사학보』 54호(2014):191-219.
<http://uci.or.kr/G704-000690.2014..54.011>
- 李章熙·成大慶·申解淳,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 19호(1989):156-185.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8159>
- 이형재,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研究”,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http://uci.or.kr/G901:A-0005537202>
- 趙媛來, “정유재란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호(2003):213-237.
<http://uci.or.kr/G901:A-0001144317>
- _____,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호(2007):827-852.
<http://uci.or.kr/G704-000879.2007..27.058>
- _____,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韓國史學史學報』 26호(2012):5-60.
<http://uci.or.kr/G704-001549.2012..26.003>
-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사천성 전투의 경과와 의미”, 『이순신연구논총』 33호(2020):165-212.
- 村井章介, “島津史料로 본 泗川戰鬪”, 『남명학연구』 8호(1998):181-204.
<http://uci.or.kr/G901:A-0002081570>
- 崔斗煥,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성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http://uci.or.kr/G701:B-00099018508@N2M>
-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호(2011):331-368.
<http://uci.or.kr/G704-001395.2011..39.005>

한명기,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軍史』 38호 (1999):33-55.

<http://uci.or.kr/G901:A-0001362575>

_____,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6호(2015):477-523.

<http://uci.or.kr/G704-SER000012168.2015..36.013>



(Abstract)

The Re-examination of the Battle of Sachŏn-Focusing on the Cause of Defeat and its impact

Moon, Hyung-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Battle of Sachŏn in 1598, focusing on the cause of the defeat and the impact of the battle. This will help to reconstruct the battle and reveal the reality of the Imjin War.

After stopping the attacks of the early Japanese Second Invasion of Korea in 1597 (丁酉再亂), the Chosŏn-Ming allied forces launched a counterattack at Ulsan, but failed. Yang Hao (楊鎬) planned the Operation Advancing Four-ways to make up for the failure, and Sachŏn was selected as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operation. But the Japanese fortified this area in 1597, and 15,000 troops under the command of Shimazu Yoshihiro (島津義弘) were stationed around Sachŏn.

In September 1598, Dong Yiyuan's (董一元) 29,000 Chosŏn-Ming allied forces began to advance, capturing the support castles (支城) and approaching the Japanese castle at Sachŏn. At first, it seemed that the allied forces were superior, but the gunpowder explosion accident caused confusion, and the Ming forces were defeated with heavy losses due to the Japanese counterattack that took full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Although the explosion accident was decisive, the allied forces were also hampered by a fundamental limitation. Their military strength was insufficient to attack the heavily fortified Japanese castle, and their supplies were inadequate. And the solidarity of the Ming troops, which consisted of combined forces, was weak. Moreover, the cavalry from the northern region was not suitable for attacking the castle.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fought skillfully and efficiently against the allied forces.

After the defeat in the Battle of Sachŏn, the Ming army lost its will to fight. In this respect, the Battle of Sachŏn was a decisive battle that changed the Ming's attitude in the final stage of the Imjin War.

Keywords : Second Japanese Invasion of 1597, Sachŏn, Sŏnjinli Japanese Castle, Operation Advancing Four-way, Chosŏn-Ming allied force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405-447
<https://doi.org/10.29212/mh.2023..129.4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말 의병부대의 의료실태와 한의사의 의병전쟁 참여양상*

김성민 | 전 국민대 전임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의병부대의 의료 실태
3. 한의사의 의병전쟁 참여유형
4. 의병의 독립군 전환과 安鍾奭
5. 맺음말

초 록 한말의 의병부대에는 이동생활에 따른 질병과 전투로 인한 부상 등 필연적으로 부상·병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병자의 치료는 전투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논문은 한말 의병부대의 의료행위와 한의사들의 의병 참여양상을 살펴본 연구이다. 의진 내에서 부상·병자를 치료하는 방식은 자체 치료, 은신 치료, 귀가 등이 있었다.

* 본 논문은 2023년도 대한학술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자체 치료는 대체로 간단한 응급조치에 그쳤을 것이다. 한의약 지식이 있는 유학자(儒醫)들이 의진 내에서 치료하는 경우이다. 거동이 불편한 질병·부상자는 마을에 은신 치료하거나 귀가하여 치료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의진 내에 ‘軍醫’ 등 별도의 부서를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말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한의사들도 의병전쟁에 참여하였다. 한의사들의 의병 참여는 중기의병 당시부터 확인되며 1907년 군대해산 이후의 후기의병에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한의사들은 의병장으로 거의하거나, 의진의 주요 참모로 활동하였다. 식자층이었으므로 의진 내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업하지 않은 儒醫로서 의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한의사들이 의병전쟁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의병도 경술국치 이후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군으로 전환해 갔다. 이는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한 일반적인 양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의병부대, 의료행위, 한의사, 군의(軍醫), 유의(儒醫)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머리말

한말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종래 많은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주제는 주로 특정한 의진이나 의병장, 또는 일정한 지역의 의병 활동, 의병장의 사상 등이다. 또한 의병 참여층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¹⁾ 그 결과 농민, 상인, 임노동층, 화적, 활빈당, 포군, 해산군인 등 다양한 계층·직업의 의병 참여가 밝혀졌다. 반면 특정한 직업이나 신분층의 의병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포군과 농민층의 의병참여를 다룬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²⁾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소략한 이유는 자료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한말의 의병부대에는 이동생활에 따른 질병과 전투로 인한 부상 등 필연적으로 부상·병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병자의 치료는 전투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는 어느 의병부대이나 공통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병부대 내의 의료행위를 다룬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의병사뿐 아니라 한의학사 분야에서도 관련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의병부대의 의료행위에는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했다. 서양의학을 익힌 洋醫들이 의병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다. 포군이 의

* 본 논문은 2023년 대한학술원의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1) 권구훈, 「한말 의병의 참가계층과 그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1991 ;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참가층과 사회적 기반」, 『역사연구』 1, 역사학연구소, 1992 ; 심철기, 「1907년 의병전쟁 참여세력의 존재양상과 일제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2017. 등

2) 심철기, 「제천을미의병의 포군과 농민」, 『지역문화연구』 3, 지역문화연구소, 2004.

병부대의 실제적인 무력기반이었던 것처럼, 한의사는 전투력의 유지라는 의진 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렇듯 의병전쟁 당시 의료가 한의사에 의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의사들의 의병참여를 다룬 연구도 전무하다.³⁾

의병부대의 의료실태에 대한 연구는 한말 의병전쟁과 의병부대 내부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의병 참여층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의병참여 양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병부대의 의료실태를 밝히고 한의사라는 특정 직업인들이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한 양상을 제시하려한 것이다.⁴⁾ 다만 특정의진이 아닌 의병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모든 창의록, 일제측 기록 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⁵⁾ 특히 자료 상의 한계로 의병부대의 의료 행위 자체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의병의 자체기록인 창의록 등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 관련 서술을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

3) 한의사의 의병활동 관련 연구는 전혀 없다. 독립군으로 활동한 한의사 신흥균과 신평렬을 다룬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정상규·신민식, 「신흥균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지』 34-1, 한국의사학회, 2021 ; 이상화, 「독립운동가 신흥균 한의사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35-2, 한국의사학회, 2022 ; 이계형·신민식·정상규, 「『越南遺書』를 통해 본 신평렬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8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2)

4) 흔히 ‘醫生’으로 불린 한의사 외에 (賣)藥商, 藥種商이 있다. 매약상은 남의 진찰로 약을 파는 자, 약종상은 병든 자를 진찰하여 약을 쓰는 자로 구분된다(『매일신보』, 1912. 7. 18). 약종상은 진찰과 처방을 모두 한다는 점이 매약상과 다르다. ‘藥商’으로 경기 수원과 충남 면천군 일대에서 의병활동한 劉秉奎(「판결문」, 대심원, 1909. 10. 30, 국가기록원), ‘약종상’으로 文泰洙의병장 휘하에서 활동한 柳歡基(「판결문」,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1910. 2. 21, 국가기록원)가 확인된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을 한의사만으로 국한하여 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5) 주로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의병관련 자료집과 일제측의 『폭도에 관한 편책』,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 등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의 개인 문집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2. 의병부대의 의료 실태

가. 한말 한의약사의 존재양태

조선시대 의원은 중앙 및 지방 기관에 배치된 醫官, 민간에서 진찰뿐만 아니라 약재도 같이 취급하였던 개업의, 의업을 직업으로 삼지 않지만 의학적 소양을 갖추며 가족이나 친지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儒醫 등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신분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으로서의 동질성이나 정체성은 없었다.

근대 이전 민간의 한의학 전승은 주로 도제식 교육이나 독학에 의존하였다. 의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면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의 의료영업 역시 자유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다.⁶⁾ 이처럼 전문성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의학은 한말에 이르러 제도화된 근대 서양의학이 유입된 이후 그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한말의 언론은 돌팔이(庸醫) 현상에 대해 의술을 중요시하지 않던 사회적 풍조, 그리고 면허제도와 표준화된 공식 의학교육의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면허제도와 정규의학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⁷⁾

갑오개혁 이후 조선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양 의학을 수용하고 기존의 왕도정치 이념에 입각한 三醫司체제를 완전

6) 신동원, 「조선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26(2), 2004, 199, 214쪽.

7) 「론설」, 『독립신문』 1896년 12월 1일, 「병원론」, 『독립신문』 1899년 8월 24일, 황영일,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8쪽에서 재인용

히 해체시키고 인구관리를 위한 근대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이후 광무정권이 계승하여 지속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보건의료체계는 위생국과 경찰 등의 행정체계, 콜레라 방역체계, 의학교, 병원, 종두사업, 환경위생사업, 의약관리 등의 내용을 포괄하였다.⁸⁾

의료인 자격 즉 면허와 관련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 1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 약제사규칙, 약종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자격요건과 인허절차, 진료행위를 규정하였다.⁹⁾ 서양의학에 입각했지만 한의사도 공식적인 의사로 인정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서양의학 확대 보급을 지향했지만 한의학을 배제하지 않고 동서절충을 모색하였다.¹⁰⁾ 기존의 의료활동자 중 위생국 주관 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시술인허장을 부여한다는 유예조항을 두었다. 한의약업 종사자를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시되지 못해 종전대로 자유롭게 개업하였다.¹¹⁾

대한제국시기 광제원은 한약소, 양약소, 종두소로 나누어 병존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는 광제원을 서양의학병원으로 전환하여 1906년 의학교, 적십자병원과 함께 대한의원으로 통합하였다. 통감부는 동서의학 병존방침을 부정하

8)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 1997, 21~22쪽 ; 황영원, 박사학위논문, 2019, 33쪽.

9) 「內部令」 제27호, 1900년 1월 2일, 『內部來文』,各司謄錄

10) 박윤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東方學志』 139,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7, 101쪽.

11) 황영원, 박사학위논문, 35, 51쪽. 1899년 서양의학 전문교육기관으로 관립의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에 대해 1904년 4월 전의 출신 장용준 등이 학부에 한의학을 교육할 의학교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동서의학 병존을 주장한 것이다. 1906년 이응세, 조동호 등 발기로 同濟學校가 설립되었다. 3년 만에 재정난으로 폐교되었지만 동제학교는 한의학에 새로운 교육방식, 즉 전통시대 도제식이나 독학에 의한 한의학 전승방식을 부정하며 근대 학교 교육에 의한 한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황영원, 「일제시기 한의학 교육과 전통 한의학의 변모-한의학 강습소를 중심으로」, 『醫史學』 제27권 제1호(통권 58호), 대한의사학회, 2018, 4~9쪽).

고 광제원을 재편하여 서양의학 중심 정책을 폈다. 서양의학은 일제가 내세우는 ‘문명의 이로움’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철저히 서양의학 중심체제를 유지하였으며 1913년 11월 “의생규칙”이 반포되기 전까지 한의사에게 의료 면허는 없었다.

통감부는 1908년 이후 양약을 중심으로 의약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의사에게 면허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한의약 종사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당국의 단속 조치는 한의사들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한말부터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 이러한 조치는 위기의식을 강화시켰다.¹²⁾ 한의학이 의료체계에서 주변화됨에 따라 한의사들의 위기의식이 커져갔던 것이다.¹³⁾

나. 의병부대의 의료방식

전투과정에서의 총상은 물론이고 풍찬노숙에 따른 여러 질병 등은 의병부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부상(질병) 장병에 대한 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의병부대에서 부상병의 치료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현재 남아있는 창의록 등의 기록에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나타나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의진 내에서 자체적으로 치료하였다.

의진에 의료전담 인력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한의학적 소양

12) 황영원, 박사학위논문, 53~54쪽.

13) 서양의학의 유입에 따른 한의학의 지위 변동과 생존 위기는 내적 응집력과 유대감을 형성케 하였다 이에 1909년 10월 전 의관과 민간 개업의를 아우른 大韓義士總合所라는 최초의 한의사 단체가 설립되었다.

을 가진 유생이 치료하는 것이다. 당시 개업을 하여 醫業을 생계로 삼는 醫員(醫師)은 아니지만 한의학적 소양이나 의술을 익힌 유학자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영남유림의 계보를 잇는 유림 중 한사람으로 이후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했던 郭鍾錫은 『東醫寶鑑』을 전부 암기했다고 한다.¹⁴⁾ 이와 같이 의술을 익힌 유학자가 의진에 포함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후술하듯이 중기의병 이후에는 유생 신분의 의사 즉 儒醫로서 의병부대에 참여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전기의병의 경우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軍醫 등의 직제를 두지는 않았지만 부상당한 병사를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했다. 의진 내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지어 치료하는 경우로 전해산의진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된다. 전해산의진의 경우 민간에서 약재를 지원받기도 하였다.¹⁵⁾

군사를 거느리고 뒷산 기슭에 있는 梁씨의 재실로 들어가 밤을 따서 실컷 먹으며 약을 끓여 군사를 조리시켰다.¹⁶⁾

이튿날 30일 壬子. 약을 지어 군사를 치료시키고 밤에 행군하여 柳汀에서 유숙했다.¹⁷⁾

(전략) 이날 밤에 전막 마을에서 나온 것과 진사범의 의견금 백 냥을 가지고서 군비를 지출했다. 여러 군사로 하여금 줄대어 파수를 보게 하고 보약을 지어 달여 먹었다.¹⁸⁾

14)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儒醫列傳』, 서울: 들녘, 2011, 108쪽.

15) “洞主 김공이 자못 약 쓸 줄을 알아서 방금 약을 갖고 있으므로, 군용약 30첩을 지어 紙袋에 넣어 주며 시국 일을 이야기하는데 말이 강직하고 강개하여 취할 만한 것이 많았다.”(「전해산진중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467쪽)

16) 「전해산진중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381쪽

17) 「전해산진중일기」, 위의 책, 404쪽.

18) 「전해산진중일기」, 위의 책, 467쪽.

이석용의진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한약을 처방하여 진료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이석용의병장 자신이 약을 제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丁未. (중간 불명) 洞山房에서 심신이 불안하여 枸杞子湯에 인삼을 합해서 달여 먹었다.¹⁹⁾

글을 보면서 약을 만들었는데, 이윽고 총소리가 나며 탄환이 문 앞에 떨어지므로 마침내 몸을 날려 뛰어나갔다.²⁰⁾

둘째 留陣하는 지방 또는 민가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유인석의진의 소모장이었던 서상렬은 낙마하여 팔에 부상을 당하자 시관에 머무르며 치료하였다.²¹⁾ 김하락의진의 경우 좌선봉장 이상태가 총상을 입자 주점에서 치료하였다.

(전략) 達城店에 당도하니, 여러 장졸이 먼저 이 주점에 당도하였는데, 좌선봉 이상태는 바른 어깨가 총에 맞아 누웠기로, 곧 약을 붙이고 치료하게 하였다.²²⁾

이강년의병장은 용소동전투에서 오른손과 뺨에 부상을 당하자 청풍, 단양 등지에 머무르며 치료하였다.²³⁾ 산남의진의 이규한은 1908년 전투 중 중상을 당하자 다음과 같이 가까운 지역에 은신하여 치료하였다.

19) 「정재이석용창의일록」, 위의 책, 520쪽.

20) 「정재이석용창의일록」, 위의 책, 550쪽.

21) 「六義士列傳」, 『독립운동사자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176쪽.

22) 「金河洛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1, 612쪽.

23)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1, 221쪽.

李圭桓 (중략) 至廣川戰하야 右肱에 中敵彈하고 得同志之
球護而至巨洞元士文家하야 治療三月而蘇生하야 歸故鄉하
야 率妻子客於滿洲하다.²⁴⁾

산남의진 정환직의병장은 병으로 민간에 은신하여 치료하던
중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체포되었다.

金泰煥 (중략) 奉東廣公療養於民間하고 求彈丸之事로 各其
出他之間에 大將이 被害하야²⁵⁾

1909년 전해산의진의 선봉장 정원집이 고막원의 일본군 병참
을 공격하다 총상을 당하자 민가로 메고 가서 치료했으나 10여
일 만에 순국하였다.²⁶⁾

셋째, 병사의 고향 또는 집으로 돌려보내 치료하는 것이다.

전기의병 유인석의진의 경우 부상당한 민병, 포병 등은 집으
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부상병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
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사는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내용이지만
귀가 치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읍(제천) 九眉에 사는 劉在元이 민병으로 충주에 갔다가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병이 들고 또 굶주린다고 급한 사
정을 알림으로 守城將에게 명하여 벼 1섬을 주게 하고, 西
面 鄭己福에게도 같이 주게 하였다.[그때 부상당한 포병·

24) 李純久, 『山南倡義誌』하권, 1946, 47쪽.

25) 위의 책, 47쪽.

26) “장차 古幕의 兵站을 무찌르려 하여 밤 2경에 군사를 거느리고 고막을 포위하여
적 두어 놈을 죽이고 선봉장 정원집이 바로 병참에 들어가서 남은 적을 수색하여
잡다가 어두운 밤에 불이 없어 총탄에 맞아 상하였다. 메고 민가로 가서 치료하기
10여 일에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호남의병장열전, 義士김준·전수용합전,
『독립운동사자료집』 2, 648쪽)

민병으로 구제받은 자가 매우 많았다]²⁷⁾

이강년의진의 경우 1907년 8월 죽령전투에서 “군사 朴興畝이 탄환에 맞았으므로 들것에 메어 獐項으로 돌아가 치료하게 하였다”고²⁸⁾ 한다.

정용기, 정환직의 산남의진에는 후술하듯이 軍醫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중상을 당한 경우에 귀가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孫永珏이 以病歸家하고 薦李亨杓而 未幾에 亨杓亦重傷而歸之하다.²⁹⁾

皇甫觀 (중략) 立巖之敗에 重傷而歸하야 不復入陣하고 後被執於敵하야(하략)³⁰⁾

池龍伊 (중략) 入陣爲左翼하고 與敵交鋒타가 重傷而歸하야 不復入陣하고 後에 避身於市하다.³¹⁾

소규모 의진으로 일본군과 치열한 유격전을 전개하던 후기의 병에 이르러서는 기동성이 요구되었으므로 부상병의 치료문제는 의병진영의 큰 고민거리였다. 1908년 의병을 면담한 바 있었던 맥켄지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날은 밤새도록 의병들이 이 도시로 1명, 2명씩 찾아 들었다. 일본군과의 접전에서 후퇴를 했던 부상병들이 동료

27)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독립운동사자료집』 1, 377~378쪽.

28) 「운강선생창의일록」, 앞의 책, 244쪽.

29) 『산남창의지』 하권, 1946, 30쪽.

30) 위의 책, 63쪽.

31) 위의 책, 64쪽.

들에게 부축을 받아가며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몇 명의 의병은 다음날 아침 일찌기 나를 찾아와 부상병을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나는 숙소에서 나가 그들의 부상을 조사해 보았다. 한 부상병은 몸에 5발의 총탄을 맞았 으면서도 표정은 조금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기쁜 빛이었다. 다른 2사람은 1발의 총탄을 맞긴 했지만 껍 더 위험스러운 부상이었다.(하략)³²⁾

일반적으로 의진 내의 질병·부상자는 귀가 또는 은신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전투에서의 총상 등은 외과적 조치가 필요하여 의진 내에서의 치료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동성이 요구되었던 후기의병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의진 내에 한의사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의진 내 자체치료가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과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 위산남의진의 사례에서 보듯이 귀가 또는 은신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의진 내에서 자체치료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치료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병부대의 의료 직제화

전기의병 당시의 의병부대에 의료관련 직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의병의 가장 대표적인 의진이었던 柳麟錫의진(湖左義陣)의 경우 직책만해도 52종이었고 직임을 담당한 인물은 93명에 달했으나 의료관련 직책은 없었다.³³⁾ 의진의 규모가 크고 관군과의 전투가 상시적이지 않았던 전기의병에서 軍醫가 의병부대의 직제로 편성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32) 「한국의 비극」, 『독립운동사자료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474쪽.

33) 구원회, 『한말 제천의병 연구』, 서울; 선인, 2005, 57~60쪽.

중기의병의 경우 정용기가 이끈 山南義陣에 다음과 같이 ‘軍醫’가 부상병을 치료한 기록이 나타난다.

李景久召募於安德等地라가 被圍於敵而中丸 使鄭純基李世起로 逼之하니 敵이 走入青松邑하다 翌日에 使軍醫로 療景久傷處而送之曰 士死於義면 何恨之有리요하다.³⁴⁾

左營將 李景久가 총상을 입자 군의로 하여금 상처를 치료하고 귀가시켰다는 것이다. 산남의진에 군의가 편제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용기의병장의 부친인 정환직이 궁내부 太醫院 醫員을 역임했으므로³⁵⁾ 의료에 보다 민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사례이며 중기의병뿐 아니라 일본군과 수시로 유격전을 벌인 후기의병의 경우에도 군제에 군의가 편성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확인되는 한두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07년 봄 전남 능주에서 梁會一을 맹주로 하여 湖南倡義所가 조직되었다. 의진이 와해되자 1908년 초 李白來가 다시 호남창의소를 재거의하였다. 재거의 당시의 부서는 이백래를 도대장으로 하여 선봉-중군-후군의 전형적인 체제이면서도 파발도통장 등 특수한 부서를 두었다. 특히 主醫 1명과 從醫 2명을 두어 의사를 정식으로 군제에 포함하고 있었다.³⁶⁾ 의료관련 인원이 3명

34) 『산남창의지』 하권, 30쪽.

35) 주 41) 참조

36) 의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대장 이백래, 선봉도통장 이광언, 중군도통장 임창모, 후군도통장 노현재, 좌포장 안기환, 좌선봉장 정세현, 도포장 유병순, 우포장 임노성, 우격장 배봉규, 포격장 남갑중, 좌호군장 노인수, 소모도통장 안찬재, 호군장 임노복, 사서장 양열목, 우중군장 박중일, 선발장 박상영, 군기장 이병장, 파발도통장 양동묵, 친위파발장 양희룡, 主醫 全信默, 從醫 鄭淳學, 從醫 梁在東(홍영기, 「구한말 ‘湖南倡義所’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1, 170~171쪽)

에 달했다는 것은 군사력의 유지에 그만큼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1908년 연해주에서는 이범윤과 최재형이 倡義會 또는 同義會를 조직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³⁷⁾ 1908년 국내 진공 당시 동의회의 진용은 다음과 같았다.³⁸⁾

都營將	全濟益
參謀長	吳乃凡
參謀	張鳳漢, 池云京
軍醫	미국에서 돌아온 某, 후에 일본병에 체포되어 회령에서 총살되었음 ³⁹⁾
兵器部長	金大連
同 副長	崔英基(御衛長)
經理部長	姜議官
동 副長	白圭三
左營將	嚴仁燮
제1중대장	김모
제2중대장	李京化
제3중대장	崔化春
右營將	安重根
중대장	3인

위와 같이 동의회에는 軍醫가 정식 직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37)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05~208쪽.

38) 「官秘제8호 排日鮮人 退露處分에 관한 件」 조선총독, 1915. 5.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 5.

39) 박민영은 이들이 노동이민을 갔다가 귀국 후 연해주의병에 가담하여 회령 영산전투에서 전사한 이형기와 권찬규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박민영, 앞의 논문, 211쪽).

의진에 편성된 군의가 어떠한 의료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후기의병의 의병편제에 군의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軍醫가 직제화되지 않은 것은 한의사 충원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마을 은신치료나 귀가 치료 등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3. 한의사의 의병전쟁 참여유형

의병 참가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1907~1911년간 의병 재판기록에 근거한 연구에 의하면 한의사의 의병 참여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재판을 받은 890명 중 직업이 ‘醫員’으로 기재된 경우는 5건이다.⁴⁰⁾ 0.5%에 불과하다. 그러나 ‘醫員’으로 기재되지 않은 儒醫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참여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는 의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에서 한의사의 의병참여 양상을 살펴본다.

40) 권구훈, 「한말 의병의 참가계층과 그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1991, 14~15쪽. 이 논문은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에 수록된 의병 재판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신분 직업별 통계는 농업(621), 상업(121), 공업(28), 군인(14), 유생 양반(12), 고용인(10), 노동(8), 승려(5), 어업(4), 車夫(3), 미장이(2) 등이다.

가. 한의사 의병장의 활동⁴¹⁾

1) 金東臣義兵將⁴²⁾

김동신은 충남 懷德郡 炭洞面 德津洞 출신으로 1908년 당시 37세 였다. 일제에 체포된 후 작성된 청취서에 “職業은 醫也”라고⁴³⁾ 한 것으로 보아 개업한 의원으로 보인다.⁴⁴⁾ 신분은 중인이었다.⁴⁵⁾ 1906년 음력 3월경 閔宗植의병장과 거의를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중식으로부터 承旨의 사령장을 받았다. 그는 승지를 표방하며 지리산 주변의 각 군읍을 돌며 군사를 모집하였다. 1907년 음력 8월 高光洵, 奇參衍과 공모하여 內藏山 白羊寺에서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지리산의 사찰을 근거지로 삼아 전남 곡성, 장성, 구례, 전북 남원, 순창, 정읍, 무주, 장수, 경남 안의, 함양, 지례, 거창 등

41) 산남의진의 鄭煥直의병장은 어려서 침술을 익혀 생계를 유지하였고 을미사변 이후에는 宮內府의 太醫院에 의원으로 재직하였다(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55, 139~140쪽). 중앙관계의 醫員을 지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후 三南檢察兼討捕使 등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한의사 의병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42) 이 부분은 홍영기, 「舊韓末 金東臣 義兵에 대한 一研究」(『한국학보』 56, 일지사, 1989.)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43) 「義將逮捕報告書」, 대전경찰분서, 1908. 6. 8, 『폭도에 관한 편책』

44) 이에 대해 홍영기는 고종조에 등과한 『醫科榜目』에서 김동신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습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의원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과방목』은 중앙의 의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기재한 것이다. 당시 지방의 의원들은 특별한 선발 과정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의과방목』에 없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의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45) 주 43)의 자료. 자신을 “中人 金東鳳의 弟”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동신도 中人으로 보인다. 홍영기는 김동신의 신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常民과 다른 醫員출신”이라고(홍영기, 앞의 논문, 111쪽)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나 13代祖가 靑松府使를 지낸 후 관직에 진출한 적이 없다고 하며(홍영기, 앞의 논문, 107쪽) 형이 중인이라면 김동신도 중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에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김동신은 三南義兵都大將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동신의병부대는 의병을 병자하여 민간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가짜 의병을 퇴치, 처단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1907년~1908년 전북과 경남 일대에서 일본군 토벌대와 격전을 벌였다. 김동신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귀향했다가 6월 6일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중신 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풀려났다.

2) 徐丙熙義兵將

서병희는 경남 梁山郡 中北面 左壽洞 출신으로 1909년 당시 43세였으니 1867년생으로 추정된다. 향리인 경남 양산에서 한의업을 경영하였다.⁴⁶⁾ 신분은 알 수 없지만 개업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음력 2월 “賣官運動을 위해” 서울에 왔다고 한다. ‘賣官運動’은 일제의 악의적인 표현이겠으나 서울에서 광무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는 등 국권이 상실되는 과정을 보며 항일 의병활동에 투신했다.

1907년 음력 10월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許薦의진에 참여하여 음력 11월까지 활동했다. 그가 허위의진에서 “陰謀團 同士の 結合에 奔走”했다는 것으로 보아 허위가 주도한 ‘13道倡義大陣所’의 서울 진공작전을 위한 의진간 연락 등에 종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1907년 음력 12월 28일 경상도 방면에서 활동하라는 허위의 지시로 해산병 5명과 함께 서울을 떠나 경상도로 이동했다. 이때는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직후이므로 허위의진이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병희는 자신의 근거지인 경상도에서 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6) “서병희는 향리에서 醫業을 하고 있었는데”(『제8208호(暴徒首魁 取調內容 報告)』, 경무국장 보고, 1909. 12. 22. 『폭도에 관한 편책』)

경북 경주군 산내면에 용거하던 尹政儀의진에 합류하여 활동하다가 이듬해 1908년 음력 5월 윤정의 의병장과 분리하였다. 동년 음력 8월 경남 山淸郡 德山에 있는 朴東儀의진의 部將이 되었다. 음력 9월부터는 박동의 의병장의 副將인 李學魯의 嚮官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의병장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서병희의진의 편제는 실전 위주로 편성되었다. 소모, 도포, 파수, 연습장의 필수 직제만으로 축소하고 부대는 1, 2, 3哨로 편성하여 각기 什長이 지휘하도록 하였다.⁴⁷⁾ 유격전에 적합하도록 부대를 소대급의 단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생 중심이 아니라 평민 중심으로 편성된 의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활동 영역이 양산, 경주, 산청, 함안, 합천, 칠원, 창원, 진주, 의령, 고성 등 경남의 전역을 아우르고 있었다. 서병희 의병장은 수십 명의 의병을 이끌고 경남 일대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다. 일본군과의 교전은 주로 1908년에 집중되었다.⁴⁹⁾

1909년에 들면 일본군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군자금 모집과 일본인 처단, 일본 상인배척 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일본 상인 처단활동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서병희 의병장은 일본 상인에게 보내는 격문을 배포하는 등⁵⁰⁾ 전통 상권을 침탈하며 경제적

47) 「警秘收 제279호(暴徒首魁 取調內容 報告)」, 마산경찰서장 보고, 1909. 12. 14, 『폭도에 관한 편책』

48) 文伊, 基彦, 千用, 且岩, 宗伯, 興甲, 周伯 등 성이 없이 이름만 있는 인물이 의진에 포함되어 있다(주 47의 자료). 천민 또는 평민들이 의진의 주요 기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9) 「警秘收 제279호」, 마산경찰서장 보고, 1909. 12. 14, 『폭도에 관한 편책』

50) 서병희 의병장은 1909년 3월 ‘嶺南倡義人 徐丙熙’ 명의로 「檄告于日商」이란 격문을 경남 함안군과 진주군 내 각소에 붙였는데 이 격문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규탄하고 이에 앞장선 伊藤博文을 비판했다. 일본 상인들에게는 “散在日人은 這還還歸해야 俾無冤死가 爲宜者”라고 하여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서 冤死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檄告于日商」, 己酉三月初十日, 『통감부문서』 9,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침략에 앞장서는 일본 상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그가 상인으로 변장하여 은신하려 했다는 사실에서 상인적 생활에 익숙했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 상인의 경제 침략에도 민감했음을 알 수 있다. 한인에 대한 군자금 모집은 현금을 소지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수탈에 앞장서는 公錢領收員에 집중되었다.⁵¹⁾

서병희의진이 일제 헌병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도 경남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서병희의 뛰어난 전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빠지면 무기를 땅 속에 묻어서 감추고 부하를 해산하였다. 자신과 부하들도 양민으로 가장하거나 시장 상인으로 行商을 경영하며 은신하였다.

1909년 음 6월 20일경 漆原주재소를 습격하고 동지 상인 內田 등을 살상한 서병희의진의 李斗湖는 귀로에 여곡리 최성옥의 집에 무기를 은닉하였고, 이운오는 수합한 군자금을 분배받아 의복을 사서 은신하였다. 또한 귀순을 가장했다가 다시 의병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의진의 執事였던 경남 산청군 거주 李云五는 하동수비대에 자수하여 산청군수가 수여한 監視人銘心書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서병희의진에 참여하여 칠원에서 군자금 모집을 하다 체포되었다.⁵²⁾

그의 아들 徐斗成도 부친을 따라 의병으로 활동하였는데 1908년

51) 일례로 1909년 12월 11일 경남 의령군 풍덕면에서 공전영수원 이종진에 부상을 입히고 지폐 30원, 엽전 3관문을 탈취하였으며(『폭도에 관한 건』, 경남 경찰부장, 1909. 12. 14, 『폭도에 관한 편책』)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경남 진주군의 공전영수원 장한원에게 엽전 450량, 은화 1원 10전을 수합하였다(『收1615호 폭도내습의 건』, 경남경찰부장, 1909. 12. 20, 『폭도에 관한 편책』).

52) 『폭도귀순의 건』, 경남 경찰부장, 1909. 12. 11, 『폭도에 관한 편책』; 『警秘收 제942호 폭도체포에 관한 건』, 1909. 8. 16, 『폭도에 관한 편책』(『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 의병편 8, 국사편찬위원회, 1986, 249쪽)
서병희의진 외에도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수한 후에 다시 의병에 참여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7월 13일 경남 양산에서 일본군 수비대에 피살되었다.⁵³⁾ 次知로 있던 김성렬은 의진이 신반시장에서 일본인 상점을 습격할 당시 일본인에 의해 피살 순국하였다.

이와 같이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일본군의 수색과 추적은 날로 가중되어 갔다. 결국 그의 의진은 1909년 음력 10월 10일 함안군 칠원 부곡리의 민가에 화승총 10정, 양총 2정, 거총 1정, 도 1진, 및 의류 등을 은닉하고 잠행에 들어갔다. 그는 商人으로 변장하고 단독으로 김해군 등을 돌아다니며 지방의 동향을 살폈다. 그러나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은닉했던 총기가 모두 압수 당하고 부하 3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도 경남 昌原府 內西面 斜栗里에서 魚類商을 경영하면서 일시 은신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12월 11일 구마산주재소 순사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⁵⁴⁾ 이후 순국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3) 徐鍾採義兵將

서종채는 전북 茂長郡 二東面 白羊里 출신으로 직업은 ‘針醫’였다.⁵⁵⁾ 일제측 기록에는 徐應五로 많이 나온다. 1907년 음력 9월 奇參衍의진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李大局의병장의 선봉장⁵⁶⁾이 되었다. 1908년에는 의병장으로 독자의진을 이끌었다. 2백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전남 담양, 함평, 전북 고창, 무장, 부안군 등에서 활동하였다. 함평의 秋月山, 무장의 高城山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 작전 후 1909~

53) 「報告收發 제2232호 人命砲殺에 관한 건」, 경남 관찰사, 1908. 7. 31, 『폭도에 관한 편책』

54) 「警秘收 제279호」, 마산경찰서장, 1909. 12. 14, 『폭도에 관한 편책』

55) 「(서종채)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3. 10. 1,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훈전자자료관

56) 「(金相五) 판결문」,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1909. 12. 10,

1910년 부안군 변산의 幸智島를 근거지로⁵⁷⁾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을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일제는 그를 “海賊的 匪徒의 首魁”라고⁵⁸⁾ 칭하였다. 친일행위자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며 1913년까지 전북 고부, 무장, 부안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13년 10월 대구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는 1907년부터 1913년까지 도서지방에서 장기간 의병항쟁을 지속한 의병장으로 주목된다.

4) 元逸常義兵將

원일상은 함남 北靑郡 陽坪社 甘土隅 사람이다. 1909년 당시 61세의 고령이었다. 재판 판결문에 직업이 ‘醫業’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⁵⁹⁾ 개업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병을 규합하여 함남 利原, 갑산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3월 하순경 高翊奎 외 8명의 의병과 같이 무기를 소지하고 利原郡 遮湖里에서 張高山과 그 동생을 결박하고 금전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돈 1만 냥을 내겠다는 수표(가액이 1만 냥) 1장을 강탈하였다.

동년 3월 하순경 동도 甲山郡 陵口面 湖洞에서 高雲鶴 이란 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풍설을 동리 사람에게 듣고 부하 의병을 시켜 이곳에서 고운학을 총살하였다. 그런데 이 고운학은 車道善의진의 부장 高雲鶴으로 추정된다. 고운학은 차도선의진의 의병들과 함께 1908년 3월 초 일본군에 귀순했다.⁶⁰⁾ 원일상의

57) 「高秘收 제509호 폭도상황월보」, 전북 경찰부장, 1910. 5. 18, 『폭도에 관한 편책』

58) 「高秘收 제646호, 폭도상황월보」, 전북 경찰부장, 1910. 6. 23, 『폭도에 관한 편책』 ; 「高秘收 제31호 폭도상황보고」, 전북경찰부장, 1910. 7. 19, 『폭도에 관한 편책』

59) 「(원일상) 판결문」, 경성공소원, 1909. 9. 1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314쪽.

60) 「보고서 3호」, 갑산군수, 1908. 3. 26. 『폭도에 관한 편책』이 보고서는 차도선 등의 귀순자에 대한 갑산군수의 보고서이다. 1908년 3월 6일 차도선의진의 의병 536명이 일본군에 귀순했는데 귀순자명단 중 차도선 다음으로 高雲鶴이 기재되었으며 副魁라고 표기되어 있다.

판결문에는 고운학이 “부정당한 행위가 있다는 풍설을 동리 사람에게 듣고” 고운학을 살해했다고 한다. 여기서 ‘부정당한 행위’가 일본군에 귀순한 행위를 지칭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 살해 시점이 귀순 직후인 1908년 3월 하순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원일상과 함께 활동한 고익규는 1907년 음력 12월 劉基雲의진에 참여하여 4백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독립하였다. 이후 원일상과 뜻을 함께 하여 이원군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⁶¹⁾ 원일상은 1909년 9월 30일 대심원에서 교형이 확정되어 10월 21일 교형 순국하였다.⁶²⁾ 고익규 역시 1909년 3월 30일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⁶³⁾

5) 朴樸來

경북 안동군 출신으로 1906년 당시 42세였으므로 1865년경 출생하였다. 판결문에 직업이 ‘醫業’으로 기재되었다.⁶⁴⁾ 떠돌이 의사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⁶⁵⁾ 고종황제의 別入侍였던 그는 1905년 참정대신 한규설의 친필서한을 받고 거의를 도모하였다.⁶⁶⁾ 1906년 음력 3월 평북 龍川의 全德元의 집에 平安道儒約所를 설립하고 賣國賊 처단을 계획하였다. 이후 민종식의 홍주의진에 참가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홍주의

61) 「(고익규) 판결문」, 경성공소원, 1909. 2. 5.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305, 307, 308쪽.

62) 『대한제국 관보』 4518호, 1909년 10월 30일

63) 『대한제국 관보』 4342호, 1909년 4월 5일

64) 「(박양래) 판결문」, 평리원, 1906. 12. 13, 국가기록원

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976, 26~27쪽

66)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182, 188, 197쪽. 오영섭은 박양래가 別入侍였다고 한다. 별입시는 고종황제의 비공식적 임무를 수행하는 수족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오영섭, 앞의 책, 177쪽). 또한 고종황제의 別入侍인 정환직, 박양래 등의 의병거사가 고종황제와 측근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이를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연합 의병활동이라고 보았다(오영섭, 앞의 책, 187쪽).

진이 패전하여 합류하지 못하였다. 이후 抗疏운동을 위해 통문을 각지에 발송하고 강계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06년 12월 종신유형을 받았으나 15년으로 감형되어 전남 莞島로 유배되었다가 1907년 12월에 석방되었다.⁶⁷⁾

나. 의병진의 주요 간부 활동

1) 최익현의진의 참모 魯炳憲

중기의병에서는 魯炳憲의 사례가 확인된다. 노병희는 宮內府 太醫院 醫官이었다. 1902년 惠民院 主事に 임명되었다. 1903년 9월 6품 承訓郎에 서임된 후 英親王을 치료한 공으로 11월 4일 정3품 通政大夫 太醫院 兼 典醫에 임명되었다.⁶⁸⁾ 1904년 11월 고종황제의 後宮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체포되기도 했다.⁶⁹⁾ 1850년생으로 1888년부터 1893년까지 최익현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한다.⁷⁰⁾ 1906년 최익현이 전남 태인에서 거사할 때 참여하였다. 이해 4월 최익현이 군사를 거느리고 임병찬과 합류하기 위해 泰仁으로 올 때 고석진 등과 함께 宗聖里에서 최익현의진을 마중하였다.⁷¹⁾ 6월 최익현의진이 태인 武城書院에서 거의하여 정읍, 순창을 거쳐 남원으로 향할 때 참여하였다. 의진의 醫官으로 활약했다고 하나⁷²⁾, 정식 직제로서 군의 또는 의관이 편제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익현이 의진을 해산하고 대마도로 유배되어 병이 들자 의사의 자격으로 대마도에

67) 『대한제국 관보』 3939호, 1907년 12월 3일

68) 『대한제국 관보』 2292호, 1902년 8월 30일 ; 『대한제국 관보』 1903년 10월 23일 호외 ; 『대한제국 관보』 1903년 11월 8일 호외

69) 『대한제국 관보』 2982호, 1904년 11월 12일

7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魯炳憲條

71) 『勉庵先生倡義顚末』,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60쪽.

7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魯炳憲條

가서 최익현을 치료했다. 최익현이 순국한 이후에는 護喪으로 유해의 국내 송환에 기여했다.⁷³⁾

2) 노응규, 이은찬의진의 참모 嚴海潤

嚴海潤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1907년 당시 44세였으므로 1864년경 출생했다. 판결문에 “평소 醫術로 업을 삼았다”고 하므로 개업의였다. 1906년 음력 11월 徐殷九의 병 치료를 위해 충북 黃澗으로 가서 盧應奎, 서은구와 거의를 논의하였다. 전기 의병 당시 경남 진주에서 활동했던 노응규가 황간에서 재거의 하자 참여하여 선봉장에 선임되었다. 얼마 후 체포되어 1907년 5월 유형 7년을 받고 유배되었으나⁷⁴⁾ 풀려나자 다시 의병에 참가하였다. 1908년 음력 11월 李殷瓚의진의 참모로 경기도 포천, 양주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12월에는 李鍾協의진의 참모로 황해도 금천, 토산군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받았다. 1909년 4월 옥중에서 파옥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고⁷⁵⁾ 순국하였다. 엄해윤은 중기의 병으로 옥고 후에도 후기의병에 다시 참여하는 등 강고한 투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 이석용의진 중군장 呂圭浩

여규호는 呂柱穆이라고도⁷⁶⁾ 하며 전북 임실군 上東面 大雲

73) 『對馬島日記·返樞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2, 194, 201, 208, 210, 216, 221, 222, 228쪽

74) 『엄해윤』 판결문, 평리원, 1907. 5. 18.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훈전자자료관

75) 『엄해윤』 판결문, 대심원, 1909. 10. 1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255~256쪽. 1909년 11월 29일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대한제국관보』 제4573호, 1910년 1월 11일).

76)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에는 呂圭穆의 이명이 呂柱穆, 呂圭浩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여규호가 여주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판결문에는

峙⁷⁷⁾ 출신이다. 1909년 당시 38세였으니, 1872년경 출생했다. 판결문에 직업이 ‘醫師’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한의사로 개업을 했을 것이다. 1908년 음력 3월 이석용의진에 참여하여 중군장에 선임되었다.⁷⁸⁾ 중군장은 일반적으로 의병대장 다음의 직책으로 의진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석용의병장은 1907년 음력 9월 12일 전북 鎭安의 마이산에서 500여 명의 의병으로 湖南倡義所를 결성하였다. 이후 진안을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등 진안, 용담, 장수, 임실, 순창, 광주, 함양, 곡성, 운봉, 남원 등지로 이동하며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8년 3월 전북 남원군 沙村戰鬪에서 일본군에 패한 후 일시 의병을 해산했다가 다시 재기하였다.⁷⁹⁾ 여규호가 이석용의진에 참여한 것이 1908년 음력 3월이었다고 하니 이석용의병장이 재거의할 때 참여하여 중군장에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1907년 거의 당시의 중군장은 金雲瑞였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여규호의 활동내용은 주로 군자금 모집이었다.⁸⁰⁾ 이는 이시기 이석용의진의 기세가 초기의 수백명 군

여규호가 이석용의진의 중군장이라 했다. 『大韓義將湖南倡義錄』(1961년)에 수록된 倡義同盟團 명단에는 “中軍 呂雲瑞 名 柱穆”으로 기재되어 있다. 中軍 여운서가 여주목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여규호=여운서=여주목이 된다. 이석용의병장의 주요 막료로서 순국한 인사들을 기재한 昭忠祠의 「二十八義士紀續碑」(1958년 건립)에 각자된 28명의 성명에는 ‘呂柱穆’이다.

呂雲瑞(呂柱穆) 외에 중군장으로 활동한 金雲瑞가 있다.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07년 음력 9월 창 의 당시부터 중군장으로 무기를 수집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정재이 석용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2, 516쪽) 김운서는 1912년에도 박보국 등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므로(「이석용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931쪽 참조) 呂雲瑞와는 타인으로 봐야 할 것 같다.

77) 판결문 번역본에는 ‘大雪峙’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大雲峙’의 오역이다. 판결문 원본에 의하면 ‘大雲峙’이다

78) 「(여규호) 판결문」,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1909. 3.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579쪽.

79) 윤선자, 「임실지역과 한말 항일의병」,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2007, 131쪽.

80) 「(여규호) 판결문」,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1909. 3. 5.

세에서 수십명으로 많이 약화된 상태였으므로 군수품 조달에 힘썼던 것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석용의진은 일본군의 공세로 인해 결국 1909년 음력 3월 의병을 해산하였다.

여규호는 1908년 음력 12월경 체포되어 1909년 3월 5일 광주 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1909년 6월 17일 대구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⁸¹⁾

4) 倡義會 軍師 吳相元

오상원은 1845년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해주이다. 부친인 吳兢濬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뜻하는 幼學이었다. 오상원은 17세 때인 1861년(철종 12년) 식년시에서 137명 중 70등으로 3등인 진사가 되었다.⁸²⁾ 함북 회령에 거주하다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간도로 건너갔다. 1909년 재판 당시의 주소지는 간도 百草溝 社芥田洞이었으며 ‘醫業’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儒醫로서 백초구에서 개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64세의 노령임에도 1908년 음력 2월경 노령 烟秋(노보키에프스크, 현재 크라스키노)에서 이범윤 등과 倡義會를 조직했다.⁸³⁾ 이범윤이 ‘元帥’ 그가 ‘軍師’의⁸⁴⁾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아 그가

81) 『대한제국 관보』 제4410호, 1909년 6월 23일

82) 「崇禎紀元後辛酉式司馬榜目」,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83) 판결문에는 “피고는 1908년 음력 2월 중 노령 烟秋에 있는 李範允 집에서 金永善, 金鑽鎬 기타와 함께 한국 정부를 전복하고 일본병을 구축하여 새로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거병할 것을 마음먹고 이범윤은 元帥, 피고는 軍師가 되어”라고 기재되었다(「吳相元」 판결문, 대심원, 1909. 4. 27,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310쪽). 이범윤을 비롯한 김영선, 김찬호 등은 倡義會의 주요 간부들이었으므로(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의병 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9쪽) 이때 창의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84) 위의 「오상원」 판결문 참조. 창의회의 임원명단은 불분명하다. 다만 일본군이 노획한 이범윤의 사령서가 남아있는데 이범윤은 “倡義隊大將”으로 표시되어 있다

창의회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범윤은 1908년 5월경 崔才亨 등과 함께 同義會를 조직하여 부총장을 맡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창의회를 조직한 것이다. 동의회와 창의회가 중심이 된 연해주 의병부대는 1908년 7월 대규모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다.⁸⁵⁾

동의회 부대는 都營將 全濟益, 左營將 嚴仁燮, 右營將 安重根을 중심으로 국내진공전을 전개했다. 창 의 군 도 두 차례 이상 나눠 관북지방으로 진공하였다. 창 의 군 의 경우 前軍의 최고 지휘관은 사령장(前衛司令)인 正尉 金榮璿(金永先)이었다. 後軍의 최고 지휘관인 都領長은 도강시에는 金鑽鎬였지만, 일본군과의 전투 때 그가 의진을 이탈했기 때문에 朴昇規(朴昇奎)가 署理로 대신 맡았다.⁸⁶⁾ 동의회와 창의회 두 계통의 의병은 수차에 걸쳐 진공로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국내로 진입하였고 상호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908년 7월 18일 창의회 金永先이 의병 백여 명을 인솔하고 회령 남방 2킬로 지점까지 진격, 점령하였다.(會寧戰鬪) 7월 21일 흥범도, 차도선의진 및 최덕준의진(鏡城義兵) 등 국내의병과의 연합을 위해 무산, 갑산을 목표로 진격하던 안중근의병부대, 金永先의병부대가 회령에서 합류하였다. 그러나 靈山 蒼大坪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Ⅵ, 2003, 15~23쪽, 박민영, 위의 논문 209쪽에서 재인용).

85)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09, 205쪽. 이에 대해 동의회와 창의회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며 동의회는 의병조직을 산하에 거느린 대중조직이며 동의회 소속 의병들은 모두 '창의회' 회원으로 불렸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반병률, 「러시아지역 한인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와 과제」, 『학술회의총서 2-광복 70년,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본고에서는 동의회와 창의회를 별개의 조직으로 보았다.

8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Ⅵ, 2003, 15~23쪽, 박민영, 위의 논문, 209쪽에서 재인용

전열을 정돈하기도 전에 일본군수비대와 맞서 두 차례의 교전 끝에 패배하였다.(靈山戰鬪)⁸⁷⁾

이와 같이 동의회와 창의회의 의병부대는 1908년 7~8월 활발하게 국내진공전을 전개하였다. 이중 창의회가 중심이 된 국내진공전의 배후에는 오상원이 있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활동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즈음부터(1908년 음력 2월) 1909년 1월까지 사이에 尹炳道를 西江에 朴勝奎를 水靑에 金鑽鎬를 吏灣에 파견하여 폭도를 모집케 하여 수백 명을 획득하고 이에 탄약을 지급하였으며, 그 동안 1908년 음력 6월 중, 金永善에게 명령하여 약 2백명의 폭도를 인솔하고 일본병을 습격하고 慶源에 갔으나 일본병이 없어서 永善은 이동하여 靈山으로 가서 그들과 싸웠으나 패주하고 또 동년 음력 7월 중 김찬호에게 명령하여 약 1백명의 폭도를 거느리고서 일본병을 치려고 鍾城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내란을 일으킨 자이다.⁸⁸⁾

즉, 그가 尹炳道를 西江, 朴勝奎를 수청, 金鑽鎬를 이만에 파견하여 의병 수백 명을 소모하고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 해 음력 6월~7월 김영선과 김찬호를 지휘관으로 1~2백명의 의병을 국내에 파견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벌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판결문 내용은 주도 인물의 한자명만 상이할 뿐 위에서 본 당시의 다른 전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오상원이 창의회의 군사로서 이러한 활동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오상원을 “내란죄의 주범”이라고

87) 정재우, 『沿海州 李範允 義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1997, 12~18쪽 ;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214~215, 221~224쪽.

88) 앞의 「吳相元」 판결문

보았다.⁸⁹⁾

결국 그는 1909년 초 일본 헌병에 체포된 후 1909년 4월 27일 대심원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6월 8일 교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⁹⁰⁾ 그가 체포된 것은 함북 온성 서방 50리의 만주 傑滿洞에 거주하는 최두성이란 자가 걸만동의 일본 관헌에게 밀고했기 때문이었다. 1910년 3월 13일 이범윤 휘하 조상갑이 파견한 부대원이 걸만동에 와서 밀고한 최두성을 참살하기 위해 소재를 탐문하기도 했다.⁹¹⁾

5) 鏡城義陣의 참모 金用鉉

金用鉉(金龍鉉)은 함북 경성군 주북면 서원동에 거주하였다. 1908년 당시 33세였다. 일제 기록에 ‘醫師’로 기재되었다. 서양 의술을 배운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로 봐야 할 것이다. 1908년 3월 함북 경성에서 조직된 최덕준의진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였다. 의진을 결성할 당시에 최덕준이 일제 경찰의 검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소지했던 「충의안」을 빼앗겼는데 이 「충의안」에 최덕준 의진의 초기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⁹²⁾

忠義案

總領 崔德準 林鳳松

貳領 金用鉉, 임학유

參領 전명학(체포), 강문경

肆領 이태영, 윤용극

89) 앞의 「(吳相元) 판결문」, 일제는 “(전략) 이범윤 등과 같이 내란죄를 범하려고 생각하여 밀계하고 또한 윤병도, 김영선, 김찬호 등으로 하여금 현재 이를 범하게 한 자로서 내란죄의 주범”이라고 하여 오상원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90) 『대한제국 관보』 제4401호, 1909. 6. 12 ;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6월 2일자

91) 『憲機』 제884호, 李範允 휘하의 행동에 관한 건, 1910. 4. 6, 『폭도에 관한 편책』

92) 『警秘』 제3014호 忠義案 報告, 鏡城警察署長, 1908. 3. 26. 『폭도에 관한 편책』

五領 김성삼, 전봉익

義案

안태곤 외 28명

총령부터 이령, 삼령, 사령, 오령까지 지휘부가 기재되었고 ‘義案’에는 병사들이 기재되었다. 김용현이 최덕준 다음에 貳領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제의 ‘폭도수괴조사표’에 김용현만이 유일하게 “최덕준의 참모”라고⁹³⁾ 기재된 사실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최덕준의진은 군사가 450여 명이 달했으며 함북지방의 대표적인 의병부대였다. 특히 대한협회 경성지회와 연계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한협회 경성지회가 최덕준의진에 군자금과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의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는 것이다. 연해주의병부대의 1908년 8월 국내진공전 당시 장석회부대가 함북 경성까지 진출하여 최덕준부대 등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용현은 이러한 최덕준의진에서 활동하다 귀가했다가 1908년 6월말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귀순을 청한 자로 간주되어 소위 ‘면죄문빙’을 교부받았다.⁹⁴⁾ 그럼에도 이후 계속 최덕준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즉, 같은 해 9월 27일 군사를 이끌고 경성군 주온면 대성현의 보통학교를 습격하는 등 활동하였다.⁹⁵⁾

93) 『警收秘 第167의 4호 폭도수괴 기타조사』, 함북경찰부장, 1908. 12. 8, 『폭도에 관한 편책』

94) 『鏡警親發 第219호 暴徒免罪文憑交附의 건』, 경성경찰서장, 1908. 6. 30. 『폭도에 관한 편책』

95) 『警發 第5호 폭도에 관한 정보』, 함경북도 경찰부장, 1908. 10. 3. 『폭도에 관한 편책』(『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의병편 5, 국사편찬위원회, 1983, 257쪽)

6) 洪範圖義陣의 서기 韓雲燮

한운섭은 함남 咸興郡 德山面 大德里 출생으로 중국 奉天省 長白府 大東社 梨田洞에 거주하였다. 1912년 당시 28세였으며 판결문에 직업이 ‘醫師’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한의사로 개업했던 것 같다. 1908년경 홍범도의진의 서기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2월 20일경 高雲學⁹⁶⁾ 외 19명의 의병과 함께 충기와 창을 휴대하고 함남 갑산군 熊耳面 都上里에서 군수품을 수집하고 취식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2년 9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⁹⁷⁾

4. 의병의 독립군 전환과 安鍾奭

일제의 침탈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의병활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나라를 강탈당하자 의병들은 만주, 노령 등지로 이동하여 새롭게 독립군으로 전환해갔다. 안종석은 독립군으로 전환해간 의병의 모습을 보여준다.

안종석은 충남 大興郡 二南面 加德里 출신이며⁹⁸⁾ 1917년 체포 당시에는 중국 和龍縣 崇化社 上天坪 南仁瑞의 방에 기숙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45세였으므로 1872년경 출생하였다. 前 秘書

96) 판결문에 ‘高雲學’으로 기재되었으나 원일상에 의해 피살된 ‘高云鶴’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판결문에는 차도선의진이 아니라 홍범도의진으로 기재되었으나 홍범도와 차도선이 함께 활동한 사실을 감안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9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330~331쪽.

98) 유인석이 주도하여 작성한 『義員案』에는 “安鍾奭, 字 聖保, 壬申生, 貫 慶州 居 慶州”로 기재되었다(박민영, 「연해주 의병 명부 『義員案』 해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4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345쪽). 1872년(壬申年) 출생으로 경주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온다.

초이었다고 하며⁹⁹⁾ 독립운동 중에는 ‘醫生’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¹⁰⁰⁾ 儒醫라고 할 수 있다.¹⁰¹⁾

1908년 음력 4월경 노령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孟峴 부근에서 서당교사로 있었다. 유인석이 1908년 봄 연해주로 망명하여 명고개(孟嶺)에 거주했는데, 안종석의 망명시기와 거주지를 보면 유인석과 함께 연해주로 망명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후 유인석이 주도하여 1910년 6월 21일(음력 5월 15일) 조직한 13道義軍에 참여하였다. 13도의군 결성의 사전작업으로 1909년 말부터 1910년 초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義員案』에 등재되어 있다.¹⁰²⁾

총 539명이 수록된 『의안록』에 유인석, 이재윤, 이범윤, 이남기,

99) 「安鍾奭 부하 휴대의 무기 매각 및 부하 氏名에 관한 건」, 재훈춘 부영사, 1916. 1. 26.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 반면 그가 “初試”로 불렸다는 일제측 기록도 있으나(「불령선인 폭동음모에 관한 건」, 재간도총영사대리영사, 1915. 12. 8) 보다 직접적인 앞의 기록을 택하였다.

100) “安은 일본관헌을 습격할 계획에 대해 지나관헌에 교섭 중 배하에 내용이 일어나 다시 계획이 전연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이래 醫生 또는 서당교사가 되어 혹은 잡화행상을 경영하여 노령 및 간도 각지의 유세에 힘썼지만(하략)”(「폭도수령 안종석 체포에 관한 건」, 조선주차헌병대사령관, 1917. 3. 30,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6)

101) 안종석은 유림이며 비서승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직업이 “醫業” 또는 “醫師”로 기록되어 ‘開業醫’였던 앞의 사례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가 독립운동 중에 한 때 ‘醫生’으로 생활했으므로 개업의였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儒醫의 사례로 포함하였다.

102) 박민영은 “『의원안』은 위의 ‘立義案’ 곧 연해주 의병 명부로 추정된다. (중략) 이런 점에서 13도의군의 서명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직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과 13도의군 편성시 명부 작성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13도의군이 편성되기 직전, 곧 1909년 말부터 1910년 초에 걸쳐 추진된 입의안 때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박민영, 「연해주 의병 명부 『義員案』 해제, 341~342쪽). 반면 구완회는 『의원안』에 계몽주의자도 포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의원안』이 연해주 지역 항일운동 세력을 망라한 명단이라고 하였다(구완회, 「연해주시기 유인석의 의병노선과 ‘貫一約」, 『의암유인석연구논문집』 V, 의암학회, 2018, 181-182쪽). 『의원안』의 성격과 상관없이 안종석은 13도의군에 참여한 것 같다. 유인석이 안종석을 국내에 파견한 것이 13도의군의 국내 지부 결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설, 우병렬, 박양섭, 박치익, 심상돈 다음인 10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황실의 종친인 이재운, 연해주의병의 실질적 지도자로 13도의군의 彰義軍總裁인 이범윤, 鏡城의병장 출신으로 13道義軍 壯義軍總裁인 이남기, 헤이그특사이자 13도의군 都通信 이상설은 모두 13도의군의 핵심적인 지도자였다. 그 외에 우병렬, 박양섭, 박치익은 모두 유인석을 隨從했던 평안도 의병장들이었다.¹⁰³⁾ 이들 다음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그의 위상이 상당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1910년 8월 유인석, 이범윤, 이상설 등이 조직한 聲明會에 참여하였다. 그는 유인석의 명을 받고 같은 해 음력 8월 17~18일경 함경도 원산에 밀파되어 일본 관헌의 시설과 민심의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13도의군은 국내에 조직 결성을 추진하였다. 고을마다 총재, 통령, 참모, 총무 등의 직책을 두어 전국적 조직망을 계획하였다. 그가 원산에 밀파된 것도 이러한 국내 조직 결성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露領으로 귀환하였으나 러시아 관헌에 의해 성명회는 이미 해산한 후였고 많은 성명회와 13도의군의 간부들이 체포되거나 각지로 은신한 상태였다. 이후 그는 노령과 만주 국경, 간도 등지를 유랑하며 동지의 규합에 힘썼다. 1914년 음력 정월경에는 간도 국자가에서 孔敎會에 입회하여 포교원이 되었다. 공교회는 표면 상으로는 공자를 추앙하는 모임이었으나, 복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포교를 빌미로 이범윤의 부하로서 성명회원이기도 했던 李起林, 張興敬, 金永澤 등과 회합하였다. 또 공교회원인 閔培植, 의병 출신의 韓相悅 등과 독립운동의 방안을 협의하며 때를 기다렸다.

1915년 음력 7월 하순 그는 길림성 東寧縣 高安村(일명 三岔

103) 박민영, 위의 글, 342쪽.

口)에서 민배식 등과 의병조직을 결의했다.¹⁰⁴⁾ 고안촌 남방 15리 인 三石峴(일명 三石拉子)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거의를 촉구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노령과 만주 각지에 배포하며 동지를 규합했다. 그 결과 음력 9월 하순 동지 80명, 소총 50정, 권총 3정, 탄약 약 7천 5백 발을 확보하였다. 총기는 러시아제 5연발총, 일본 단발엽총 등이었다. 마침내 彰義所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직제를 갖추었다.

〈표 1〉 彰義所 편제

직책	성명	연령	출신지
사령관	안종석	45세	충남 大興
參謀監	李南夏	44세	京城
參謀官	金永鎭	28세	충북 延豐
중대장	韓相悅	42세	강원도 橫城
참모원 겸 서기	李惠植	40세	황해도 海州
서기	朴永龍	미상	경북 대구
제1소대장	李起林	미상	경상도
제2소대장	張興敬	미상	강원도
하사	洪德俊	미상	경기도 포천
하사	金永澤	미상	충남 연산
하사	朴申鳳	미상	함남 갑산
하사	鄭雲植	미상	강원도 횡성
참모원	閔培植	미상	함남 갑산

* 출처 : 「폭도수령 안종석 체포에 관한 건」, 1917. 3. 30, 조선주차헌병대사령관 조선 총독부경무총장,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6.105)

104) 일제는 그를 “성질이 극악 보수적으로 王國黨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안종석 폭동의 전말에 관한 건」, 혼춘부영사, 1915. 12. 6,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 신한민보도 이 거의를 보도하면서 “의병장 안종석”이라고 표현하며 ‘의병’으로 지칭하였다(『신한민보』 1917년 5월 3일).

105) 이와는 달리 부대 편제가 다음과 같다는 기록도 있다(「안종석 부하 휴대의 무기 매각 및 부하 氏名에 관한 건」, 재혼춘 부영사, 1916. 1. 26, 『불령단관계잡건-

특이한 것은 별도로 국권회복을 맹세하는 彰義誓所를 설치하여 가입자들이 결의를 다지도록 한 점이다. 또한 직제도 한말 의병의 일반적 직제가 아닌 독립군적 직제를 채택하였다. 군사 중에는 해산군인 출신들도 있었다.¹⁰⁶⁾

이들은 본부인 삼석현에서 노령 스베찬에 이르는 18리 간의 통행인에게 여객 보호를 명목으로 1인당 2원씩을 징수하여 군자금에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러시아 관리 1명을 사살하기도 했다. 겨울철을 맞아 군대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노령 스베찬으로 이동하여 자금 방책을 마련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진출해 더욱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스베찬에서 자금 마련이 어렵자 두만강 일대로 나와 함북 慶興의 일본군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1915년 음력 10월 1일 7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실행에 나섰으나 스베찬에서 러시아 기병과 충돌하였다. 우세한 러시아군의 화력에 패배하여 많은 군사가 사산하고 30여 명만 남자 동녕현으로 돌아왔다.¹⁰⁷⁾

이에 11월 15일 군수관 이모를 琿春縣 東溝인 高麗坪에 파견하여 그곳 주둔 중국군에 통과를 교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당초의 계획은 혼춘현 高麗坪, 靑溝子, 荒溝를 경유하여 密江으

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 그러나 신빙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안종석 체포 후의 기록을 채택하였다.

사령관(前 秘書丞) 안종석

中隊長 李英鎔, 韓相烈

소대장 李東鎭, 張興敬, 金演澤, 鄭寅植, 李起林, 權顯洙, 洪滿俊

참모부 李南植, 金永鎭

서기 朴泳昭, 閔培植, 李春在, 李東勳

106) 『機密公領 제8호 배일선인의 행동에 관한 건』, 재혼춘 분관주임, 1918. 2. 25,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6

107) 『폭도수령 안종석 체포에 관한 건』, 조선주차헌병대사령관 조선총독부경무총장, 1917. 3. 30,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6 ; 『自稱 司官의 就縛, 창의소를 설립하고 총사령관이라 자칭하던 안종석의 취박』, 『매일신보』 1917년 4월 3일

로 나와 동 對岸인 美占 및 穩城을 습격하여 일본관민을 참살하려는 것이었다.¹⁰⁸⁾ 그는 혼춘현의 黃丙吉과 연계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부대의 지휘를 이기림에게 부탁하고 李惠植 1인만을 대동한 채 煙兔拉子로 갔다.

그런데 당시 동녕현으로 돌아온 군대 중 6명의 군사가 老黑山 산중에서 중국군에게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안중석에 불만을 품은 이기림은 소장한 무기를 모두 太平溝 吳周赫의 집으로 운반하고 오주혁과 함께 안중석을 배척했다. 결국 군사들도 모두 四散되고 말았다. 부대가 소장했던 무기 중 군총 42정마저 여기저기 팔려나간 것 역시 아쉬운 점이었다.¹⁰⁹⁾

이후 안중석은 1916년 2월 동녕현에서 소위 강도범으로 중국관헌에 체포되는 고초를 겪었다.¹¹⁰⁾ 일본군에게 인도되지는 않았지만 풀려난 후에도 그는 醫生, 서당교사, 심지어 잡화행상을 하며 재거의를 모색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17년 3월 3일 함북 무산부근에서 일본 헌병분대에 체포되었다. 3월 15일 청진지청 검사분국에 송치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당시 미주의 『신한민보』는 “의기가 구름갓다 도문강에 찻죽을 던지는 한국혁명군— 불행히 패하얏스나 일인은 낙담 상흔”이란 제목으로¹¹¹⁾ 그의 거사내용을 상세

108) 「안중석 폭동의 전말에 관한 건」, 재혼춘 부영사, 1915. 12. 16,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 이 자료에는 당시 안중석이 이끌던 부대의 인원이 5백 명이었다고 한다.

109) 「안중석 부하 휴대의 무기 매각 및 부하 氏名에 관한 건」, 재혼춘 부영사. 1916. 1. 26,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

110) 「圖們江 방면 支那領 情況彙報 1. 支那官憲 安鍾奭 체포에 관한 건」, 1916. 2. 15,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

111) 『신한민보』 1917년 5월 3일. 또한 신한민보는 「한국의 독립과 우리의 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하며 “(전략) 현금 각 방면의 형편을 도라보건되 소위 내지의 배일은 당성원의 부자형제가 귀향간 후에는 다시 통쾌한 소식이 없으며 소위 원동의 급진은 의병장 안중석의 부하가 내용으로 헤어진 후에 도문강의 물소리가 고요하며 소위 해외의 완진은 이제야 대동단결을 창도하니 아직까지

히 보도하였다. 이후 그의 행적을 알려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5. 맺음말

한말 의병부대에서 질병·부상자의 치료는 의병부대와 전투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의진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자체 치료, 은신 치료, 귀가 등이 있었다. 자체치료는 대체로 간단한 응급조치에 그쳤을 것이다. 의진 내의 한의사나 한의약 지식이 있는 유학자인 儒醫들이 치료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외과적 조치가 필요한 부상자의 치료는 자체 치료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질병·부상자는 마을에 은신 치료하거나 귀가하여 치료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의진 내에 ‘軍醫’ 등 별도의 부서를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중기의병 당시 산남의진, 후기 의병의 동의회, 이백래의 호남창의소 등에서 軍醫 직제가 확인된다.

의진 내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의진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창의록 등 의병측 기록에도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다. 한의학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석용의 창의록에도 구체적인 치료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 이는 창의록이 주로 의진 전체의 운용을 중

각 당파의 의견이 맞지 아니함을 가히 알지라(하략)”(『산한민보』 1917년 10월 4일)라고 하여 안중석의병장의 거사를 급진파(즉각적인 독립전쟁파)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그 실패를 안타까워하였다.

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의병에 참여한 한의사의 의료기록이나 개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의병부대에서의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의사들의 의병 참여는 중기의병 당시부터 확인되며 1907년 군대해산 이후의 후기의병에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전기의병 당시에도 儒醫들의 참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통감부의 서양의학 중심정책과 한의학 홀대가 한 의사들의 의병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신분·계층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경제적, 정치적 침탈이 위기의식을 제고시켰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의병전쟁 과정에서 한의사 의병 간의 연대 등 한의사 의병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직업적 의식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적으로는 함경도 지방에서 한 의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지역이 녹용, 산삼 등 약재의 산지로서 한의약인이 많았기 때문이다.¹¹²⁾ 함남 북청(원일상), 갑산(한운섭), 함북 경성(김용현) 등에서 참여사실이 확인된다.

한 의사들은 의병장으로 거의하거나, 의진의 주요 참모로 활동하였다. 식자층이었으므로 의진 내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의병관련 기록에 농업 또는 양반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개업하지 않은 儒醫로서 의진 내에서 의료행

112) 함경도의 북청, 갑산, 경성, 명천, 영변 등의 산간지방은 녹용, 산삼 등 약재의 대표산지였다. 1914년 당시 의생과 약종상을 합쳐 도별 인구 1만 명 당 의약인 수는 함북(14명), 함남(12.67), 경기(서울포함)(11.52) 순으로 높았으며 황해도(3.48)가 가장 적었다. 또한 의원이 30인 이상인 府郡 중 서울(298), 북청(170), 갑산(161), 평양(114), 울산(82), 정주(79), 의주(77), 용천(74), 창원(73), 鎭城(67), 명천(67), 영변(66), 부산(62), 함흥(60) 등 순서로 의원이 많았다(신동원, 「조선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4, 204~205쪽).

위를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한의사들이 의병전쟁에 참여했을 것이다. 의병전쟁에 참여할 당시 개업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나, 안중석 같은 儒醫는 의병 참여 이후 생계 등의 필요에서 의료능력을 활용하였다.

한의사 의병도 경술국치 이후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군으로 전환해 갔다. 안중석의병부대는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병부대에는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중심이었으나, 독립군 부대에는 서양의술을 익힌 양의도 참여하면서 한의학, 서양의학이 혼재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대한제국 관보』, 『통감부문서』, 『매일신보』, 『신한민보』
국사편찬위원회, 『폭도에 관한 편책』
국사편찬위원회,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5~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의병편) 8~19, 1979~1990.
국가기록원, 『판결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집, 1970~197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집, 197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VI, 2003.
송상도, 『기려수필』, 1955, 국사편찬위원회
李純久, 『山南倡義誌』, 下卷, 1946.
李錫庸, 『大韓義將湖南倡義錄』, 1961.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2. 저서

구완회, 『한말 제천의병 연구』, 서울: 선인, 2005.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儒醫列傳』, 서울: 들녘, 2011.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 1997.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서울: 선인, 2007.

3. 논문

구완회, “연해주시기 유인석의 의병노선과 貫一約”, 『의암유인석연구논문
선집』 V, 의암학회(2018)
<http://doi.org/10.17751/DHR.126.173>
권구훈, “한말 의병의 참가계층과 그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991)

-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10)
<http://doi.org/10.15799/kimos.2010..35.005>
- _____, “연해주 의병 명부 『義員案』 해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13)
<http://doi.org/10.15799/kimos.2013..45.009>
- 박윤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東方學志』 139권, 연세대 국학연구원(2007)
- 신동원, “조선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26(2)(2004)
<http://uci.or.kr/I410-ECN-0102-2009-400-002209789>
- 윤선자, “임실지역과 한말 항일의병”, 『역사학연구』 30집, 호남사학회(2007)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503867>
- 정제우, “沿海州 李範允 義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집, 독립기념관(1997)
- 홍영기, “舊韓末 金東臣 義兵에 대한 一研究”, 『한국학보』 56, 일지사(1989)
- _____, “구한말 ‘湖南倡義所’에 대한 몇가지 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1991)
- 황영원, “일제시기 한의학 교육과 전통 한의학의 변모-한의학 강습소를 중심으로”, 『醫史學』 제27권 제1호(통권 58호), 대한의사학회(2018)
- _____,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http://uci.or.kr/I804:11009-0000000083544>

(Abstract)

Medical Practice of Righteous Army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Participation in the War of the Righteous Army during the Daehan Empire

Kim, Sung-min

Treatment of injuries and diseases in the righteous army units was a ver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maintaining combat power. This thesis is a study examining the medical practices and the participation of oriental doctors in the righteous army units.

In general, medical practices within the righteous army unit included self-treatment, hidden treatment, and return home. Self-treatment would have been largely a simple type of first aid. Diseases and injuries causing mobility difficulties were treated in hiding in the village or by unit members returning home. Therefore, there were not many cases of having separate departments such as "military doctors" within the righteous army unit.

The participation of oriental medical doctors in the righteous army has been confirmed since the mid-term righteous army war, and it also has been established that such participation occurred in various regions in Korea during the late righteous army war.

Oriental medicine doctors served almost as righteous army chiefs or as major staff members of righteous army units. Since it was an educated class, it was often in charge of major positions within the unit. Like other righteous armies, the righteous army of oriental medical doctors was converted into an independent army centered on Manchuria after the fall of the Daehan Empire.

Keywords : righteous army units, combat power, medical practice,
oriental medical doctor, a military docto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449-482
<https://doi.org/10.29212/mh.2023..129.44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抗戰 후기의 지식청년 종군운동*

김영신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종군운동의 발동
3. 청년군의 징집, 구성, 훈련
4.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대일항전 말기인 1944년 말 중국에서 펼쳐졌던 지식청년종군운동을 대상으로 운동 발동의 배경, 발동과정, 전개과정, 청년군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식청년종군운동은 사실상 蔣介石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었다. 따라서 운동의 발동, 전개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사관 소장 『蔣中正總統文物』 중 관련 문건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조직편제, 훈련 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집행기구에서 생산된 자료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중국의 대일항전은 국가와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린 처절한 박투의 과정이었다. 항전은 국력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모든 인력, 물력, 정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신력이 전쟁의 행렬에 투입된 총체전이 전개되었다.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일체의 전쟁에 유리한, 전쟁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식청년종군운동의 발동은 장개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개인 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장개석이 운동을 발동한 것은 여러 방면의 고려에서였다. 첫째는 군대의 소질을 제고시켜 盟軍과의 연합작전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현대화된 전쟁에서는 현대화된 군대, 현대화된 군인이 필요하다”는 장개석의 지론이 종군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군운동을 통해 입영한 청년병사들이 직접 일본군과 교전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청년군이 항일전쟁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군운동은 군사적인 면에서 보다는 심리적인 면에서 중국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더욱 컸다.

주제어 : 모병제, 징병제, 항일전쟁, 병역법, 蔣介石, 국민정부, 지식
청년, 청년군

(원고투고일 : 2023. 10. 6, 심사수정일 : 2023. 11. 10,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4년 국제정세 방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럽전장에서 이미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의 기세도 완전히 꺾여 연합군의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¹⁾ 원동전장의 미군은 일본군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서태평양상의 일본군 점령 도서들을 차례로 수복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유독 중국은 내부적으로, 대외관계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험난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44년 2월 초, 군사위원회위원장 곤명행영 주임 룡윈(龍雲)의 휘하가 토비를 가장하고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탈취하여 미국이 한동안 중국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다.²⁾ 10월에는 중국전구 지휘권을 두고 장제스(蔣介石)와 마찰을 빚던 중국전구참모장 스틸웰(Joseph Warren Stilwell)이 소환되어 미국의 여론은 국민정부와 장제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³⁾ 스틸웰사건을 전후하여 중국이 처한 군사적 상황은 더욱 참담하였다.

1944년 4-12월, 일본군은 동북-화북-화남을 거쳐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교통선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1호작전’을 감행하였다. 河南, 湖南, 廣西 세 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하였다. 전시수도 重慶의 안위마저 걱정스러운, 항전 개시 이래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하였다.⁴⁾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선

1) 呂芳上 總編輯, 『陳布雷從政日記(1944)』, 臺北: 民國歷史文化學社, 2019, 719쪽.

2) 李雲漢, 『中國國民黨史述』第三編, 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94, 577쪽.

3) 梁敬鎔, 『史迪威事件』,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302-303쪽.

4)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臺北: 國史館, 2015, 790쪽.

중국군은 4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와 더불어 엄청난 인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중일전쟁 초기 5년(1937-1942)간 중국군 사상자는 육군만 해도 270만 명에 달하였다.⁵⁾ 일본군의 '1호 작전'으로 인한 중국군의 손실은 60만 명에 달하였다. 이로 인한 병력의 심각한 결핍 현상이 지식청년중군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스틸웰사건,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한 군사적 손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심이 황황하고 불안하던 1944년 10월, 장제스는 공식적으로 지식청년중군운동을 발동하여 12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장제스의 호소에 청년학생들이 호응하여 전개된 지식청년중군운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43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 두 번째 단계는 1944년 10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1943년의 중군운동을 일반적으로 '학생중군운동'이라 칭한다.⁶⁾ 1944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된 청년중군운동은 '지식청년중군운동'이라 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양자를 일관된 운동으로 간주하여 후자의 성질과 목적에 대해 분명한 접근과 해석을 소홀히 하였다.⁷⁾

이 글은 1944년 말 펼쳐졌던 지식청년중군운동을 대상으로 운동 발동의 배경, 발동과정, 전개과정, 청년군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식청년중군운동은 사실상 장

5) 何應欽, 『日本侵華八年抗戰史』, 臺北: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2, 附表 2-3.

6) 1943년 중군운동 당시 사천성 경내에서만도 2만 8천 명이 중군을 지원하였다. 이 때의 학생중군운동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사천성군관구 참모장으로 운동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했던 쉬쓰핑(徐思平)의 보고가 참고할만한 자료이다. 徐思平, 「四川軍管區發動學生及公教人員志願服兵役經過」, 侯坤宏 編, 『中華民國軍事史料(一), 役政史料』 上冊, 臺北: 國史館, 1990, 427-432쪽.

7) 姜濤, 「再造黨軍: 知識青年從軍運動與青年軍」, 『近代史研究』, 第6期(2020), 73-74쪽.

제스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었다. 따라서 운동의 발동, 전개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사관 소장 『蔣中正總統文物』 중 관련 문건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조직편제, 훈련 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집행기구에서 생산된 자료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2. 종군운동의 발동

송대 이래 중국은 모병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천 년간 중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가 관례가 되었다.民国 원년 이후 대소 군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모병을 통해 병력을 확충하였다. 대부분은 파산농민 혹은 도시의 실업 빈민들을 초모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의 유지는 군대의 소질을 저하시키고 민중들로 하여금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는 관념이 결핍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⁸⁾ 징병제도의 채택이 중요한 정책방향이었음에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구식 모병제의 폐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쑨원(孫文)은 주의에 충실한 군대를 조직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24년 1월 23일 발표된 중국국민당대회선언의 대내정책 제7조에 “현행 모병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징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⁹⁾ 1931년 5월 12일 국민회의에서 제정되고 6월 1일 국민정부가 공포한 「訓政時期約法」 제26조도 중화민국 국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징병제를 장래 병역제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명시하였다.

8) 侯德础, 「略論抗戰後期的知識青年從軍運動」, 『民國檔案』, 第二期(2006), 119쪽.

9)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史料專輯』, 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1984, 123쪽.

1931년 12월 26일 국민당 제4기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제의된 「請從速實行徵兵制以禦暴日案」에서도 징병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결의하고 국민정부에 관련 사안을 준비하도록 권고하였다.¹⁰⁾ 이 원칙에 의거하여 국민정부는 1933년 6월 17일 정식으로 「병역법」 12조를 공포하였다.¹¹⁾ 흥미로운 사실은, 종래 징병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이 병역법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정부는 이 병역법에 약간의 조정을 가하여 1936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¹²⁾

항일전쟁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게 되자 국민정부는 徵·募 병행제를 통해 병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병력은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특종부대 및 군사학교의 기술사병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초모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1.28 상해사변’이 발생한 뒤 병력 보충이 여의치 못할 것을 염려한 軍政部에서는 가용자원이 비교적 풍족한 호남·산둥·하남 등 7개 성에서 매달 장정 6만 명씩을 모집하여 중앙에 보내 각 부대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70여만 명의 장정을 모집하였다.¹³⁾

교육을 항전건국의 근본으로 간주한 국민정부는 항일전쟁 발발 후에도 ‘전시도 평시와 같이’라는 교육방침을 정하고¹⁴⁾,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 중인 청년들에 대한 징집을 실시하지 않았

10)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編, 『中國國民黨歷屆歷次中全會重要決議案彙編』(一), 臺北: 黨史委員會, 1978, 268-270쪽.

11) 國史館 編, 『國民政府軍政組織史料』第四冊, 臺北: 國史館, 1999, 62-64쪽.

12) 國史館 編, 『國民政府軍政組織史料』第四冊, 76쪽.

13) 馬起華, 『抗戰時期的政治建設』, 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86, 50쪽.

14)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臺北: 黨史委員會, 1988, 21쪽.

다. 전시인 1938년 4월 공포된 「兵役法施行暫行條例修正草案」에서 초급중학 혹은 동등학교 재학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다.¹⁵⁾ 광대한 중국의 인구를 감안할 때 굳이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학생들의 입영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¹⁶⁾

가용자원이 가장 풍부한 사천성정부가 1937년 9월 21일 반포한 「四川省各縣市民力統制實施辦法」의 제3조도 ‘장정(18-45세) 중 상인, 학생, 성직자, 공무원을 제외한 재향군인·농·공 종사자 등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집한다’고 하여 학생과 공무원원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⁷⁾ 이 역시 학생과 공무원원은 병역면제 혹은 징집연기의 대상이라는 「병역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1942년 8월 13일 군사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兵役法修正草案」의 21조도 전문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⁸⁾

병역을 주관하는 관서에서는 장제스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항전건군의 정신을 반영한 신병역법의 제정을 제안하였고, 1943년 2월 27일 입법원은 신병역법을 통과시켰다. 신병역법의 20조 4항은 “전문학교 이상 학교 재학자 중 25세 미만인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⁹⁾ 3월 14일 신병역법이 공포되어 징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입영기간 학적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년학생들의 종군열정을 격발시킬 수 있었다.

항전시기 징모를 통해 입영한 사병의 대부분이 지적 수준이

15) 國史館 編, 『國民政府軍政組織史料』 第四冊, 114쪽.

16) 教育編纂委員會 編, 『第二次中國教育年鑑』, 臺北: 文海出版社, 1986, 101쪽.

17) 周開慶 編, 『民國川史紀要』, 臺北: 四川文獻月刊社, 1972, 26쪽.

18) 國史館 編, 『國民政府軍政組織史料』 第四冊, 187쪽.

19) 「兵役法」, 『國民政府公報』, 1943년 3월 15일, 渝字第553號.

낮아 군대의 소질을 제고시킬 필요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적수준이 높은 청년들의 입영이 요구되었다. 이에 장제스는 여러 차례 ‘지식청년’과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입영을 호소하였다.

항일전쟁이 3년째에 접어든 1939년 1월 29일, 장제스는 사회지도층과 공무원 자제의 입영을 독려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교육계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였다.²⁰⁾ 이 문고에서 장제스는 먼저 항전이 이미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지만 지구전을 수행하기 위한 실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물력의 보급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인력과 물력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특히 전국 각지의 부유한 자와 지방의 덕망 있는 인물, 교육계 인사들이 몸소 창도하여 병역을 수행하여 항전수행을 위한 병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하였다.

1942년 10월 6일, 제4회 전국 병역회의에 직접 참가하여서는 「병역의 혁신을 위한 근본정신과 필요한 조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이 병역 수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당원 자제와 친우들이 솔선하여 종군하도록 독려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²¹⁾을 강조하여 청년학생들의 자발적 종군운동이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장제스의 여러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항전 후기까지 사회지도층 자제 혹은 ‘지식청년’의 자발적 종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제4차 長沙大會戰에서 중국군이 패배하면서 1944년 6월 長沙가 재차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48일간이나 분투하던 중국

20) 「告全國士紳及教育界同胞書」,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編, 『革命文獻』第62, 63合輯,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73, 191-192쪽.

21) 「革新兵役之根本精神與必循的途徑」, 秦孝儀 總編輯,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19, 演講, 臺北: 中正文教基金會, 1984, 329쪽.

군이 사수에 실패하면서 衡陽도 일본군에 점령되었다.²²⁾ 특히 귀주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獨山까지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 당과 정부 내부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였다.²³⁾ 사회적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화팽창으로 어려움에 처한 데다 그나마 물자도 품귀현상을 빚어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최후의 단계에서 부득이한 경우 군·정 방면의 각 직무를 내려놓을’²⁴⁾ 결심을 가질 정도로 장제스 개인적으로도 항전 개시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고민이 많았다. 이에 당시의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에서 군대의 소질을 제고시키고 反攻 실력을 증강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²⁵⁾

1944년 7-8월 장제스는 관저가 있는 黃山에서 整軍會議를 소집하여 군대개량문제를 논의하였다. 항전 후기 최대 규모의 정군회의에 거는 장제스의 기대는 상당하였다. 네 차례나 직접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 부대조정, 관병의 생활대우 제고 및 부식 문제 해결, 신병의 대우 개선, 병역, 군수 등 군정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²⁶⁾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의에서는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은 하나도 제출되지 못하였다.²⁷⁾ 물론 회의 후 군정기구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조정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하

22)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712-713쪽.

23) 蔣經國, 『風雨中的寧靜』,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78, 35-45쪽.

24) 『蔣介石日記』, 1944년 8월 29일.

25) 姜濤, 「再造黨軍: 知識青年從軍運動與青年軍」, 74-75쪽.

26) 「對於整軍會議之訓示-知恥圖強」; 「對於整軍各案之訓示」; 「對黃山整軍會議審查修正各案之訓示」; 「對於整軍會議各案之指示」, 秦孝儀 總編輯,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2 演講, 臺北: 中正文教基金會, 1984, 443-497쪽.

27)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724쪽.

였다.

마침 이 무렵 군사위원회 군정부장 천청(陳誠)이 전국의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하여 난관을 극복할 방안을 건의하였다.²⁸⁾ 그 가운데 한 가지 방안이 (국민)당원과 (삼민주의청년)단원의 입영을 추진하여 군대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일으키게 하고 사병의 소질을 제고시키자는 것이었다.²⁹⁾

장제스는 이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천청으로 하여금 중앙당부 및 삼민주의청년단 방면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령하였다. 8월 24일 장제스는 돌연 국민당비서장 우테청(吳鐵城) 및 삼민주의청년단 서기장 장즈중(張治中)에게 “당원, 단원을 대상으로 종군운동을 전개하여 제1기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3개월 내에 징집을 실시하라. 운동은 각급 당부와 단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되, 문자상의 선전을 펼치지는 마라”는 지령을 하달하였다.³⁰⁾ 여기에서부터 ‘10만 청년 종군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천청이 올린 건의의 중점은 당원과 단원을 징집하여 인력을 집중시키고 병사들의 질을 제고하고 가용병력을 늘리자는 데 있었다. 장제스는 한 걸음 나아가 징집인수와 시간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외부의 인식을 고려하여 선전 없이 조용히 진행할 것을 지령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징집한 병사들을 어떻게 편제하고 훈련시킬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9월 5일 장제스는 천청에게 전보를 보내 “당원과 단원 각 5만 명을 소집하여 지원군 6개 사단을 조직하고, 본인(장제스)이 직접 軍長을 맡을 것”이라는 계획을 전하였다.³¹⁾ 최초 천청의 건

28) 陳誠, 『陳誠回憶錄：抗日戰爭』, 臺北：東方出版社, 2009, 268쪽.

29) 陳誠, 『陳誠先生日記』, 1944年 8月 20日, 臺北：國史館, 2015, 614쪽.

30) 葉惠芬 編輯,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第58冊, 臺北：國史館, 2011, 205쪽.

의와 이 무렵 장제스의 복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제스는 친히 지원군 군장을 맡고 고위 장령을 물색하여 6개 사단의 사단장을 맡도록 하며, 당·단원 지원군은 각 기존부대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통으로 편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장제스의 복안에 대해 최초 건의자인 천청은 완곡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천청이 볼 때 장제스의 뜻대로 지원군이 편성되면 국제사회의 오해와 국내의 곡해, 기존 부대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³²⁾ 이에 천청은 단기간에 10만 지원군을 선발하여 편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절충방안으로 사단 단위의 지원군을 순차적으로 편제한 뒤 최종적으로 군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³³⁾ 그러나 이미 결심을 굳힌 장제스는 당·단 내부에 자신의 복안을 던지시 흘리며 내부 반응을 살폈다.

9월 6일 저녁, 국민당비서장 우테청과 행정원비서장 겸 국가총동원회의비서장 장리성(張厲生)이 당·단 양방면의 책임자들을 모아 담화회를 갖고 장제스가 제안한 10만 당·단원지원군 종군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시 중앙설계국부비서장을 겸하고 있던 청년단 요원 간나이광(甘乃光)이 “당·단원으로 구성된 부대의 대우가 기존 부대와 다르게 되면 사회에서는 이들을 ‘특수계급’으로 지목하고, 군 내부에서도 이질감이 생길 것이며, 국제사회의 적지 않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당장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³⁴⁾

31) 何智霖 編輯, 『陳誠先生書信集-與蔣中正先生往來函電』下, 臺北: 國史館, 2007, 585쪽.

32) 『陳誠先生書信集-與蔣中正先生往來函電』下, 586쪽.

33) 『陳誠先生書信集-與蔣中正先生往來函電』下, 586-587쪽.

34) 王子壯, 『王子壯日記』第9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1, 359쪽.

국민당 조직부 방면에서도 지원군 조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5만 당원의 징집을 완성할 자신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직부 책임자는 “30세 이하의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당원은 대부분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장자들”이라며 단기간에 5만 명을 소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난색을 표하였다.³⁵⁾ 장제스가 당·단원 10만 명의 종군을 계획한 것은 이를 통해 당·단의 분투를 격려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당·단의 산만한 조직과 널리 팽배해진 무력감은 장제스가 생각하고 바라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무리였다.

9월 16일, 장제스는 겸임 행정원장 신분으로 국민참정회 제3기 제3차회의에 출석 1년래 정부의 군사, 외교, 내정, 경제 등 각 방면의 처리경과와 금후 시정방침에 대해 보고하였다.³⁶⁾ 당일 보고 가운데서 그는 “금후 지식분자의 입대운동을 전개하여 지식청년들을 현대적 군인으로 훈련시켜 하급간부로 충당하는 길만이 중국군의 소질과 국가지위를 제고시킬 유일한 방도”³⁷⁾라며 지식청년종군운동(종군운동)을 본격 전개할 의향을 표시하며 참정회의 도움을 청하였다.

이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나 종군운동의 본격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10월 11-14일 중경에서 소집된 ‘지식청년종군운동회의’가 그것이다.³⁸⁾ 회의 출석자는 중앙 유관기관 및 각 성·시정부, 당부와 단부의 각급 공작인원 및 교육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에 달하였다.

개회식 치사에서 장제스는 종군운동의 성패는 항일전쟁의 군

35) 王子壯, 『王子壯日記』第9冊, 359-36쪽.

36)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726-727쪽.

37) 「一年來軍事外交政治經濟之報告」, 秦孝儀 總編輯,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0 演講, 臺北: 中正文教基金會, 1984, 508-509쪽.

38)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763쪽.

사적인 면과 깊은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건국 전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³⁹⁾ 종군운동이 혁명성공의 최대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효과적인 징집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시켜 청년들에 대해 종군에 대한 호소력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10월 12일 재차 회의에 출석한 장제스는 치사에서 민중으로 하여금 과거 병역에 대해 가졌던 심리를 변화시켜 징집에 열렬히 응하여 전력을 충실히 할 것, 중국국민당에 대한 민중의 태도를 변화시켜 중국국민당이 혁명을 위해 희생한 정신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것 등 두 가지를 종군운동의 양대 종지로 제시하였다.⁴⁰⁾ 종지의 두 번째는 사회민중들이 국민당의 영도를 받아들이 혁명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제스는 전자보다 후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곧 종군운동이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라 국민당에 대한 민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일소시키고, 국민당이 영도하는 항전건국의 혁명사업에 대한 지지와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문제로 보았던 것이다. 병력의 부족을 메우고 군대의 소질을 제고하는 문제를 부차적인 목적으로 간주한 이러한 인식은 장제스가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한 목적이 군사개량에 있지 않고 기존 국군과는 체계가 다른 ‘黨軍’ 건설에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한 요인이었다.⁴¹⁾

10월 14일 폐막까지 세 차례의 전체회의 두 차례의 분조 토론을 거친 회의에서는 선전방법, 징집방법, 편제훈련방법, 우대방

39) 「對於知識青年從軍運動之指示」,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0 演講, 513쪽.

40) 「知識青年從軍運動與本黨革命前途成敗的關係」,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0 演講, 520쪽.

41) 姜濤, 「再造黨軍：知識青年從軍運動與青年軍」, 73쪽.

법, 간부선발방법 및 각급 종군징집기관의 조직방법 등이 상세히 논의되었다.⁴²⁾ 지식청년으로 조직된 군대의 명칭을 ‘청년원정군’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운동의 실제 추진을 위해 폐막 당일 전국지식청년지원종군지도위원회(종군위원회)를 성립하였다.⁴³⁾

종군위원회는 10월 16일 국민정부 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징집방법 및 신병의 편제와 훈련계획 강요, 각 성·시·현 및 각 학교 지식청년지원종군징집위원회조직법 등이 의결되어 국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공포시행하기로 하였다.⁴⁴⁾ 이로써 종군운동이 정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제반 법령이 마련되고 본격적인 징집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24일, 장제스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종군보국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이 글에서 장제스는 청년종군이 신해혁명, 북벌, 통일 성공의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항전 최후승리라는 신성한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청년학생들이 ‘지원종군’의 영광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전국 동포들이 서로 독려하고 재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⁴⁵⁾ 장제스의 담화가 발표되자 中央大學, 交通大學, 復旦大學 등 각 학교

42)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756쪽.

43) 위원회는 당·정·군 및 교육계 인사 24명을 위원으로 정하고 참모총장 허잉친(何應欽), 국민당비서장 우테칭(吳鐵城) 등 9명으로 상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革命文獻』第62, 63合輯, 252-253쪽.

44) 10월 21일 군사위원회는 「知識青年從軍征集辦法」 4조, 「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指導委員會組織辦法」 10조 및 「各省市縣專科以上學校知識青年志願從軍征集委員會組織辦法」, 「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編練計畫綱要」 8조, 「知識青年從軍管理辦法」을 잇따라 공포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기타 각 당·정 기관들도 「各級黨部發動征集知識青年黨員從軍實施辦法」, 「發動知識青年從軍運動督導須知」 등 관련 법규와 법령을 공포하여 종군운동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0월 29일, 행정원은 각급 정부에 通電하여 청년 공무원이 출선하여 종군하도록 지도할 것을 명하였다. 교육부도 「從軍學生學業優待辦法」을 반포하였다. 聞黎明, 「國立西南聯合大學的青年遠征軍」,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5期(2011.5), 186쪽.

45) 「告知知識青年從軍書」,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32 書告, 89-95쪽.

교장 24인이 연명으로 옹호의 뜻을 담은 전보를 장제스에게 타전하였다.⁴⁶⁾

3. 청년군의 징집, 구성, 훈련

청년군의 징집은 「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이 정한 표준에 준거하여 집행되었다.⁴⁷⁾ 판법에서 정한 징집 표준은 중등 이상의 교육 혹은 상당한 지식정도를 가진 청년 남성(여성은 초·중등 이상), 연령은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자 가운데 체격 검사 합격자로 규정하였다.⁴⁸⁾ 또한 법령에 따라 징집과 복무가 연기된 35세 이상인 자의 경우도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 역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종군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에 전국지식청년 지원종군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를 두고 각 성·시·현 및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지식청년종군징집위원회(징집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⁴⁹⁾ 중앙의 지도위원회는 삼민주의청년단 간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는 종군운동이 군사운동이 아닌 정

46) 『(重慶)中央日報』, 1944년 10월 24일, 2版.

47) 1939년부터 의과대학 졸업생을 군의관으로, 1941년 전시 도로건설을 위해 공과대학 출신을, 중국에 주둔하는 미국공군이 늘어나자 외국어 전공자를 번역원으로 징집하는 등 종군운동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도 국민정부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소규모 징집을 실행한 바 있었다. 李守孔, 『八年對日抗戰眞象』, 臺北: 正中書局, 1977, 50쪽.

48) 체격검사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신장 152cm 이상, 체중 46kg 이상, 가슴둘레 76cm 이상, 오관과 사지 및 폐가 정상 이상인 자, 안과질환이나 치질 및 정신병이 없는 자. 「學生志願服役辦法」,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540-541쪽.

49) 「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549쪽.

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비판을 자아낸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였다.⁵⁰⁾ 11월 1일 사천성과 중경시에서 가장 먼저 징집위원회가 성립되어 종군운동의 본격적인 집행을 알렸다.

각 성·시·현 및 각 학교의 징집위원회는 지원군 신청수속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였다. 규정은 각 성·시·현에 지원하는 자는 해당 성·시·현 징집위원회 혹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점에서 등록하도록 하였다. 전문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은 해당 학교 징집위원회에 등록하고, 중등학교 학생은 징집위원회가 지정한 지점에서 등록한다고 규정하였다.⁵¹⁾ 자원입대를 신청한 학생들은 등록 이후에도 입영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등교하도록 하여 학업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종군 지원자들은 등록 후 학식과 체격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학식 측정은 학력 및 자격증명에 대한 심사 외에 구술시험의 과정도 있었다. 학력 및 자격증명이 없이 동등 학력으로 지원한 청년들은 구술시험 외에도 현장에서 자기소개서 한편을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 시의 참고로 삼도록 하였다. 학식 측정에 합격한 청년들만이 의원 혹은 위생기관에서 실시하는 체격검사에 응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상 두 가지 검사과정에 합격한 청년들만이 입영할 수 있었다.⁵²⁾

정부는 지식청년의 입영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병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우대조건을 정하여 11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 첫째, 입영 전 각급 당·정 및 교육기관에 임직하던 자는 그 직무를 보류하고 매달 받던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 둘째, 입영 전

50) 陳偉, 「抗戰時期蔣介石與知識青年從軍運動」, 『軍事歷史研究』, 第3期(2015), 56쪽.

51) 「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549쪽.

52) 教育部 主編, 『中華民國建國史』第四篇, 抗戰建國(二), 臺北: 國立編譯館, 1990, 902쪽.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자는 입영 후에도 학적을 보류할 수 있다. 관비장학생, 학비 면제자 및 장학금 수령자는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보류할 수 있다. 셋째, 국·공영 상업 조직에 근무하던 자의 직무는 원 소속 기관이 보류를 보장하고, 그 가족이 월급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 우대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⁵³⁾

이 외에도 입영자 발생으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교육이 불가능해지거나 의외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군 가족에게는 약 1만 원의 생계안정금을 입영 시 지급하였고, 그 액수는 물가변동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다. 복무기간과 대우는 인도·버마원정군(印緬遠征軍)과 동일하게 하였다.⁵⁴⁾ 곧 복무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만기 제대후 취업이나 진학 혹은 유학 시 우선권을 갖도록 하여 지원자의 복무의지를 북돋고자 하였다.

종군운동 시작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10만 명을 징집하여 10개 사단을 편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남성의 경우 전후기로 나누

53) 정부에서 보증한 지원 입대자 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한 기타 우대권익은 아래와 같다. (1) 임시 의연금 및 노역 감면. (2) 자녀나 형제의 공립학교 학비 면제. (3) 국립 병원의 진료비 면제. (4) 채무 미상환자는 전역 다음 해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그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에 대해 채권인은 강제 집행할 수 없다. (5) 담보 잡힌 부동산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전역 다음해까지 담보 회수 기한을 연장한다. (6) 소유주는 입영자가 임대한 경작지나 주택을 회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7) 입영기간 입영자의 처 혹은 약혼자는 이혼하거나 결혼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8) 입영자의 가족이 경영하는 생산사업은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9) 입영으로 인해 토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경우 의무 대신경작을 신청할 수 있다. (10) 입영자 혹은 그 가족이 경작할 토지가 없는 경우 공유지 임대 경작을 신청할 수 있다. 『知識靑年志願從軍優待辦法』,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550-552쪽.

54) 『全國知識靑年志願從軍徵集辦法』,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550쪽.

어 각 5만 명을 징집하고 1기 징집자는 1945년 1월 입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0월 18일, 삼민주의청년단 중앙간사회는 각성의 인구, 교육 등 여건에 따라 징집인원을 성·시 단위로 배정하였다.⁵⁵⁾

종군운동은 애초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학생들 가운데서도 입영을 원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신생활운동부녀지도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10월 29일 삼민주의청년단여청년처·여청년회(YWCA)·중앙대학·중경대학 등 36개 단위 대표 50여 명을 모아 ‘지식여청년종군문제’를 논의하였다.⁵⁶⁾ 이 자리에서 제출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이 지식여청년종군운동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결과 ‘陪都各婦女團體推進女青年從軍運動聯席會議’가 조직되어 운동의 본격적인 전개를 알렸다.⁵⁷⁾

종군운동 지도부는 여성청년들의 고양된 애국정서와 종군보국의 결연한 태도에 자극받아 지식청년종군회의 제2차대회에서 지식여청년지원복무대 조직방안을 결의통과시키고, 전국지식청년지원종군 조직체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여청년의 징집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여청년 종군의 의거로 삼았다.⁵⁸⁾ 여청

55) 青海·寧夏·西康은 200-1,000명, 甘肅·浙江·雲南·重慶은 1,000-2,000명, 湖北·貴州·廣西·安徽·江西·廣東·廣西는 2,000-3,000명, 湖南·陝西·河南·福建은 3,000-4,000명으로 규정하였다. 瞿紹華 主編, 『中華民國史事紀要(初稿)』 1944年 10-12月分冊, 臺北: 國史館, 1994, 188쪽.

56) 『(重慶)中央日報』, 1944年 10月 30日, 2版.

57) 宋青紅·曹風, 「抗戰時期知識女青年從軍運動新論」, 『重慶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2021), 41쪽.

58) 여청년의 징집과 복무에 관한 규정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① 重慶·成都·西安·貴陽·昆明 등 5곳을 징집지구로 정하며, 징집업무는 현지 혹은 각 해당지구 전문 학교 이상 학교 징집위원회가 책임진다. ②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은 여성청년 가운데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없고 건강한 자는 모두 지원등록하여 종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징집 총원은 2,000명으로 정한다. 각 지구의 인원분배는 중경 800명, 성도 500명,

년의 경우 2기로 나누어 500명씩 1,000명을 징집하되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하지 않고 지원군 각 단위에 분배하여 복무하도록 결정하였다.

11월 5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자원입영한 지식청년의 군사훈련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編練總監部(編練總監部)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에는 총감, 부감, 참모장 각 1인과 판공청 및 參謀·軍務 등 6처와 2실을 두고 별도로 정치부를 두었다.⁵⁹⁾ 총감 뤼취잉(羅卓英)은 종군 지식청년의 편제는 (印緬)원정군의 편제를 그대로 적용하며 군영생활은 대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기존 부대와는 다른 대우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총감부 외에 청년군 정치부는 장징궈(蔣經國)가 주임을 맡아 입영 청년들의 편제와 훈련사무를 담당하였다.⁶⁰⁾

11월 12일부터 개시된 징집공작은 다음 해 2월 22일까지 계속

군명 300명, 귀양과 서안 각 200명으로 한다. ④ 징집에 응한 지식여청년들은 먼저 각 학교 혹은 각지 징집위원회에 신청 등록하여 관련 증명서 검증을 마친 뒤 구술시험과 체격검사에 합격한 후 징집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이송하여 도착신고를 하도록 한다. ⑤ 잠정적으로 중경·귀양·성도·서안 네 곳을 집중지구로 정하여 현지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소 도착 일자는 1945년 2월 1일로 한다. ⑥ 입영한 지식여청년의 복무법위는 장정적으로 救護, 政工, 通訊, 經理 및 文書 등 분야에 한정한다. ⑦ 복무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만기 전 혹은 전역명령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부대를 이탈할 수 없다. ⑧ 여청년복무대원의 징집비용과 대우 및 우대방법은 원정군 전투병과 같이한다. 「全國知識女青年志願服務隊徵集辦法」; 「全國知識女青年志願從軍服務隊徵集管理辦法」; 「全國知識女青年志願從軍服務隊徵集實施辦法」. 이상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 552-555쪽 참조.

59) 총감은 뤼취잉(羅卓英), 부감은 황웨이(黃維, 후일 평허우런(彭侯仁)으로 교체), 참모장은 장언찬(張言傳), 참모처장은 웨이진푸(韋鎮福), 군무처장은 왕이수(王逸曙), 軍械處長은 승강(熊江), 군수처장은 예신(葉新), 총무처장은 황티즈(黃體植)가 임명되었고 장징궈(蔣經國)가 정치부주임을 맡았다. 장징궈가 청년군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치부주임을 맡은 것이 주목되는 인사이다. 江西 橫峯에는 東南分部를 두고 동남 각 성 지식청년종군의 編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國防部史政局 編, 『青年遠征軍第208師簡史』, 臺北: 國防部史政局, 1970, 13쪽.]

60) 江沛·張丹, 「戰時知識青年從軍運動述評」, 『抗日戰爭研究』, 第1期(2004), 75쪽.

되었다. 이 기간 12만 5천 5백 명이 등록하였다.⁶¹⁾ 체격검사 미달자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탈락자를 제외하고 실제 입영자는 8만 6천 명에 달했다.⁶²⁾ 등록자 수만 놓고 본다면 운동 발동 초기 예정한 1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격검사 등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 입영이 확정된 청년들은 12월 20일부터 입영을 시작하였다.⁶³⁾

종군운동에 호응하여 자원입대한 청년들은 출신지, 직업, 계층도 달랐고 지식청년이라 통칭하지만 각자의 학력과 지식수준도 달랐다. 청년들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편성과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였다.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원정군의 편성은 엄밀한 층급 체계를 갖추어 기타 정규군의 편조와는 달리하였다.⁶⁴⁾

「告知識青年從軍書」를 발표한 10월 24일, 장제스는 군사위원회 정치부장 장즈중과 군령부 차장 튀취잉에게 청년원정군의 政工, 教育, 訓練 등 사항과 관련하여 연달아 다섯 가지 지령을 내렸다.⁶⁵⁾ 튀취잉에게 내린 지시에서는 청년원정군은 최상위 편제부터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미국육군의 조직을 참고하여 속히 편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⁶⁶⁾ 기존 사병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원정군의 지식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한 편제 구성을 지시한 것이다.

최초 청년원정군의 구성은 당시 인도주둔군의 편제를 기준으

61) 國防部總政治部 編印, 『國軍政工史稿』上冊, 臺北: 國防部, 1960, 747쪽.

62) 『(重慶)中央日報』, 1945년 9월 25일, 2版.

63) 教育部 主編, 『中華民國建國史』第四篇, 抗戰建國(二), 國立編譯館, 1990, 903쪽.

64) 國防部總政治部 編, 『國軍政工史稿』上冊, 933쪽.

65)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763쪽.

66) 「蔣委員長致青年軍編練總監羅卓英為青年遠征軍應參考美國陸軍組織加以改革條示」,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編, 『蔣委員長中正抗戰方策手稿彙輯』(二), 臺北: 黨史委員會, 1992, 140쪽.

로 삼아 미국식 장비로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기본, 전투 및 병과교육을 마친 뒤에는 인도·버마전장 혹은 중국 각 전구에 투입하여 일본군에 대한 반공작전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인도주둔군은 미국식 장비를 갖춘 당시로서는 중국군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보병 사단이었다.⁶⁷⁾ 1943년 10월 버마 북부로부터 반공을 개시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동일한 편제가 대일작전에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청년원정군 각 사단의 최초 편제와 계통을 이를 모범으로 하였다.

편련총감부는 종군청년들의 편제를 師(사단)-團(여단)-營(대대)-連(중대)-排(소대)-班(분대)의 6급 편제를 취하였다.⁶⁸⁾ 기존 부대의 편제는 사단의 상급 단위로 軍을 두었음에 비해 청년원정군 각 사단은 편련총감부의 직속에 두었다는 것이 편제상의 특징이었다.

한편 청년원정군 「師司令部及直屬部隊編組表」와 「步兵團及直屬部隊編組法」은 공히 청년원정군의 모든 반장은 老兵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문서 또한 원 부대인원이 작성하도록 하였고 하사관급 간부와 사병은 청년군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런 편제는 군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군들이 오랜 군대생활을 한 간부들의 가르침 아래 숙련된 병사로 성장하여 최고의 효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12월 20일부터 입영을 시작한 청년들은 입영 후 ‘청년원정군(혹은 청년군)’으로 편성되어 1945년 1월 1일 중경 편련총감부의 지도하에 국민정부군의 서열에 따라 201師에서 207師까지, 3월 16일과 4월 1일 東南分監部の 협조하에 209師와 208師로 편제되었다.⁶⁹⁾ 이상 9개 사단은 다시 청년원정군 제6군, 제9군 및

67)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471쪽.

68) 國防部總政治部 編, 『國軍政工史稿』上冊, 933쪽.

69) 청년군 201사단은 사천 璧山, 202사단은 사천 綦江, 203사단은 사천 瀘縣, 204사

제32군에 예속되었다. 각 사는 미군 기계화경장비 사단의 편제에 준하여 편제되었다. 곧 각 사단마다 3개 보병여단, 2개 포병대대, 공병·치중병 각 1개 대대, 수색중대, 특무중대, 위생대, 군악대, 무선전신대, 야전군의원 각 하나씩이 두어졌다.⁷⁰⁾

이상의 편제에 따라 각 사단에는 소총 6,561정, 권총 246정, 기관단총 1,243정, 경기관총 353정, 중기관총 72정, 60밀리 박격포 162문, 82밀리 박격포 36문, 37직사포(대전차포) 24문, 75산포 24문, 대소 자동차 288량, 말과 노새 1,940필이 배치되었다.⁷¹⁾ 다만 207사단만이 완전한 미국식 장비로 무장한 외에 기타 각 사단은 운수문제로 인해 중국제 장비를 배급하여 혼용용으로 사용하였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세인 ‘1호 작전’으로 인한 물적 손실이 극심한 상황에서 청년원정군의 장비 마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종군운동 발동 당시부터 장제스는 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참모총장 허잉친에게 “청년원정군의 피복, 전투식량, 배낭 등 필요한 장비를 12월말 이전까지 완비하여 각 주둔지에 전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지령에서 장제스는 “교육용구와 서적도 일률적으로 준비하라”고 명하였다.⁷²⁾ 청년원정군이 전투와 더불어 교육을 계속할 여건을 마련하라는 의미였다.

단은 사천 萬縣, 205사단은 귀주 修文, 206사단은 섬서 南鄭, 207사단은 운남 昆明, 208사단은 강서 黎川, 209사단은 강서 鉛山에 주둔하였다. 이들의 주둔지는 대부분 前線이라기보다는 후방에 가까웠다. 이상 청년군의 주둔지 선택에서는 급양의 충족, 교통의 편리, 교육환경의 양호, 집중훈련의 편리함과 더불어 대일 군사작전을 위한 병력배치의 필요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었다. 劉鳳翰, 「青年遠征軍與戡亂作戰」, 『蔣中正先生與現代中國學術討論集』 第二冊,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86, 532쪽.

70) 國防部總政治部 編, 『國軍政工史稿』 上冊, 933쪽.

71) 國防部史政局 編, 『青年遠征軍第204師簡史』, 臺北: 國防部史政局, 1970, 33쪽.

72) 「蔣中正致何應欽手諭(1944.10.19.)」, 『蔣中正總統文物』, 典藏號: 002-020300-00007-110.

1942년 6월 2일 워싱턴에서 중화민국 외교부장 쑹즈원(宋子文)과 미국무장관 헐(Cordell Hull) 사이에 「中美抵抗侵略互助協定」이 체결되었다.⁷³⁾ 협정의 요지는 연합군의 반공작전에 호응하여 일본군을 격파하기 위해 미국은 장비 공급과 훈련을 담당하고 중국은 병력을 공급하여 임무를 분담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30개 사단 무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공급문제를 미국당국과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36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⁷⁴⁾

1943년 12월 31일 미국은 조차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에 2,0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1.756억 달러는 전쟁물자, 2,540만 달러는 운송비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印緬戰區 미군총사령이 용처를 정할 수 있는 1.917억 달러 상당의 물자를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수송기 등 각종 공군 비행기와 중국 육·해·공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무기와 장비 및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공급할 신무기와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대일항전의 반공 실력을 증강시키는 결정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다만 당시 중국군 사병의 일반적인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아 이들 장비와 무기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질이 비교적 높은 지식청년의 활용이 필요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신식무기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양을 가진 다수의 열혈청년이 필요하였다. 이런 필요가 중군운동 발동의 배경이 되었다.

좋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간부가 있어야 한다.

73) 「行政院長蔣中正呈軍事委員會關於中美抵抗侵略互助協定案」(1942.5.31.), 『蔣中正總統文物：國民政府-中美抵抗侵略互助協定』, 典藏號：001-064300-00016-002.

74) 「蔣中正電宋子文指示三十個師武器裝備方案」(1942.4.2.),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對美外交：軍事援助』, 典藏號：002-020300-00032-085.

청년원정군의 간부 훈련을 위해 군사위원회는 특별히 편련총감부를 설치하여 책임지도록 하였다. 간부 선발은 절반 가량은 각 부대에서, 4할 가량은 군사기관에서 나머지는 중군 청년 중 상당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간부는 약 8천 명에 달하였다. 이 중 1할 가량은 정치간부, 나머지는 군사간부였다. 청년원정군 간부에 대한 훈련은 1944년 12월 1일부로 개시되었다.⁷⁵⁾ 미군의 교육과 훈련방식을 채용한 간부훈련에서는 각 병종별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동시에 간부들을 사병들의 모범이 되는 상급자이자 선생님, 집안 어른과 같은 존재로 훈련시켜 청년원정군을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청년군의 각급 간부는 본시 기존 각 부대에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자 하였다.⁷⁶⁾ 이 과정에서는 청년군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 배치되는 간부는 원 계급보다 한 단계 낮춰 임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곧 기존 보통부대의 군단장은 청년군의 사단장, 기존부대의 사단장은 청년군의 연대장에 임용하는 식이었다. 이 외에도 일부 간부는 육군대학 18기생 가운데서 선임하기도 하였다.

청년군에 배속된 모든 간부는 1개월의 집중훈련을 거친 뒤 비로소 각 부대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는 기존 동남간부훈련단(당시 重慶 大坪으로 이전)을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단으로 바꾸어 청년군 간부에 대한 훈련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단장은 장제스가 겸임하였다.

편련총감부는 ‘발동지식청년중군회의’ 제2차대회에서 통과된 「전국지식청년지원중군편련계획강요안」 및 전시 육군 교육에 관

75) 『革命文獻』第62, 63合輯, 256쪽.

76) 「青年遠征軍幹部之使命」,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0 演講, 550-554쪽.

한 규정에 의거하고 미군의 교육방법을 참조하여 청년원정군 사병 훈련을 위한 「青年遠征軍各師教育大綱」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⁷⁷⁾

입영훈련기간 종군청년들은 각자의 의지대로 병과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政工 부문에서는 청년들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분류하였고, 다시 훈련부문에서는 각자의 훈련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병과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종군청년들은 각자의 자질과 훈련성과에 따라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치중병, 통신병, 화학병, 정공 및 군의 등 병과로 분류되었다.

입영한 청년들은 본훈련에 앞서 2주간의 예비훈련을 받도록 했다. 주 6일간의 훈련기간 매일 8시간의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일요일 오전에는 국부(國父)기념주 행사가, 오후에는 체육과 오락활동이 있었다. 훈련의 주지는 군인생활의 흥취를 제고하고 종군의지를 견고히 하며 엄숙한 군기를 함양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이후 각개 기본교련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었다.

각 사단의 교육과 훈련시간은 상이하였다. 청년군의 일반교육은 예비훈련 후의 정식 분과교육으로 2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훈련기간은 전후기 3개월씩 반년이었다. 훈련의 주지는 청년군인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엄격한 부대군기를 수립하며 사격기능을 연마하여 전투병으로 필요한 기능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 훈련의 중점은 편조기간 훈련의 요점을 지속 발전시키는 외에 전투기능과 관련한 기본교련을 특별히 중시하고 병기교련, 사격교련, 전투교련 및 각 병과의 특성에 맞는 전문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었다.⁷⁸⁾ 한 마디로 청년원정군의 훈련은 문무합일, 述德兼修의 혁명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군인으로 단련시킬 뿐만

77) 教育部 主編, 『中華民國建國史』第四篇, 抗戰建國(二), 908쪽.

78) 教育部 主編, 『中華民國建國史』第四篇, 抗戰建國(二), 908-909쪽.

아니라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중군운동을 발동한 장제스는 입영한 청년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쏟았다. 신병들의 입영 시 반드시 직접 부대에 가 “입영과 동시에 제군은 모두 본 위원장의 부하이자 자제가 되었다”는 등의 훈화를 행하였다.⁷⁹⁾ 청년군의 물질생활면에 대해서도 기존 부대와는 다른 특별대우를 하였다. 청년군에 거는 장제스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청년군정치공작간부훈련단이 신설되어 장징궈가 주임을 맡았다. 훈련과정에서 장징궈는 전군의 상하에게 최고영수인 장 위원장에게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중심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힘썼다.⁸⁰⁾ 이 과정에서 장징궈는 “청년군은 청년들의 혁명무장학교”, “청년군은 국민혁명의 활력소”, “청년군은 삼민주의 실현의 선봉대”, “청년의 뜨거운 가슴이 바로 조국의 國防” 등 구호를 공개적으로 제창하며 청년군에 대한 정치사상 주입과 교육에 열정을 다하였다.⁸¹⁾

기본훈련을 마친 청년원정군 9개 사단은 원정군 제6군, 제9군, 제31군에 예속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印緬遠征軍에 배속되어 인도로 보내져 훈련하였다. 훈련을 마친 청년군은 즉각 인면전선에 파견되어 교통운수, 탱크병 등 기술병종에 배치되어 버마 반공작전에서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청년원정군 가운데서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청년 18,770명은 신1군, 신6군, 제5군, 치중자동화 제14·제15단, 헌병교도 제3·제4·제5단, 낙하산병총대, 통역훈련반, 무선전신훈련반 및 미국

79) 「從軍知識青年應有之基本認識」,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1 演講, 1-8쪽.

80) 呂振翼, 「我任青年軍政工督導員的經歷」, 全國政協文史委 編, 『文史資料選輯』第96輯,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84, 91쪽.

81) 江沛·張丹, 「戰時知識青年從軍運動述評」, 79쪽.

에 파견되어 훈련받는 해군과 공군 등 각 단위로 다시 편제되었다.⁸²⁾

1945년 2월 20일, 종군지도위원회 제3차대회 제1차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편련총감 튀취잉은 종군운동의 개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징집공작이 대체로 일단락된 당시까지 총 15만여 명의 청년들이 종군의 대열에 뛰어 들었다.⁸³⁾ 같은 달 군사위원회는 제2기 종군운동 발동을 결정하고 15만 명을 징집하여 6월부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에 대한 훈련을 8월 중으로 완성하고 9월부터 반공작전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다.⁸⁴⁾

4. 맺음말

8년간 이어진 중국의 대일항전은 국가와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린 처절한 박투의 과정이었다. 대일항전은 국력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모든 인력, 물력, 정신력이 전쟁의 행렬에 투입된 총체전이 전개되었다.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일체의 전쟁에 유리한, 전쟁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항일전쟁이 승리로 마감된 뒤인 1945년 9월 24일, 전국지식청년지원종군편련총감부는 “지식청년종군운동 발기 시 10만 명

82) 國防部總政治部 編, 『國軍政工史稿』上冊, 925쪽.

83) 『(重慶)中央日報』, 1945년 2월 22일, 2版.

84) 蘇啓明, 「從北伐到抗戰—統一禦侮過程中的壯烈行動」, 『近代中國青年運動史』, 臺北 嵩山, 1990, 194-196쪽.

의 입영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 지원자는 12만 명을 초과하였다. 금년 4월말까지 전쟁 및 교통운수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입영한 청년은 8만 6천 명에 달했다”⁸⁵⁾고 종군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식청년종군운동의 발동은 장제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개인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장제스가 운동을 발동한 것은 여러 방면의 고려에서였다. 첫째는 군대의 소질을 제고시켜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현대화된 전쟁에서는 현대화된 군대, 현대화된 군인이 필요하다.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반공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더욱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병으로 구성된 부대가 필요하다”⁸⁶⁾는 장제스의 지론이 종군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군운동을 통해 입영한 청년병사들이 직접 일본군과 교전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청년군이 항일전쟁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군운동은 군사적인 면에서 보다는 심리적인 면에서 중국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더욱 컸다.

첫째, 사회의 풍기를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종군운동은 사회대중들로 하여금 군인과 병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여 병역을 천시하던 종래의 관념을 변화시켜 병역이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를 위해 참전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군인의 지위도 제고되고 군인에 대한 사회의 광범한 존중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군인소질 제고 추진의 기폭제가 되었다. 자원 입영한 청년들은 군대에 문화지식과 기술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강

85) 『(重慶)中央日報』, 1945年 9月 25日, 2版.

86) 「十萬知識青年從軍運動之繼起」, 『革命文獻』 第62, 63合輯, 252쪽.

렬한 애국심과 민족의식으로 무장하여 병사들의 사상수준과 문화소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청년들의 종군은 신식무기의 보급과 훈련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현대화된 군대의 건립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셋째, 광대한 민중들로 하여금 항일의 결심을 강화하고 고무하는 작용을 하였다. 종군운동이 시작되자 인민들은 정부의 항전결심이 굳건함을 다시 인식하고 열정적으로 항전대오에 참여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넷째, 중국의 전통적인 중문경무, 남존여비 관념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군사사상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남존여비의 굳건한 울타리를 부수어 남녀평등, 사회진보의 길로邁進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

항전 후기 대대적으로 전개된 지식청년종군운동은 전 중국을 변화시킨 심대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종군운동의 발동 배후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지식청년들은 순수한 애국열정과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충정에서 종군운동에 참가하였다. 국민당 혹은 한 개인을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항일전쟁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1944년 말 대대적으로 진행된 종군운동은 군대의 사기와 민심을 크게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중화민족 민족정신의 발휘이자 광대한 청년들의 애국정신 발현의 구체적 표현”⁸⁷⁾이라는 청년종군운동에 대한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87) 李雲漢, 『中國國民黨史述』第三編, 582쪽.

〈참고문헌〉

- 『國民政府公報』，『(重慶)中央日報』
- 國史館 編，『國民政府軍政組織史料』第四冊，臺北：國史館，1999.
- 教育編纂委員會 編，『第二次中國教育年鑑』，臺北：文海出版社，1986.
- 王子壯，『王子壯日記』第9冊，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2001.
- 葉惠芬 編輯，『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第58冊，臺北：國史館，2011.
-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編，『革命文獻』第62，63合輯，臺北：中央文物供應社，1973.
-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編，『中國國民黨歷屆歷次中全會重要決議案彙編』(一)，臺北：黨史委員會，1978.
-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編，『蔣委員長中正抗戰方策手稿彙輯』(二)，臺北：黨史委員會，1992.
-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史料專輯』，臺北：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1984.
- 秦孝儀 主編，『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四編 戰時建設(四)，臺北：黨史委員會，1988.
- 『蔣中正總統文物：國民政府－中美抵抗侵略互助協定』(臺灣國史館所藏).
-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對美外交：軍事援助』(臺灣國史館所藏).
- 秦孝儀 總編輯，『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19，演講，臺北：中正文教基金會，1984.
- 秦孝儀 總編輯，『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0 演講，臺北：中正文教基金會，1984.
- 秦孝儀 總編輯，『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2 演講，臺北：中正文教基金會，1984.
- 何智霖 編輯，『陳誠先生書信集－與蔣中正先生往來函電』下，臺北：國史館，2007.
- 瞿紹華 主編，『中華民國史事紀要(初稿)』1944年 10-12月分冊，臺北：國史館，1994.

- 國防部總政治部 編印,『國軍政工史稿』上册,臺北:國防部,1960.
- 國防部史政局 編,『青年遠征軍第204師簡史』,臺北:國防部史政局,1970.
- 國防部史政局 編,『青年遠征軍第208師簡史』,臺北:國防部史政局,1970.
- 教育部 主編,主編,『中華民國建國史』第四篇,抗戰建國(二),臺北:國立編譯館,1990.
- 馬起華,『抗戰時期的政治建設』,臺北:近代中國出版社,1986.
- 蘇啓明,『近代中國青年運動史』,臺北:嵩山,1990.
- 梁敬鎔,『史迪威事件』,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8.
- 呂芳上 主編,『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臺北:國史館,2015.
- 呂芳上 總編輯,『陳布雷從政日記(1944)』,臺北:民國歷史文化學社,2019.
- 劉鳳翰,「青年遠征軍與戡亂作戰」,『蔣中正先生與現代中國學術討論集』第二冊,臺北:中央文物供應社,1986.
- 李守孔,『八年對日抗戰真象』,臺北:正中書局,1977.
- 李雲漢,『中國國民黨史述』第三編,臺北:近代中國出版社,1994.
- 蔣經國,『風雨中的寧靜』,臺北:中央文物供應社,1978.
- 周開慶 編,『民國川史紀要』,臺北:四川文獻月刊社,1972.
- 陳誠,『陳誠回憶錄:抗日戰爭』,臺北:東方出版社,2009.
- 陳誠,『陳誠先生日記』,臺北:國史館,2015.
- 何應欽,『日本侵華八年抗戰史』,臺北: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1982.
- 侯坤宏 編,『中華民國軍事史料(一),役政史料』上册,臺北:國史館,1990.
- 姜濤,「再造黨軍:知識青年從軍運動與青年軍」,『近代史研究』,第6期(2020): 73-87.
- 江沛·張丹,「戰時知識青年從軍運動述評」,『抗日戰爭研究』,第1期(2004): 61-95.
- 聞黎明,「國立西南聯合大學的青年遠征軍」,『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5期(2011.5): 185-222.
- 宋青紅·曹風,「抗戰時期知識女青年從軍運動新論」,『重慶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2021): 40-53.
- 劉鳳翰,「青年遠征軍與戡亂作戰」,『蔣中正先生與現代中國學術討論集』第二冊,臺北:中央文物供應社,1986: 533-559.

呂振寰，「我任青年軍政工督導員的經歷」，全國政協文史委 編，『文史資料選輯』第96輯，北京：中國文史出版社，1984；64-70.

陳偉，「抗戰時期蔣介石與知識青年從軍運動」，『軍事歷史研究』，第3期(2015)；56-64.

侯德础，「略論抗戰後期的知識青年從軍運動」，『民國檔案』，第二期(2006)；118-125.



(Abstract)

The intellectual youth war movement in the later period of the anti-Japanese war

Kim, Young-sin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movement, its origin, development process,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youth army, and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youth army movement that took place in China at the end of 1944, at the end of the war against Japan. The intellectual Youth Campaign was actually planned and led by Chiang Kai-shek.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movement's inception and development process, related documents in the Academia Historica of Taiwan were mainly referred to. Regarding organizational structure, training, etc., data produced by actual executive bodie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ferre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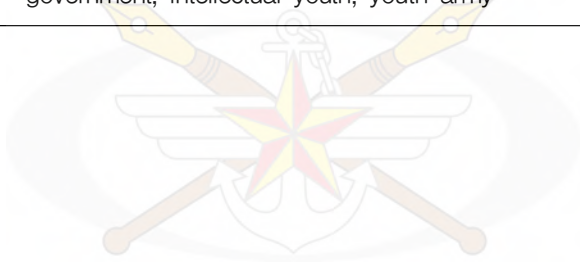
China's war against Japan, which lasted for eight years, was a grueling struggle in which the very existence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hung in the balance. The war against Japan was also a battle of national power. A total war unfolded in which all of China's manpower, material resources, and mental energy were thrown into the execution of war. If there is a war, it is natural to mobilize all resources that are advantageous to successfully carrying out the war and bringing about ultimate victory.

The inception of the intellectual youth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Chiang Kai-shek. In fact, it can be said to be a product of individual will. The reason why Chiang Kai-shek started the movement was due to various considerations. First, it was to improve the caliber of the military to meet the needs of joint operations with other armies. "A modernized war requires a modernized army and modernized soldiers." Chiang Kai-shek's theory that "at a time when we are actively preparing

to achieve final victory, we need units composed of private soldiers with advanced knowledge and skills” led to the war movement.

There were not many cases where young soldiers who enlisted through the war movement directly engaged in combat with the Japanese army. In that respect, it cannot be said that the youth army directly contributed to the victory of the Anti-Japanese War. The military movement had a greater impact on Chinese society in psychological terms than in military terms.

Keywords : volunteer system, conscription system, anti-Japanese war, military service law, Chiang-Kaishek, national government, intellectual youth, youth arm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483-494
<https://doi.org/10.29212/mh.2023..129.4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근대이행기 한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한동훈 지음,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홍문기*

1. 근대이행기 한국 군사사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근대적인 군사학의 지평을 연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연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¹⁾ 이처럼 군사(軍事)는 곧 국사(國事)이며, 한 국가의 군사(軍史)는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사상사 등 역사 전반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그 국가가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소위 개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저 / 김만수 역, 2016, 『전쟁론』, 갈무리, 995~996쪽.

항기 혹은 근대이행기로 불리는 시기의 군사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그동안 근대이행기 한국 군사사는 주로 군제사(軍制史)에 집중한 경향이 컸다. 실제로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빈번한 군제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1907년에는 우리나라 역사 초유의 군대 해산까지 경험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극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던 것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었다. 서세동점의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전례 없는 격심한 변화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시 조선은 수백 년 동안 고수해왔던 성리학 중심의 사상체계를 포기하고 서구의 사상을 도입해야 했으며, 소농(小農)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던 전통적인 농업경제체계 대신 공장제 공업을 기축으로 하는 세계경제 체계에 편입되어야 했으며, 유교적 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인 정치체계의 와해를 딛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혼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차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었으며, 군사 영역 또한 그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 군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근대이행기 역사서술은 그 이전 시기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분절적으로 서술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이 시기 우리나라가 전체 조선시대 중에서 국외적 요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에도, 그 역사의 서술은 타국의 침략과 민족의 저항, 그리고 국망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념과 서사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근대와 근대의 접점, 국가와 국가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함께 고려되어 서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근대이행기 조선이 중화조공질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서구 여러 나라들과 맺어가면서 교류하는 국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참고해야 할 사료의 난이도가 폭증한 때문이기도 하다. 상술한 것처럼 그간 근대이행기 한국 군사사가 다분히 제도사 서술에 그친 것도 이러한 연구환경적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장차 근대이행기 한국군사사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은 당대의 국제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내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군사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한동훈이 저술한 『대원군 집권기 한국 군사사 연구』는, 전체사의 시야로 근대이행기 초기 한국 군사사를 조망한 역저로 평가될만 한다. 저자는 근대이행기 한러관계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에도 각종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다.²⁾ 그리고 이 책은 그동안 외교사 및 국내 정치사 분야에 대한 저자의 연구성과를 군사사에 접목시켜 만든 성과물이다. 이 글을 통해 그 작업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조출한 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부족한 서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대원군집권기에 주목하여 군사사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아편전쟁 및 페리의 내일(來日)로 촉발된 19세기 중반

2) 한동훈, 2010, 『조러육로통상장정(1888)의 체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거문도사건(1885)을 둘러싼 영·러의 대립 양상과 러시아의 대응」, 『군사연구』154; 2022, 「『조러밀약』을 통한 고종의 대러관계 강화 시도와 의미 - 고종의 보호국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126; 2022, 「19세기 말 조선인의 연해주 월경과 한인마을의 형성 - 조·청·러 삼국의 쇄환교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가 조선 정부 및 지식인들에게 끼친 충격, 이를 통해 조선에 대두된 해방론(海防論)의 양상, 그리고 조선이 처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이 해방론이 실체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혔다. 저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근대이행기 중 초기에 해당하는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를 입체적으로 서술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원군집권기 한국 군사사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1장은 1·2차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이 받게 된 충격과 이 전쟁에 대한 정보들을 연행사(燕行使)를 통해 접한 후 발생한 조선 사회의 동요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대원군집권기 새로운 군사정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규명하고자 했다.

제2장은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대두된 해방론과 그 영향 속에서 형성된 조선의 해방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원군집권기 군사정책의 국제적 맥락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 비변사의 개편, 무장 권한 강화, 삼군부의 복설과 군령권 통합 등 대원군이 집권한 이후 주도한 군사개혁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제4장은 대원군이 주도한 군사개혁정책이 첫 번째로 겪은 실전의 시험대인 병인양요를 다루고 있다. 병인박해로 인해 병인양요가 발생한 과정과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병인양요의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나타난 군대의 정비, 군사재정 확충, 무기 및 군사 시설의 정비와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대원군집권기 발생한 두 번째 군사적 위기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인

양요 이후 정비된 조선의 군사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검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 2장이다. 중국과 일본이 겪은 서구의 충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저자는 그러한 성과 위에서 그동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원군의 군사정책,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군사적 경험들을 재구성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실은 매우 다양하고도 풍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낫선 방식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3. 대원군집권기 해방론의 계보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 2차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은 개방을 강제당했고 전통적인 중국의 사회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또한 흑선(黑船)의 충격을 거치면서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사회는 연행사 등의 경로를 통해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기존의 편년체 사료 외에 『연행록』 등의 정부사료와 샤를르 달레의 일기 등 외국인 기록들을 통해 서세동점의 군사적 위기에 대한 조선 사회의 위기의식을 포착했으며, 핵심 권력층, 지식인층, 기층 사회가 어떤 동요를 겪었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정약용, 박규수, 김정희, 윤섭, 윤종의, 강위 등 위정자 및 사상가들의 언사와 저

작을 인용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사회가 모색한 해방론의 내용을 검토했다.

서세동점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존과 독립을 위한 대응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근대이행기 한국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며, 이는 사실 역사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국방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조선의 불충분한 대응을 현대 국방정책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는 서구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 나름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나름의 국방론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한 결론들이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는 물론 또다른 검토의 대상이겠으나, 최소한 서구와의 본격적인 충돌을 경험하기 전에 조선 사회가 이미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는 근대이행기 조선을 선불리 ‘군사적 반면교사’로 단정하게 만들 수 없는 지점이다.

조선의 전통적인 외교론과 국방론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것이 19세기 후반 어떤 식으로 변화해갔는지를 이해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왜 실패했는지까지 분석해야만 근대이행기 한국 국방의 역사에서 어떤 통찰을 얻어내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서구와의 충돌이 동북아시아 3국의 해방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해방론은 아편전쟁의 충격으로 시작되어, 서양의 침략을 차단하기 위한 제이책(制夷策)에서 점차 서양의 문물을 배우자는 양무책(洋武策)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위해 저자는 임칙서의 『사주지(四洲志)』, 위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양정남의 『이분기문(夷氛紀聞)』, 요영의 『강유기행(康輿紀行)』, 풍계분의 『교빈로항의(校邠廬抗議)』 등 대표적인 해방서적들을 분석하여 1850~60년대 중국 해방론의 변화를 분석해냈다.

한편 일본의 해방론은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남하로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에도만 방어에 집중한 수비적 성격을 띠었으나 곧 에조지의 개척, 캄차카 및 오토츠크 점령, 남방 진출 등 공세적 방위태세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향후 일본 ‘팽창론’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하야시 시헤이의 『해국병담(海國兵談)』, 사토 노부히로의 『방해책(防海策)』, 사쿠마 쇼잔의 건백서, 요시다 쇼인 및 기도 다카요시의 정한론(征韓論)을 검토하여 이러한 일본 해방론의 변화를 포착해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페리의 흑선(黑船)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병인양요 및 신미양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서구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방위론이 제기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빨랐으나 그 대응의 전략적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가장 적절하게 변화해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양무운동을 진행하여 1880년대에는 이미 근대적 해군을 창설하고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건함대 등 3개 함대를 창설하여 규모 면에서는 유럽의 강국들에도 뒤지지 않는 해양방위체계를 만들었다. 반면 일본은, 막부나 메이지 융변들을 중심으로 해양방위체계를 만들어나간 역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그 강화의 시작 시기 및 투자액은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패권을 일본이 차지했다는 것은, 각국의 해방론 및 그 근거가 되는 국가관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실하게 포착해내어, 전술적 영역을 넘어 전략적 국방론의 변화상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렇게 동북아시아 각국 안에 해방론이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그 영향 속에서 조선의 해방론도 구체화되어갔다. 18세기 후반에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그쳤으며 안정복의 민보방위론(民保防衛論)과 해방변어지책(海防邊禦之策), 한치윤과 유득공의 무기개발론, 정약용의 선진무기 수입론 등이 그것이다. 반면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나타난 해방론은 서구의 침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척사론적 입장에서 정책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중 박규수, 강위 등은 관념적인 척사론을 넘어 ‘서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사상적 침략과는 별개로 서구의 무기 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강화도 등 도성 주변의 연안 방비를 강화해야 하므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해방론은 1864년 대원군집권 이후, 특히 병인양요·신미양요 등 외국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신속하게 정책화되었다. 저자는 상술한 조선의 해방론자들의 언술과 저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선 해방론의 계보를 재구성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조선 말기 및 근대이행기 군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4. 대원군집권기 군사개혁정책의 변화

또한 병인양요 이전 조선의 국방론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정리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이후 서구 세력의 침략에 대한 조선 조야(朝野)의 우려를 이용하여 세도가문의 정치기구화된 비변사 대신 실질적인 군령권 행사기관인 삼군부(三軍府)를 복설하고 무장세력들을 포섭하여 군령권을 통합시켰

다. 이는 홍선대원군의 정권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미 외에, 문관에 의한 군 통제가 너무나 과도했기에 그 군사적 전문성을 상실했던 조선후기 군사체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병인양요의 경험을 통해 포군(砲軍)을 양성하는 한편 향포(鄉砲)를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강화진무영을 강화시켰고, 그 외 지방 진영을 정비하고 각 지역의 포군을 증설했으며, 서구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등 당시 상황을 반영한 군사개혁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본서는 흔히 조선 말기 근대적 국방개혁의 시초라고 평가되는 1880년대 초 별기군(別技軍)의 설치가 아닌 대원군집권기 군사기구의 재편을 근대이행기 국방개혁의 시초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구적 무기나 훈련방식 등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선 정치권이 갖고 있었던 ‘국방관’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를 구현해내고자 했던 집권세력의 노력에 주목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홍선대원군은 절대 척화론자가 아니었으며 특히 국방에 있어서는 양무운동 신봉자라고 할 수 있을만큼 서구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왕이 아닌 왕의 생부(生父)라는 불확실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러한 국방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을 뿐이다.

대신 홍선대원군은 집권 직후부터 다양한 군사적 개혁을 실시했으며, 이는 본서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원군의 부족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북방의 러시아와 동방의 일본이라는, 새롭게 육박해들어오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선대원군이 종친부 외에 삼군부를 국

가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만들고, 조선이 제승방략 체제 이래 고수해왔던 중앙 중심의(즉, 반란 진압 중심의) 국방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군의 역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며, 당시 조선의 부족한 군사재정을 벌충하기 위해 포군(砲軍) 등 다양한 민간 병종을 발굴·동원했던 것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성과가 바로, 비록 전반적으로 전술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략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던 신미양요였다.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수비군 사령관이 도주할 정도로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던 조선은 그에 경각심을 품고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갔다. 그 결과 신미양요 당시, 명백한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유의미한 군사적 대응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국론 통일과 이후의 군사력 강화의 정치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원군과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달랐던 고종이 별기군을 창설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대원군의 이러한 군사적 성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충실하게 짚어나가면서, 유의미한 국방력의 강화는 뛰어난 무기나 전술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국가 여론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이뤄지는 종합적 사업임을 제시해준다.

물론 저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전반 조선은 서양의 근대적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조선 내부에도 근대적 무기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전술의 변화만으로 서양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병인양요 이후 실시된 다양한 군사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5년 뒤 벌어진 신미양요 때 침입한 미국 군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근대 국방개혁이 실시되기 이전에 전통적인 국방론이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를 이해해야만, 왜 조선 사회가 근대 국방개혁에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의 작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5. 결론과 제언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의 정치 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군이 정치의 영역을 존중·보호하면서 국방력 강화라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軍事)의 한계를 넘는 군사사(軍事史)’로서 본서의 가치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대이행기 한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본서를 읽으면서 느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 세도가문들에 비해서 무관을 중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강화도조약 교섭을 주도한 신현, 대원군과 고종 모두에게 중용되었으며 대표적인 개화파인 윤치호의 아버지인 윤웅렬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군대 지휘관을 넘어서 조선의 국방, 외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저자는 박규수, 김정희, 강위 등 개혁적 문관들을 중심으로 대원군집권기 조선의 해방론을 검토했는데, 실제 군인이자 동시에 정치가였던 무관 출신 관료들의 주장과 정책은 어떠했을까? 이를 규명한다면 대원군집권기를 넘어 고종친정기까지 이어지는 근대이행기 해방론 및 군사개혁정책의 역사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대원군 정권은 1873년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1882년 임오군란 당시까지 군사 분야에 대한 대원군 세력의 영향력은 여전히 잔존했다. 그런데 이 책의 서술은 1871년 병인양요에서 종결되고 있다. 그 결과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실시된 군사개혁정책이 실제로 신미양요 때 어떤 기능을 했는지, 신미양요의 피해와 경험들은 이후 조선의 해안방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었던 1875년 운요호 사건 때 조선의 전략적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대원군집권기 및 그 직후의 군사사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되는 내용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보강이 적절히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다극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작금의 세계 정세가 여러모로 근대이행기 조선-대한제국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언설은, 이제 식상할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의 군사정책이 변화되어간 실상을 공시적·통시적으로 깊이 있게 천착한 저작이 이제야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이라 하겠다. 저자의 치열한 연구가 학계와 사회, 그리고 군에 적잖은 도전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495-513
<https://doi.org/10.29212/mh.2022..122.4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탐방기] 파병 10주년 한빛부대를 가다

이신재*

이 글은 2013년부터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에 파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빛부대 탐방기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남수단에 대한 소개와 한빛부대의 파병 활동, 그리고 현지의 주요 상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1. 신생 독립국 남수단

남수단(Republic of South Sudan)은 2011년 7월 9일 수단에서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자 유엔의 193번째 회원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중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가 한반도의 약 2.8배에 달하는 큰 국가이다. 60여 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된 인구는 2022년 기준 1,150만 명이며,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남수단의 역사는 식민지와 독립, 그리고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1899년부터 시작된 수단에 대한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분할 통치가 1955년 끝이 나고, 1956년 1월 수단공화국이 독립하였다. 그러나 인종,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수단과 남수단 지역은 이후 50년간 두 차례의 내전을 겪으며 혼돈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그 결과 2005년 수단과 남수단 간 포괄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6년간의 자치 과정을 거쳐 2011년 남수단은 독립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통령 키르(Kiir)와 제1부통령 마차르



남수단 지도와 한국군 주둔지

(Machar) 세력 간 내전이 발발하면서 정국은 극도로 불안해져 갔다. 2015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언제쯤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남수단 여행은 제한되어 있다.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수단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하여 ‘여행금지’의 전 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과 남수단은 2011년 수교했지만, 상주대사관은 개설되지 않고, 인접한 우간다에서 점입하고 있다. 현지의 한국 교민은 1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0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신생 독립국임에도 남수단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나라는 아닌 듯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남수단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考) 이태석 신부가 선교 활동을 하던 나라였다는 점과 현재 한빛부대가 파병된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의 한빛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한빛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남수단 재건지원단(ROK HMEC)이라는 정식 명칭처럼 이 나라의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¹⁾

그래서였을까? 이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듯하면서도 잘 몰랐던 나라인 남수단과 한빛부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은 기대와 작은 불안의 공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 한빛부대로 가는 길

필자가 소속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병 역사를 기록하고, 파병 장병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파병사를 비롯해 전쟁사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장 환경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과거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 때부터 전쟁사 편찬을 위해 그곳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장의 실상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에도 전사편찬위원회 연구원들이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전장 상황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뒤, 오늘날 베트남전쟁사 연구의 기본서로 평가받는 『파월한국군전사』(총 11권)를 편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군은 1990년대 이후부터 유엔군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해외파병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이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을

1) HMEC(Horizontal Military Engineering Company)는 중건설 공병부대를 의미하며, 유엔 기준으로 부대 병력 300명 이하일 경우 중대를 의미하는 'company'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해나가고 있다.

이번 남수단 한빛부대 방문 또한 이러한 연구소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파병부대원들의 출국과 현지 교대, 임무 수행 및 귀국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파병부대 교대 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에는 합참과 육군본부, 국방대 등 관계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방문단은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개선, 발전사항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²⁾



현지 방문단 한빛부대 도착 사진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부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남수단 수도 주바(Juba)에 도착하였다. 비행과 경유시간을 포함해 20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주바에서 약 200km

떨어진 종글레이(Jonglei)주(州) 보르(Bor)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부대까지는 르완다 공군이 운용하는 유엔 헬기를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주바에서 보르까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지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이들에 대해 경호부대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구비되어야 가능하다.

한편, 파병 장병들에게는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준비 못지않게 아프리카의 낯선 풍토에 적응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현지 방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유효한 접종 증명서 없이는 입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

2) 이 지면을 빌어 도움을 주신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 황열(Yellow Fever)을 비롯한 4~5개 종류의 예방접종과 말라리아 예방약도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제한되는 국가인 만큼 유엔의 초청장과 남수단 정부의 비자(Visa)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3. UNMISS와 한빛부대

남수단 수도 주바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캄보디아 헌병이었다. 그들은 공항에서 입출국하는 인원들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 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의 수송통제반(MOVCON) 소속이었다.

주바공항은 남수단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지만, 짧은 활주로와 과거 시골 버스터미널을 연상시키는 초라한 건물이 시설의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최근 현대식으로 지어진 관제탑에는 중국의 원조가 있었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국제공항이지만, 민간인보다는 유엔군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MOVCON의 역할은 매우 컸다. 우리가 남수단을 떠날 때도 UNMISS가 우리의 출국을 도왔다. 이번 현지 방문단에게 제공된 출입증 또한 UNMISS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UNMISS는 2011년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 1996호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10여 차례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임무 연장과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7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UNMISS의 임무는 ‘민간인 보호, 인권문제 감시 및 조사, 평화협정 이행, 인도적 지원 여건 조성, 지역보호군 운용’ 등이다. 이를 위해 13개국이 군 병력을 파병하고 있고, 한국은 공병부대인 한빛부대를 파병하였다. 군대를 파병한 국가를 보면 인도, 중국, 태국, 네팔, 몽골, 가나,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르완다, 베트남 등이다.

유엔에서는 각 임무단에 사무총장의 특별대사(SRSG :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를 임명하는데, 현재 UNMISS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니콜라스 헤이섬(Nicholas Haysom)이 부임해 있다. 특별대사 예하에는 군사령부(FC, 현재 사령관 인도군 중장), 임무지원국(DMS), 참모부(COS), 부특별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사령부 예하에는 남수단의 동·서·남·북부지역 4개 사령부가 있다.

한빛부대는 동부지역사령부(이하 동부사)에 편성되어 있으며, 공병부대인 만큼 UNMISS 임무지원국의 공병부로부터 과업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부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의 군대로 편성되어 있고, 한국군 중령이 참모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1년 7월 유엔에서 UNMISS가 설치된 이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국군의 파병을 정식 요청하였다. 이후 2012년 9월 27일 국회의 파견동의안이 통과되고, 2013년 3월 31일부로 역사적인 한빛부대 제1진의 임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1년 단위로 국회에서 파견연장안이 통과되어 왔다.

한빛부대는 유엔의 임무 수행을 위해 파병된 부대이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유엔임무단과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수단에서도 UNMISS와 한빛부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UNMISS에는

한빛부대 소속이 아닌 한국군 장교들이 참모장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빛부대 소속의 연락 및 협조장교도 주바에 있는 UNMISS의 톰핑기지(Tomping Base)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

한빛부대는 2013년 3월 제1진부터 10년 동안 5,000명에 가까운 장병이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크게 주보급로 보수작전 및 사회기반시설 지원과 민군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주보급로 보수작전과 사회기반시설 지원

한빛부대는 공병(工兵)부대이다. 그런 만큼 각종 시설공사를 통해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대표적인 지원 활동 중 하나가 도로공사이다.

남수단은 오랜 내전과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기후로 인해 도로가 파괴되거나 유실되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것은 국제기구의 지원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빛부대는 대형 도자 등 장비와 차량, 그리고 병력을 투입하여 도로를 보수하고, 식량과 물자, 나아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공사를 수행 중인데 이것이 주보급로(MSR : Main Supply Route) 보수작전이다. 한빛부대는 2022년 11월 주보급로 보수작전의 누적 거리 2000km를 돌파할 정도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빛부대가 수행하는 주보급로 보수작전은 단순한 도로공사 수준은 분명코 아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룩해낸 이 길은 남수단의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부대가 만든 길을 통해 주민들에게 식량이 보급되고, 종족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생명의 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한빛부대가 이룩한 도로공사가 남수단 사람들 속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대목이다.

한빛부대의 공사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르지역을 통과하는 백나일강 제방 공사와 보르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백나일강 제방 공사는 이미 파병 직후인 2014년 완료했는데, 이것은 백나일강의 상습적 범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공사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로 인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보르공항 시설공사는 한빛부대 주둔지 인근에 있는 보르공항의 활주로 확장과 우기철 보수공사 등을 통해 유엔의 활동을 보장하고, WFP 등 다른 국제기구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보르공항 확장공사 모습
(국방일보 '23.4.14)

나. 민군작전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 보르(Bor)는 약 30만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도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내전 당시 보르가 정부군과 반군의 격전지가 되



낙후된 보르 시가지 모습

면서 도시기반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활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

이런 상황에서 한빛부대가 펼치고 있는 민군작전은 현지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한빛부대의 대표적인 민군작전으로는 한

빛농장, 한빛직업학교, 태권도와 한국어 교실, 대민 의료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2014년 7월 개장한 한빛농장은 부대 인근에 조성한 경작지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현지의 시장에 판매하여 생산자인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기존의 한빛농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부대 인근의 존가랑대학교 과학기술대학에 8개 논과 저수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한국 벼 시험재배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식량부족 문제를



한국 벼 시험재배지의 모내기 행사
(국방일보 '23.10.11)

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세네갈에 있는 ‘아프리카 벼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개량 품종과 세네갈 품종 등 2개 품종의 범씨 분량을 승인받기도 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첫 모내기 행사는 필자

3) 남수단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4달러(2021년 IMF 기준) 정도이다.

가 귀국한 이후인 10월 9일 실시되어 직접 참관하지는 못했다.

필자가 만난 존가랑대학교 관계자는 한국의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화상회의(Zoom)를 통해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 농촌진흥청 또한 한국 농업기술의 남수단 진출이 곧 아프리카 진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빛직업학교는 2016년 4월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일반적인 직업학교와 동일하게 현지 주민들에게 제과, 제빵, 건축, 용접, 목공, 전기 등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제과, 제빵기술을 교육하고 만든 빵은 ‘한빛마트’를 통해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부대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와 한국어 교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한빛부대는 유엔기지 내 외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아프리카에서 K-한류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한빛부대의 대민 의료지원은 2018년 1월 이미 2만 명의 진료실적을 달성한 바 있고, 수의 진료, 각종 의료물품 지원 등은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보르지역에 자유의 광장(Freedom Square) 조성, 각 학교에 물자 공여 등 다양한 민군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다. 기타

한빛부대 주둔지 인근에는 한국정부의 공적원조(ODA)로 진행 중인 정수장 건설현장도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한 약 70억 원 규모의 ODA 자금을 활용해 현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과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건설이 진행 중인 현재 한빛부대는 현지 한국대사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공사 진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한빛부대는 2021년 유엔의 스마트캠프 시범부대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2021년 유엔 PKO장관 회의를 계기로 제안했던 사업으로 향후 유엔의 전 파병부대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수장 건설현장

5. 국제기구들의 집합소 남수단

남수단과 한빛부대를 방문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은 수시로 눈에 띄는 국제기구들의 이름이었다. 길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이나 오가는 차량에 부착된 마크들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국제기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생국으로 독립하고 유엔의 193번째 회원국이 된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국제기구와 국가별 원조기구들이 남수단에 집결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르는 지역적 중요성으로 인해 각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Field Office)가 자리 잡고 있다. 유엔의 남수단 임무지원단(UNMISS) 이외에 눈에 띄는 국제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물자를 보관하는 시설도 함께 지니고 있었고, 헬기와 수송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규모나 시설이



보르지역 유엔 기구 입간판 모습
(UNHCR, WFP, FAO 등)

눈에 띄었다. WFP와 함께 국제농업기구(FAO)도 남수단 지역의 농업분야 협력과 기술지원을 위해 활동 중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보르 지역 학교의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은

지역 내 난민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엔의 지뢰 관련 전문조직인 UNMAS(UN Mine Action Service)의 차량도 수도 주바에서 활동 중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EU)의 원조기구 명칭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특별히 필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였다. 이 기구는 미국의 대외 원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롯가에 USAID를 홍보하는 입간판이 여러 개 눈에 띄었다. 필자가 이 기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것이 1950~60년대에는 한국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이다. 현재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건물이 1968년까지 USAID가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랬던 것이 현재는 남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역사책에서 보던 국제기구들을 남수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동시에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도 함께 되돌아보는 기회였다.

6. 난민들의 고단한 삶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⁴⁾ UNHCR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수는 1억 1,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남수단에서 난민 보호시설을 마주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도 주바에도 여러 곳에 난민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이 있는데, 필자가 목격한 난민보호소는 과거 지도에 공동묘지로 표시되어 있던 곳이었다.

남수단은 오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60여 개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난민보다는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失鄉民)에 가깝다는 평가이다. 반면, 수단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내전으로 인해 남수단으로 유입된 외국 난민들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남수단 난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대략 수백만 명의 난민이 외국으로 떠났고, 또 수백만 명의 난민이 남수단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지역에도 난민보호소가 운영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중이다. 보호소에서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설치된 간이 천막 속에서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물에 잠긴 난민보호소 모습

한빛부대는 공병부대로서 난민 보호시설의 시설공사를 지원하였다. 이곳에는 과거 1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약 2,000명 규모의 실향민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 현지의 토

양(면화토) 특성으로 인해 난민보호소는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경우 한빛부대가 양수기 등으로 배수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필자가 지켜본 난민보호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때론 이방인의 출현에 경계의 눈길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론, 비록 난민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른 아침 주둔지 울타리 너머 수로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 아침 일찍부터 딸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학교로 향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이를 본 한 일행이 ‘남수단의 희망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7. 남수단에서의 6·25전쟁 참전국

한빛부대가 속한 동부지역사령부에는 인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네팔 등의 국가가 함께 주둔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남수단 보르 지역에 함께 주둔하고 있는 인도와 에티오피아 등과 6·25전쟁을 매개로 매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의료진을 파견한 국가였다. 인도군 제60야전병원은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1954년 2월 철수할 때까지 2,300여 건의 외래수술과 20,000여 명의 민간인 진료를 통해 유엔군과 한국을 도왔다.⁵⁾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육군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다. 최정예 황실근위대를 주축으로 한 강뉴(KAGNEW)부대는 강원도 화천, 철원 일대에서 253전 253승이라는 불패 신화를 창조했다. 1953년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보화고아원을 설립해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들을 보살피기도 하였다. 캄보디아는 38개 물자지원국 중의 하나로 1951년 27,429달러를 지원하였다.

한빛부대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파병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들 국가의 참전기념관을 견학하는 등 준비과정을 가진다. 모두가 유엔의 이름으로 남수단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5) 군사편찬연구소·국방일보, 『한눈에 보는 유엔 참전국』 (2023).

6·25전쟁을 매개로 한 우호 활동은 특별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다.

8. 국군의 해외파병과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이후 국군의 해외파병이 재개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유엔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다국적군 평화 활동을 위해 국군의 해외파병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동안 국군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앙골라, 서부사하라, 시에라리온을 비롯해 중동의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동티모르, 필리핀, 아이티 등 30개국에 6만여 명을 파병하였다. 올해 2023년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국군의 첫 파병이었던 소말리아 파병이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현재 국군은 4개국에 파병 중이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고, 남수단의 한빛부대는 10년 동안 남수단에서 활동 중이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는 해군 청해부대가 파병되어 있고, 국방교류협력 차원에서 2011년부터 UAE에 아크부대를 파병하였다. 이외에도 개인 단위의 파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2024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국군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군의 활발한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의 발자취를 역사로 남기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 왔다. 파병부대 역사의 기록은 국군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해외파병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는 베트남전쟁사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해외 파병부대의 부대사와 파병 장병들의 증언을 채록해 증언집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50여 권의 베트남파병사 및 증언록 이외에 1990년대 이후 파병한 부대에 대해서도 10여 권의 파병사와 20권의 증언집이 발간되었다. 이 작업은 국군의 해외파병이 계속되는 동안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번 한빛부대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수집한 자료들 또한 향후 한빛부대 파병사를 편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9. 글을 마치며

남수단은 2025년 2월까지 과도정부 체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애초보다 2년이 연장된 상황이다. 현재 남수단은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있지만, 장애물은 곳곳에 놓여 있다.

한빛부대가 처음 파병될 때보다 남수단 정국은 많이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군과 반군 간에 정치적 갈등과 이권 다툼, 부족 간의 국지적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가축 및 생필품 약탈 등의 생계형 범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당도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유엔의 남수단 임무지원단(UNMISS)도 이러한 현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유엔임무단과 한빛부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계속될 것이다.

2023년 파병 10주년을 맞은 한빛부대에는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 안규백 의원의 방문이 있었다. 또 5월 26일에는 국내에서 육군본부 주관으로 10주년 기념행사도 개최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한빛부대 파병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9월 14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2진 공병대장을 역임한 노희관 예비역 대령을 초청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필자가 한빛부대를 방문할 당시 부대에서는 10주년 기념 영상을 상영해 주었다. 한빛부대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6분여 길이의 영상에는 1진부터 16진까지 부대가 걸어온 길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⁶⁾ 특히, 기념 영상 끝부분에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에서는 한빛부대원들의 강한 자부심과 임무 수행에 대한 굳은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소망한 빛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왔고,
우리가 흘린 땀과 열정은 이곳에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0년의 역사 동안 16번째 한빛이 지나간 이곳에
앞으로도, 100년의 평화와 수많은 희망이 쏟아지기를...
선배 전우들에 의해 10년의 역사가 쓰였고,
앞으로 10년의 역사는 우리 손에서부터 쓰여집니다.
16진은 10년의 역사의 마침표이면서도
새로운 10년의 첫 장입니다.
우리의 첫걸음이 앞으로 10년의 새로운 지표가 되기에
한빛이라는 자부심으로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끝으로,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의 박요한 부대장을 비롯

6) 현재 이 영상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한 부대원 모두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수단에 희망을! 대한민국에 영광을! 한빛부대 파이팅!



연구소 동정

1. 주요 활동 및 대외 교류

- 제3회 조사연구 발전세미나
 - 일자/장소 : 2023. 9. 14.(목)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발표자·토론자 등 30여 명



〈제3회 조사연구 발전세미나 기념촬영〉

시 간	내 용
(14:00 - 14:20)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환영사 ·기념사진 촬영
(14:20 - 15:20)	① 한국군의 민군작전 교리 발전 과정 · 발표: 유건광 (현 육군 교육사 교리연구위원) ② 6·25전쟁 기간 중 미군의 대민 지원 사례 : 2달려의 우정과 가이사 그리고 가병 · 발표: 권성진(가평연구원장) · 토론: 노성호(한림대학교 연구원)
(15:50 - 16:50)	③ 한국군의 민군작전 사례 : 1960년대 국지도발대비작전 중심 · 발표: 김유석(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 토론: 박동찬(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④ 한국군의 해외 민군작전 사례 : 남수단 2진 파병경험담 · 발표: 노희권(전 한빛부대 제2진 공병대장) · 토론: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16:50 - 17:10)	종합토론 - 한국군의 민군작전 발전 방안 · 참가자 전원

〈제3회 조사연구 발전세미나 내용〉

○ 중국 군사과학원 대표단 내방

- 일자/장소 : 2023. 9. 22.(금)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및 부·실장,
군사과학원 부정치위원 외 6명 및 주한중국무관



〈중국 군사과학원 대표단 내방 기념촬영〉

○ 2023년 군사사 연구지원사업 종합발표회

- 일자/장소 : 2023. 10. 16.(월) / 연구소 회의실



〈2023년 군사사 연구지원사업 발표회장〉

○ 2023년 하반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체육행사

－ 일자/장소 : 2023. 11. 1.(수) / 남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동〉

○ 2023년 군사전문가 초빙강연

－ 일자/장소 : 2023. 11. 3.(금) / 연구소 회의실

－ 강연자 :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육군준장)



〈군사전문가 초빙강연 모습〉

- 2023년 2차 군사사연구포럼 : 시민강좌
 - 일자/장소 : 2023. 11. 15.(수) / 전쟁기념관 문화아카데미홀
 - 강연자 : 박환(고려학술문화재단/수원대 사학과 명예교수)
 - 주제 :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



〈군사사연구포럼 시민강좌 강연회장〉

○ 『한미동맹 70년사』 출판기념회

- 일자/장소 : 2023. 11. 29.(화) / 육군회관 태극홀
- 주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참석 : 국방부 차관, 국방정신전력원장, 한미동맹 70주년TF장, 전쟁기념사업회장,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 내외빈 120명



〈『한미동맹 70년사』 출판기념회장〉

2.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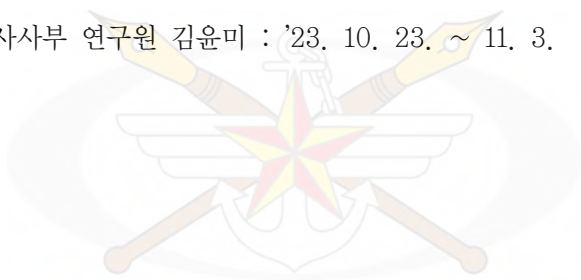
○ 임 용

- 지휘부 9급 김동선 : '23. 11. 1.부
- 기획운영실 9급 김웅태 : '23. 11. 1.부

3. 교 육

○ 신규 임용자 과정

- 군사사부 연구원 김윤미 : '23. 10. 23. ~ 11. 3.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한눈에 보는 유엔참전국 • 전쟁사부 • 10절 • 2023. 9. 26.	2023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에 배포하기 위해 발간한 책자이다. 2020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일보가 협업하여 국방일보에 연재한 “한눈에 보는 해외 참전국”의 자료를 최신화하여 보완하였다. 전투부대 파병국 16개국(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를 비롯하여 의료지원국 6개국과 물자지원국 38개국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유엔참전국의 파병 및 참전 규모를 포함하여 참전일, 주요전투, 지원 현황 등 중요 정보를 인포그래픽과 사진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구 분	내 용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 연구 • 군사사부 • 신국판 • 2023. 9. 30.	『대원군집권기 한국군사사 연구』는 조선이 서양과 처음 충돌하였던 대원군집권기 대외인식, 사상, 군제, 무기, 전쟁 등의 전개·발전 과정과 각각의 대응방식을 군사사 관점으로 종합분석한 연구서이다. 본서는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를 시작으로 조선의 대서양 정보수집 활동, 해방론의 대두 등 조선의 서양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대응방법을 검토했다. 또한 대원군집권기 추진되었던 비변사 폐지, 삼군부 복설 등 군제개편 과정과 프랑스·미국과의 전쟁이었던 병인·신미양요의 전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을 개별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궁극적으로 군사적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6·25전쟁 시 상륙작전 6·25전쟁 시 상륙작전 • 전쟁사부 • 신국판 • 2023. 10. 31.	이 책은 6·25전쟁 시 국군과 유엔군이 실시한 상륙작전에 대한 연구서이다. 『6·25전쟁 시 상륙작전』은 총 8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는 연구배경, 선행연구, 연구자료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포항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원산·이원상륙작전, 제2차 인천상륙작전의 순으로 작성되었다. 제8장은 결론이다. 이 책은 6·25전쟁 기간 중 실시된 상륙작전의 배경, 목적, 계획수립과정, 상륙작전수행을 위한 부대편성과정, 전개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미 맥아더기념관(MA), 미 국립문서관리기록청(NARA), 주요인물들의 증언록, 전투상보, War Diary, 한·미 각군의 공간사 등 다양한 자(사)료가 활용되었다. 이 책은 6·25전쟁사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가치있는 연구서이다.

구 분	내 용
 한국고대 군사사 연구의 쟁점 • 군사사부 • 신국판 • 2023. 11. 30.	『한국고대 군사사 연구의 쟁점』은 고대 중 군사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삼국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그 중 전쟁, 제도, 군사관계, 군사고고학과 관련한 일부 주제를 선별하여 어떠한 흐름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핀 이른바 연구 경향서이다. 본서는 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12개의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관련 연구성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고대 군사사의 이해를 돕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보다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초자료의 일환으로 발간하였다.

구 분	내 용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5 • 조사연구부 • 신국판 • 2023. 11. 30.	이 책은 베트남전 파병 장병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청취하여 기록으로 편찬한 증언록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편찬한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3』의 후속 작업으로 지난해부터 베트남전 파병 장병의 증언을 추가로 청취·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제4권에 이어 30명의 증언을 담은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5』를 발간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5권은 증언 대상의 계급과 직책을 다양화하여 이전의 증언록이 담지 못한 파병 장병들의 다양한 기억을 담았다. 군종장교, 간호장교, 유도교관 등의 특수병과 관련 증언들은 이후 베트남전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내 용
 한미동맹 70년사 • 국방사부 • 16절지 • 2023. 12. 1.	이 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던 1953년에서 현재까지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한미동맹 70년사』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제2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제3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제4부 한미동맹과 국방협력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주제별 서술방식은 한미동맹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전달하고,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향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군사연구총서』 1집 : 삼국시대 한강유역 관방체계와 전쟁 • 군사사부 • 신국판 • 2023. 12. 31	『군사연구총서』 1집은 한국 역대 군사사 분야 미정립 주제발굴의 일환으로 수행된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용역 결과물을 발간한 저서이다. 본 저서는 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방체계와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주요 군사교통로와 성곽의 축성 등 관방체계를 분석한 연구주제 6편이 수록되었다.

구 분	내 용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 군사사부 • 신국판 • 2023. 12. 28	『2023 시민강좌 :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매년 개최했던 군사사 연구포럼을 2023년 처음으로 시민강좌라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강연내용을 담은 강연집이다. 강연 후 진행한 강연자와 시민들 간의 미니콘서트도 내용도 수록하였다. 강연은 독립운동이라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대중적 주제를 선정하여 군사사라는 시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라는 대주제 아래 3명의 최고권위자들을 초청하여 시민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김희곤(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배경한(신라대학교 명예교수)은 장개석과 항일운동, 박환(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들이라는 주제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문헌정보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
tps://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3(신범규 선임연구원)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 규정

국.군편소규정 1-13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일부개정 2023. 4. 1.



제1조(목적) 536

제2조(적용대상) 536

제3조(적용범위) 536

제4조(용어의 정의) 536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537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538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539

제7조의 2(연구의 진실성) 540

제7조의 3(인용방법 원칙) 540

제7조의 4(중복게재)	541
제7조의 5(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541
제7조의 6(공동연구)	542
제7조의 7(저자결정 기준)	542
제7조의 8(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542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543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543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543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544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544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545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545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546
제16조(판정)	546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546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547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547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548
부 칙	54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
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
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
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
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
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사업담당 연구원은 연구편찬 및 연구과제 용역사업 추진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타 규정 및 연구소장 지시에 따라 논문 유사도 검사(Copy killer, 혹은 KCI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

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 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조정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 0 세상

유능한 안보
전문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신범규(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3/12(第129號)

2023년 12월 8일 印刷

2023년 12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3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3110852)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9. 2023. 12.

Jang, Su-nam	Baekje's Gwanbang System and Dogi-dong Fortress
Kim, Kang-hun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and Banwol fortress from the late 5th to mid-7th centuries
Shin, Kwang-cheol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Horogoru' in Goguryeo's Southern Front
Jung, Dong-Min	Overall review of Chiljungseong Castle and its strategic positio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Jung, Duk-gi	Reorganization of Sinju and the Defense System of 'Sea Gate' Danghangseong Fortress in Silla from the 6th to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ies
Kwon, Chang-Hyuck	Organization of Hansanju Province(漢山州)'s defense system and the status of Juzhangseong Fortress(晝長城) during the Silla-Tang War
Park Se-Na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Location Changes of the Jeolla Usuyeong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Moon, Hyung-joon	The Re-examination of the Battle of Sachŏn-Focusing on the Cause of Defeat and its impact
Kim, Sung-min	Medical Practice of Righteous Army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Participation in the War of the Righteous Army during the Daehan Empire
Kim, Young-sin	The intellectual youth war movement in the later period of the anti-Japanese war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9 771598 317009
ISSN 1598-317X